

學生生活研究

第38輯

2017년 2월

제주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목 차

■ 2016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생생활 실태조사 연구

I. 서론	1
II. 조사대상 및 방법	2
III.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6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6
2. 대학생활 관련	21
3. 여가생활 관련	39
4. 교수 관련	48
5. 학업 관련	60
6. 진로 관련	69
7. 교육환경 관련	81
8. 학생상담센터 관련	96
9. 정서 관련	125
10. 중독 관련	143
11. 성의식 관련	158
12. 사회관심 관련	167
13. 신입생 관련	177
IV. 요약 및 제언	190
참고문헌	197

표 목 차

<표 1-1> 단과대학별 조사 현황	2
<표 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표 3-1> 보호자(부모) 형태	6
<표 3-2> 입학 후 거주지 형태	9
<표 3-3> 등록금 부담자	12
<표 3-4> 생활비 부담자	15
<표 3-5>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18
<표 3-6> 대학생활 만족도	21
<표 3-7> 학과생활 만족도	24
<표 3-8> 학과 소속감 및 관계에 대한 만족도	27
<표 3-9> 전공 만족도	30
<표 3-10> 교양수업 만족도	33
<표 3-11>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36
<표 3-12> 여가활동	39
<표 3-13> 아르바이트 유무	42
<표 3-14> 아르바이트 이유	45
<표 3-15> 학과 교수 관계 만족도	48
<표 3-16> 책임지도교수제 상담 만족도	51
<표 3-17> 책임지도교수 외의 학과 교수의 상담 필요성	54
<표 3-18> 학과 교수 상담 요구 분야	57
<표 3-19> 학업 부담감	60
<표 3-20> 학업 부담 이유	63
<표 3-21> 학업(수강) 과정 어려움	66
<표 3-22> 졸업 후 진로	69
<표 3-23> 취업 시 원하는 직종	72
<표 3-24> 원하는 진로와 현재전공 관련성	75
<표 3-25> 직업 선택 기준	78

<표 3-26> 강의시설(강의실, 기자재 등) 만족도	81
<표 3-27> 도서관 및 학습시설 만족도	84
<표 3-28> 학생복지 시설 만족도	87
<표 3-29> 장학금 제도 만족도	90
<표 3-30> 취업지원 제도 만족도	93
<표 3-31> 학생상담센터 위치 인지여부	96
<표 3-32> 학생상담센터 이용 의사	99
<표 3-33> 학생상담센터 이용의 어려움 이유	102
<표 3-34> 학생상담센터 이용 경로	105
<표 3-35> 최근 주된 고민	108
<표 3-36> 개인적인 고민 의논 상대	112
<표 3-37> 개인상담	115
<표 3-38> 집단상담	118
<표 3-39> 심리검사	120
<표 3-40> 원하는 특강/교육 주제	122
<표 3-41> 외로움 경험 정도	125
<표 3-42> 스트레스 경험 정도	128
<표 3-43> 불안 경험 정도	131
<표 3-44> 분노 경험 정도	134
<표 3-45> 우울, 무기력 경험 정도	137
<표 3-46> 자살 충동 경험 정도	140
<표 3-47> 음주 심각성 자각 정도	143
<표 3-48> 흡연 심각성 자각 정도	146
<표 3-49> 스마트폰 사용 심각성 자각 정도	149
<표 3-50> 인터넷 게임 심각성 자각 정도	152
<표 3-51> 도박관련 행위 심각성 자각 정도	155
<표 3-52> 이성교제 여부	158
<표 3-53> 성교육 분야	161
<표 3-54> 성폭력 대처 방법 인지	164

<표 3-55>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167
<표 3-56>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	170
<표 3-57>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	173
<표 3-58> 신입생 출신지역	177
<표 3-59> 입학전형 유형	180
<표 3-60> 제주대학교에 대한 이미지 만족도	182
<표 3-61> 제주대학교 선택 이유	184
<표 3-62> 전과 및 편입에 대한 의향	186
<표 3-63> 복수전공에 대한 의향	188

그림 목 차

<그림 1> 보호자(부모) 형태	8
<그림 2> 입학 후 거주지 형태	11
<그림 3> 등록금 부담자	14
<그림 4> 생활비 부담자	17
<그림 5>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20
<그림 6> 대학생활 만족도	23
<그림 7> 학과생활 만족도	26
<그림 8> 학과 소속감 및 관계에 대한 만족도	29
<그림 9> 전공 만족도	32
<그림 10> 교양수업 만족도	35
<그림 11>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38
<그림 12> 여가활동	41
<그림 13> 아르바이트 유무	44
<그림 14> 아르바이트 이유	47
<그림 15> 학과 교수 관계 만족도	50
<그림 16> 책임지도교수제 상담 만족도	53
<그림 17> 책임지도교수 외의 학과 교수의 상담 필요성	56
<그림 18> 학과 교수 상담 요구 분야	59
<그림 19> 학업 부담감	62
<그림 20> 학업 부담 이유	65
<그림 21> 학업(수강) 과정 어려움	68
<그림 22> 졸업 후 진로	71
<그림 23> 취업 시 원하는 직종	74
<그림 24> 원하는 진로와 현재 전공 관련성	77
<그림 25> 직업 선택 기준	80
<그림 26> 강의시설(강의실, 기자재 등) 만족도	83
<그림 27> 도서관 및 학습시설 만족도	86

<그림 28> 학생복지 시설 만족도	89
<그림 29> 장학금 제도 만족도	92
<그림 30> 취업지원 제도 만족도	95
<그림 31> 학생상담센터 위치 인지여부	98
<그림 32> 학생상담센터 이용의사	101
<그림 33> 학생상담센터 이용의 어려움 이유	104
<그림 34> 학생상담센터 이용 경로	107
<그림 35> 최근 주된 고민	111
<그림 36> 개인적인 고민 의논 상대	114
<그림 37> 개인상담	117
<그림 38> 집단상담	119
<그림 39> 심리검사	121
<그림 40> 원하는 특강/교육 주제	124
<그림 41> 외로움 경험 정도	127
<그림 42> 스트레스 경험 정도	130
<그림 43> 불안 경험 정도	133
<그림 44> 분노 경험 정도	136
<그림 45> 우울, 무기력 경험 정도	139
<그림 46> 자살 충동 경험 정도	142
<그림 47> 음주 심각성 자각 정도	145
<그림 48> 흡연 심각성 자각 정도	148
<그림 49> 스마트폰 사용 심각성 자각 정도	151
<그림 50> 인터넷 게임 심각성 자각 정도	154
<그림 51> 도박관련 행위 심각성 자각 정도	157
<그림 52> 이성교제 여부	160
<그림 53> 성교육 분야	163
<그림 54> 성폭력 대처 방법 인지	166
<그림 55>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169
<그림 56>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	172

<그림 57>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	176
<그림 58> 신입생 출신지역	179
<그림 59> 입학전형 유형	181
<그림 60> 제주대학교에 대한 이미지 만족도	183
<그림 61> 제주대학교 선택 이유	185
<그림 62> 전과 및 편입에 대한 의향	187
<그림 63> 복수전공에 대한 의향	189

초록

본 조사는 2016학년도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설문 응답을 기반으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활 적응, 여가생활, 학과교수 관계, 학업, 진로, 교육환경, 학생상담센터, 정서, 중독, 성의식, 사회적 관심 등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현재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1,314명, 여학생 1,349명으로 총 2,663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몇 가지의 의미 있는 논의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응답을 한 반면에 10% 정도의 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주된 고민으로 취업과 진로, 학업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은 주로 친구들과의 만남, 이성교제, 학습과 독서 등을 통해서 여가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약 50%이상이 자신의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은 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95%정도가 보통이상의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책임지도교수제에 대해서도 96%정도가 보통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교수와의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들은 학업에 대해 63%이상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시간부족과 과중한 과제물,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해서 안정된 직장과 임금을 취업의 중요 선택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반면에 사회복지나 농축수산업과 관련한 직업군에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생들은 대학 전반의 교육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 10%정도의 학생들은 시설, 학생복지, 장학금 제도, 취업지원 제도 등에서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학생들은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인식이 59%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상담과 심리검사에 대한 욕구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학생들은 정서적 어려움을 유형별로 3%~44%이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스트레스는 외로움, 불안, 분노, 자살충동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학생들은 음주, 흡연, 스마트폰 사용, 게임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하여 심각도가 10~37%의 높은 수준으로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학생들은 이성애에 대한 성심리나 피임 및 임신관련 관심이 61%이상으로 나타났고 62%이상의 학생들은 성폭력 예방이나 대처 방법에 대한 지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한 번째, 학생들은 43%이상에서 사회적관심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는 63%이상에서 부정적 혹은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두 번째, 신입생들의 제주대학에 대한 이미지나 만족이 53%이상으로 나타났고, 대학선택의

이유는 합격가능성과 가까운 지역이 69%이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조사연구는 우리 대학 재학생들의 1/3수준으로 조사되어 전체를 반영하는 데는 큰 문제를 지니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본 조사연구가 실태조사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개선노력이 필요로 하겠다.

I. 서론

최근 들어 전국의 각 대학들은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감소로 대학의 모집정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인 경우는 그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각 대학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감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문학적 소양의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사람에 대한 품격과 인성을 중요시 하는 풍토가 각 대학마다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각 대학들은 경쟁력강화를 위해 인문학적 교육 이념과 함께 그에 걸 맞는 색깔을 갖춘 교육과정들을 자신들만의 특성화 전략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들은 점차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대학선택과 적응, 대학생활전반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하며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대학 전반의 개선과 운영 전략을 세우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학생들이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실태조사는 교육수요자에 대한 대학의 기본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은 이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가중되는 청년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점점 더 치열해지고 빠르게 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잘 적응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

제주대학교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다차원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크게 신입생과 재학생 그리고 학년별, 성별, 단과대학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요구들을 파악한다. 특히 대학생활 적응, 여가생활, 학과교수와의 관계, 학업, 진로, 교육환경, 학생상담센터, 정서, 중독, 성의식, 사회적 관심 등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 대학의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의 모습을 반추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변화해야 되는 문제들도 보다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대학교 재학생과 신입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의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둘째,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대학운영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셋째,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새로운 미래의 지역사회의 중심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정서적 상태를 특정하기 위한 설문을 구성하고 학생들 스스로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수행하였다.

1. 단과대학별 조사 현황

<표 1-1> 단과대학별 조사 현황

구분	정원 (명)	배부 (명)	수거 (명)	회수율 (%)	유효응답 (명)	응답율 (%)
인문대	1,128	338	234	69.2	233	20.7
사회과학대	714	214	210	98.1	208	29.1
경상대	1,731	519	474	91.3	449	25.9
사범대	544	177	177	100.0	174	32.0
생명자원과학대	537	161	158	98.1	158	29.4
해양과학대	841	264	264	100.0	264	31.4
자연과학대	1,168	357	357	100.0	348	29.8
공과대	1,337	410	410	100.0	410	30.7
교육대	468	143	143	100.0	141	30.1
수의과대	281	84	82	97.6	82	29.2
간호대	264	79	78	98.7	77	29.2
예술디자인대	436	131	123	93.9	119	27.3
합계	9,449	2,877	2,704	94.0	2,663	28.2

※회수율 = 수거/배부 × 100, 응답율 = 유효응답/정원 × 100

단과대학별 조사 현황에서 설문지 배포에 따른 회수율은 94.0%이며, 응답율은 대학 정원대비 28.2%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663)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314	(49.3)	
	여	1,349	(50.7)	
	남학생	군필	830	(63.2)
		미필	385	(29.3)
		면제	99	(7.5)
학년	1학년	582	(21.9)	
	2학년	758	(28.5)	
	3학년	800	(30.0)	
	4학년	479	(18.0)	
	5학년 이상	44	(1.7)	
종교	기독교	254	(9.5)	
	불교	389	(14.6)	
	원불교	16	(.6)	
	천주교	256	(9.6)	
	기타	60	(2.3)	
	무교	1,684	(63.2)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2>와 같으며, 총 2,663명으로 남학생이 1,314명(49.3%), 여학생이 1,349명(50.7%)이다. 남학생의 경우 병역 여부로는 군필자가 63.2%로 군미필자 29.3%보다 많았으며, 군면제는 7.5%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3학년이 30.0%, 2학년이 28.5%, 1학년이 21.9%, 4학년이 18.0%, 5학년 이상이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무교가 63.2%로 가장 많았고 불교 14.6%, 천주교 9.6%, 기독교 9.5%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조사의 내용 및 도구

제주대학교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정서적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기존의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하여 조사 및 연구하였던 것을 조사·연구시기에 맞게 통합하여 실시하였다. 다만 2016학년도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따로 1개 영역을 구분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모두 13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영역별 문항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조사·연구의 영역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 성별, 학년, 소속대학, 종교, 병역여부, 보호자 형태, 거주지 형태,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 2) 대학생활 관련 : 대학생활 만족도, 학과생활 만족도, 학과 내 소속감 및 관계 만족도, 전공 만족도, 교양수업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 3) 여가생활 관련 : 여가활동, 아르바이트 유무, 아르바이트 목적
- 4) 교수 관련 : 학과 교수와의 관계, 책임지도교수제 만족도, 학과 교수와의 상담 필요성, 학과 교수와의 상담에서 도움 받고 싶은 항목
- 5) 학업 관련 : 학업 부담 정도, 학업 부담 이유, 학업(수강) 과정에서의 어려움
- 6) 진로 관련 : 졸업 후 진로, 장래 희망 직종, 진로와 전공 관련성, 직업 선택의 기준
- 7) 교육환경 관련 : 강의시설, 도서관 및 학습시설, 학생복지 시설, 장학금 제도, 취업지원 제도
- 8) 학생상담센터 관련 : 학생상담센터 위치인지, 학생상담센터 이용의사, 학생상담센터 이용 어려움, 학생상담센터 이용경로, 최근 주된 고민, 문제(고민) 의논 상대, 학생상담센터 요구 프로그램
- 9) 정서 관련 : 외로움, 스트레스, 불안, 분노, 우울 및 무기력, 자살 충동
- 10) 중독 관련 : 음주 문제, 흡연 문제, 스마트폰 사용 문제, 인터넷게임 문제, 도박 문제
- 11) 성의식 관련 : 이성교제, 성교육 요구 분야, 성폭력 대처 방법

12) 사회관심 관련 : 사회·정치·경제·문화 관심도, 한국사회 미래전망, 인생의 중요한 가치

13) 신입생 관련 : 출신고교 지역, 입학전형 유형, 제주대학교에 대한 이미지, 본교 선택 이유, 전과 및 편입에 대한 의향, 복수전공에 대한 의향

본 조사는 2016년 11월에 실시하였으며 소속대학, 학년별 등으로 나누어 표집 하였고 자기기입법을 기본으로 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대략 30분 내외였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항에 한하여 교차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복수선택 하도록 한 다중응답 문항은 변수군 정의를 한 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순위별로 선택 하도록 한 다중응답 문항은 1순위 200%, 2순위 100%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Ⅲ.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1) 보호자(부모) 형태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보호자(부모) 형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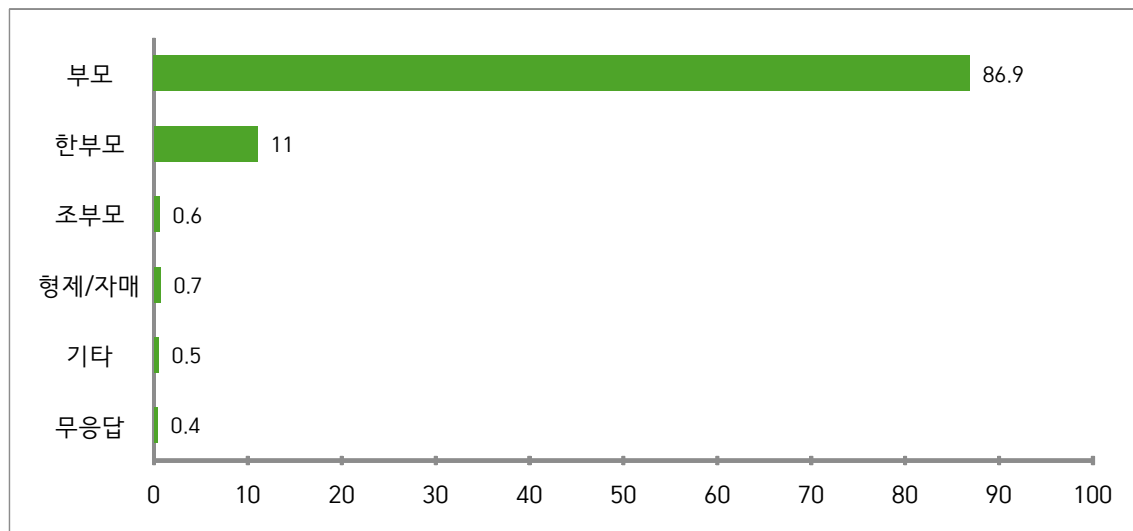
<표 3-1> 보호자(부모) 형태 명(%)

		보호자(부모) 형태					전체	
		부모	한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기타		무응답
성 별	남자	1,131 (86.1)	155 (11.8)	7 (.5)	10 (.8)	8 (.6)	3 (.2)	1,314 (100.0)
	여자	1,184 (87.8)	137 (10.2)	9 (.7)	8 (.6)	4 (.3)	7 (.5)	1,349 (100.0)
학 년	1학년	518 (89.0)	55 (9.5)	1 (.2)	1 (.2)	4 (.7)	3 (.5)	582 (100.0)
	2학년	664 (87.6)	82 (10.8)	4 (.5)	4 (.5)	1 (.1)	3 (.4)	758 (100.0)
	3학년	691 (86.4)	92 (11.5)	5 (.6)	5 (.6)	5 (.6)	2 (.3)	800 (100.0)
	4학년	411 (85.8)	56 (11.7)	4 (.8)	5 (1.0)	2 (.4)	1 (.2)	479 (100.0)
	5학년이상	31 (70.5)	7 (15.9)	2 (4.5)	3 (6.8)	0 (.0)	1 (2.3)	44 (100.0)

소 속 대 학	인문	189 (81.1)	35 (15.0)	3 (1.3)	2 (.9)	2 (.9)	2 (.9)	233 (100.0)
	사회과학	185 (88.9)	20 (9.6)	2 (1.0)	0 (.0)	1 (.5)	0 (.0)	208 (100.0)
	경상	399 (88.9)	46 (10.2)	1 (.2)	1 (.2)	2 (.4)	0 (.0)	449 (100.0)
	사범	157 (90.2)	17 (9.8)	0 (.0)	0 (.0)	0 (.0)	0 (.0)	174 (100.0)
	간호	65 (84.4)	12 (15.6)	0 (.0)	0 (.0)	0 (.0)	0 (.0)	77 (100.0)
	해양과학	218 (82.6)	34 (12.9)	4 (1.5)	2 (.8)	4 (1.5)	2 (.8)	264 (100.0)
	자연과학	312 (89.7)	34 (9.8)	1 (.3)	0 (.0)	0 (.0)	1 (.3)	348 (100.0)
	공과	352 (85.9)	48 (11.7)	3 (.7)	6 (1.5)	1 (.2)	0 (.0)	410 (100.0)
	교육	130 (92.2)	10 (7.1)	1 (.7)	0 (.0)	0 (.0)	0 (.0)	141 (100.0)
	수의과	77 (93.9)	3 (3.7)	0 (.0)	0 (.0)	1 (1.2)	1 (1.2)	82 (100.0)
	생명자원 과학	129 (81.6)	20 (12.7)	1 (.6)	5 (3.2)	0 (.0)	3 (1.9)	158 (100.0)
	예술 디자인	102 (85.7)	13 (10.9)	0 (.0)	2 (1.7)	1 (.8)	1 (.8)	119 (100.0)
	전체	2,315 (86.9)	292 (11.0)	16 (.6)	18 (.7)	12 (.5)	10 (.4)	2,663 (100.0)

<표 3-1><그림 1>과 같이 보호자(부모) 형태는 ‘부모’ 86.9%, ‘한 부모’ 11.0%, ‘형제/자매’ 0.7%, ‘조부모’ 0.6%, ‘기타’와 ‘무응답’이 각각 0.5%, 0.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보호자(부모)’ 형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학년별에 따른 보호자 형태는 고학년일수록 ‘부모’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보호자(부모) 형태에서 ‘부모’인 경우가 ‘수의과대’ 93.9%,

‘교육대’ 92.2%, ‘사범대’ 90.2%, ‘자연과학대’ 89.7%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보호자(부모) 형태

2) 입학 후 거주지 형태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입학 후 거주지 형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입학 후 거주지 형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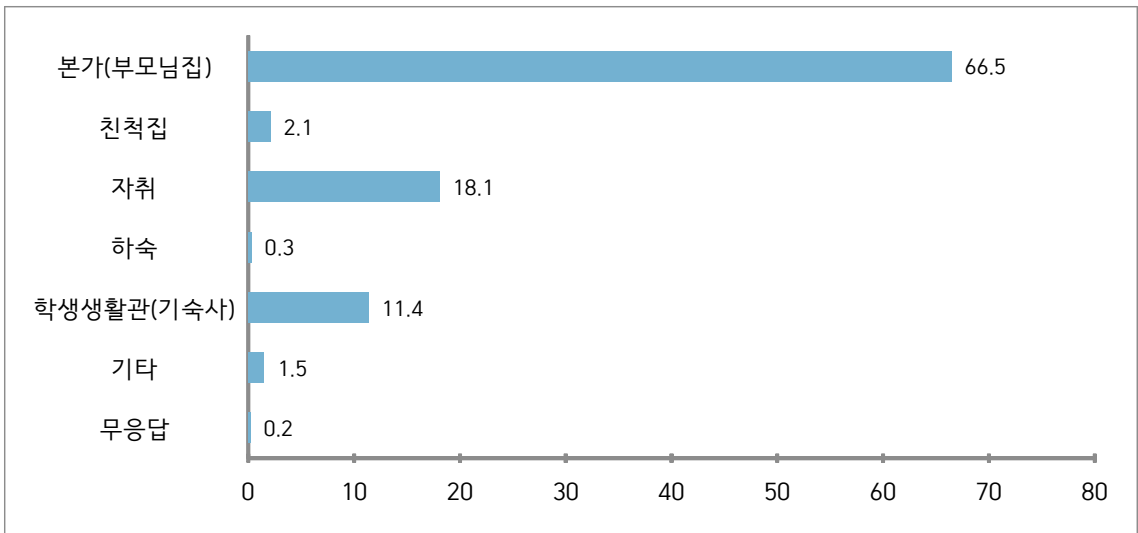
		입학 후 거주지 형태						전체	
		본가 (부모님 집)	친척집	자취	하숙	학생 생활관 (기숙)	기타		무응답
성 별	남자	850 (64.7)	32 (2.4)	211 (16.1)	3 (.2)	196 (14.9)	19 (1.4)	3 (.2)	1314 (100.0)
	여자	921 (68.3)	24 (1.8)	270 (20.0)	4 (.3)	108 (8.0)	20 (1.5)	2 (.1)	1349 (100.0)
학 년	1학년	361 62.0%	14 2.4%	70 12.0%	2 .3%	127 21.8%	8 1.4%	0 .0%	582 100.0%
	2학년	540 (71.2)	11 (1.5)	135 (17.8)	1 (.1)	61 (8.0)	9 (1.2)	1 (.1)	758 (100.0)
	3학년	537 (67.1)	13 (1.6)	158 (19.8)	1 (.1)	79 (9.9)	10 (1.3)	2 (.3)	800 (100.0)
	4학년	313 (65.3)	16 (3.3)	104 (21.7)	1 (.2)	32 (6.7)	12 (2.5)	1 (.2)	479 (100.0)
	5학년이상	20 (45.5)	2 (4.5)	14 (31.8)	2 (4.5)	5 (11.4)	0 (.0)	1 (2.3)	44 (100.0)

소 속 대 학	인문	168 (72.1)	7 (3.0)	35 (15.0)	0 (.0)	18 (7.7)	5 (2.1)	0 (.0)	233 (100.0)
	사회과학	155 (74.5)	3 (1.4)	38 (18.3)	0 (.0)	10 (4.8)	2 (1.0)	0 (.0)	208 (100.0)
	경상	306 (68.2)	4 (.9)	86 (19.2)	1 (.2)	45 (10.0)	7 (1.6)	0 (.0)	449 (100.0)
	사범	132 (75.9)	3 (1.7)	19 (10.9)	0 (.0)	19 (10.9)	1 (.6)	0 (.0)	174 (100.0)
	간호	59 (76.6)	1 (1.3)	9 (11.7)	0 (.0)	7 (9.1)	1 (1.3)	0 (.0)	77 (100.0)
	해양과학	157 (59.5)	12 (4.5)	41 (15.5)	1 (.4)	45 (17.0)	7 (2.7)	1 (.4)	264 (100.0)
	자연과학	241 (69.3)	5 (1.4)	58 (16.7)	0 (.0)	39 (11.2)	5 (1.4)	0 (.0)	348 (100.0)
	공과	299 (72.9)	11 (2.7)	60 (14.6)	3 (.7)	31 (7.6)	4 (1.0)	2 (.5)	410 (100.0)
	교육	58 (41.1)	1 (.7)	51 (36.2)	0 (.0)	29 (20.6)	2 (1.4)	0 (.0)	141 (100.0)
	수의과	6 (7.3)	2 (2.4)	36 (43.9)	0 (.0)	37 (45.1)	1 (1.2)	0 (.0)	82 (100.0)
	생명 자원과학	105 (66.5)	6 (3.8)	28 (17.7)	1 (.6)	15 (9.5)	2 (1.3)	1 (.6)	158 (100.0)
	예술디자인	85 (71.4)	1 (.8)	20 (16.8)	1 (.8)	9 (7.6)	2 (1.7)	1 (.8)	119 (100.0)
	전체	1771 (66.5)	56 (2.1)	481 (18.1)	7 (.3)	304 (11.4)	39 (1.5)	5 (.2)	2663 (100.0)

<표 3-2><그림 2>와 같이 입학 후 거주지 형태는 '본가(부모님집)' 66.5%, '자취' 18.1%, '학생생활관(기숙사)' 11.4%, '친척집' 2.1%, '기타' 1.5%, '하숙' 0.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입학 후 거주지 형태를 비교해보면 '본가(부모님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여학생' 68.3%, '남학생' 64.7%로 나타났으며 '학생생활관(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는 '남학생'이 14.9%로 '여학생' 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취'의 경우는 '여학생'이 20.0%로 '남학생' 16.1%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숙사의 경우 기존 여학생동(2호관)의 수용인원이 338명인 반면 남학생동(3호관)의 수용인원은 742명으로 수용인원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며, 여학생의 부족한 기숙사 시설로 인해 여학생의 자취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학년별에 따른 입학 후 거주지 형태를 살펴보면 1학년부터 5학년 이상까지 대부분 본가에서

66.5%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일수록 자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1학년의 경우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생활관(기숙) 21.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거주지 형태를 살펴보면 ‘간호대’ 76.6%, ‘사범대’ 75.9%, ‘사회과학대’ 74.5%, ‘공과대’ 72.9%, ‘인문대’ 72.1%, ‘예술디자인대’ 71.4%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가(부모님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수의과대’ 43.9%, ‘교육대’ 43.9%로 상대적으로 자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의과대’와 ‘교육대’는 ‘학생생활관(기숙)’ 비율도 각각 45.1%, 2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거주지 형태는 단과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의 출신지역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출신지역을 보면 수의과대와 교육대는 도외 출신자 비율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2> 입학 후 거주지 형태

3)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자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등록금 부담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 등록금 부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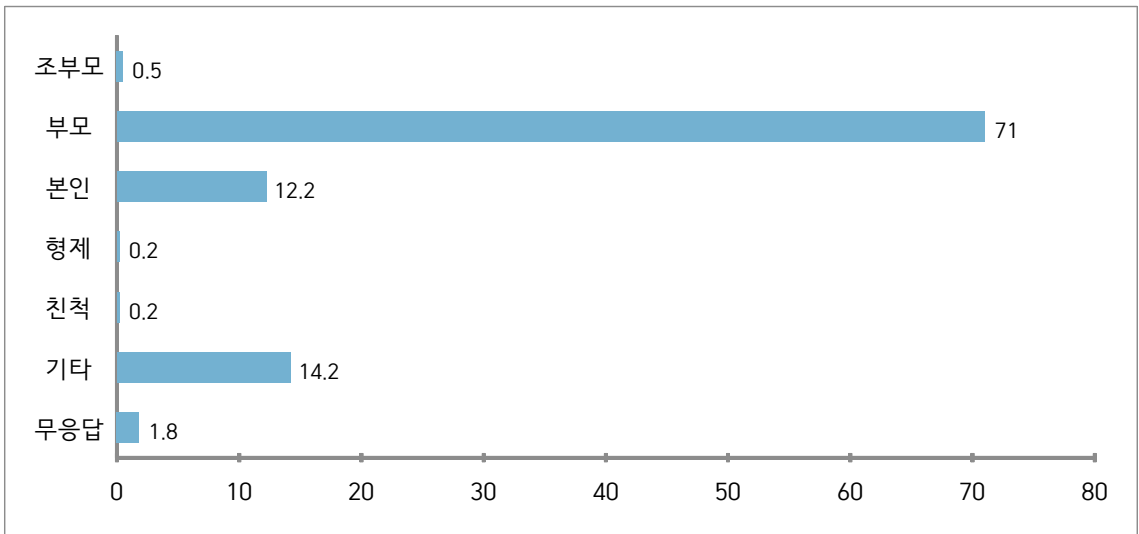
명(%)

		등록금 부담자						전체	
		조부모	부모	본인	형제	친척	기타		무응답
성별	남자	10 (.8)	916 (69.7)	206 (15.7)	3 (.2)	6 (.5)	144 (11.0)	29 (2.2)	1314 (100.0)
	여자	3 (.2)	974 (72.2)	120 (8.9)	1 (.1)	0 (.0)	233 (17.3)	18 (1.3)	1349 (100.0)
학년	1학년	2 (.3)	465 (79.9)	39 (6.7)	1 (.2)	1 (.2)	65 (11.2)	9 (1.5)	582 (100.0)
	2학년	0 (.0)	532 (70.2)	91 (12.0)	0 (.0)	0 (.0)	115 (15.2)	20 (2.6)	758 (100.0)
	3학년	3 (.4)	548 (68.5)	104 (13.0)	2 (.3)	5 (.6)	125 (15.6)	13 (1.6)	800 (100.0)
	4학년	5 (1.0)	316 (66.0)	84 (17.5)	1 (.2)	0 (.0)	68 (14.2)	5 (1.0)	479 (100.0)
	5학년이상	3 (6.8)	29 (65.9)	8 (18.2)	0 (.0)	0 (.0)	4 (9.1)	0 (.0)	44 (100.0)

	인문	1 (.4)	155 (66.5)	35 (15.0)	0 (.0)	1 (.4)	41 (17.6)	0 (.0)	233 (100.0)
	사회과학	4 (1.9)	142 (68.3)	30 (14.4)	0 (.0)	0 (.0)	31 (14.9)	1 (.5)	208 (100.0)
	경상	1 (.2)	340 (75.7)	60 (13.4)	0 (.0)	0 (.0)	47 (10.5)	1 (.2)	449 (100.0)
	사범	0 (.0)	124 (71.3)	19 (10.9)	0 (.0)	0 (.0)	29 (16.7)	2 (1.1)	174 (100.0)
	간호	0 (.0)	48 (62.3)	10 (13.0)	0 (.0)	0 (.0)	19 (24.7)	0 (.0)	77 (100.0)
소 속 대 학	해양과학	1 (.4)	196 (74.2)	33 (12.5)	2 (.8)	2 (.8)	24 (9.1)	6 (2.3)	264 (100.0)
	자연과학	1 (.3)	233 (67.0)	41 (11.8)	0 (.0)	1 (.3)	66 (19.0)	6 (1.7)	348 (100.0)
	공과	4 (1.0)	278 (67.8)	54 (13.2)	1 (.2)	0 (.0)	52 (12.7)	21 (5.1)	410 (100.0)
	교육	0 (.0)	119 (84.4)	4 (2.8)	0 (.0)	0 (.0)	18 (12.8)	0 (.0)	141 (100.0)
	수학과	1 (1.2)	72 (87.8)	5 (6.1)	0 (.0)	0 (.0)	4 (4.9)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0 (.0)	94 (59.5)	24 (15.2)	1 (.6)	2 (1.3)	32 (20.3)	5 (3.2)	158 (100.0)
	예술 디자인	0 (.0)	89 (74.8)	11 (9.2)	0 (.0)	0 (.0)	14 (11.8)	5 (4.2)	119 (100.0)
전체	13 (.5)	1890 (71.0)	326 (12.2)	4 (.2)	6 (.2)	377 (14.2)	47 (1.8)	2663 (100.0)	

<표 3-3><그림 3>과 같이 등록금 부담은 '부모' 71%, '기타' 14.2%, '본인' 12.2%, '조부모' 0.5%, '형제' 0.2%, '친척' 0.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등록금 부담형태는 '본인' 부담 비율이 '남학생'이 15.7%, '여학생' 8.9%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에 따른 등록금 부담형태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모' 부담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본인' 부담 비율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나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적 책임감

도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과대학별 등록금 부담형태를 살펴보면 ‘부모’부담 비율이 ‘수의과대’ 87.8%, ‘교육대’ 8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본인’ 부담 비율에서는 ‘생명자원과학대’ 15.2%, ‘인문대’ 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등록금의 본인부담 비율이 높은 경우 학생들이 학업보다 경제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3> 등록금 부담자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생활비 부담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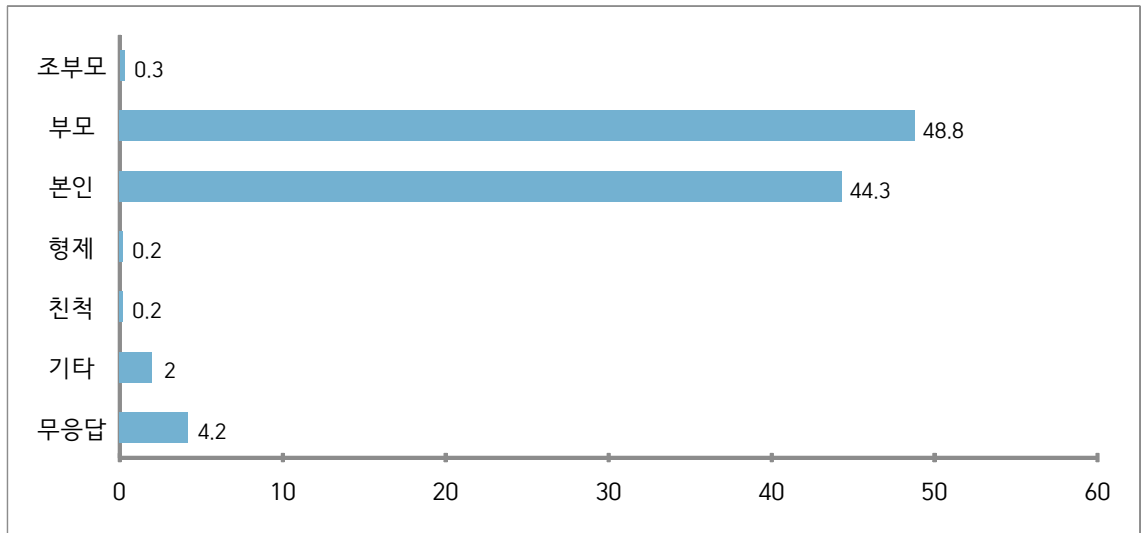
<표 3-4> 생활비 부담자 명(%)

		생활비 부담자						전체	
		조부모	부모	본인	형제	친척	기타		무응답
성별	남자	8 (.6)	592 (45.1)	619 (47.1)	3 (.2)	3 (.2)	34 (2.6)	55 (4.2)	1314 (100.0)
	여자	1 (.1)	708 (52.5)	560 (41.5)	3 (.2)	2 (.1)	18 (1.3)	57 (4.2)	1349 (100.0)
학년	1학년	1 (.2)	361 (62.0)	181 (31.1)	2 (.3)	0 (.0)	10 (1.7)	27 (4.6)	582 (100.0)
	2학년	2 (.3)	330 (43.5)	377 (49.7)	1 (.1)	1 (.1)	12 (1.6)	35 (4.6)	758 (100.0)
	3학년	3 (.4)	368 (46.0)	370 (46.3)	2 (.3)	3 (.4)	20 (2.5)	34 (4.3)	800 (100.0)
	4학년	2 (.4)	217 (45.3)	234 (48.9)	1 (.2)	1 (.2)	9 (1.9)	15 (3.1)	479 (100.0)
	5학년이상	1 (2.3)	24 (54.5)	17 (38.6)	0 (.0)	0 (.0)	1 (2.3)	1 (2.3)	44 (100.0)

소 속 대 학	인문	1 (.4)	103 (44.2)	125 (53.6)	0 (.0)	0 (.0)	4 (1.7)	0 (.0)	233 (100.0)
	사회과학	3 (1.4)	93 (44.7)	107 (51.4)	0 (.0)	1 (.5)	2 (1.0)	2 (1.0)	208 (100.0)
	경상	1 (.2)	219 (48.8)	222 (49.4)	0 (.0)	0 (.0)	7 (1.6)	0 (.0)	449 (100.0)
	사범	1 (.6)	83 (47.7)	83 (47.7)	0 (.0)	0 (.0)	1 (.6)	6 (3.4)	174 (100.0)
	간호	0 (.0)	40 (51.9)	32 (41.6)	0 (.0)	0 (.0)	1 (1.3)	4 (5.2)	77 (100.0)
	해양과학	1 (.4)	122 (46.2)	108 (40.9)	1 (.4)	2 (.8)	7 (2.7)	23 (8.7)	264 (100.0)
	자연과학	0 (.0)	160 (46.0)	173 (49.7)	0 (.0)	0 (.0)	8 (2.3)	7 (2.0)	348 (100.0)
	공과	1 (.2)	190 (46.3)	176 (42.9)	1 (.2)	2 (.5)	15 (3.7)	25 (6.1)	410 (100.0)
	교육	0 (.0)	95 (67.4)	41 (29.1)	0 (.0)	0 (.0)	1 (.7)	4 (2.8)	141 (100.0)
	수익과	1 (1.2)	66 (80.5)	10 (12.2)	0 (.0)	0 (.0)	0 (.0)	5 (6.1)	82 (100.0)
	생명자원 과학	0 (.0)	59 (37.3)	70 (44.3)	4 (2.5)	0 (.0)	4 (2.5)	21 (13.3)	158 (100.0)
	예술 디자인	0 (.0)	70 (58.8)	32 (26.9)	0 (.0)	0 (.0)	2 (1.7)	15 (12.6)	119 (100.0)
	전체	9 (.3)	1300 (48.8)	1179 (44.3)	6 (.2)	5 (.2)	52 (2.0)	112 (4.2)	2663 (100.0)

<표 3-4><그림 4>와 같이 생활비 부담은 ‘부모’ 48.8%, ‘본인’ 44.3%, ‘기타’ 2%, ‘조부모’ 0.3%, ‘형제’ 0.2%, ‘친척’ 0.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생활비 부담형태를 비교해보면 ‘본인’ 부담 비율이 ‘남학생’ 47.1%로 ‘여학생’ 41.5%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응답에서 ‘여학생’ 52.5%, ‘남학생’ 45.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생활비 부담을 위한 경제활동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학년별에 따른 생활비 부담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모'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본인' 부담 비율은 '1학년'에서 상대적 가장 낮게 나타나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적 책임감도 커지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단과대학별 생활비 부담을 살펴보면 '부모' 부담비율에서 '수의과대' 80.5%, '교육대' 67.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본인' 부담 비율에서는 '인문대' 53.6%, '사회과학대' 51.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생활비 부담자

4)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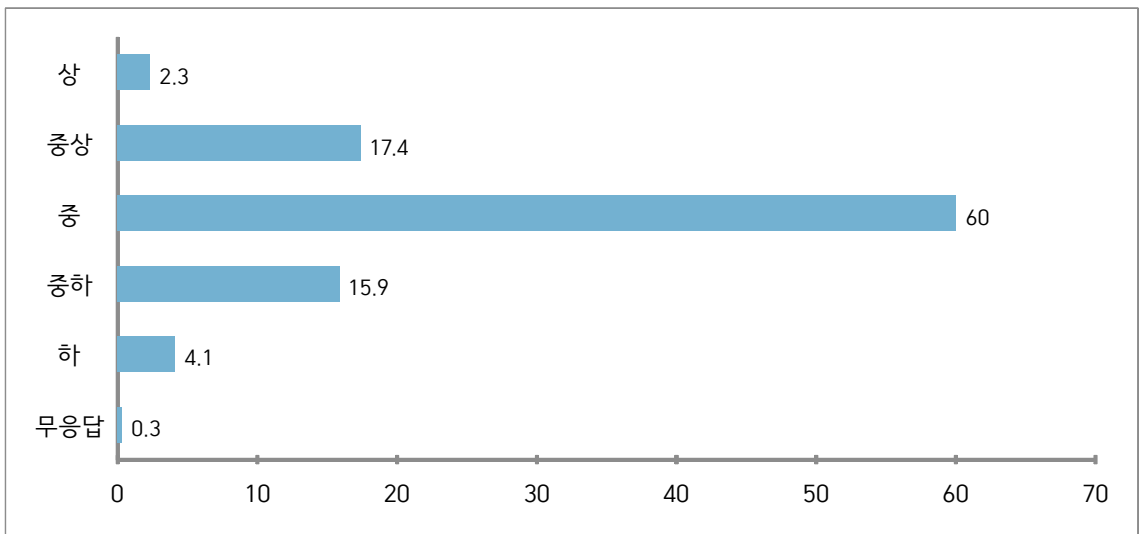
<표 3-5>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명(%)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전체	
		상	중상	중	중하	하		무응답
성별	남자	41 (3.1)	222 (16.9)	757 (57.6)	224 (17.0)	67 (5.1)	3 (.2)	1314 (100.0)
	여자	21 (1.6)	242 (17.9)	841 (62.3)	199 (14.8)	42 (3.1)	4 (.3)	1349 (100.0)
학년	1학년	16 (2.7)	110 (18.9)	355 (61.0)	78 (13.4)	21 (3.6)	2 (.3)	582 (100.0)
	2학년	12 (1.6)	126 (16.6)	452 (59.6)	135 (17.8)	32 (4.2)	1 (.1)	758 (100.0)
	3학년	24 (3.0)	142 (17.8)	474 (59.3)	123 (15.4)	34 (4.3)	3 (.4)	800 (100.0)
	4학년	8 (1.7)	75 (15.7)	294 (61.4)	81 (16.9)	21 (4.4)	0 (.0)	479 (100.0)
	5학년이상	2 (4.5)	11 (25.0)	23 (52.3)	6 (13.6)	1 (2.3)	1 (2.3)	44 (100.0)

소 속 대 학	인문	7 (3.0)	41 (17.6)	128 (54.9)	41 (17.6)	15 (6.4)	1 (.4)	233 (100.0)
	사회과학	4 (1.9)	40 (19.2)	124 (59.6)	29 (13.9)	10 (4.8)	1 (.5)	208 (100.0)
	경상	8 (1.8)	77 (17.1)	301 (67.0)	52 (11.6)	11 (2.4)	0 (.0)	449 (100.0)
	사범	4 (2.3)	37 (21.3)	99 (56.9)	31 (17.8)	3 (1.7)	0 (.0)	174 (100.0)
	간호	1 (1.3)	10 (13.0)	45 (58.4)	17 (22.1)	4 (5.2)	0 (.0)	77 (100.0)
	해양과학	5 (1.9)	29 (11.0)	176 (66.7)	41 (15.5)	11 (4.2)	2 (.8)	264 (100.0)
	자연과학	4 (1.1)	46 (13.2)	224 (64.4)	62 (17.8)	11 (3.2)	1 (.3)	348 (100.0)
	공과	12 (2.9)	68 (16.6)	221 (53.9)	85 (20.7)	24 (5.9)	0 (.0)	410 (100.0)
	교육	4 (2.8)	42 (29.8)	75 (53.2)	17 (12.1)	3 (2.1)	0 (.0)	141 (100.0)
	수의과	5 (6.1)	27 (32.9)	40 (48.8)	8 (9.8)	1 (1.2)	1 (1.2)	82 (100.0)
	생명자원 과학	6 (3.8)	27 (17.1)	95 (60.1)	24 (15.2)	6 (3.8)	0 (.0)	158 (100.0)
	예술 디자인	2 (1.7)	20 (16.8)	70 (58.8)	16 (13.4)	10 (8.4)	1 (.8)	119 (100.0)
	전체	62 (2.3)	464 (17.4)	1598 (60.0)	423 (15.9)	109 (4.1)	7 (.3)	2663 (100.0)

<표 3-5><그림 5>와 같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 60.0%으로 나타났고, ‘중상’ 17.4%, ‘중하’ 15.9%, ‘하’ 4.1%, ‘상’ 2.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수준을 비교해보면 ‘중’에서만 ‘여학생’ 62.3%, ‘남학생’ 57.6%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수준을 비교해 보면 ‘5학년 이상’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과대학별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상’이상 응답에서는 ‘수의과대’ 39%, ‘교육대’ 32.6%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중하’이하 응답에서는 ‘간호대’ 27.3%, ‘공과대’ 26.6%, ‘인문대’ 24.0%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학년 이상’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상’ 이상의 비율이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는 대학의 정규과정을 마치고 소득활동에 대한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또한 단과대학 중 ‘교육대’와 ‘수의과대’의 경우 ‘중상’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은 ‘등록금’과 ‘생활비’의 부담자에서 ‘부모’의 비율이 높은 것과도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2. 대학생활 관련

1) 대학생활 만족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6>과 같다.

<표 3-6> 대학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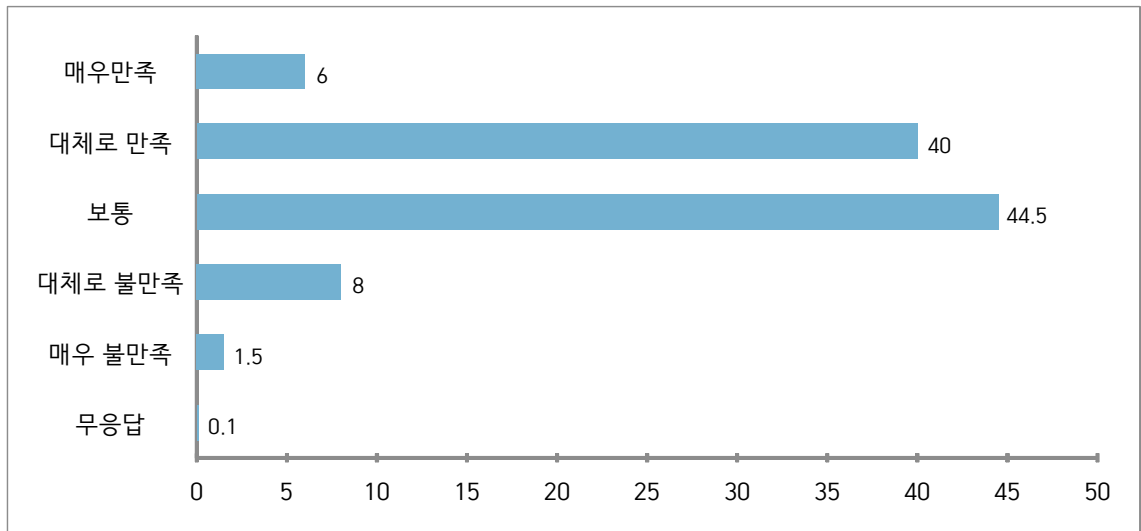
명(%)

		대학생활 만족도						전체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성 별	남자	98 (7.5)	524 (39.9)	585 (44.5)	88 (6.7)	18 (1.4)	1 (.1)	1314 (100.0)
	여자	62 (4.6)	540 (40.0)	599 (44.4)	126 (9.3)	21 (1.6)	1 (.1)	1349 (100.0)
학 년	1학년	47 (8.1)	265 (45.5)	229 (39.3)	34 (5.8)	7 (1.2)	0 (.0)	582 (100.0)
	2학년	43 (5.7)	285 (37.6)	349 (46.0)	70 (9.2)	10 (1.3)	1 (.1)	758 (100.0)
	3학년	40 (5.0)	309 (38.6)	363 (45.4)	73 (9.1)	15 (1.9)	0 (.0)	800 (100.0)
	4학년	28 (5.8)	186 (38.8)	226 (47.2)	32 (6.7)	6 (1.3)	1 (.2)	479 (100.0)
	5학년	2	19	17	5	1	0	44
	이상	(4.5)	(43.2)	(38.6)	(11.4)	(2.3)	(.0)	(100.0)

소 속 대 학	인문	20 (8.6)	83 (35.6)	114 (48.9)	15 (6.4)	1 (.4)	0 (.0)	233 (100.0)
	사회과학	13 (6.3)	72 (34.6)	90 (43.3)	28 (13.5)	5 (2.4)	0 (.0)	208 (100.0)
	경상	30 (6.7)	201 (44.8)	181 (40.3)	31 (6.9)	6 (1.3)	0 (.0)	449 (100.0)
	사범	9 (5.2)	79 (45.4)	73 (42.0)	12 (6.9)	1 (.6)	0 (.0)	174 (100.0)
	간호	1 (1.3)	39 (50.6)	32 (41.6)	5 (6.5)	0 (.0)	0 (.0)	77 (100.0)
	해양과학	20 (7.6)	86 (32.6)	144 (54.5)	10 (3.8)	4 (1.5)	0 (.0)	264 (100.0)
	자연과학	16 (4.6)	137 (39.4)	156 (44.8)	33 (9.5)	6 (1.7)	0 (.0)	348 (100.0)
	공과	24 (5.9)	186 (45.4)	169 (41.2)	25 (6.1)	5 (1.2)	1 (.2)	410 (100.0)
	교육	8 (5.7)	59 (41.8)	58 (41.1)	11 (7.8)	5 (3.5)	0 (.0)	141 (100.0)
	수의과	3 (3.7)	25 (30.5)	38 (46.3)	14 (17.1)	2 (2.4)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15 (9.5)	66 (41.8)	59 (37.3)	14 (8.9)	3 (1.9)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1 (.8)	31 (26.1)	70 (58.8)	16 (13.4)	1 (.8)	0 (.0)	119 (100.0)
	전체	160 (6.0)	1064 (40.0)	1184 (44.5)	214 (8.0)	39 (1.5)	2 (.1)	2663 (100.0)

<표 3-6><그림 6>과 같이 대학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약 46%이고 ‘보통’ 44.5%,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약 9.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2,3,4학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 비율에서 차이가 없었고 ‘1학년’과 ‘5학년’ 이상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가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체

로 불만족'이하 응답한 비율에서는 '5학년 이상' 13.7% '3학년' 11%, '2학년' 10.5%로 나타났고 '4학년'과 '1학년'은 8%, 7%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간의 특성과 과업에 따른 결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로 하겠다. 단과대학별 대학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간호대' 51.9%, '경상대' 51.5% '공과대' 51.3%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 비율은 '수의과대' 19.5%, '사회과학대' 15.9%, '예술디자인대' 14.2%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약 90.5%의 학생들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학생들이 대학생활 전반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0% 미만의 학생들은 '불만족'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그림 6> 대학생활 만족도

2) 학과생활 만족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학과생활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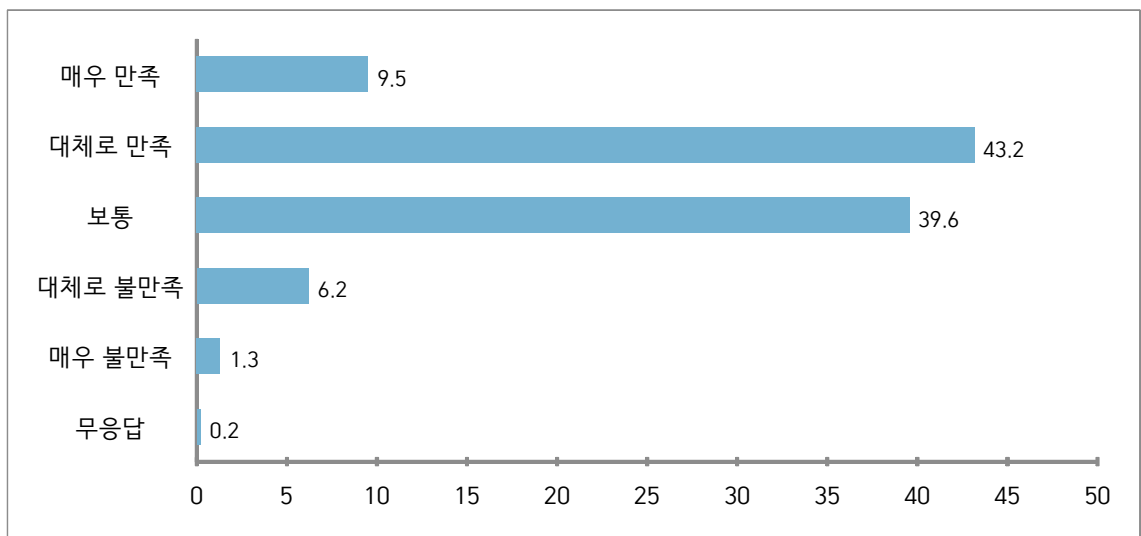
<표 3-7> 학과생활 만족도 명(%)

		학과생활 만족도					무응답	전체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성별	남자	169 (12.9)	566 (43.1)	499 (38.0)	64 (4.9)	14 (1.1)	2 (.2)	1314 (100.0)
	여자	85 (6.3)	585 (43.4)	556 (41.2)	101 (7.5)	20 (1.5)	2 (.1)	1349 (100.0)
학년	1학년	74 (12.7)	277 (47.6)	198 (34.0)	27 (4.6)	6 (1.0)	0 (.0)	582 (100.0)
	2학년	58 (7.7)	320 (42.2)	323 (42.6)	49 (6.5)	8 (1.1)	0 (.0)	758 (100.0)
	3학년	72 (9.0)	335 (41.9)	315 (39.4)	60 (7.5)	15 (1.9)	3 (.4)	800 (100.0)
	4학년	44 (9.2)	203 (42.4)	201 (42.0)	27 (5.6)	3 (.6)	1 (.2)	479 (100.0)
	5학년이상	6 (13.6)	16 (36.4)	18 (40.9)	2 (4.5)	2 (4.5)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30 (12.9)	89 (38.2)	100 (42.9)	11 (4.7)	2 (.9)	1 (.4)	233 (100.0)
	사회과학	17 (8.2)	80 (38.5)	83 (39.9)	23 (11.1)	5 (2.4)	0 (.0)	208 (100.0)
	경상	46 (10.2)	213 (47.4)	163 (36.3)	22 (4.9)	5 (1.1)	0 (.0)	449 (100.0)
	사범	14 (8.0)	93 (53.4)	56 (32.2)	10 (5.7)	1 (.6)	0 (.0)	174 (100.0)
	간호	0 (.0)	45 (58.4)	30 (39.0)	2 (2.6)	0 (.0)	0 (.0)	77 (100.0)
	해양과학	24 (9.1)	100 (37.9)	124 (47.0)	13 (4.9)	3 (1.1)	0 (.0)	264 (100.0)
	자연과학	24 (6.9)	152 (43.7)	146 (42.0)	21 (6.0)	5 (1.4)	0 (.0)	348 (100.0)
	공과	45 (11.0)	194 (47.3)	154 (37.6)	13 (3.2)	3 (.7)	1 (.2)	410 (100.0)
	교육	20 (14.2)	63 (44.7)	46 (32.6)	10 (7.1)	1 (.7)	1 (.7)	141 (100.0)
	수의과	6 (7.3)	29 (35.4)	36 (43.9)	8 (9.8)	3 (3.7)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23 (14.6)	61 (38.6)	63 (39.9)	6 (3.8)	4 (2.5)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5 (4.2)	32 (26.9)	54 (45.4)	26 (21.8)	2 (1.7)	0 (.0)	119 (100.0)
	전체	254 (9.5)	1151 (43.2)	1055 (39.6)	165 (6.2)	34 (1.3)	4 (.2)	2663 (100.0)

<표 3-7><그림 7>과 같이 학과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약 52.7%이고 ‘보통’ 39.6%,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약 7.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과생활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에 대한 응답에서만 ‘남학생’ 12.9%, ‘여학생’ 6.3%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학과생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2,3,4,5학년’ 이상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1학년’ 60.3%로 학과생활 만족도가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 비율은 ‘3학년’ 9.4%, ‘5학년 이상’ 9.0%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학과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사범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상대·간호대·공과대·교육대’가 57.6%~58.9%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 비율에서는 ‘예술디자인대’ 23.5%, ‘수의과대’ 13.5%, ‘사회과학대’ 13.5%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학년 간 특성과 과업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학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대책이 요구된다.



<그림 7> 학과생활 만족도

3) 학과 소속감 및 관계에 대한 만족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학과 소속감 및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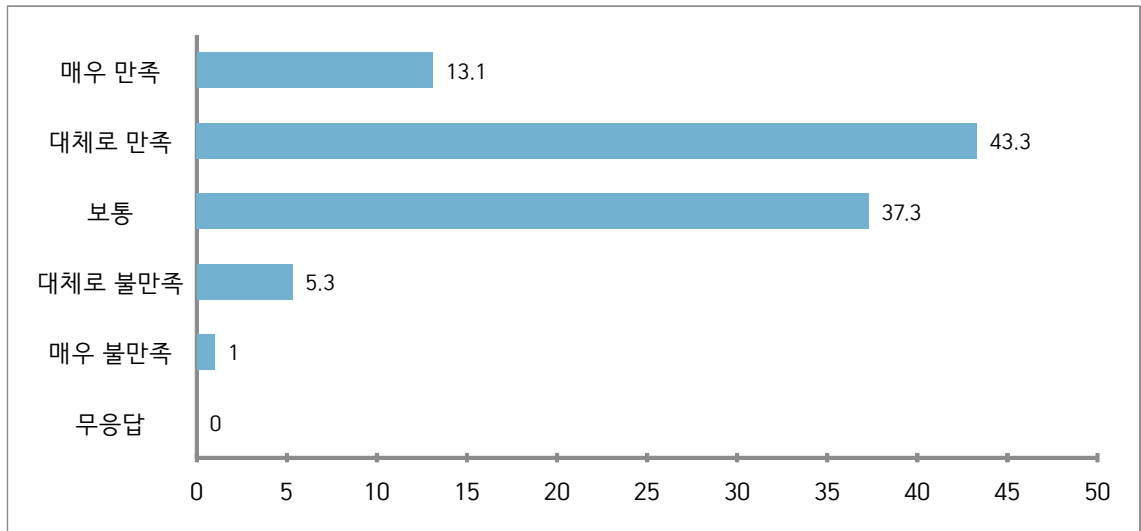
<표 3-8> 학과 소속감 및 관계에 대한 만족도 명(%)

		학과 소속감 및 관계에 대한 만족도					전체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성 별	남자	221 (16.8)	578 (44.0)	452 (34.4)	53 (4.0)	9 (.7)	1 (.1)	1314 (100.0)
	여자	129 (9.6)	574 (42.6)	540 (40.0)	88 (6.5)	18 (1.3)	0 (.0)	1349 (100.0)
학 년	1학년	106 (18.2)	262 (45.0)	179 (30.8)	29 (5.0)	6 (1.0)	0 (.0)	582 (100.0)
	2학년	88 (11.6)	323 (42.6)	292 (38.5)	48 (6.3)	6 (.8)	1 (.1)	758 (100.0)
	3학년	99 (12.4)	343 (42.9)	314 (39.3)	33 (4.1)	11 (1.4)	0 (.0)	800 (100.0)
	4학년	53 (11.1)	208 (43.4)	187 (39.0)	28 (5.8)	3 (.6)	0 (.0)	479 (100.0)
	5학년이상	4 (9.1)	16 (36.4)	20 (45.5)	3 (6.8)	1 (2.3)	0 (.0)	44 (100.0)

	인문	34 (14.6)	91 (39.1)	95 (40.8)	11 (4.7)	2 (.9)	0 (.0)	233 (100.0)
	사회과학	18 (8.7)	82 (39.4)	82 (39.4)	24 (11.5)	2 (1.0)	0 (.0)	208 (100.0)
	경상	59 (13.1)	205 (45.7)	160 (35.6)	24 (5.3)	1 (.2)	0 (.0)	449 (100.0)
	사범	31 (17.8)	90 (51.7)	51 (29.3)	2 (1.1)	0 (.0)	0 (.0)	174 (100.0)
	간호	4 (5.2)	38 (49.4)	30 (39.0)	5 (6.5)	0 (.0)	0 (.0)	77 (100.0)
소 속 대 학	해양과학	34 (12.9)	98 (37.1)	118 (44.7)	13 (4.9)	1 (.4)	0 (.0)	264 (100.0)
	자연과학	44 (12.6)	148 (42.5)	124 (35.6)	25 (7.2)	7 (2.0)	0 (.0)	348 (100.0)
	공과	65 (15.9)	189 (46.1)	138 (33.7)	13 (3.2)	4 (1.0)	1 (.2)	410 (100.0)
	교육	14 (9.9)	79 (56.0)	44 (31.2)	3 (2.1)	1 (.7)	0 (.0)	141 (100.0)
	수익과	8 (9.8)	30 (36.6)	36 (43.9)	8 (9.8)	0 (.0)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30 (19.0)	61 (38.6)	59 (37.3)	4 (2.5)	4 (2.5)	0 (.0)	158 (100.0)
	예술 디자인	9 (7.6)	41 (34.5)	55 (46.2)	9 (7.6)	5 (4.2)	0 (.0)	119 (100.0)
	전체	350 (13.1)	1152 (43.3)	992 (37.3)	141 (5.3)	27 (1.0)	1 (.0)	2663 (100.0)

<표 3-8><그림 8>과 같이 학과 소속감 및 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약 56.4%이고 ‘보통’ 37.3%,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약 6.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과 소속감 및 관계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학생이 ‘남학생’ 60.8%, ‘여학생’ 52.2%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 비율에서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학과 소속감 및 관계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 이상 응답한 비율이 ‘2,3,4학년’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1학년’에서는 63.2%로 학과 소속감 및 관계 만족도가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한 비율에서는 ‘1,2,3,4학년’에서는 차이가 없는 반면 ‘5학년 이상’ 9.1%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학과 소속감 및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사범대’ 69.5%, ‘교육대’ 65.9%, ‘공과대’ 62%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한 비율은 ‘사회과학대’ 12.5%, ‘예술디자인대’ 11.8%, ‘수 의과대’ 9.8%, ‘자연과학대’ 9.2%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학과 소속감이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졸업과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고학년학생들의 심리적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단과대학별로 불만족이 높은 학생들을 위한 관계성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의 적용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림 8> 학과 소속감 및 관계에 대한 만족도

4) 전공 만족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전공 만족도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9>와 같다.

<표 3-9> 전공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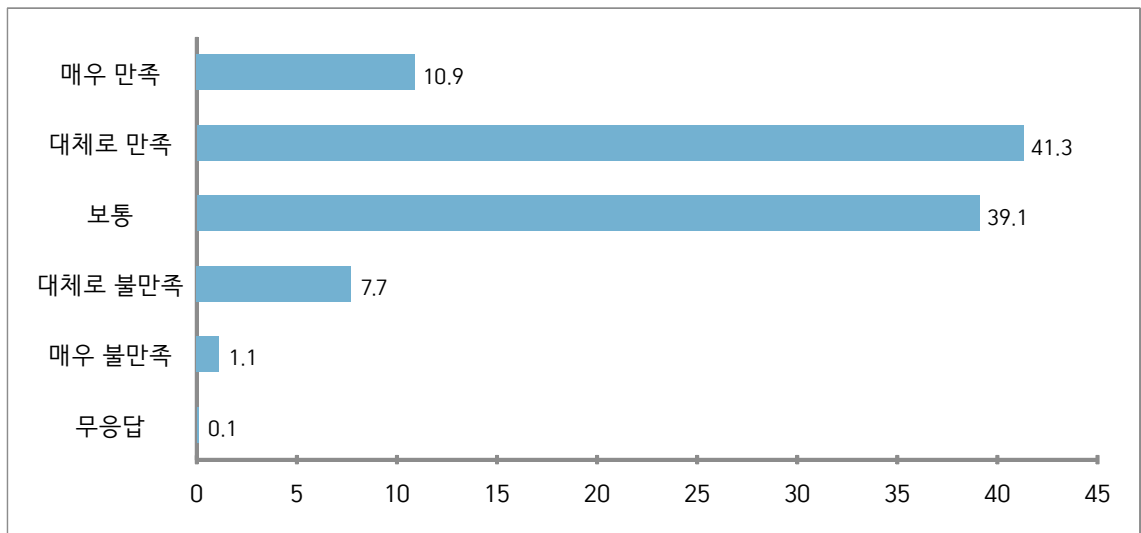
명(%)

		전공 만족도					전체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성 별	남자	190 (14.5)	528 (40.2)	485 (36.9)	93 (7.1)	17 (1.3)	1 (.1)	1314 (100.0)
	여자	99 (7.3)	572 (42.4)	555 (41.1)	111 (8.2)	11 (.8)	1 (.1)	1349 (100.0)
학 년	1학년	75 (12.9)	252 (43.3)	221 (38.0)	26 (4.5)	6 (1.0)	2 (.3)	582 (100.0)
	2학년	75 (9.9)	299 (39.4)	316 (41.7)	63 (8.3)	5 (.7)	0 (.0)	758 (100.0)
	3학년	76 (9.5)	328 (41.0)	305 (38.1)	79 (9.9)	12 (1.5)	0 (.0)	800 (100.0)
	4학년	58 (12.1)	201 (42.0)	186 (38.8)	29 (6.1)	5 (1.0)	0 (.0)	479 (100.0)
	5학년이상	5 (11.4)	20 (45.5)	12 (27.3)	7 (15.9)	0 (.0)	0 (.0)	44 (100.0)

소 속 대 학	인문	20 (8.6)	79 (33.9)	112 (48.1)	19 (8.2)	3 (1.3)	0 (.0)	233 (100.0)
	사회과학	11 (5.3)	83 (39.9)	80 (38.5)	28 (13.5)	6 (2.9)	0 (.0)	208 (100.0)
	경상	42 (9.4)	190 (42.3)	179 (39.9)	33 (7.3)	5 (1.1)	0 (.0)	449 (100.0)
	사범	18 (10.3)	72 (41.4)	66 (37.9)	15 (8.6)	3 (1.7)	0 (.0)	174 (100.0)
	간호	5 (6.5)	47 (61.0)	21 (27.3)	4 (5.2)	0 (.0)	0 (.0)	77 (100.0)
	해양과학	31 (11.7)	98 (37.1)	118 (44.7)	14 (5.3)	3 (1.1)	0 (.0)	264 (100.0)
	자연과학	36 (10.3)	139 (39.9)	138 (39.7)	32 (9.2)	3 (.9)	0 (.0)	348 (100.0)
	공과	57 (13.9)	190 (46.3)	139 (33.9)	19 (4.6)	4 (1.0)	1 (.2)	410 (100.0)
	교육	23 (16.3)	64 (45.4)	46 (32.6)	8 (5.7)	0 (.0)	0 (.0)	141 (100.0)
	수의과	16 (19.5)	32 (39.0)	25 (30.5)	9 (11.0)	0 (.0)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23 (14.6)	60 (38.0)	62 (39.2)	12 (7.6)	0 (.0)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7 (5.9)	46 (38.7)	54 (45.4)	11 (9.2)	1 (.8)	0 (.0)	119 (100.0)
	전체	289 (10.9)	1100 (41.3)	1040 (39.1)	204 (7.7)	28 (1.1)	2 (.1)	2663 (100.0)

<표 3-9><그림 9>와 같이 전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약 52.2%이고 ‘보통’ 39.1%,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약 8.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전공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학생이 ‘남학생’ 54.7%, ‘여학생’ 49.7%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한 학생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년별에 따른 전공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2,3,4학년'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1학년'과 '5학년이상'에서는 56.2%, 56.9%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한 비율에서는 '5학년 이상' 15.9%, '3학년' 11.4%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전공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간호대' 67.5%, '교육대' 61.7%, '공과대' 60.2%, '수의과대' 58.5%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한 비율은 '사회과학대' 16.4%, '수의과대' 11%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52.2%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8%의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을 선택할 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선택이 아닌 성적이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또한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진로와 전공의 불일치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 전공 만족도

5) 교양수업 만족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교양수업 만족도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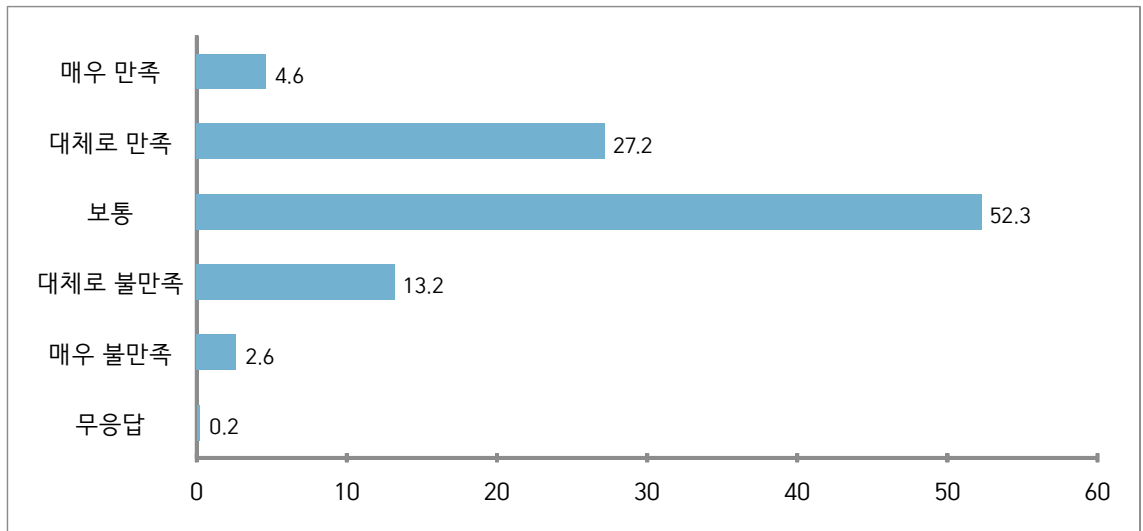
<표 3-10> 교양수업 만족도 명(%)

		교양수업 만족도					무응답	전체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성 별	남자	78 (5.9)	362 (27.5)	666 (50.7)	169 (12.9)	35 (2.7)	4 (.3)	1314 (100.0)
	여자	44 (3.3)	363 (26.9)	726 (53.8)	183 (13.6)	33 (2.4)	0 (.0)	1349 (100.0)
학 년	1학년	37 (6.4)	190 (32.6)	271 (46.6)	72 (12.4)	10 (1.7)	2 (.3)	582 (100.0)
	2학년	27 (3.6)	187 (24.7)	426 (56.2)	101 (13.3)	16 (2.1)	1 (.1)	758 (100.0)
	3학년	34 (4.3)	194 (24.3)	427 (53.4)	116 (14.5)	28 (3.5)	1 (.1)	800 (100.0)
	4학년	22 (4.6)	140 (29.2)	249 (52.0)	59 (12.3)	9 (1.9)	0 (.0)	479 (100.0)
	5학년이상	2 (4.5)	14 (31.8)	19 (43.2)	4 (9.1)	5 (11.4)	0 (.0)	44 (100.0)

소 속 대 학	인문	11 (4.7)	50 (21.5)	132 (56.7)	34 (14.6)	6 (2.6)	0 (.0)	233 (100.0)
	사회과학	5 (2.4)	54 (26.0)	113 (54.3)	31 (14.9)	4 (1.9)	1 (.5)	208 (100.0)
	경상	18 (4.0)	141 (31.4)	224 (49.9)	57 (12.7)	9 (2.0)	0 (.0)	449 (100.0)
	사범	7 (4.0)	43 (24.7)	98 (56.3)	23 (13.2)	3 (1.7)	0 (.0)	174 (100.0)
	간호	1 (1.3)	23 (29.9)	45 (58.4)	6 (7.8)	2 (2.6)	0 (.0)	77 (100.0)
	해양과학	19 (7.2)	72 (27.3)	145 (54.9)	23 (8.7)	5 (1.9)	0 (.0)	264 (100.0)
	자연과학	11 (3.2)	94 (27.0)	191 (54.9)	46 (13.2)	5 (1.4)	1 (.3)	348 (100.0)
	공과	26 (6.3)	119 (29.0)	196 (47.8)	56 (13.7)	12 (2.9)	1 (.2)	410 (100.0)
	교육	7 (5.0)	38 (27.0)	66 (46.8)	24 (17.0)	6 (4.3)	0 (.0)	141 (100.0)
	수의과	3 (3.7)	17 (20.7)	38 (46.3)	16 (19.5)	8 (9.8)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14 (8.9)	50 (31.6)	76 (48.1)	16 (10.1)	1 (.6)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0 (.0)	24 (20.2)	68 (57.1)	20 (16.8)	7 (5.9)	0 (.0)	119 (100.0)
	전체	122 (4.6)	725 (27.2)	1392 (52.3)	352 (13.2)	68 (2.6)	4 (.2)	2663 (100.0)

<표 3-10><그림 10>과 같이 교양수업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약 31.8%이고 ‘보통’ 52.3%,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약 15.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교양수업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33.4%와 ‘여학생’ 30.2%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한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교양수업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2,3,4학년’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1학년’과 ‘5학년이상’에서는 39%, 36.3%로 응답하여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 비율에서는 ‘5학년 이상’ 20.5%, ‘3학년’ 18%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교양수업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생명자원과학대’ 40.5%, ‘공과대’ 35.3%, ‘해양과학대’ 34.5%, ‘경상대’ 34.4%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 이하 응답한 비율은 ‘수의과대’ 29.3%, ‘예술디자인대’ 22.7%, ‘교육대’ 21.3%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교양수업은 학생들이 인생에 있어 품격 있는 성품과 인격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교과목의 다양화와 내실 있는 운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림 10> 교양수업 만족도

6)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다중응답)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을 두 가지 선택하는 다중응답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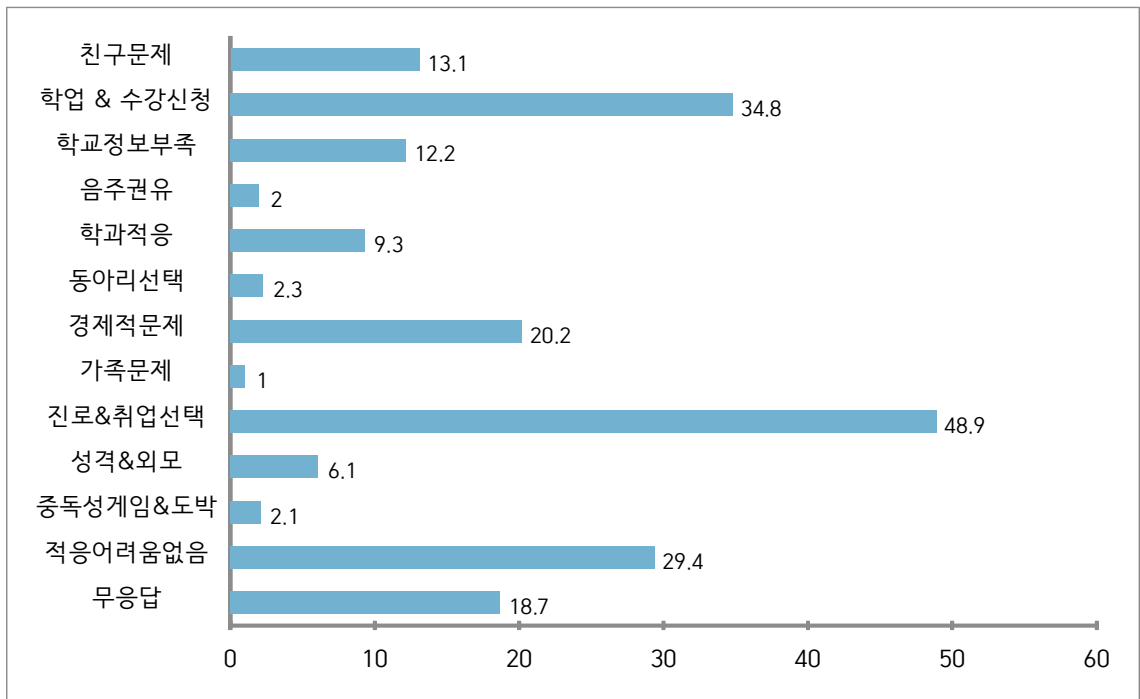
명(%)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전체	
		친구문제	학업 & 수강신청	학교정보부족	음주권유	학과적응	동아리 선택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진로 & 취업 선택	성격 & 외모	중독성 게임 & 도박	적응 어려움 없음	무응답	
성별	남자	152 (5.8)	420 (16.0)	149 (5.7)	34 (1.3)	112 (4.3)	33 (1.3)	283 (10.8)	12 (.5)	586 (22.3)	73 (2.8)	40 (1.5)	453 (17.2)	281 (10.7)	2628 (100.0)
	여자	196 (7.3)	508 (18.8)	177 (6.6)	19 (.7)	136 (5.0)	27 (1.0)	255 (9.5)	14 (.5)	716 (26.5)	89 (3.3)	15 (.6)	329 (12.2)	217 (8.0)	2698 (100.0)
학년	1학년	91 (7.8)	238 (20.4)	84 (7.2)	13 (1.1)	70 (6.0)	16 (1.4)	101 (8.7)	3 (.3)	224 (19.2)	41 (3.5)	11 (.9)	179 (15.4)	93 (8.0)	1164 (100.0)
	2학년	105 (6.9)	278 (18.3)	86 (5.7)	12 (.8)	72 (4.7)	13 (.9)	156 (10.3)	4 (.3)	371 (24.5)	48 (3.2)	15 (1.0)	211 (13.9)	145 (9.6)	1516 (100.0)
	3학년	93 (5.8)	250 (15.6)	98 (6.1)	15 (.9)	62 (3.9)	18 (1.1)	161 (10.1)	14 (.9)	431 (26.9)	55 (3.4)	17 (1.1)	225 (14.1)	161 (10.1)	1600 (100.0)
	4학년	50 (5.2)	145 (15.1)	53 (5.5)	11 (1.1)	41 (4.3)	10 (1.0)	111 (11.6)	5 (.5)	260 (27.1)	17 (1.8)	11 (1.1)	153 (16.0)	91 (9.5)	958 (100.0)
	5학년 이상	9 (10.2)	17 (19.3)	5 (5.7)	2 (2.3)	3 (3.4)	3 (3.4)	9 (10.2)	0 (.0)	16 (18.2)	1 (1.1)	1 (1.1)	14 (15.9)	8 (9.1)	88 (100.0)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소속 대학	인문	38 (8.2)	82 (17.6)	24 (5.2)	2 (.4)	25 (5.4)	2 (.4)	47 (10.1)	6 (1.3)	124 (26.6)	15 (3.2)	2 (.4)	54 (11.6)
	사회과학	32 (7.7)	73 (17.5)	20 (4.8)	4 (1.0)	19 (4.6)	4 (1.0)	40 (9.6)	1 (.2)	122 (29.3)	13 (3.1)	4 (1.0)	43 (10.3)
	경상	48 (5.3)	176 (19.6)	62 (6.9)	9 (1.0)	41 (4.6)	6 (.7)	76 (8.5)	1 (.1)	245 (27.3)	32 (3.6)	6 (.7)	136 (15.1)
	사범	32 (9.2)	74 (21.3)	8 (2.3)	2 (.6)	24 (6.9)	1 (.3)	31 (8.9)	1 (.3)	89 (25.6)	12 (3.4)	1 (.3)	41 (11.8)
	간호	12 (7.8)	33 (21.4)	4 (2.6)	1 (.6)	6 (3.9)	1 (.6)	19 (12.3)	0 (.0)	24 (15.6)	5 (3.2)	0 (.0)	26 (16.9)
	해양과학	36 (6.8)	82 (15.5)	47 (8.9)	11 (2.1)	36 (6.8)	17 (3.2)	57 (10.8)	0 (.0)	108 (20.5)	13 (2.5)	5 (.9)	61 (11.6)
	자연과학	32 (4.6)	110 (15.8)	60 (8.6)	5 (.7)	27 (3.9)	3 (.4)	72 (10.3)	5 (.7)	216 (31.0)	11 (1.6)	4 (.6)	119 (17.1)
	공과	47 (5.7)	151 (18.4)	41 (5.0)	8 (1.0)	28 (3.4)	10 (1.2)	84 (10.2)	5 (.6)	197 (24.0)	19 (2.3)	17 (2.1)	126 (15.4)
	교육	21 (7.4)	43 (15.2)	13 (4.6)	2 (.7)	14 (5.0)	9 (3.2)	29 (10.3)	5 (1.8)	20 (7.1)	15 (5.3)	5 (1.8)	64 (22.7)
	수의과	10 (6.1)	18 (11.0)	8 (4.9)	4 (2.4)	5 (3.0)	3 (1.8)	15 (9.1)	0 (.0)	24 (14.6)	8 (4.9)	4 (2.4)	39 (23.8)
	생명자원 과학	27 (8.5)	50 (15.8)	16 (5.1)	5 (1.6)	12 (3.8)	3 (.9)	38 (12.0)	2 (.6)	71 (22.5)	14 (4.4)	4 (1.3)	46 (14.6)
	예술 디자인	13 (5.5)	36 (15.1)	23 (9.7)	0 (.0)	11 (4.6)	1 (.4)	30 (12.6)	0 (.0)	62 (26.1)	5 (2.1)	3 (1.3)	27 (11.3)
	전체	348 (6.5)	928 (17.4)	326 (6.1)	53 (1.0)	248 (4.7)	60 (1.1)	538 (10.1)	26 (.5)	1302 (24.4)	162 (3.0)	55 (1.0)	782 (14.7)

①친구문제 ②학업&수강신청 ③학교정보부족 ④음주권유 ⑤학과적응 ⑥동아리선택 ⑦경제적문제 ⑧가족문제 ⑨진로&취업선택 ⑩성격외모 ⑪중독성게임&도박 ⑫적응어려움없음 ⑬무응답

<표 3-11><그림 11>과 같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은 '진로&취업선택' 24.4%, '학업&수강신청' 17.4%, '적응어려움 없음' 14.7%, '경제적 문제' 10.1%, '친구 문제' 6.5%, '학교정보부족' 6.1%, '학과 적응' 4.7%, '성격&외모' 3.0%, '동아리 선택' 1.1%, '중독성게임&도박' 1.0%, '음주권유' 1.0%, '가족문제' 0.5%로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에서는 '진로&취업선택'과 '학업&수강신청'이 '여학생' 26.5%, 18.8% '남학생' 22.3%, 16.0%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은 '진로&취업선택'은 '1학년'과 '5학년 이상'에서 각각 19.2%, 18.2%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업&수강신청'은 '3학년'과 '4학년'에서는 각각 15.6%, 15.1%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과적응'은 '1학년' 6.0%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을 살펴보면 '진로&취업선택'은 '자연과학대' 31.0%, '학업&수강신청'은 '간호대' 21.4%, '적응 어려움 없음'은 '수의과대' 23.8%, '친구 문제'는 '사범대' 9.2%, '학교정보부족'은 '예술디자인대' 9.7%, '학과 적응'은 '사범대' 6.9%, '성격&외모'는 '교육대' 5.3%, '동아리 선택'은 '해양과학대'와 '교육대'가 각각 3.2%로 타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과 학업이 대학생활에 주요한 과업이자 주된 고민임을 나타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취업과 학업에서 성적(性的) 장벽이 존재할 가능성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별, 학년별 특성과 과업에 따른 적응 어려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로 하겠다.



<그림 11>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

3. 여가생활 관련

1) 여가활동(다중응답)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여가활동을 두 가지 선택하는 다중응답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2>와 같다.

<표 3-12>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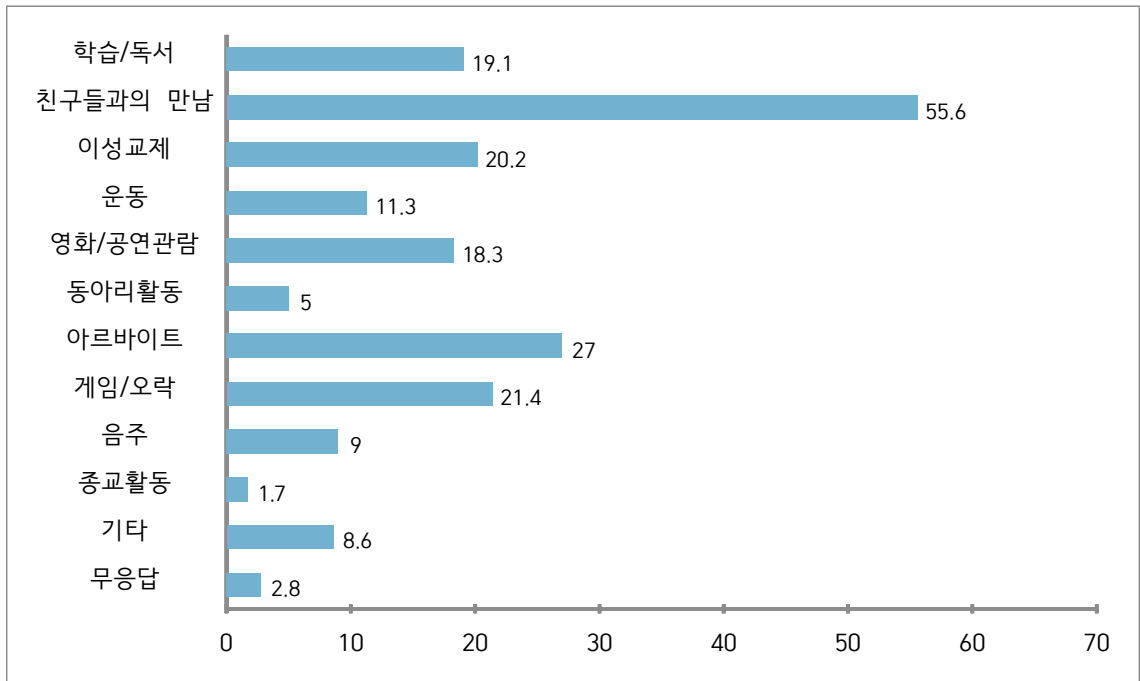
명(%)

		여가활동											전체	
		학습 / 독서	친구들 과의 만남	이성 교제	운동	영화 / 공연 관람	동아리 활동	아르바 이트	게임 / 오락	음주	종교 활동	기타		무응답
성별	남자	267 (10.2)	659 (25.1)	270 (10.3)	242 (9.2)	166 (6.3)	68 (2.6)	238 (9.1)	428 (16.3)	157 (6.0)	15 (.6)	81 (3.1)	37 (1.4)	2628 (100.0)
	여자	242 (9.0)	822 (30.5)	268 (9.9)	59 (2.2)	320 (11.9)	65 (2.4)	482 (17.9)	141 (5.2)	84 (3.1)	31 (1.1)	147 (5.4)	37 (1.4)	2698 (100.0)
학년	1학년	79 (6.8)	357 (30.7)	98 (8.4)	63 (5.4)	96 (8.2)	30 (2.6)	168 (14.4)	158 (13.6)	43 (3.7)	10 (.9)	49 (4.2)	13 (1.1)	1164 (100.0)
	2학년	124 (8.2)	425 (28.0)	163 (10.8)	83 (5.5)	133 (8.8)	40 (2.6)	230 (15.2)	155 (10.2)	68 (4.5)	12 (.8)	66 (4.4)	17 (1.1)	1516 (100.0)
	3학년	158 (9.9)	411 (25.7)	189 (11.8)	83 (5.2)	152 (9.5)	43 (2.7)	203 (12.7)	165 (10.3)	75 (4.7)	13 (.8)	76 (4.8)	32 (2.0)	1600 (100.0)
	4학년	136 (14.2)	268 (28.0)	80 (8.4)	65 (6.8)	97 (10.1)	16 (1.7)	112 (11.7)	88 (9.2)	50 (5.2)	6 (.6)	32 (3.3)	8 (.8)	958 (100.0)
	5학년 이상	12 (13.6)	20 (22.7)	8 (9.1)	7 (8.0)	8 (9.1)	4 (4.5)	7 (8.0)	3 (3.4)	5 (5.7)	5 (5.7)	5 (5.7)	4 (4.5)	88 (100.0)

		여가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소속 대학	인문	49 (10.5)	132 (28.3)	38 (8.2)	21 (4.5)	43 (9.2)	9 (1.9)	76 (16.3)	44 (9.4)	18 (3.9)	5 (1.1)	25 (5.4)
	사회과학	47 (11.3)	119 (28.6)	28 (6.7)	19 (4.6)	39 (9.4)	7 (1.7)	71 (17.1)	34 (8.2)	21 (5.0)	8 (1.9)	18 (4.3)
	경상	74 (8.2)	307 (34.2)	99 (11.0)	48 (5.3)	80 (8.9)	4 (.4)	134 (14.9)	78 (8.7)	37 (4.1)	2 (.2)	31 (3.5)
	사범	41 (11.8)	86 (24.7)	50 (14.4)	22 (6.3)	33 (9.5)	6 (1.7)	50 (14.4)	37 (10.6)	8 (2.3)	1 (.3)	11 (3.2)
	간호	14 (9.1)	42 (27.3)	14 (9.1)	7 (4.5)	15 (9.7)	6 (3.9)	19 (12.3)	17 (11.0)	3 (1.9)	3 (1.9)	13 (8.4)
	해양과학	42 (8.0)	145 (27.5)	63 (11.9)	37 (7.0)	45 (8.5)	17 (3.2)	56 (10.6)	59 (11.2)	41 (7.8)	2 (.4)	7 (1.3)
	자연과학	48 (6.9)	185 (26.6)	70 (10.1)	45 (6.5)	61 (8.8)	9 (1.3)	120 (17.2)	79 (11.4)	26 (3.7)	6 (.9)	37 (5.3)
	공과	98 (12.0)	229 (27.9)	82 (10.0)	43 (5.2)	55 (6.7)	16 (2.0)	86 (10.5)	126 (15.4)	41 (5.0)	7 (.9)	30 (3.7)
	교육	25 (8.9)	85 (30.1)	16 (5.7)	11 (3.9)	27 (9.6)	44 (15.6)	26 (9.2)	19 (6.7)	15 (5.3)	2 (.7)	9 (3.2)
	수의과	13 (7.9)	25 (15.2)	25 (15.2)	17 (10.4)	17 (10.4)	3 (1.8)	6 (3.7)	26 (15.9)	10 (6.1)	0 (.0)	13 (7.9)
	생명자원 과학	33 (10.4)	76 (24.1)	37 (11.7)	25 (7.9)	34 (10.8)	8 (2.5)	33 (10.4)	30 (9.5)	14 (4.4)	4 (1.3)	13 (4.1)
	예술디자인	25 (10.5)	50 (21.0)	16 (6.7)	6 (2.5)	37 (15.5)	4 (1.7)	43 (18.1)	20 (8.4)	7 (2.9)	6 (2.5)	21 (8.8)
	전체	509 (9.6)	1481 (27.8)	538 (10.1)	301 (5.7)	486 (9.1)	133 (2.5)	720 (13.5)	569 (10.7)	241 (4.5)	46 (.9)	228 (4.3)

①학습/독서 ②친구들과의 만남 ③이성교제 ④운동 ⑤영화/공연관람 ⑥동아리활동 ⑦아르바이트 ⑧게임/오락 ⑨음주 ⑩종교활동 ⑪기타 ⑫무응답

<표 3-12><그림 12>와 같이 학생들의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친구들과의 만남’ 27.8%, ‘아르바이트’ 13.5%, ‘게임/오락’ 10.7%, ‘이성교제’ 10.1%, ‘학습/독서’ 9.6%, ‘영화/공연관람’ 9.1%, ‘운동’ 5.7%, ‘음주’ 4.5%, ‘기타’ 4.3%, ‘동아리 활동’ 2.5%, ‘종교 활동’ 0.9%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여가활동은 ‘친구들과의 만남’은 ‘1학년’에서 30.7%로 타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5학년 이상’에서는 22.7%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는 ‘5학년 이상’에서 8.0%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게임/오락’은 ‘1학년’에서 13.6%로 타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5학년 이상’에서는 3.4%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성교제’는 ‘3학년’에서 11.8%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독서’는 ‘4학년’ 14.2%, ‘5학년 이상’ 13.6%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은 ‘5학년 이상’에서 4.5%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 활동’은 ‘5학년 이상’에서 5.7%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친구들과의 만남’은 ‘경상대’ 34.2%, ‘아르바이트’는 ‘예술디자인대’ 18.1%, ‘게임/오락’은 ‘수의과대’ 15.9%, ‘이성교제’는 ‘수의과대’ 15.2%, ‘학습/독서’는 ‘공과대’ 12.0%, ‘영화/공연관람’은 ‘예술디자인대’ 15.5%, ‘음주’는 ‘해양과학대’ 7.8%, ‘동아리 활동’은 ‘교육대’ 15.6%, ‘종교 활동’은 ‘예술디자인대’ 2.5%로 타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친구들과의 만남’과 ‘아르바이트’가 학생들의 주요한 여가생활인 동시에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른 주요과업의 결과라고 하겠다.



<그림 12> 여가활동

2) 아르바이트 유무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유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3>과 같다.

<표 3-13> 아르바이트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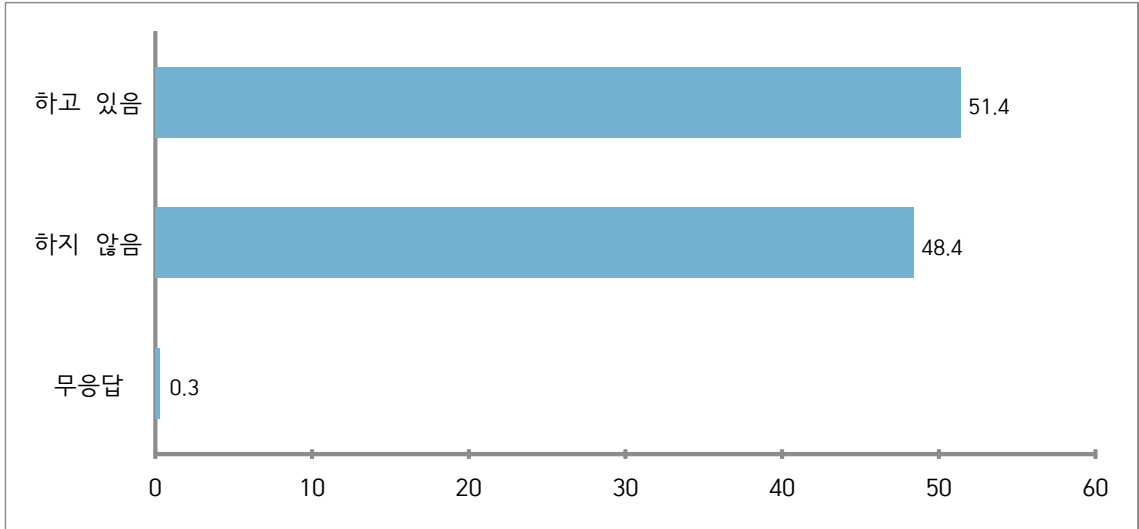
명(%)

		아르바이트 유무			전체
		하고 있음	하지 않음	무응답	
성별	남자	619 (47.1)	690 (52.5)	5 (.4)	1314 (100.0)
	여자	749 (55.5)	598 (44.3)	2 (.1)	1349 (100.0)
학년	1학년	306 (52.6)	276 (47.4)	0 (.0)	582 (100.0)
	2학년	424 (55.9)	332 (43.8)	2 (.3)	758 (100.0)
	3학년	423 (52.9)	373 (46.6)	4 (.5)	800 (100.0)
	4학년	197 (41.1)	281 (58.7)	1 (.2)	479 (100.0)
	5학년이상	18 (40.9)	26 (59.1)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145 (62.2)	88 (37.8)	0 (.0)	233 (100.0)
	사회과학	106 (51.0)	102 (49.0)	0 (.0)	208 (100.0)
	경상	255 (56.8)	194 (43.2)	0 (.0)	449 (100.0)
	사범	110 (63.2)	63 (36.2)	1 (.6)	174 (100.0)
	간호	29 (37.7)	48 (62.3)	0 (.0)	77 (100.0)
	해양과학	143 (54.2)	120 (45.5)	1 (.4)	264 (100.0)
	자연과학	186 (53.4)	158 (45.4)	4 (1.1)	348 (100.0)
	공과	177 (43.2)	233 (56.8)	0 (.0)	410 (100.0)
	교육	61 (43.3)	80 (56.7)	0 (.0)	141 (100.0)
	수의과	20 (24.4)	62 (75.6)	0 (.0)	82 (100.0)
	생명자원과학	76 (48.1)	82 (51.9)	0 (.0)	158 (100.0)
	예술디자인	60 (50.4)	58 (48.7)	1 (.8)	119 (100.0)
	전체	1368 (51.4)	1288 (48.4)	7 (.3)	2663 (100.0)

<표 3-13><그림 13>과 같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하고 있다’ 51.4%, ‘하지 않는다’ 48.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서 ‘하고 있다’에서 ‘여학생’ 55.5%, ‘남학생’ 47.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서는 ‘하고 있다’에서 반면 ‘4학년’과 ‘5학년이상’에서는 41.1%, 40.9%로 응답하여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하

고 있다'에서 '사범대' 63.2%, '인문대' 62.2%, '경상대' 56.8%로 응답하여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있어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13> 아르바이트 유무

2) 아르바이트 이유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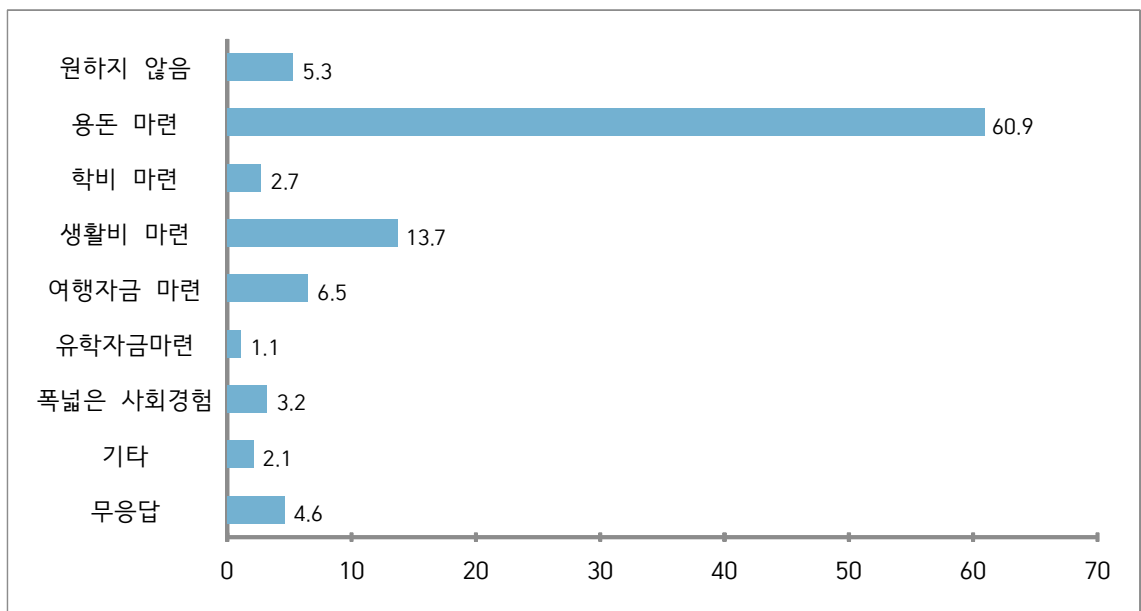
<표 3-14> 아르바이트 이유 명(%)

		아르바이트 이유									
		원하지 않음	용돈 마련	학비 마련	생활비 마련	여행자금 마련	유학자금 마련	폭넓은 사회경험	기타	무응답	전체
성별	남자	68 (5.2)	825 (62.8)	42 (3.2)	178 (13.5)	46 (3.5)	10 (.8)	45 (3.4)	35 (2.7)	65 (4.9)	1314 (100.0)
	여자	72 (5.3)	796 (59.0)	29 (2.1)	186 (13.8)	128 (9.5)	20 (1.5)	40 (3.0)	21 (1.6)	57 (4.2)	1349 (100.0)
학년	1학년	20 (3.4)	399 (68.6)	11 (1.9)	46 (7.9)	46 (7.9)	4 (.7)	18 (3.1)	10 (1.7)	28 (4.8)	582 (100.0)
	2학년	32 (4.2)	478 (63.1)	18 (2.4)	110 (14.5)	44 (5.8)	5 (.7)	23 (3.0)	16 (2.1)	32 (4.2)	758 (100.0)
	3학년	43 (5.4)	476 (59.5)	21 (2.6)	124 (15.5)	48 (6.0)	10 (1.3)	25 (3.1)	18 (2.3)	35 (4.4)	800 (100.0)
	4학년	38 (7.9)	244 (50.9)	20 (4.2)	81 (16.9)	32 (6.7)	8 (1.7)	18 (3.8)	12 (2.5)	26 (5.4)	479 (100.0)
	5학년 이상	7 (15.9)	24 (54.5)	1 (2.3)	3 (6.8)	4 (9.1)	3 (6.8)	1 (2.3)	0 (.0)	1 (2.3)	44 (100.0)

소속대학	인문	5 (2.1)	145 (62.2)	7 (3.0)	39 (16.7)	21 (9.0)	6 (2.6)	3 (1.3)	3 (1.3)	4 (1.7)	233 (100.0)
	사회과학	14 (6.7)	135 (64.9)	6 (2.9)	20 (9.6)	12 (5.8)	5 (2.4)	3 (1.4)	5 (2.4)	8 (3.8)	208 (100.0)
	경상	36 (8.0)	305 (67.9)	6 (1.3)	40 (8.9)	31 (6.9)	3 (.7)	15 (3.3)	10 (2.2)	3 (.7)	449 (100.0)
	사범	7 (4.0)	117 (67.2)	5 (2.9)	17 (9.8)	14 (8.0)	1 (.6)	4 (2.3)	1 (.6)	8 (4.6)	174 (100.0)
	간호	3 (3.9)	46 (59.7)	1 (1.3)	10 (13.0)	12 (15.6)	0 (.0)	2 (2.6)	0 (.0)	3 (3.9)	77 (100.0)
	해양과학	27 (10.2)	132 (50.0)	15 (5.7)	47 (17.8)	7 (2.7)	2 (.8)	8 (3.0)	9 (3.4)	17 (6.4)	264 (100.0)
	자연과학	2 (.6)	226 (64.9)	6 (1.7)	61 (17.5)	15 (4.3)	2 (.6)	10 (2.9)	10 (2.9)	16 (4.6)	348 (100.0)
	공과	27 (6.6)	250 (61.0)	7 (1.7)	64 (15.6)	19 (4.6)	4 (1.0)	7 (1.7)	4 (1.0)	28 (6.8)	410 (100.0)
	교육	4 (2.8)	78 (55.3)	4 (2.8)	17 (12.1)	19 (13.5)	3 (2.1)	5 (3.5)	2 (1.4)	9 (6.4)	141 (100.0)
	수의과	3 (3.7)	46 (56.1)	0 (.0)	8 (9.8)	6 (7.3)	0 (.0)	9 (11.0)	3 (3.7)	7 (8.5)	82 (100.0)
	생명자원과학	10 (6.3)	73 (46.2)	8 (5.1)	26 (16.5)	9 (5.7)	3 (1.9)	15 (9.5)	5 (3.2)	9 (5.7)	158 (100.0)
	예술디자인	2 (1.7)	68 (57.1)	6 (5.0)	15 (12.6)	9 (7.6)	1 (.8)	4 (3.4)	4 (3.4)	10 (8.4)	119 (100.0)
	전체	140 (5.3)	1621 (60.9)	71 (2.7)	364 (13.7)	174 (6.5)	30 (1.1)	85 (3.2)	56 (2.1)	122 (4.6)	2663 (100.0)

<표 3-14><그림 14>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 마련’ 60.9%, ‘생활비 마련’ 13.7%, ‘여행자금 마련’ 6.5%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대부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행자금 마련’에서만 ‘여학생’ 9.5%, ‘남학생’ 3.5%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서는 ‘용돈 마련’으로 응답한 비율이 ‘4학년’에서는 50.9%로 응답하여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

과대학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용돈 마련’으로 응답한 비율은 ‘경상대’ 67.9%, ‘사회과학대’ 64.9%, ‘학비 마련’으로 응답한 비율은 ‘해양과학대’ 5.7%, ‘생활비 마련’으로 응답한 비율은 ‘해양과학대’ 17.8%, ‘자연과학대’ 17.5%, ‘여행자금 마련’으로 응답한 비율은 ‘간호대’ 15.6%, ‘교육대’ 13.5%, ‘폭넓은 사회경험’으로 응답한 비율은 ‘수의과대’ 11.0%, ‘생명자연과학대’ 9.5%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용돈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우리사회의 가계소득의 감소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사회적·경제적 고용형태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도 학생들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14> 아르바이트 이유

4. 교수 관련

1) 학과 교수 관계 만족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학과교수와의 관계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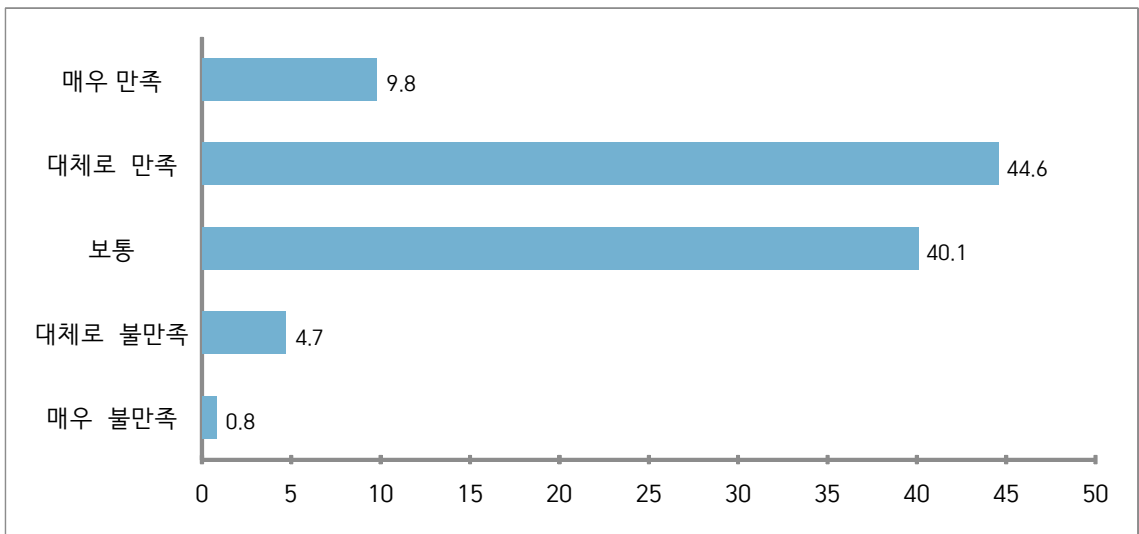
<표 3-15> 학과 교수 관계 만족도 명(%)

		학과 교수 관계 만족도					전체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성별	남자	168 (12.8)	597 (45.4)	487 (37.1)	50 (3.8)	12 (.9)	1314 (100.0)
	여자	94 (7.0)	591 (43.8)	581 (43.1)	75 (5.6)	8 (.6)	1349 (100.0)
학년	1학년	65 (11.2)	265 (45.5)	237 (40.7)	14 (2.4)	1 (.2)	582 (100.0)
	2학년	62 (8.2)	341 (45.0)	315 (41.6)	35 (4.6)	5 (.7)	758 (100.0)
	3학년	85 (10.6)	336 (42.0)	329 (41.1)	44 (5.5)	6 (.8)	800 (100.0)
	4학년	46 (9.6)	221 (46.1)	175 (36.5)	30 (6.3)	7 (1.5)	479 (100.0)
	5학년 이상	4 (9.1)	25 (56.8)	12 (27.3)	2 (4.5)	1 (2.3)	44 (100.0)

소속대학	인문	26 (11.2)	95 (40.8)	101 (43.3)	9 (3.9)	2 (.9)	233 (100.0)
	사회과학	13 (6.3)	92 (44.2)	88 (42.3)	15 (7.2)	0 (.0)	208 (100.0)
	경상	31 (6.9)	182 (40.5)	202 (45.0)	33 (7.3)	1 (.2)	449 (100.0)
	사범	22 (12.6)	92 (52.9)	52 (29.9)	8 (4.6)	0 (.0)	174 (100.0)
	간호	6 (7.8)	44 (57.1)	26 (33.8)	1 (1.3)	0 (.0)	77 (100.0)
	해양과학	37 (14.0)	104 (39.4)	109 (41.3)	12 (4.5)	2 (.8)	264 (100.0)
	자연과학	27 (7.8)	157 (45.1)	144 (41.4)	17 (4.9)	3 (.9)	348 (100.0)
	공과	52 (12.7)	204 (49.8)	148 (36.1)	4 (1.0)	2 (.5)	410 (100.0)
	교육	18 (12.8)	63 (44.7)	56 (39.7)	3 (2.1)	1 (.7)	141 (100.0)
	수의과	5 (6.1)	33 (40.2)	33 (40.2)	6 (7.3)	5 (6.1)	82 (100.0)
	생명자원 과학	16 (10.1)	78 (49.4)	61 (38.6)	3 (1.9)	0 (.0)	158 (100.0)
	예술 디자인	9 (7.6)	44 (37.0)	48 (40.3)	14 (11.8)	4 (3.4)	119 (100.0)
	전체	262 (9.8)	1188 (44.6)	1068 (40.1)	125 (4.7)	20 (.8)	2663 (100.0)

<표 3-15><그림 15>와 같이 학과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약 54.4%, '보통' 40.1%,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약 5.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과교수 관계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58.2%, '여학생' 50.8%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학과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5학년 이상'에서는 65.9%로 응답하여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 비율에서는 '1학년' 2.6%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불만족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학과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사범대' 65.5%, '간호대' 64.9%, '공과대' 62.5%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한 비율은 '예술디자인대' 15.2%, '수의과대' 13.4%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수와 학생간의 신뢰로운 인간관계는 학생들의 졸업 이후 사회적 위계관계의 중요 기준척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만족스런 관계를 증진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정밀한 연구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림 15> 학과 교수 관계 만족도

2) 책임지도교수제 상담 만족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책임지도교수제 상담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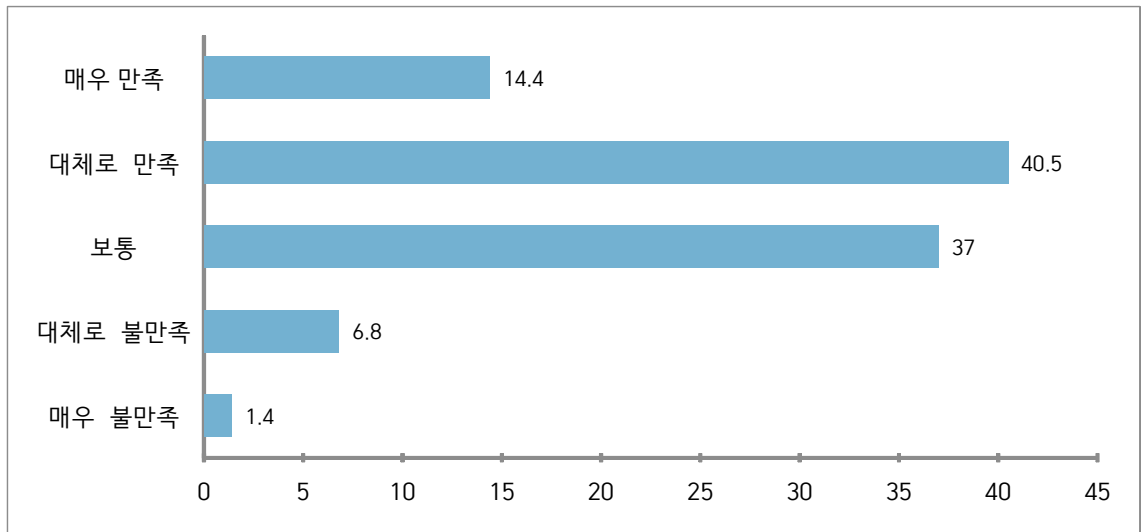
<표 3-16> 책임지도교수제 상담 만족도 명(%)

		책임지도교수제 상담 만족도					전체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성별	남자	235 (17.9)	556 (42.3)	440 (33.5)	69 (5.3)	14 (1.1)	1314 (100.0)
	여자	148 (11.0)	523 (38.8)	545 (40.4)	111 (8.2)	22 (1.6)	1349 (100.0)
학년	1학년	86 (14.8)	250 (43.0)	221 (38.0)	22 (3.8)	3 (.5)	582 (100.0)
	2학년	108 (14.2)	301 (39.7)	300 (39.6)	37 (4.9)	12 (1.6)	758 (100.0)
	3학년	117 (14.6)	303 (37.9)	297 (37.1)	69 (8.6)	14 (1.8)	800 (100.0)
	4학년	66 (13.8)	201 (42.0)	158 (33.0)	48 (10.0)	6 (1.3)	479 (100.0)
	5학년 이상	6 (13.6)	24 (54.5)	9 (20.5)	4 (9.1)	1 (2.3)	44 (100.0)

소속대학	인문	36 (15.5)	82 (35.2)	94 (40.3)	15 (6.4)	6 (2.6)	233 (100.0)
	사회과학	25 (12.0)	77 (37.0)	77 (37.0)	25 (12.0)	4 (1.9)	208 (100.0)
	경상	40 (8.9)	167 (37.2)	190 (42.3)	43 (9.6)	9 (2.0)	449 (100.0)
	사범	26 (14.9)	89 (51.1)	49 (28.2)	7 (4.0)	3 (1.7)	174 (100.0)
	간호	12 (15.6)	45 (58.4)	17 (22.1)	2 (2.6)	1 (1.3)	77 (100.0)
	해양과학	45 (17.0)	102 (38.6)	105 (39.8)	11 (4.2)	1 (.4)	264 (100.0)
	자연과학	47 (13.5)	145 (41.7)	118 (33.9)	35 (10.1)	3 (.9)	348 (100.0)
	공과	87 (21.2)	188 (45.9)	125 (30.5)	10 (2.4)	0 (.0)	410 (100.0)
	교육	17 (12.1)	50 (35.5)	64 (45.4)	9 (6.4)	1 (.7)	141 (100.0)
	수의과	11 (13.4)	29 (35.4)	28 (34.1)	9 (11.0)	5 (6.1)	82 (100.0)
	생명자원 과학	28 (17.7)	71 (44.9)	54 (34.2)	5 (3.2)	0 (.0)	158 (100.0)
	예술 디자인	9 (7.6)	34 (28.6)	64 (53.8)	9 (7.6)	3 (2.5)	119 (100.0)
	전체	383 (14.4)	1079 (40.5)	985 (37.0)	180 (6.8)	36 (1.4)	2663 (100.0)

<표 3-16><그림 16>과 같이 책임지도교수제 상담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약 54.9%이고 ‘보통’ 37.0%,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약 8.2%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책임지도교수제 상담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60.2%, ‘여학생’ 49.8%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책임지도교수제 상담 만족도에서는 ‘5학년 이상’에서는 68.1%로 응답하여 책임지도교수제 상담 만족도가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 비율에서는 ‘1학년’에서는 4.3%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책임지도교수제 상담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간호대’ 74.0%, ‘공과대’ 67.1%, ‘사범대’ 66.0%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한 비율은 ‘수의과대’ 17.1%, ‘사회과학대’ 13.9%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책임지도교수제는 교수가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다양한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에 낮은 불만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로 하겠다.



<그림 16> 책임지도교수제 상담 만족도

3) 책임지도교수 외의 학과 교수의 상담 필요성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책임지도교수 외의 학과 교수의 상담 필요성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는 <표 3-1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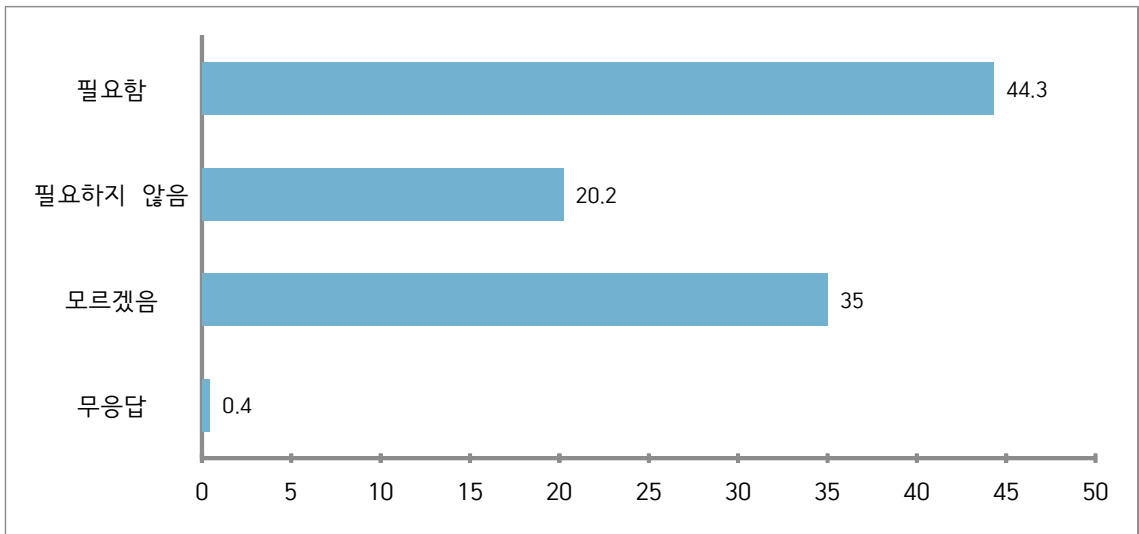
<표 3-17> 책임지도교수 외의 학과 교수의 상담 필요성 명(%)

		책임지도교수 외의 학과 교수의 상담 필요성				전체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모르겠음	무응답	
성 별	남자	629 (47.9)	247 (18.8)	435 (33.1)	3 (.2)	1314 (100.0)
	여자	551 (40.8)	292 (21.6)	498 (36.9)	8 (.6)	1349 (100.0)
학 년	1학년	244 (41.9)	97 (16.7)	240 (41.2)	1 (.2)	582 (100.0)
	2학년	349 (46.0)	153 (20.2)	255 (33.6)	1 (.1)	758 (100.0)
	3학년	352 (44.0)	153 (19.1)	288 (36.0)	7 (.9)	800 (100.0)
	4학년	223 (46.6)	117 (24.4)	138 (28.8)	1 (.2)	479 (100.0)
	5학년 이상	12 (27.3)	19 (43.2)	12 (27.3)	1 (2.3)	44 (100.0)

소속대학	인문	94 (40.3)	54 (23.2)	85 (36.5)	0 (.0)	233 (100.0)
	사회과학	80 (38.5)	61 (29.3)	66 (31.7)	1 (.5)	208 (100.0)
	경상	188 (41.9)	96 (21.4)	165 (36.7)	0 (.0)	449 (100.0)
	사범	84 (48.3)	30 (17.2)	60 (34.5)	0 (.0)	174 (100.0)
	간호	34 (44.2)	12 (15.6)	30 (39.0)	1 (1.3)	77 (100.0)
	해양과학	127 (48.1)	52 (19.7)	84 (31.8)	1 (.4)	264 (100.0)
	자연과학	173 (49.7)	53 (15.2)	121 (34.8)	1 (.3)	348 (100.0)
	공과	204 (49.8)	69 (16.8)	135 (32.9)	2 (.5)	410 (100.0)
	교육	44 (31.2)	39 (27.7)	57 (40.4)	1 (.7)	141 (100.0)
	수의과	17 (20.7)	32 (39.0)	32 (39.0)	1 (1.2)	82 (100.0)
	생명자원 과학	86 (54.4)	25 (15.8)	46 (29.1)	1 (.6)	158 (100.0)
	예술디자인	49 (41.2)	16 (13.4)	52 (43.7)	2 (1.7)	119 (100.0)
	전체	1180 (44.3)	539 (20.2)	933 (35.0)	11 (.4)	2663 (100.0)

<표 3-17><그림 17>과 같이 책임지도교수 외의 학과 교수와의 상담 필요성은 ‘필요함’ 44.3%이고 ‘필요하지 않음’ 20.2%, ‘모르겠음’ 35.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책임지도제 외의 학과 교수와의 상담 필요성은 ‘필요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47.9%, ‘여학생’ 40.8%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책임지도교수 외의 학과 교수와의 상담 필요성은 ‘필요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5학년 이상’에서는 27.3%로 응답하여 타 학년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5학년 이상'에서는 학업이나 취업에 대한 계획이 완성되어 준비 단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단과대학별 책임지도교수 외의 학과 교수와의 상담 필요성을 살펴보면 '필요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생명자원과학대' 54.4%, '공과대' 49.8%, '자연과학대' 49.7%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고 '필요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수의과대' 39%, '사회과학대' 29.3%, '교육대' 27.7%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7> 책임지도교수 외의 학과 교수의 상담 필요성

4) 학과 교수 상담 요구 분야(다중응답)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학과 교수 상담 요구 분야를 두 가지 선택하는 다중응답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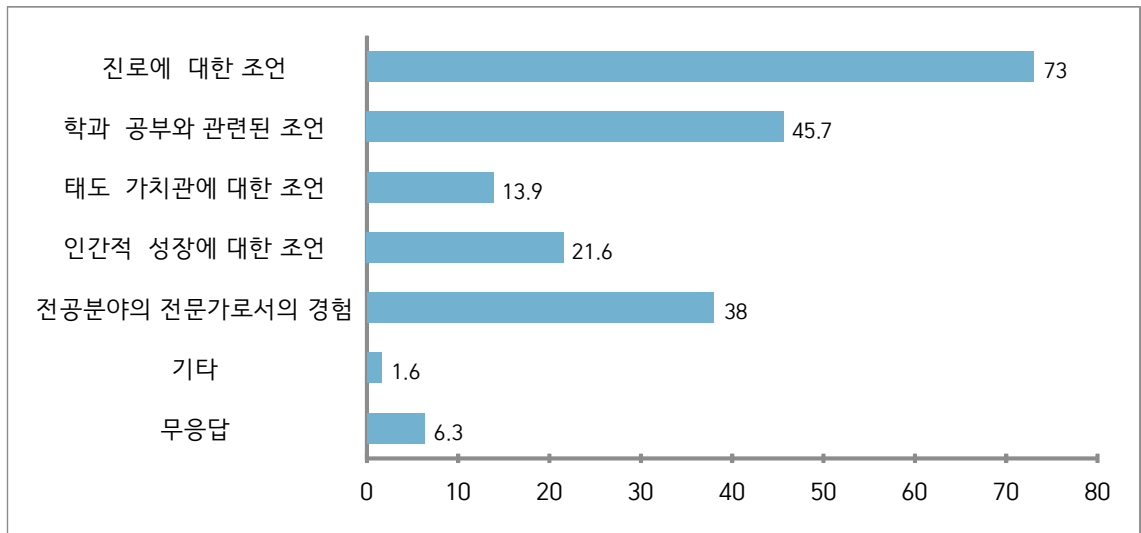
<표 3-18> 학과 교수 상담 요구 분야 명(%)

		학과 교수 상담 요구 분야						전체	
		진로에 대한 조언	학과 공부와 관련된 조언	태도, 가치관 에 대한 조언	인간적 성장 에 대한 조언	전공 분야의 전문가 로서의 경험	기타	무응답	
성 별	남자	976 (37.1)	573 (21.8)	194 (7.4)	320 (12.2)	457 (17.4)	19 (.7)	89 (3.4)	2628 (100.0)
	여자	968 (35.9)	643 (23.8)	176 (6.5)	254 (9.4)	554 (20.5)	24 (.9)	79 (2.9)	2698 (100.0)
학 년	1학년	431 (37.0)	337 (29.0)	69 (5.9)	84 (7.2)	215 (18.5)	7 (.6)	21 (1.8)	1164 (100.0)
	2학년	560 (36.9)	351 (23.2)	88 (5.8)	160 (10.6)	298 (19.7)	14 (.9)	45 (3.0)	1516 (100.0)
	3학년	572 (35.8)	334 (20.9)	115 (7.2)	199 (12.4)	296 (18.5)	14 (.9)	70 (4.4)	1600 (100.0)
	4학년	350 (36.5)	175 (18.3)	90 (9.4)	121 (12.6)	188 (19.6)	7 (.7)	27 (2.8)	958 (100.0)
	5학년 이상	31 (35.2)	19 (21.6)	8 (9.1)	10 (11.4)	14 (15.9)	1 (1.1)	5 (5.7)	88 (100.0)

소속대학	인문	165 (35.4)	113 (24.2)	37 (7.9)	71 (15.2)	56 (12.0)	7 (1.5)	17 (3.6)	466 (100.0)
	사회과학	143 (34.4)	86 (20.7)	33 (7.9)	72 (17.3)	69 (16.6)	3 (.7)	10 (2.4)	416 (100.0)
	경상	366 (40.8)	213 (23.7)	50 (5.6)	85 (9.5)	160 (17.8)	5 (.6)	19 (2.1)	898 (100.0)
	사범	102 (29.3)	107 (30.7)	28 (8.0)	42 (12.1)	56 (16.1)	4 (1.1)	9 (2.6)	348 (100.0)
	간호	50 (32.5)	29 (18.8)	15 (9.7)	14 (9.1)	40 (26.0)	0 (.0)	6 (3.9)	154 (100.0)
	해양과학	182 (34.5)	143 (27.1)	37 (7.0)	50 (9.5)	85 (16.1)	3 (.6)	28 (5.3)	528 (100.0)
	자연과학	293 (42.1)	135 (19.4)	28 (4.0)	65 (9.3)	163 (23.4)	2 (.3)	10 (1.4)	696 (100.0)
	공과	327 (39.9)	195 (23.8)	47 (5.7)	53 (6.5)	169 (20.6)	4 (.5)	25 (3.0)	820 (100.0)
	교육	64 (22.7)	68 (24.1)	46 (16.3)	54 (19.1)	38 (13.5)	5 (1.8)	7 (2.5)	282 (100.0)
	수의과	54 (32.9)	26 (15.9)	12 (7.3)	14 (8.5)	41 (25.0)	4 (2.4)	13 (7.9)	164 (100.0)
	생명자원 과학	124 (39.2)	57 (18.0)	24 (7.6)	36 (11.4)	61 (19.3)	3 (.9)	11 (3.5)	316 (100.0)
	예술 디자인	74 (31.1)	44 (18.5)	13 (5.5)	18 (7.6)	73 (30.7)	3 (1.3)	13 (5.5)	238 (100.0)
	전체	1944 (36.5)	1216 (22.8)	370 (6.9)	574 (10.8)	1011 (19.0)	43 (.8)	168 (3.2)	5326 (100.0)

<표 3-18><그림 18>과 같이 학생들의 학과 교수 상담요구분야는 ‘진로에 대한 조언’ 36.5%, ‘학과공부와 관련된 조언’ 22.8%,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경험’ 19.0%, ‘인간적 성장에 대한 조언’ 10.8%, ‘태도·가치관에 대한 조언’ 6.9%, ‘기타’ 0.8%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과 교수 상담요구분야는 ‘인간적 성장에 대한 조언’과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경험’에서 ‘남학생’ 12.2%, 17.4%, ‘여학생’ 9.4%, 20.5%로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학과 교수 상담요구분야는 ‘학과공부 관련된 조언’에서는 ‘1학년’ 29.0%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4학년’ 18.3%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태도·가치관에 대한 조언’에서는 ‘4학년’과 ‘5학년 이상’이 각각 9.4%, 9.1%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간적 성장에 대한 조언’은 ‘1학년’ 7.2%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경험’은 ‘5학년 이상’에서는 15.9%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학과 교수 상담 요구 분야를 살펴보면 ‘진로에 대한 조언’은 ‘자연과학대’ 42.1%, ‘학과 공부와 관련된 조언’은 ‘사범대’ 30.7%, ‘태도·가치관에 대한 조언’은 ‘교육대’ 16.3%, ‘인간적 성장에 대한 조언’은 ‘교육대’ 19.1%,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경험’은 ‘예술디자인대’ 30.7%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교수와의 상담에서 요구하는 주요 주제는 진로, 학과 공부, 전문가로서의 조언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시기는 미래의 직업선택을 위한 최종 준비단계로서의 발달과정적인 요구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교수는 인생의 선경험자로서 다양한 경험과 노력들을 학생들과 소통하고 나누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로 하겠다.



<그림 18> 학과 교수 상담 요구 분야

5. 학업 관련

1) 학업 부담감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학업 부담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9>와 같다.

<표 3-19> 학업 부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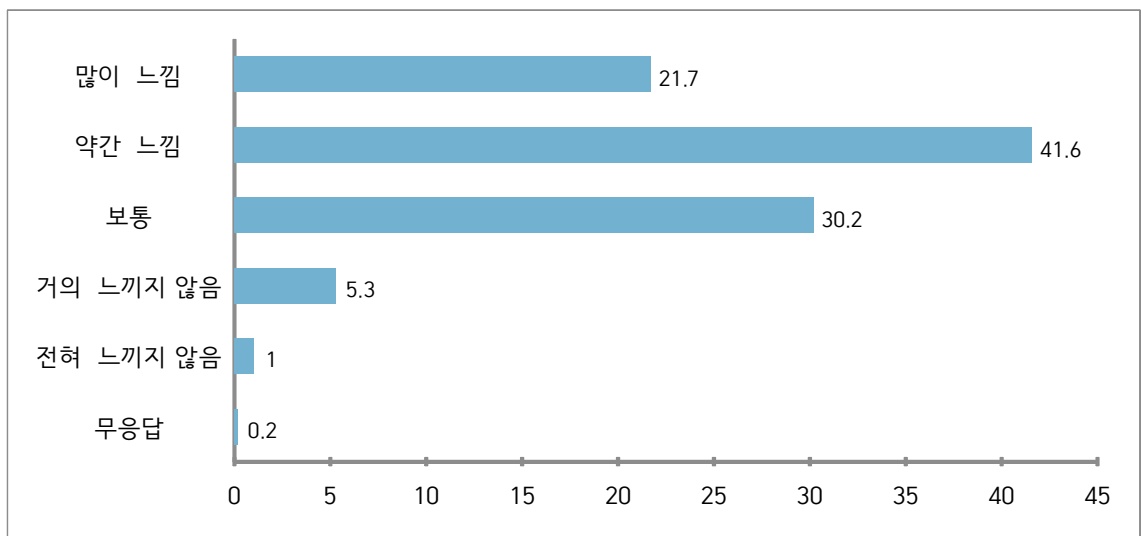
명(%)

		학업부담						전체
		많이 느낌	약간 느낌	보통	거의 느끼지 않음	전혀 느끼지 않음	무응답	
성별	남자	260 (19.8)	503 (38.3)	449 (34.2)	81 (6.2)	18 (1.4)	3 (.2)	1314 (100.0)
	여자	318 (23.6)	604 (44.8)	355 (26.3)	61 (4.5)	8 (.6)	3 (.2)	1349 (100.0)
학년	1학년	108 (18.6)	256 (44.0)	188 (32.3)	24 (4.1)	6 (1.0)	0 (.0)	582 (100.0)
	2학년	197 (26.0)	329 (43.4)	197 (26.0)	31 (4.1)	3 (.4)	1 (.1)	758 (100.0)
	3학년	182 (22.8)	320 (40.0)	244 (30.5)	41 (5.1)	10 (1.3)	3 (.4)	800 (100.0)
	4학년	82 (17.1)	182 (38.0)	162 (33.8)	45 (9.4)	6 (1.3)	2 (.4)	479 (100.0)
	5학년 이상	9 (20.5)	20 (45.5)	13 (29.5)	1 (2.3)	1 (2.3)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50 (21.5)	91 (39.1)	73 (31.3)	17 (7.3)	2 (.9)	0 (.0)	233 (100)
	사회과학	41 (19.7)	76 (36.5)	78 (37.5)	8 (3.8)	4 (1.9)	1 (.5)	208 (100)
	경상	69 (15.4)	200 (44.5)	149 (33.2)	28 (6.2)	3 (.7)	0 (.0)	449 (100)
	사범	53 (30.5)	75 (43.1)	40 (23.0)	6 (3.4)	0 (.0)	0 (.0)	174 (100)
	간호	27 (35.1)	33 (42.9)	14 (18.2)	3 (3.9)	0 (.0)	0 (.0)	77 (100)
	해양과학	52 (19.7)	106 (40.2)	90 (34.1)	12 (4.5)	3 (1.1)	1 (.4)	264 (100)
	자연과학	91 (26.1)	151 (43.4)	88 (25.3)	12 (3.4)	4 (1.1)	2 (.6)	348 (100.0)
	공과	86 (21.0)	192 (46.8)	105 (25.6)	22 (5.4)	5 (1.2)	0 (.0)	410 (100.0)
	교육	25 (17.7)	53 (37.6)	44 (31.2)	17 (12.1)	2 (1.4)	0 (.0)	141 (100.0)
	수의과	26 (31.7)	29 (35.4)	22 (26.8)	4 (4.9)	1 (1.2)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24 (15.2)	59 (37.3)	63 (39.9)	12 (7.6)	0 (.0)	0 (.0)	158 (100.0)
	예술 디자인	34 (28.6)	42 (35.3)	38 (31.9)	1 (.8)	2 (1.7)	2 (1.7)	119 (100.0)
	전체	578 (21.7)	1107 (41.6)	804 (30.2)	142 (5.3)	26 (1.0)	6 (.2)	2663 (100.0)

<표 3-19><그림 19>와 같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감은 '많이 느낌'과 '약간 느낌'이 약 63.3%이고 '보통' 30.2%, '거의 느끼지 않음'과 '전혀 느끼지 않음'이 약 6.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업 부담감은 '약간 느낌'이상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 68.4%, '남학생' 58.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학업 부담감 '약간 느낌'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2.5학년 이상'에서 69.4%, 66.0%로 '1,3학년'에서는 62.6%, 62.8%으로 나타났고 '4

학년' 55.1%로 응답하여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거의 느끼지 않음'이하 응답 비율에서는 '4학년' 10.7%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학업 부담감을 살펴보면 '약간 느낌'이상 응답한 비율이 '간호대' 78.0%, '사범대' 73.6%, '자연과학대' 69.5%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고 '거의 느끼지 않음'이하 응답한 비율은 '교육대' 13.5%, '생명자원과학대' 7.6%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대학생활의 주요 과업이 학업이기에 학생들의 적절한 부담감은 학생들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나친 부담은 오히려 학생들의 심리적·사회적 적응과 만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학업부담 이유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림 19> 학업 부담감

2) 학업 부담 이유(다중응답)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학업 부담 이유를 두 가지 선택하는 다중응답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는 <표 3-2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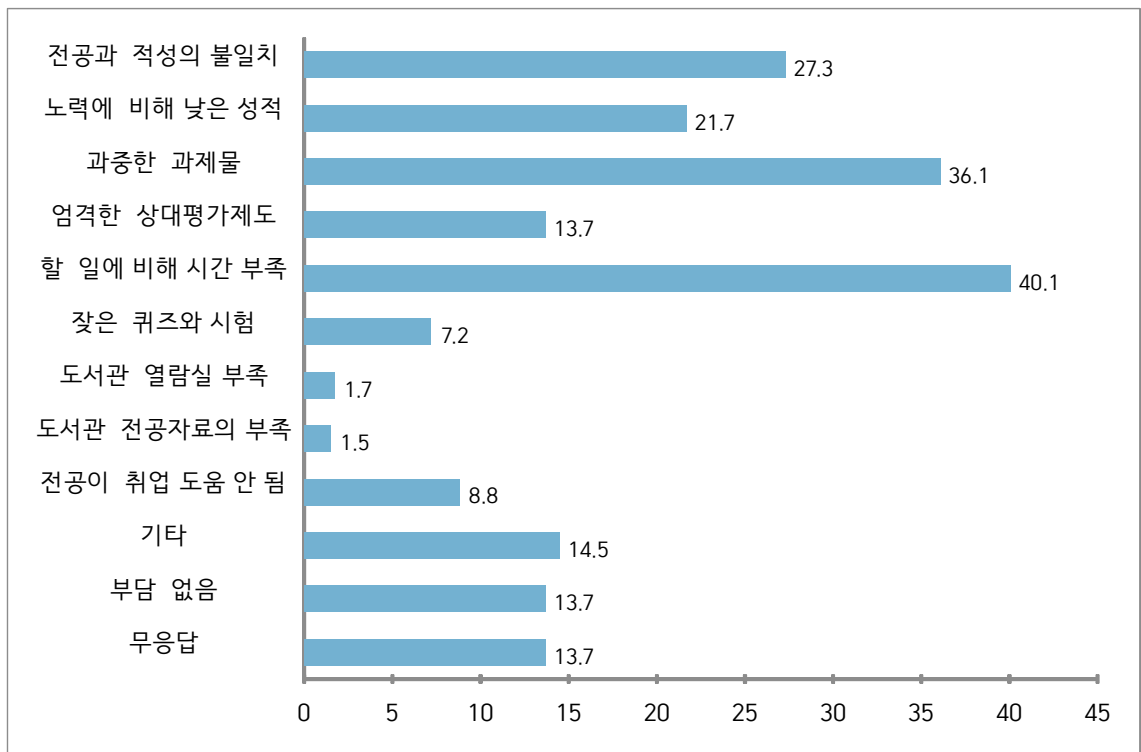
<표 3-20> 학업 부담 이유 명(%)

		학업 부담 이유											전체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노력에 비해 낮은 성적	과중한 과제물	엄격한 상대평가 제도	할 일 대비 시간 부족	작은 퀴즈와 시험	도서관 열람실 부족	도서관 전공자료의 부족	전공이 취업 도움 안됨	기타	부담 없음		무응답
성별	남자	355 (13.5)	290 (11.0)	405 (15.4)	170 (6.5)	454 (17.3)	86 (3.3)	21 (.8)	26 (1.0)	116 (4.4)	227 (8.6)	244 (9.3)	234 (8.9)	2628 (100.0)
	여자	372 (13.8)	288 (10.7)	556 (20.6)	195 (7.2)	613 (22.7)	105 (3.9)	24 (.9)	14 (.5)	119 (4.4)	160 (5.9)	120 (4.4)	132 (4.9)	2698 (100.0)
학년	1학년	131 (11.3)	137 (11.8)	280 (24.1)	84 (7.2)	230 (19.8)	42 (3.6)	9 (.8)	7 (.6)	27 (2.3)	75 (6.4)	73 (6.3)	69 (5.9)	1164 (100.0)
	2학년	222 (14.6)	167 (11.0)	269 (17.7)	117 (7.7)	322 (21.2)	58 (3.8)	9 (.6)	12 (.8)	64 (4.2)	108 (7.1)	72 (4.7)	96 (6.3)	1516 (100.0)
	3학년	236 (14.8)	160 (10.0)	267 (16.7)	103 (6.4)	305 (19.1)	55 (3.4)	12 (.8)	12 (.8)	86 (5.4)	131 (8.2)	121 (7.6)	112 (7.0)	1600 (100.0)
	4학년	122 (12.7)	100 (10.4)	140 (14.6)	54 (5.6)	196 (20.5)	25 (2.6)	12 (1.3)	9 (.9)	57 (5.9)	68 (7.1)	91 (9.5)	84 (8.8)	958 (100.0)
	5학년이상	16 (18.2)	14 (15.9)	5 (5.7)	7 (8.0)	14 (15.9)	11 (12.5)	3 (3.4)	0 (.0)	1 (1.1)	5 (5.7)	7 (8.0)	5 (5.7)	88 (100.0)

소속대학	인문	85 (18.2)	41 (8.8)	68 (14.6)	26 (5.6)	91 (19.5)	5 (1.1)	2 (.4)	2 (.4)	44 (9.4)	28 (6.0)	37 (7.9)	37 (7.9)	466 (100.0)
	사회과학	65 (15.6)	29 (7.0)	87 (20.9)	38 (9.1)	68 (16.3)	8 (1.9)	9 (2.2)	3 (.7)	30 (7.2)	23 (5.5)	25 (6.0)	31 (7.5)	416 (100.0)
	경상	134 (14.9)	103 (11.5)	155 (17.3)	68 (7.6)	187 (20.8)	29 (3.2)	11 (1.2)	3 (.3)	48 (5.3)	51 (5.7)	75 (8.4)	34 (3.8)	898 (100.0)
	사범	55 (15.8)	24 (6.9)	70 (20.1)	21 (6.0)	99 (28.4)	21 (6.0)	0 (.0)	1 (.3)	9 (2.6)	22 (6.3)	7 (2.0)	19 (5.5)	348 (100.0)
	간호	10 (6.5)	9 (5.8)	40 (26.0)	18 (11.7)	28 (18.2)	32 (20.8)	0 (.0)	0 (.0)	0 (.0)	5 (3.2)	4 (2.6)	8 (5.2)	154 (100.0)
	해양과학	82 (15.5)	96 (18.2)	58 (11.0)	32 (6.1)	68 (12.9)	18 (3.4)	8 (1.5)	3 (.6)	26 (4.9)	53 (10.0)	29 (5.5)	55 (10.4)	528 (100.0)
	자연과학	96 (13.8)	78 (11.2)	131 (18.8)	47 (6.8)	137 (19.7)	9 (1.3)	4 (.6)	10 (1.4)	29 (4.2)	65 (9.3)	58 (8.3)	32 (4.6)	696 (100.0)
	공과	116 (14.1)	109 (13.3)	137 (16.7)	45 (5.5)	161 (19.6)	21 (2.6)	3 (.4)	7 (.9)	13 (1.6)	73 (8.9)	63 (7.7)	72 (8.8)	820 (100.0)
	교육	22 (7.8)	12 (4.3)	97 (34.4)	19 (6.7)	68 (24.1)	8 (2.8)	1 (.4)	5 (1.8)	7 (2.5)	4 (1.4)	21 (7.4)	18 (6.4)	282 (100.0)
	수의과	11 (6.7)	16 (9.8)	15 (9.1)	16 (9.8)	27 (16.5)	28 (17.1)	2 (1.2)	2 (1.2)	1 (.6)	17 (10.4)	10 (6.1)	19 (11.6)	164 (100.0)
	생명지입과학	44 (13.9)	35 (11.1)	45 (14.2)	17 (5.4)	63 (19.9)	11 (3.5)	5 (1.6)	3 (.9)	17 (5.4)	27 (8.5)	25 (7.9)	24 (7.6)	316 (100.0)
	예술디자인	7 (2.9)	26 (10.9)	58 (24.4)	18 (7.6)	70 (29.4)	1 (.4)	0 (.0)	1 (.4)	11 (4.6)	19 (8.0)	10 (4.2)	17 (7.1)	238 (100.0)
	전체	727 (13.7)	578 (10.9)	961 (18.0)	365 (6.9)	1067 (20.0)	191 (3.6)	45 (.8)	40 (.8)	235 (4.4)	387 (7.3)	364 (6.8)	366 (6.9)	5326 (100.0)

<표 3-20><그림 20>과 같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 이유는 ‘할일에 비해 시간부족’ 20.0%, ‘과중한 과제물’ 18.0%,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13.7%, ‘노력에 비해 낮은 성적’ 10.9%, ‘엄격한 상대평가 제도’와 ‘기타’ 각 6.9%, ‘전공이 취업에 도움 안 됨’ 4.4%, ‘잡은 퀴즈와 시험’ 3.6%, ‘도서관 열람실 부족’ 0.8%, ‘도서관 전공 자료의 부족’ 0.8%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업 부담 이유는 ‘과중한 과제물’, ‘할일에 비해 시간부족’에서 ‘여학생’ 20.6%, 22.7%,

‘남학생’ 15.4%, 17.3%로 각각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학업 부담 이유를 살펴보면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은 ‘인문대’ 18.2%, ‘노력에 비해 낮은 성적’은 ‘해양과 학대’ 18.2%, ‘과중한 과제물’은 ‘교육대’ 34.4%, ‘엄격한 상대평가제도’는 ‘간호대’ 11.7%, ‘할 일에 비해 시간부족’은 ‘예술디자인대’ 29.4%, ‘짧은 퀴즈와 시험’은 ‘간호대’ 20.8%,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됨’은 ‘수의과대’ 10.4%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부담 이유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할 일에 비해 시간 부족’이었다. 학생들이 학업 외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앞선 결과에서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부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51.4%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같은 보다 많은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0> 학업 부담 이유

3) 학업(수강) 과정 어려움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학업(수강) 과정 어려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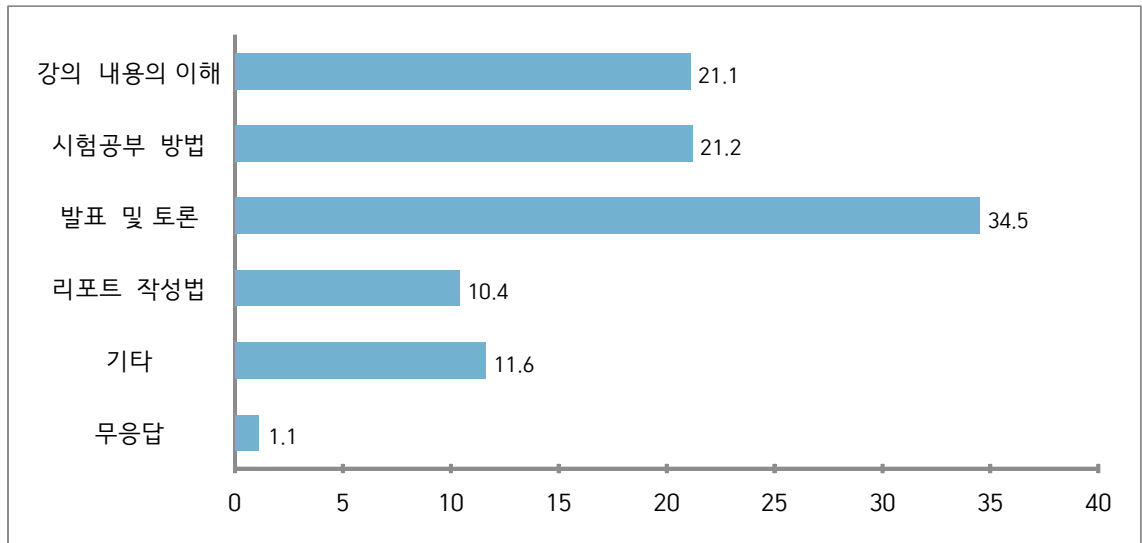
<표 3-21> 학업(수강) 과정 어려움 명(%)

		학업(수강) 과정 어려움					전체	
		강의 내용의 이해	시험공부 방법	발표 및 토론	리포트 작성법	기타		무응답
성 별	남자	309 (23.5)	297 (22.6)	384 (29.2)	135 (10.3)	170 (12.9)	19 (1.4)	1314 (100.0)
	여자	253 (18.8)	267 (19.8)	535 (39.7)	143 (10.6)	140 (10.4)	11 (.8)	1349 (100.0)
학 년	1학년	99 (17.0)	127 (21.8)	204 (35.1)	92 (15.8)	51 (8.8)	9 (1.5)	582 (100.0)
	2학년	198 (26.1)	177 (23.4)	253 (33.4)	65 (8.6)	57 (7.5)	8 (1.1)	758 (100.0)
	3학년	181 (22.6)	153 (19.1)	262 (32.8)	76 (9.5)	120 (15.0)	8 (1.0)	800 (100.0)
	4학년	83 (17.3)	89 (18.6)	185 (38.6)	39 (8.1)	80 (16.7)	3 (.6)	479 (100.0)
	5학년 이상	1 (2.3)	18 (40.9)	15 (34.1)	6 (13.6)	2 (4.5)	2 (4.5)	44 (100.0)

소속대학	인문	41 (17.6)	46 (19.7)	93 (39.9)	24 (10.3)	26 (11.2)	3 (1.3)	233 (100.0)
	사회과학	28 (13.5)	35 (16.8)	85 (40.9)	30 (14.4)	30 (14.4)	0 (.0)	208 (100.0)
	경상	75 (16.7)	95 (21.2)	193 (43.0)	48 (10.7)	37 (8.2)	1 (.2)	449 (100.0)
	사범	43 (24.7)	60 (34.5)	42 (24.1)	14 (8.0)	13 (7.5)	2 (1.1)	174 (100.0)
	간호	16 (20.8)	26 (33.8)	17 (22.1)	9 (11.7)	7 (9.1)	2 (2.6)	77 (100.0)
	해양과학	79 (29.9)	58 (22.0)	80 (30.3)	17 (6.4)	24 (9.1)	6 (2.3)	264 (100.0)
	자연과학	70 (20.1)	65 (18.7)	144 (41.4)	36 (10.3)	28 (8.0)	5 (1.4)	348 (100.0)
	공과	131 (32.0)	88 (21.5)	109 (26.6)	32 (7.8)	45 (11.0)	5 (1.2)	410 (100.0)
	교육	21 (14.9)	11 (7.8)	61 (43.3)	13 (9.2)	34 (24.1)	1 (.7)	141 (100.0)
	수의과	17 (20.7)	34 (41.5)	15 (18.3)	6 (7.3)	9 (11.0)	1 (1.2)	82 (100.0)
	생명자원 과학	31 (19.6)	32 (20.3)	48 (30.4)	29 (18.4)	17 (10.8)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10 (8.4)	14 (11.8)	32 (26.9)	20 (16.8)	40 (33.6)	3 (2.5)	119 (100.0)
	전체	562 (21.1)	564 (21.2)	919 (34.5)	278 (10.4)	310 (11.6)	30 (1.1)	2663 (100.0)

<표 3-21><그림 21>과 같이 학생들의 학업 수강과정 어려움은 ‘발표 및 토론’ 34.5% ‘시험 공부방법’ 21.2%, ‘강의내용 이해’ 21.1%, ‘기타’ 11.6%, 리포트 작성법 10.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업 수강과정 어려움은 ‘발표 및 토론’ 응답한 학생비율이 ‘여학생’ 39.7%, ‘남학생’ 29.2%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학업 수강과정 어려움은 ‘강의내용의 이해’로 응답한 비율이 ‘2,3학년’에서 26.1%, 22.6%로 ‘1,4학년’에서는 17.0%,

17.3%으로 나타났고 '5학년 이상'은 2.3%로 응답하여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험공부방법'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는 '5학년 이상' 40.9%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리포트 작성법'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 '1학년' 15.8%, '5학년 이상' 13.6%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학업 수강과정 어려움을 살펴보면 '강의내용 이해'에서는 '공과대' 32.0%, '해양과학대' 29.9%, '시험공부 방법'에서는 '수의과대' 41.5%, '사범대' 34.5%, '간호대' 33.8%, '발표 및 토론'에서는 '교육대' 43.3%, '경상대' 43.0%, '리포트 작성법'에서는 '생명자원과학대' 18.4%, '예술디자인대' 16.8%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표 및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발표나 토론보다는 주입식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주장할 수 있는 논리력과 발표력 향상의 프로그램 등이 요구된다.



<그림 21> 학업(수강) 과정 어려움

6. 진로 관련

1) 졸업 후 진로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22>와 같다.

<표 3-22> 졸업 후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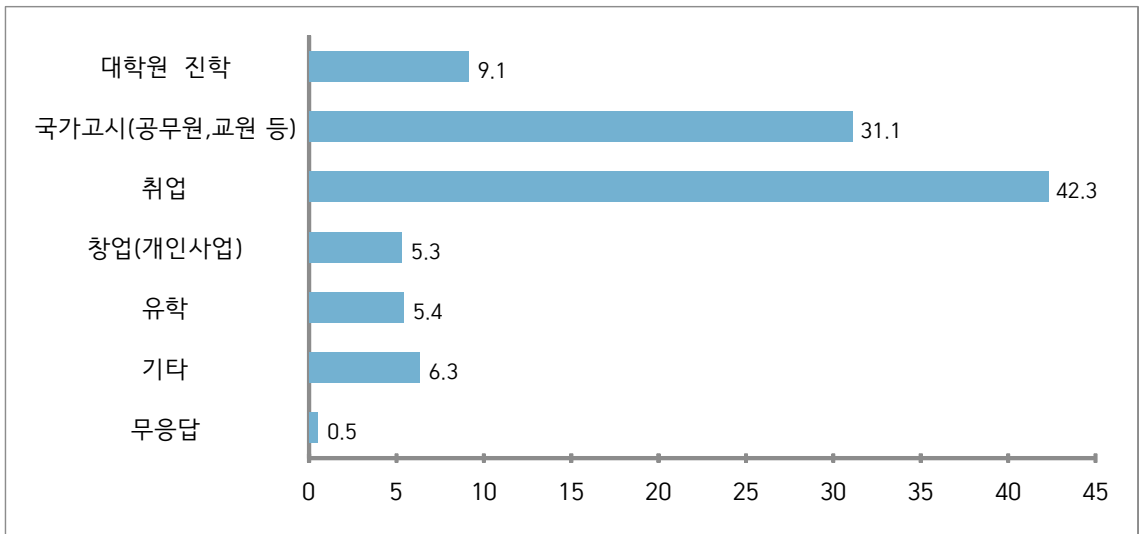
명(%)

		졸업 후 진로						전체	
		대학원 진학	국가 고시 (공무원 , 교원 등)	취업	창업 (개인 사업)	유학	기타		무응답
성 별	남자	106 (8.1)	386 (29.4)	559 (42.5)	95 (7.2)	62 (4.7)	99 (7.5)	7 (.5)	1314 (100.0)
	여자	136 (10.1)	441 (32.7)	567 (42.0)	47 (3.5)	83 (6.2)	69 (5.1)	6 (.4)	1349 (100.0)
학 년	1학년	47 (8.1)	180 (30.9)	254 (43.6)	30 (5.2)	37 (6.4)	33 (5.7)	1 (.2)	582 (100.0)
	2학년	67 (8.8)	242 (31.9)	328 (43.3)	40 (5.3)	35 (4.6)	42 (5.5)	4 (.5)	758 (100.0)
	3학년	73 (9.1)	245 (30.6)	314 (39.3)	47 (5.9)	47 (5.9)	69 (8.6)	5 (.6)	800 (100.0)
	4학년	50 (10.4)	145 (30.3)	217 (45.3)	21 (4.4)	22 (4.6)	22 (4.6)	2 (.4)	479 (100.0)
	5학년 이상	5 (11.4)	15 (34.1)	13 (29.5)	4 (9.1)	4 (9.1)	2 (4.5)	1 (2.3)	44 (100.0)

소속대학	인문	24 (10.3)	62 (26.6)	96 (41.2)	8 (3.4)	19 (8.2)	23 (9.9)	1 (.4)	233 (100.0)
	사회과학	12 (5.8)	95 (45.7)	59 (28.4)	9 (4.3)	11 (5.3)	21 (10.1)	1 (.5)	208 (100.0)
	경상	7 (1.6)	121 (26.9)	258 (57.5)	26 (5.8)	16 (3.6)	21 (4.7)	0 (.0)	449 (100.0)
	사범	4 (2.3)	138 (79.3)	24 (13.8)	2 (1.1)	2 (1.1)	4 (2.3)	0 (.0)	174 (100.0)
	간호	1 (1.3)	18 (23.4)	56 (72.7)	0 (.0)	1 (1.3)	1 (1.3)	0 (.0)	77 (100.0)
	해양과학	27 (10.2)	72 (27.3)	116 (43.9)	17 (6.4)	10 (3.8)	20 (7.6)	2 (.8)	264 (100.0)
	자연과학	53 (15.2)	68 (19.5)	162 (46.6)	20 (5.7)	22 (6.3)	22 (6.3)	1 (.3)	348 (100.0)
	공과	50 (12.2)	61 (14.9)	226 (55.1)	26 (6.3)	25 (6.1)	18 (4.4)	4 (1.0)	410 (100.0)
	교육	4 (2.8)	118 (83.7)	15 (10.6)	0 (.0)	3 (2.1)	0 (.0)	1 (.7)	141 (100.0)
	수학과	9 (11.0)	27 (32.9)	19 (23.2)	10 (12.2)	5 (6.1)	11 (13.4)	1 (1.2)	82 (100.0)
	생명자원 과학	30 (19.0)	36 (22.8)	53 (33.5)	14 (8.9)	10 (6.3)	14 (8.9)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21 (17.6)	11 (9.2)	42 (35.3)	10 (8.4)	21 (17.6)	13 (10.9)	1 (.8)	119 (100.0)
	전체	242 (9.1)	827 (31.1)	1126 (42.3)	142 (5.3)	145 (5.4)	168 (6.3)	13 (.5)	2663 (100.0)

<표 3-22><그림 22>와 같이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서는 ‘취업’ 42.3% ‘국가고시’ 31.1%, ‘대학원 진학’ 9.1%, ‘기타’ 6.3%, ‘유학’ 5.4%, ‘창업’ 5.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졸업 후 진로에서는 ‘5학년 이상’에서 모든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졸업 후 진로를 살펴보면 ‘대학원 진학’에서는 ‘생명자원과학대’ 19.0%, ‘예술디자인대’ 17.6%, ‘국가고시’에서는 ‘교육대’ 83.7%, ‘사범대’ 79.3%, ‘사회과학대’ 45.7%, ‘취업’에서는 ‘간호대’

72.7%, '경상대' 57.5%, '창업'에서는 '수의과대' 12.2%, '유학'에서는 '예술디자인대' 17.6%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취업'을 선택한 학생이 42.3%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으로 경제적 수익활동을 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취업을 유예하고 '국가고시(공무원, 교원 등)', '대학원 진학', '유학' 등의 또 다른 준비과정을 계획하는 학생들도 약 45.6%로 나타났다.



<그림 22> 졸업 후 진로

2) 취업 시 원하는 직종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취업 시 원하는 직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2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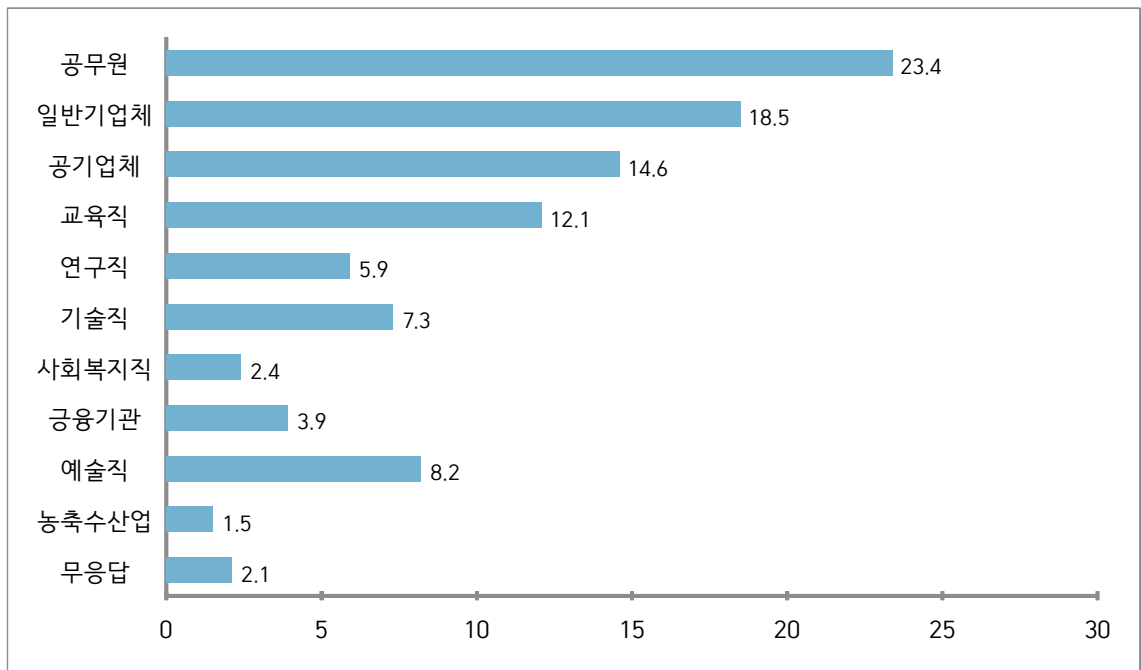
<표 3-23> 취업 시 원하는 직종 명(%)

		취업 시 원하는 직종										전체	
		공무원	일반기업체	공기업체	교육직	연구직	기술직	사회복지직	금융기관	예술직	농축수산업		무응답
성별	남자	304 (23.1)	236 (18.0)	210 (16.0)	120 (9.1)	81 (6.2)	134 (10.2)	16 (1.2)	65 (4.9)	85 (6.5)	30 (2.3)	33 (2.5)	1314 (100.0)
	여자	319 (23.6)	257 (19.1)	179 (13.3)	202 (15.0)	76 (5.6)	61 (4.5)	48 (3.6)	40 (3.0)	133 (9.9)	10 (.7)	24 (1.8)	1349 (100.0)
학년	1학년	140 (24.1)	100 (17.2)	83 (14.3)	75 (12.9)	28 (4.8)	47 (8.1)	11 (1.9)	21 (3.6)	62 (10.7)	5 (.9)	10 (1.7)	582 (100.0)
	2학년	196 (25.9)	118 (15.6)	125 (16.5)	88 (11.6)	46 (6.1)	48 (6.3)	21 (2.8)	36 (4.7)	53 (7.0)	10 (1.3)	17 (2.2)	758 (100.0)
	3학년	175 (21.9)	154 (19.3)	115 (14.4)	99 (12.4)	48 (6.0)	56 (7.0)	16 (2.0)	28 (3.5)	74 (9.3)	10 (1.3)	25 (3.1)	800 (100.0)
	4학년	106 (22.1)	107 (22.3)	62 (12.9)	58 (12.1)	31 (6.5)	38 (7.9)	14 (2.9)	20 (4.2)	28 (5.8)	12 (2.5)	3 (.6)	479 (100.0)
	5학년 이상	6 (13.6)	14 (31.8)	4 (9.1)	2 (4.5)	4 (9.1)	6 (13.6)	2 (4.5)	0 (.0)	1 (2.3)	3 (6.8)	2 (4.5)	44 (100.0)

소속대학	인문	60 (25.8)	55 (23.6)	27 (11.6)	32 (13.7)	6 (2.6)	6 (2.6)	4 (1.7)	10 (4.3)	30 (12.9)	0 (.0)	3 (1.3)	233 (100.0)
	사회과학	98 (47.1)	38 (18.3)	33 (15.9)	9 (4.3)	3 (1.4)	2 (1.0)	6 (2.9)	5 (2.4)	14 (6.7)	0 (.0)	0 (.0)	208 (100.0)
	경상	94 (20.9)	156 (34.7)	89 (19.8)	11 (2.4)	4 (.9)	10 (2.2)	3 (.7)	61 (13.6)	18 (4.0)	2 (.4)	1 (.2)	449 (100.0)
	사범	61 (35.1)	10 (5.7)	6 (3.4)	91 (52.3)	1 (.6)	0 (.0)	0 (.0)	1 (.6)	2 (1.1)	0 (.0)	2 (1.1)	174 (100.0)
	간호	20 (26.0)	14 (18.2)	8 (10.4)	1 (1.3)	4 (5.2)	8 (10.4)	16 (20.8)	0 (.0)	0 (.0)	0 (.0)	6 (7.8)	77 (100.0)
	해양과학	93 (35.2)	43 (16.3)	41 (15.5)	7 (2.7)	26 (9.8)	25 (9.5)	7 (2.7)	3 (1.1)	6 (2.3)	2 (.8)	11 (4.2)	264 (100.0)
	자연과학	68 (19.5)	62 (17.8)	38 (10.9)	47 (13.5)	36 (10.3)	21 (6.0)	23 (6.6)	16 (4.6)	32 (9.2)	1 (.3)	4 (1.1)	348 (100.0)
	공과	54 (13.2)	74 (18.0)	113 (27.6)	6 (1.5)	39 (9.5)	80 (19.5)	4 (1.0)	3 (.7)	18 (4.4)	5 (1.2)	14 (3.4)	410 (100.0)
	교육	25 (17.7)	3 (2.1)	0 (.0)	106 (75.2)	0 (.0)	1 (.7)	0 (.0)	0 (.0)	3 (2.1)	0 (.0)	3 (2.1)	141 (100.0)
	수의과	7 (8.5)	8 (9.8)	9 (11.0)	0 (.0)	11 (13.4)	26 (31.7)	0 (.0)	0 (.0)	2 (2.4)	14 (17.1)	5 (6.1)	82 (100.0)
	생명자원과학	30 (19.0)	23 (14.6)	24 (15.2)	8 (5.1)	25 (15.8)	13 (8.2)	0 (.0)	6 (3.8)	8 (5.1)	16 (10.1)	5 (3.2)	158 (100.0)
	예술디자인	13 (10.9)	7 (5.9)	1 (.8)	4 (3.4)	2 (1.7)	3 (2.5)	1 (.8)	0 (.0)	85 (71.4)	0 (.0)	3 (2.5)	119 (100.0)
	전체	623 (23.4)	493 (18.5)	389 (14.6)	322 (12.1)	157 (5.9)	195 (7.3)	64 (2.4)	105 (3.9)	218 (8.2)	40 (1.5)	57 (2.1)	2663 (100.0)

<표 3-23><그림 23>과 같이 학생들의 취업 시 원하는 직종은 ‘공무원’ 23.4% ‘일반 기업체’ 18.5%, ‘공기업체’ 14.6%, ‘교육직’ 12.1%, ‘예술직’ 8.2%, ‘기술직’ 7.3%, ‘연구직’ 5.9%, ‘금융기관’ 3.9%, ‘사회복지’ 2.4%, ‘농축산업’ 1.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취업 시 원하는 직종에서는 ‘교육직’에서 ‘여학생’이 15.0%로 ‘남학생’ 9.1%보다 높게 나타났고, ‘기술직’에서 ‘여학생’이 4.5%로 ‘남학생’ 10.2%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취업 시 원하는

직종에서는 '5학년 이상'에서 모든 유형에 차이가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취업 시 원하는 직종을 살펴보면 '공무원'에서는 '사회과학대' 47.1%, '해양과학대' 35.2%, '사범대' 35.1%, '일반기업체'에서는 '경상대' 34.7%, '인문대' 23.6%, '공기업체'에서는 '공과대' 27.6%, '경상대' 19.8%, '교육직'에서는 '교육대' 75.2%, '사범대' 52.3%, '예술직'에서는 '예술디자인' 71.4%, '인문대' 12.9%, '자연과학대' 9.2%, '기술직'에서는 '수의과대' 31.7%, '공과대' 19.5%, '연구직'에서는 '생명자원과학대' 15.8%, '금융기관'에서는 '경상대' 13.6%, '사회복지직'에서는 '간호대' 20.8%, '농축산업'에서는 '수의과대' 17.1%, '생명자원과학대' 10.1%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공무원 23.4%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직종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저학년부터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림 23> 취업 시 원하는 직종

3) 원하는 진로와 현재 전공 관련성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원하는 진로와 현재 전공 관련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2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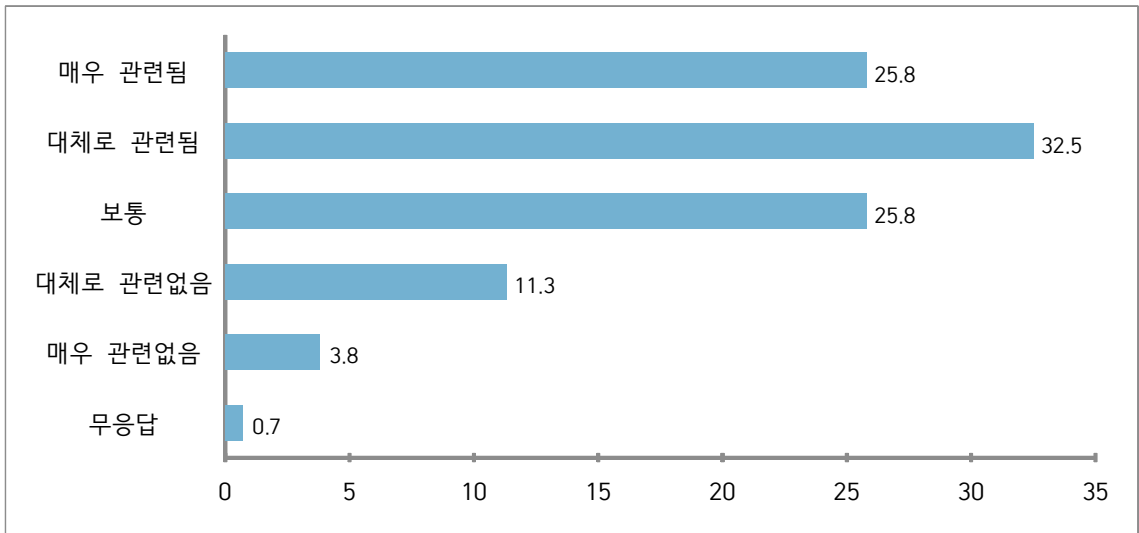
<표 3-24> 원하는 진로와 현재전공 관련성 명(%)

		원하는 진로와 현재전공 관련성					전체	
		매우 관련됨	대체로 관련됨	보통	대체로 관련없음	매우 관련없음		무응답
성 별	남자	318 (24.2)	429 (32.6)	352 (26.8)	155 (11.8)	50 (3.8)	10 (.8)	1314 (100.0)
	여자	370 (27.4)	436 (32.3)	336 (24.9)	146 (10.8)	52 (3.9)	9 (.7)	1349 (100.0)
학 년	1학년	145 (24.9)	208 (35.7)	151 (25.9)	60 (10.3)	15 (2.6)	3 (.5)	582 (100.0)
	2학년	198 (26.1)	231 (30.5)	213 (28.1)	80 (10.6)	32 (4.2)	4 (.5)	758 (100.0)
	3학년	204 (25.5)	248 (31.0)	203 (25.4)	102 (12.8)	33 (4.1)	10 (1.3)	800 (100.0)
	4학년	131 (27.3)	159 (33.2)	111 (23.2)	55 (11.5)	22 (4.6)	1 (.2)	479 (100.0)
	5학년 이상	10 (22.7)	19 (43.2)	10 (22.7)	4 (9.1)	0 (.0)	1 (2.3)	44 (100.0)

소속대학	인문	26 (11.2)	58 (24.9)	88 (37.8)	48 (20.6)	12 (5.2)	1 (.4)	233 (100.0)
	사회과학	39 (18.8)	69 (33.2)	54 (26.0)	39 (18.8)	7 (3.4)	0 (.0)	208 (100.0)
	경상	54 (12.0)	172 (38.3)	146 (32.5)	59 (13.1)	18 (4.0)	0 (.0)	449 (100.0)
	사범	78 (44.8)	48 (27.6)	25 (14.4)	16 (9.2)	7 (4.0)	0 (.0)	174 (100.0)
	간호	50 (64.9)	19 (24.7)	6 (7.8)	0 (.0)	2 (2.6)	0 (.0)	77 (100.0)
	해양과학	46 (17.4)	78 (29.5)	88 (33.3)	32 (12.1)	15 (5.7)	5 (1.9)	264 (100.0)
	자연과학	67 (19.3)	127 (36.5)	88 (25.3)	42 (12.1)	21 (6.0)	3 (.9)	348 (100.0)
	공과	107 (26.1)	157 (38.3)	93 (22.7)	38 (9.3)	10 (2.4)	5 (1.2)	410 (100.0)
	교육	103 (73.0)	18 (12.8)	17 (12.1)	1 (.7)	1 (.7)	1 (.7)	141 (100.0)
	수의과	50 (61.0)	20 (24.4)	10 (12.2)	2 (2.4)	0 (.0)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29 (18.4)	54 (34.2)	44 (27.8)	21 (13.3)	8 (5.1)	2 (1.3)	158 (100.0)
	예술 디자인	39 (32.8)	45 (37.8)	29 (24.4)	3 (2.5)	1 (.8)	2 (1.7)	119 (100.0)
	전체	688 (25.8)	865 (32.5)	688 (25.8)	301 (11.3)	102 (3.8)	19 (.7)	2663 (100.0)

<표 3-24><그림 24>와 같이 학생들의 원하는 진로와 현재 전공 관련성은 ‘매우 관련됨’과 ‘대체로 관련됨’이 약 58.3%, ‘보통’ 25.8% ‘대체로 관련 없음’과 ‘매우 관련 없음’은 약 15.1%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원하는 진로와 현재 전공 관련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관련됨’ 이상 에서는 ‘간호대’ 89.6%, ‘교육대’ 85.8%, ‘수의과대’ 85.4%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관련 없음’이하 에서는 ‘인문대’ 25.8%, ‘사회과학대’ 22.2%로 타 단과대학보

다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5.1%의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현재 전공의 관련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는 전공 선택 또는 전공 선택 후 진로의 변경과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공 외 직업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24> 원하는 진로와 현재 전공 관련성

4) 직업 선택 기준(다중응답)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직업 선택 기준을 두 가지 선택하는 다중응답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는 <표 3-2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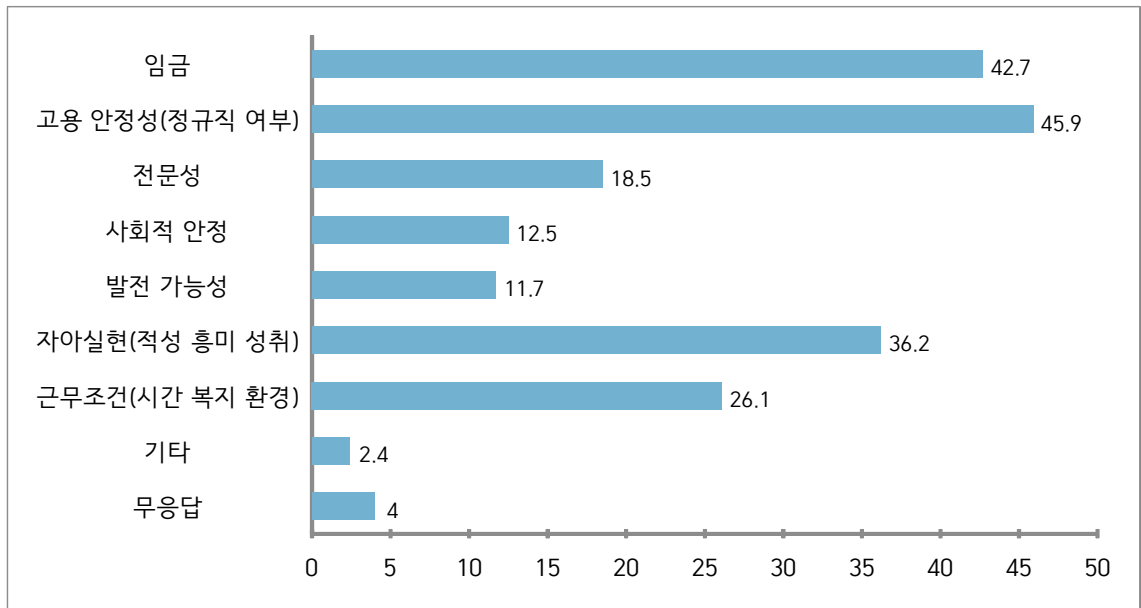
<표 3-25> 직업 선택 기준 명(%)

		직업 선택 기준								전체	
		임금	고용 안정성 (정규 직 여부)	전문성	사회 적 안정	발전 가능 성	자아 실현성 (적성, 흥미, 성취)	근무 조건 (시간, 복지, 환경)	기타	무응답	
성별	남자	543 (20.7)	576 (21.9)	256 (9.7)	163 (6.2)	191 (7.3)	465 (17.7)	331 (12.6)	34 (1.3)	69 (2.6)	2628 (100.0)
	여자	593 (22.0)	647 (24.0)	236 (8.7)	171 (6.3)	121 (4.5)	498 (18.5)	364 (13.5)	30 (1.1)	38 (1.4)	2698 (100.0)
학년	1 학년	254 (21.8)	273 (23.5)	118 (10.1)	84 (7.2)	53 (4.6)	207 (17.8)	145 (12.5)	16 (1.4)	14 (1.2)	1164 (100.0)
	2 학년	321 (21.2)	342 (22.6)	119 (7.8)	93 (6.1)	96 (6.3)	286 (18.9)	204 (13.5)	18 (1.2)	37 (2.4)	1516 (100.0)
	3 학년	328 (20.5)	368 (23.0)	145 (9.1)	93 (5.8)	91 (5.7)	302 (18.9)	211 (13.2)	23 (1.4)	39 (2.4)	1600 (100.0)
	4 학년	212 (22.1)	212 (22.1)	100 (10.4)	62 (6.5)	67 (7.0)	159 (16.6)	124 (12.9)	7 (.7)	15 (1.6)	958 (100.0)
	5 학년 이상	21 (23.9)	28 (31.8)	10 (11.4)	2 (2.3)	5 (5.7)	9 (10.2)	11 (12.5)	0 (.0)	2 (2.3)	88 (100.0)

소속대학	인문	115 (24.7)	97 (20.8)	36 (7.7)	31 (6.7)	27 (5.8)	93 (20.0)	56 (12.0)	7 (1.5)	4 (.9)	466 (100.0)
	사회과학	76 (18.3)	107 (25.7)	27 (6.5)	41 (9.9)	18 (4.3)	81 (19.5)	56 (13.5)	2 (.5)	8 (1.9)	416 (100.0)
	경상	227 (25.3)	221 (24.6)	51 (5.7)	55 (6.1)	67 (7.5)	151 (16.8)	105 (11.7)	11 (1.2)	10 (1.1)	898 (100.0)
	사범	47 (13.5)	115 (33.0)	16 (4.6)	30 (8.6)	12 (3.4)	74 (21.3)	47 (13.5)	3 (.9)	4 (1.1)	348 (100.0)
	간호	40 (26.0)	33 (21.4)	23 (14.9)	4 (2.6)	2 (1.3)	21 (13.6)	27 (17.5)	2 (1.3)	2 (1.3)	154 (100.0)
	해양과학	116 (22.0)	135 (25.6)	68 (12.9)	31 (5.9)	34 (6.4)	63 (11.9)	51 (9.7)	8 (1.5)	22 (4.2)	528 (100.0)
	자연과학	145 (20.8)	139 (20.0)	56 (8.0)	36 (5.2)	37 (5.3)	153 (22.0)	115 (16.5)	7 (1.0)	8 (1.1)	696 (100.0)
	공과	189 (23.0)	186 (22.7)	91 (11.1)	40 (4.9)	50 (6.1)	119 (14.5)	118 (14.4)	7 (.9)	20 (2.4)	820 (100.0)
	교육	29 (10.3)	87 (30.9)	22 (7.8)	26 (9.2)	7 (2.5)	62 (22.0)	39 (13.8)	3 (1.1)	7 (2.5)	282 (100.0)
	수의과	45 (27.4)	17 (10.4)	35 (21.3)	9 (5.5)	9 (5.5)	22 (13.4)	19 (11.6)	4 (2.4)	4 (2.4)	164 (100.0)
	생명자원과학	66 (20.9)	59 (18.7)	40 (12.7)	18 (5.7)	32 (10.1)	54 (17.1)	31 (9.8)	6 (1.9)	10 (3.2)	316 (100.0)
	예술디자인	41 (17.2)	27 (11.3)	27 (11.3)	13 (5.5)	17 (7.1)	70 (29.4)	31 (13.0)	4 (1.7)	8 (3.4)	238 (100.0)
	전체	1136 (21.3)	1223 (23.0)	492 (9.2)	334 (6.3)	312 (5.9)	963 (18.1)	695 (13.0)	64 (1.2)	107 (2.0)	5326 (100.0)

<표 3-25><그림 25>와 같이 학생들의 직업선택 기준은 ‘고용안정성’ 23.0%, ‘임금’ 21.3%, ‘자아실현’ 18.1%, ‘근무조건’ 13.0%, ‘전문성’ 9.2%, ‘사회적 안정성’ 6.3%, ‘발전가능성’ 5.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직업선택 기준은 ‘발전가능성’은 ‘남학생’ 7.3%, ‘여학생’ 4.5%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직업선택기준을 살펴보면 ‘임금’은 ‘수의과대’ 27.4%, ‘고용 안정성’은 ‘사범대’ 33.0%, ‘전문성’은 ‘수의과대’ 21.3%, ‘사회적 안

정성'은 '사회과학대' 9.9%, '발전 가능성'은 '생명자원과학대' 10.1%, '자아실현'은 '예술디자인' 29.4%, '근무조건'은 '간호대' 17.5%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선택기준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삶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고용 안정성(정규직 여부)', '임금', '자아실현(적성, 흥미, 성취)', '근무조건(시간, 복지, 환경)' 등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개인적 이득과 사회적 이득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공공성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그림 25> 직업 선택 기준

7. 교육환경 관련

1) 강의시설(강의실, 기자재 등) 만족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강의시설(강의실, 기자재 등)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2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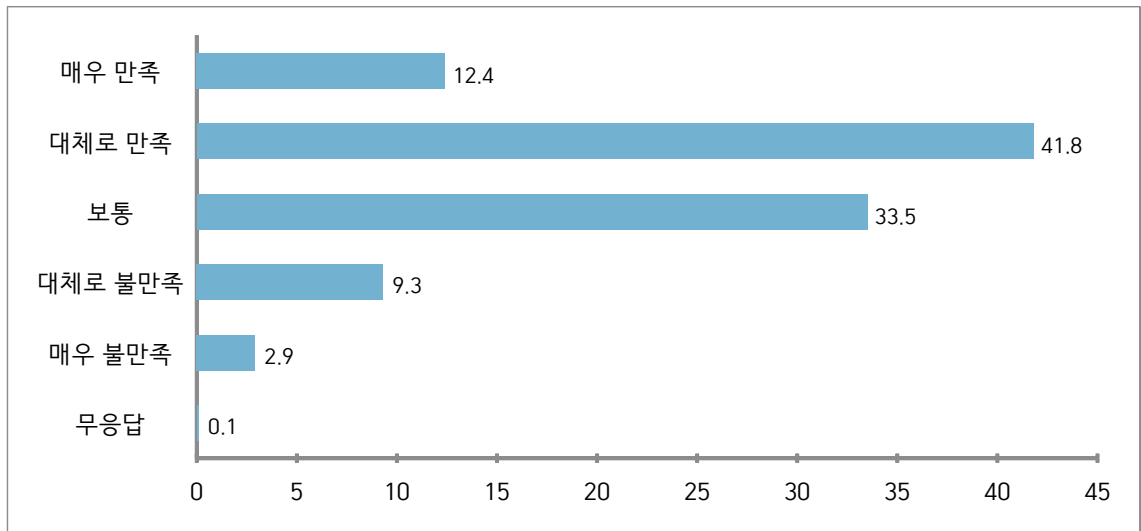
<표 3-26> 강의시설(강의실, 기자재 등) 만족도 명(%)

		강의시설(강의실, 기자재 등) 만족도					전체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성별	남자	215 (16.4)	590 (44.9)	384 (29.2)	87 (6.6)	38 (2.9)	0 (.0)	1314 (100.0)
	여자	115 (8.5)	523 (38.8)	509 (37.7)	160 (11.9)	39 (2.9)	3 (.2)	1349 (100.0)
학년	1학년	71 (12.2)	274 (47.1)	190 (32.6)	40 (6.9)	7 (1.2)	0 (.0)	582 (100.0)
	2학년	87 (11.5)	328 (43.3)	247 (32.6)	69 (9.1)	26 (3.4)	1 (.1)	758 (100.0)
	3학년	101 (12.6)	301 (37.6)	273 (34.1)	92 (11.5)	31 (3.9)	2 (.3)	800 (100.0)
	4학년	64 (13.4)	193 (40.3)	168 (35.1)	41 (8.6)	13 (2.7)	0 (.0)	479 (100.0)
	5학년	7 (15.9)	17 (38.6)	15 (34.1)	5 (11.4)	0 (.0)	0 (.0)	44 (100.0)
	이상							

소속대학	인문	40 (17.2)	102 (43.8)	79 (33.9)	11 (4.7)	1 (.4)	0 (.0)	233 (100.0)
	사회과학	15 (7.2)	73 (35.1)	87 (41.8)	29 (13.9)	4 (1.9)	0 (.0)	208 (100.0)
	경상	37 (8.2)	199 (44.3)	164 (36.5)	46 (10.2)	3 (.7)	0 (.0)	449 (100.0)
	사범	26 (14.9)	78 (44.8)	54 (31.0)	14 (8.0)	2 (1.1)	0 (.0)	174 (100.0)
	간호	15 (19.5)	51 (66.2)	6 (7.8)	3 (3.9)	2 (2.6)	0 (.0)	77 (100.0)
	해양과학	37 (14.0)	108 (40.9)	88 (33.3)	13 (4.9)	17 (6.4)	1 (.4)	264 (100.0)
	자연과학	19 (5.5)	117 (33.6)	134 (38.5)	58 (16.7)	19 (5.5)	1 (.3)	348 (100.0)
	공과	81 (19.8)	197 (48.0)	102 (24.9)	20 (4.9)	10 (2.4)	0 (.0)	410 (100.0)
	교육	19 (13.5)	52 (36.9)	59 (41.8)	11 (7.8)	0 (.0)	0 (.0)	141 (100.0)
	수의과	6 (7.3)	35 (42.7)	26 (31.7)	10 (12.2)	5 (6.1)	0 (.0)	82 (100.0)
	생명자원과학	28 (17.7)	73 (46.2)	47 (29.7)	9 (5.7)	1 (.6)	0 (.0)	158 (100.0)
	예술디자인	7 (5.9)	28 (23.5)	47 (39.5)	23 (19.3)	13 (10.9)	1 (.8)	119 (100.0)
	전체	330 (12.4)	1113 (41.8)	893 (33.5)	247 (9.3)	77 (2.9)	3 (.1)	2663 (100.0)

<표 3-26><그림 26>과 같이 학생들의 강의시설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약 54.2%이고 '보통' 33.5%,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약 12.2%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강의시설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61.3%, '여학생' 47.3%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한 비율에서는 '남학생' 9.5%, '여학생' 14.8%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강의시설 만족도

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1학년'에서는 59.3%로 응답하여 강의시설 만족도가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 비율에서도 '1학년' 8.1%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강의시설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 비율이 '간호대' 85.7%, '공과대' 67.8%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 비율은 '예술디자인' 30.2%, '자연과학대' 22.2%, '수의과대' 18.3%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강의시설(강의실,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2%의 학생들은 '강의시설(강의실, 기자재 등)'에 대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세밀한 연구로 학과별로 불만족의 원인을 찾고 학과 특성에 맞는 강의시설(강의실, 기자재 등) 보완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 26> 강의시설(강의실, 기자재 등) 만족도

2) 도서관 및 학습시설 만족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도서관 및 학습시설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2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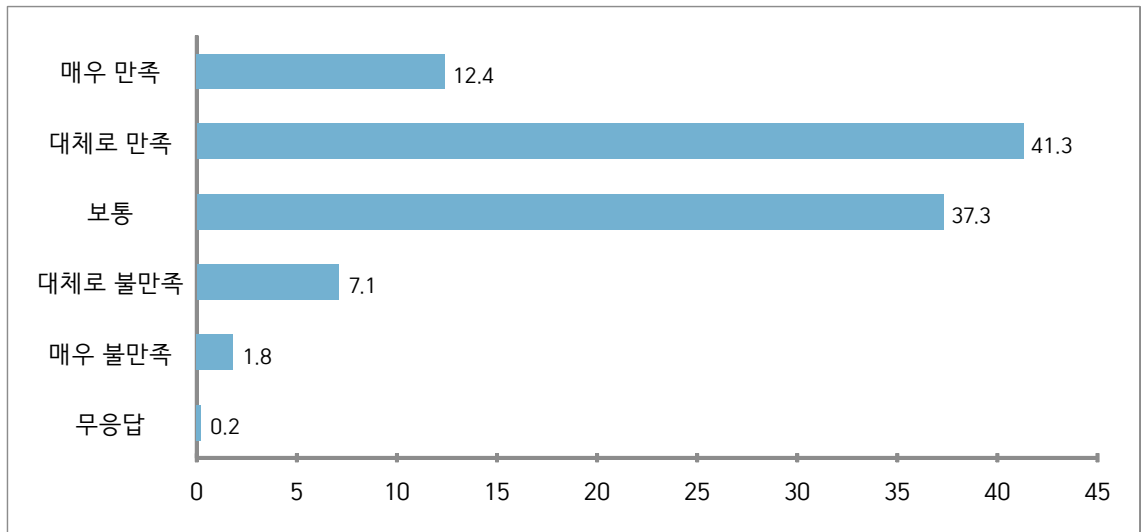
<표 3-27> 도서관 및 학습시설 만족도 명(%)

		도서관 및 학습시설 만족도					전체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성별	남자	214 (16.3)	565 (43.0)	436 (33.2)	74 (5.6)	25 (1.9)	0 (.0)	1314 (100.0)
	여자	115 (8.5)	534 (39.6)	557 (41.3)	115 (8.5)	24 (1.8)	4 (.3)	1349 (100.0)
학년	1학년	78 (13.4)	262 (45.0)	210 (36.1)	28 (4.8)	4 (.7)	0 (.0)	582 (100.0)
	2학년	87 (11.5)	328 (43.3)	271 (35.8)	59 (7.8)	12 (1.6)	1 (.1)	758 (100.0)
	3학년	100 (12.5)	301 (37.6)	314 (39.3)	65 (8.1)	18 (2.3)	2 (.3)	800 (100.0)
	4학년	58 (12.1)	191 (39.9)	183 (38.2)	32 (6.7)	14 (2.9)	1 (.2)	479 (100.0)
	5학년 이상	6 (13.6)	17 (38.6)	15 (34.1)	5 (11.4)	1 (2.3)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30 (12.9)	100 (42.9)	91 (39.1)	10 (4.3)	2 (.9)	0 (.0)	233 (100.0)
	사회과학	21 (10.1)	75 (36.1)	83 (39.9)	22 (10.6)	7 (3.4)	0 (.0)	208 (100.0)
	경상	49 (10.9)	194 (43.2)	167 (37.2)	33 (7.3)	6 (1.3)	0 (.0)	449 (100.0)
	사범	27 (15.5)	85 (48.9)	50 (28.7)	11 (6.3)	1 (.6)	0 (.0)	174 (100.0)
	간호	5 (6.5)	42 (54.5)	20 (26.0)	7 (9.1)	3 (3.9)	0 (.0)	77 (100.0)
	해양과학	34 (12.9)	102 (38.6)	110 (41.7)	14 (5.3)	3 (1.1)	1 (.4)	264 (100.0)
	자연과학	22 (6.3)	142 (40.8)	142 (40.8)	34 (9.8)	7 (2.0)	1 (.3)	348 (100.0)
	공과	77 (18.8)	179 (43.7)	123 (30.0)	20 (4.9)	11 (2.7)	0 (.0)	410 (100.0)
	교육	23 (16.3)	40 (28.4)	61 (43.3)	13 (9.2)	4 (2.8)	0 (.0)	141 (100.0)
	수의과	8 (9.8)	30 (36.6)	35 (42.7)	7 (8.5)	2 (2.4)	0 (.0)	82 (100.0)
	생명자원과학	28 (17.7)	67 (42.4)	56 (35.4)	5 (3.2)	1 (.6)	1 (.6)	158 (100.0)
	예술디자인	5 (4.2)	43 (36.1)	55 (46.2)	13 (10.9)	2 (1.7)	1 (.8)	119 (100.0)
	전체	329 (12.4)	1099 (41.3)	993 (37.3)	189 (7.1)	49 (1.8)	4 (.2)	2663 (100.0)

<표 3-27><그림 27>과 같이 학생들의 도서관 및 학습시설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약 53.7%이고 ‘보통’ 37.3%,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약 8.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도서관 및 학습시설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59.3%, ‘여학생’ 48.1%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도서관 및 학습시설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1학년’에서 58.4%로 응답하여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 비율에서도 ‘1학년’ 5.5%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도서관 및 학습시설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사범대’ 64.4%, ‘공과대’ 62.5%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한 비율은 ‘사회과학대’ 14.0%, ‘간호대’ 13.0%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서관 및 학습시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한 응답이 8.9%로 나타났으나 이는 중앙도서관 증축이 완료되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7> 도서관 및 학습시설 만족도

3) 학생복지 시설 만족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학생복지 시설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2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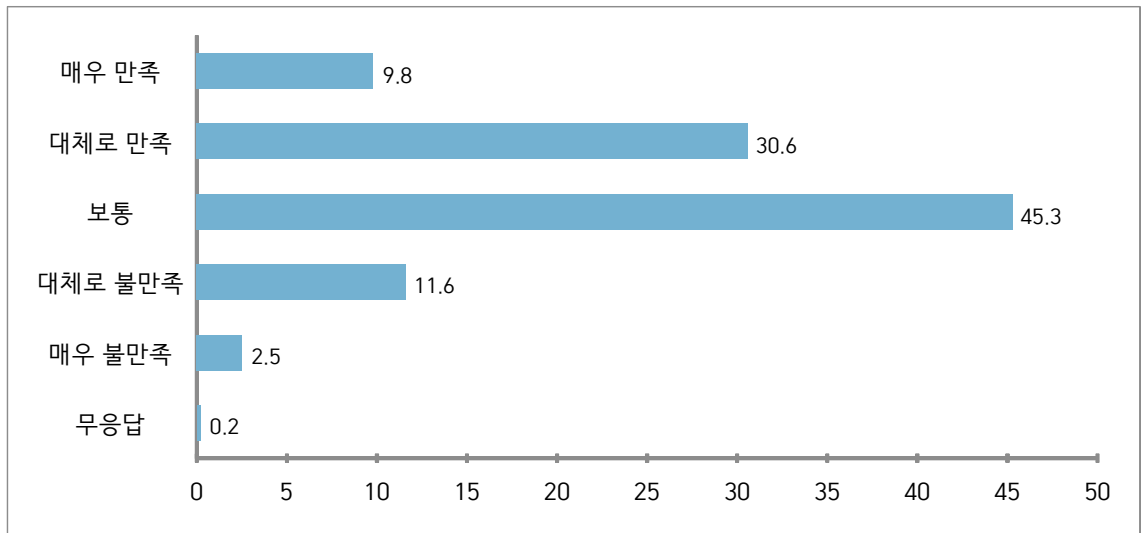
<표 3-28> 학생복지 시설 만족도 명(%)

		학생복지 시설 만족도					전체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성별	남자	173 (13.2)	444 (33.8)	531 (40.4)	129 (9.8)	36 (2.7)	1 (.1)	1314 (100.0)
	여자	87 (6.4)	372 (27.6)	676 (50.1)	180 (13.3)	30 (2.2)	4 (.3)	1349 (100.0)
학년	1학년	66 (11.3)	207 (35.6)	254 (43.6)	49 (8.4)	6 (1.0)	0 (.0)	582 (100.0)
	2학년	66 (8.7)	238 (31.4)	345 (45.5)	89 (11.7)	18 (2.4)	2 (.3)	758 (100.0)
	3학년	81 (10.1)	206 (25.8)	376 (47.0)	108 (13.5)	27 (3.4)	2 (.3)	800 (100.0)
	4학년	43 (9.0)	150 (31.3)	212 (44.3)	61 (12.7)	12 (2.5)	1 (.2)	479 (100.0)
	5학년 이상	4 (9.1)	15 (34.1)	20 (45.5)	2 (4.5)	3 (6.8)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25 (10.7)	72 (30.9)	108 (46.4)	24 (10.3)	4 (1.7)	0 (.0)	233 (100.0)
	사회과학	14 (6.7)	54 (26.0)	99 (47.6)	35 (16.8)	6 (2.9)	0 (.0)	208 (100.0)
	경상	33 (7.3)	155 (34.5)	211 (47.0)	45 (10.0)	5 (1.1)	0 (.0)	449 (100.0)
	사범	20 (11.5)	66 (37.9)	64 (36.8)	20 (11.5)	4 (2.3)	0 (.0)	174 (100.0)
	간호	4 (5.2)	23 (29.9)	39 (50.6)	10 (13.0)	1 (1.3)	0 (.0)	77 (100.0)
	해양과학	34 (12.9)	79 (29.9)	122 (46.2)	21 (8.0)	7 (2.7)	1 (.4)	264 (100.0)
	자연과학	19 (5.5)	102 (29.3)	171 (49.1)	46 (13.2)	9 (2.6)	1 (.3)	348 (100.0)
	공과	64 (15.6)	141 (34.4)	167 (40.7)	29 (7.1)	9 (2.2)	0 (.0)	410 (100.0)
	교육	15 (10.6)	25 (17.7)	73 (51.8)	25 (17.7)	3 (2.1)	0 (.0)	141 (100.0)
	수의과	3 (3.7)	22 (26.8)	33 (40.2)	17 (20.7)	7 (8.5)	0 (.0)	82 (100.0)
	생명자원과학	26 (16.5)	53 (33.5)	61 (38.6)	12 (7.6)	4 (2.5)	2 (1.3)	158 (100.0)
	예술디자인	3 (2.5)	24 (20.2)	59 (49.6)	25 (21.0)	7 (5.9)	1 (.8)	119 (100.0)
	전체	260 (9.8)	816 (30.6)	1207 (45.3)	309 (11.6)	66 (2.5)	5 (.2)	2663 (100.0)

<표 3-28><그림 28>과 같이 학생복지 시설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약 40.4%이고 ‘보통’ 45.3%,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약 14.1%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생복지 시설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47.0%, ‘여학생’ 34.0%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학생복지 시설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1학년’과 ‘5학년 이상’에서 46.9%, 43.2%로 응답하여 타 학년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 비율에서도 ‘1학년’ 9.4%, ‘5학년 이상’ 11.3%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학생복지 시설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생명자원과학대’ 50.0%, ‘사범대’ 49.4%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한 비율은 ‘수의과대’ 29.2%, ‘예술디자인대’ 26.9%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 학생복지 시설에 대해 보통이거나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했을 때 여학생의 만족도는 남학생에 비해 13.0%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을 위한 학생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남·여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생복지시설의 제공이 요구된다.



<그림 28> 학생복지 시설 만족도

4) 장학금 제도 만족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장학금 제도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2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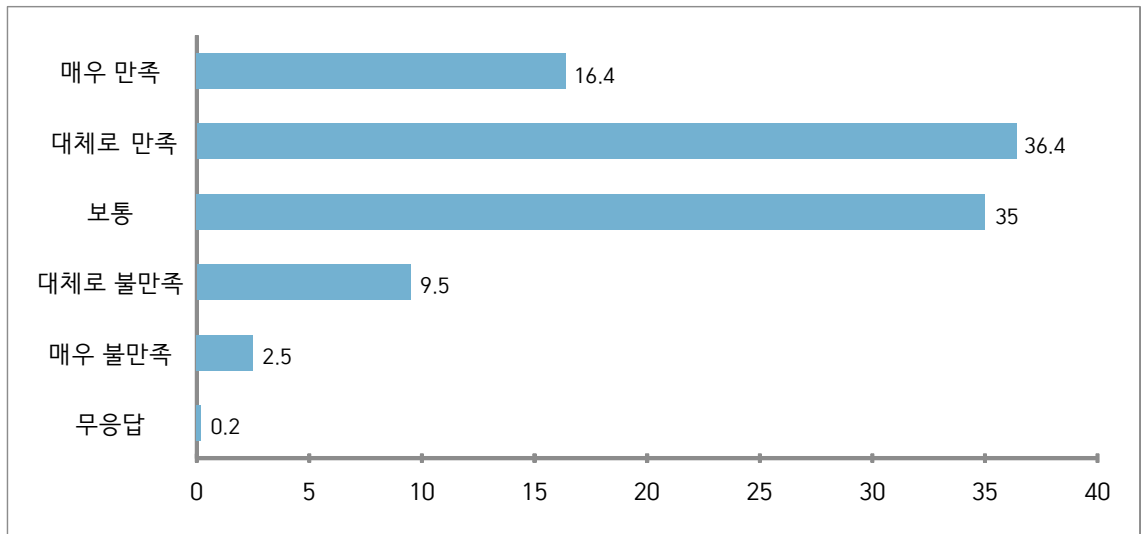
<표 3-29> 장학금 제도 만족도 명(%)

		장학금 제도 만족도					전체	
		매우 만족	대체로만족	보통	대체로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성별	남자	269 (20.5)	474 (36.1)	425 (32.3)	106 (8.1)	38 (2.9)	2 (.2)	1314 (100.0)
	여자	169 (12.5)	495 (36.7)	507 (37.6)	146 (10.8)	28 (2.1)	4 (.3)	1349 (100.0)
학년	1학년	103 (17.7)	221 (38.0)	199 (34.2)	46 (7.9)	13 (2.2)	0 (.0)	582 (100.0)
	2학년	134 (17.7)	287 (37.9)	248 (32.7)	72 (9.5)	14 (1.8)	3 (.4)	758 (100.0)
	3학년	125 (15.6)	277 (34.6)	292 (36.5)	83 (10.4)	21 (2.6)	2 (.3)	800 (100.0)
	4학년	71 (14.8)	166 (34.7)	177 (37.0)	47 (9.8)	17 (3.5)	1 (.2)	479 (100.0)
	5학년 이상	5 (11.4)	18 (40.9)	16 (36.4)	4 (9.1)	1 (2.3)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31 (13.3)	86 (36.9)	90 (38.6)	22 (9.4)	4 (1.7)	0 (.0)	233 (100.0)
	사회과학	25 (12.0)	57 (27.4)	90 (43.3)	30 (14.4)	6 (2.9)	0 (.0)	208 (100.0)
	경상	75 (16.7)	201 (44.8)	139 (31.0)	29 (6.5)	5 (1.1)	0 (.0)	449 (100.0)
	사범	27 (15.5)	69 (39.7)	55 (31.6)	19 (10.9)	4 (2.3)	0 (.0)	174 (100.0)
	간호	11 (14.3)	30 (39.0)	25 (32.5)	10 (13.0)	1 (1.3)	0 (.0)	77 (100.0)
	해양과학	45 (17.0)	96 (36.4)	99 (37.5)	18 (6.8)	5 (1.9)	1 (.4)	264 (100.0)
	자연과학	62 (17.8)	127 (36.5)	115 (33.0)	36 (10.3)	7 (2.0)	1 (.3)	348 (100.0)
	공과	105 (25.6)	148 (36.1)	122 (29.8)	26 (6.3)	9 (2.2)	0 (.0)	410 (100.0)
	교육	14 (9.9)	39 (27.7)	63 (44.7)	20 (14.2)	5 (3.5)	0 (.0)	141 (100.0)
	수의과	5 (6.1)	24 (29.3)	32 (39.0)	15 (18.3)	6 (7.3)	0 (.0)	82 (100.0)
	생명자원과학	31 (19.6)	48 (30.4)	56 (35.4)	16 (10.1)	4 (2.5)	3 (1.9)	158 (100.0)
	예술디자인	7 (5.9)	44 (37.0)	46 (38.7)	11 (9.2)	10 (8.4)	1 (.8)	119 (100.0)
	전체	438 (16.4)	969 (36.4)	932 (35.0)	252 (9.5)	66 (2.5)	6 (.2)	2663 (100.0)

<표 3-29><그림 29>와 같이 학생들의 장학금 제도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약 52.8%이고 ‘보통’ 35.0%,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약 12.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장학금 제도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56.6%, ‘여학생’ 49.2%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장학금 제도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1학년’과 ‘2학년’에서 55.7%, 55.6%로 응답하여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장학금 제도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공과대’ 61.7%, ‘경상대’ 61.5%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한 비율은 ‘수의과대’ 25.6%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학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학과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몇몇 학과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반면 장학금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도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학업에 열중 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그림 29> 장학금 제도 만족도

5) 취업지원 제도 만족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취업지원 제도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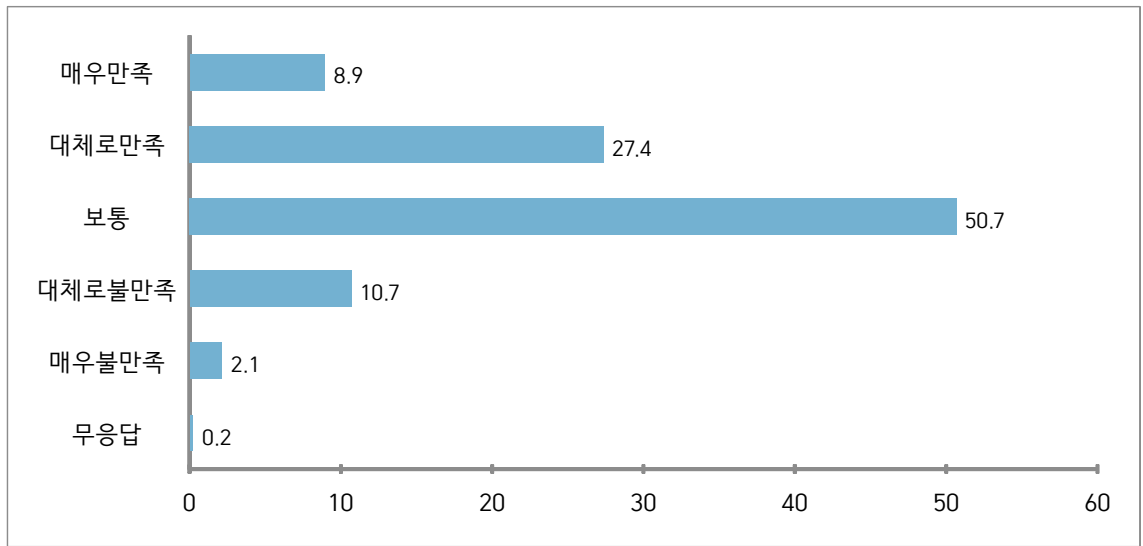
<표 3-30> 취업지원 제도 만족도 명(%)

		취업지원 제도 만족도					전체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성별	남자	152 (11.6)	400 (30.4)	602 (45.8)	129 (9.8)	29 (2.2)	2 (.2)	1314 (100.0)
	여자	84 (6.2)	329 (24.4)	747 (55.4)	157 (11.6)	28 (2.1)	4 (.3)	1349 (100.0)
학년	1학년	55 (9.5)	154 (26.5)	319 (54.8)	47 (8.1)	6 (1.0)	1 (.2)	582 (100.0)
	2학년	69 (9.1)	228 (30.1)	358 (47.2)	86 (11.3)	15 (2.0)	2 (.3)	758 (100.0)
	3학년	69 (8.6)	207 (25.9)	411 (51.4)	95 (11.9)	16 (2.0)	2 (.3)	800 (100.0)
	4학년	38 (7.9)	130 (27.1)	237 (49.5)	56 (11.7)	17 (3.5)	1 (.2)	479 (100.0)
	5학년 이상	5 (11.4)	10 (22.7)	24 (54.5)	2 (4.5)	3 (6.8)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23 (9.9)	50 (21.5)	126 (54.1)	28 (12.0)	5 (2.1)	1 (.4)	233 (100.0)
	사회과학	14 (6.7)	49 (23.6)	102 (49.0)	39 (18.8)	4 (1.9)	0 (.0)	208 (100.0)
	경상	27 (6.0)	153 (34.1)	221 (49.2)	43 (9.6)	5 (1.1)	0 (.0)	449 (100.0)
	사범	13 (7.5)	42 (24.1)	94 (54.0)	22 (12.6)	3 (1.7)	0 (.0)	174 (100.0)
	간호	4 (5.2)	21 (27.3)	43 (55.8)	8 (10.4)	1 (1.3)	0 (.0)	77 (100.0)
	해양과학	30 (11.4)	78 (29.5)	132 (50.0)	17 (6.4)	6 (2.3)	1 (.4)	264 (100.0)
	자연과학	16 (4.6)	83 (23.9)	188 (54.0)	48 (13.8)	12 (3.4)	1 (.3)	348 (100.0)
	공과	59 (14.4)	138 (33.7)	182 (44.4)	27 (6.6)	4 (1.0)	0 (.0)	410 (100.0)
	교육	21 (14.9)	35 (24.8)	74 (52.5)	9 (6.4)	2 (1.4)	0 (.0)	141 (100.0)
	수의과	2 (2.4)	16 (19.5)	53 (64.6)	6 (7.3)	5 (6.1)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22 (13.9)	47 (29.7)	66 (41.8)	18 (11.4)	3 (1.9)	2 (1.3)	158 (100.0)
	예술 디자인	5 (4.2)	17 (14.3)	68 (57.1)	21 (17.6)	7 (5.9)	1 (.8)	119 (100.0)
	전체	236 (8.9)	729 (27.4)	1349 (50.7)	286 (10.7)	57 (2.1)	6 (.2)	2663 (100.0)

<표 3-30><그림 30>과 같이 학생들의 취업지원 제도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약 36.3%이고 ‘보통’ 50.7%,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약 12.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취업지원 제도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42.0%, ‘여학생’ 30.6%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취업지원 제도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2학년’ 39.2%로 응답하여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단과대학별 취업지원 제도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공과대’ 48.1%, ‘생명자원과학대’ 43.6%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한 비율은 ‘예술디자인대’ 23.5%, ‘사회과학대’ 20.7%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1.4% 높게 나타났다. 열악한 여성고용 현실을 고려하여 더욱 다양한 커리어개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등이 요구된다.



<그림 30> 취업지원 제도 만족도

8. 학생상담센터 관련

1) 학생상담센터 위치 인지여부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학생상담센터 위치 인지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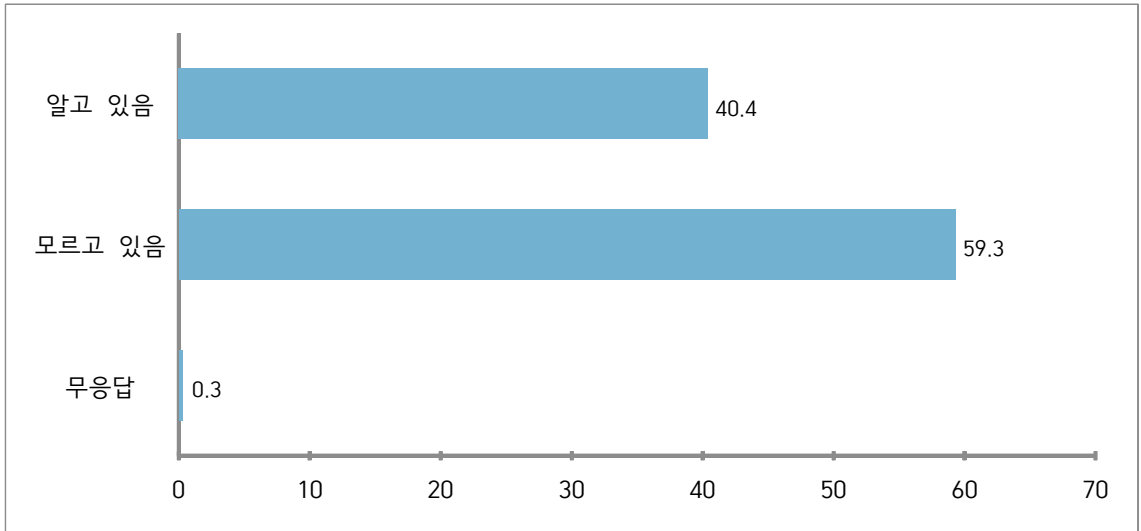
<표 3-31> 학생상담센터 위치 인지여부 명(%)

		학생상담센터 위치 인지여부			전체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무응답	
성별	남자	551 (41.9)	759 (57.8)	4 (.3)	1314 (100.0)
	여자	524 (38.8)	820 (60.8)	5 (.4)	1349 (100.0)
학년	1학년	165 (28.4)	415 (71.3)	2 (.3)	582 (100.0)
	2학년	274 (36.1)	482 (63.6)	2 (.3)	758 (100.0)
	3학년	359 (44.9)	436 (54.5)	5 (.6)	800 (100.0)
	4학년	256 (53.4)	223 (46.6)	0 (.0)	479 (100.0)
	5학년이상	21 (47.7)	23 (52.3)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90 (38.6)	143 (61.4)	0 (.0)	233 (100.0)
	사회과학	89 (42.8)	119 (57.2)	0 (.0)	208 (100.0)
	경상	151 (33.6)	298 (66.4)	0 (.0)	449 (100.0)
	사범	87 (50.0)	87 (50.0)	0 (.0)	174 (100.0)
	간호	34 (44.2)	42 (54.5)	1 (1.3)	77 (100.0)
	해양과학	120 (45.5)	143 (54.2)	1 (.4)	264 (100.0)
	자연과학	136 (39.1)	210 (60.3)	2 (.6)	348 (100.0)
	공과	201 (49.0)	209 (51.0)	0 (.0)	410 (100.0)
	교육	30 (21.3)	109 (77.3)	2 (1.4)	141 (100.0)
	수의과	23 (28.0)	59 (72.0)	0 (.0)	82 (100.0)
	생명자원과학	84 (53.2)	73 (46.2)	1 (.6)	158 (100.0)
	예술디자인	30 (25.2)	87 (73.1)	2 (1.7)	119 (100.0)
	전체	1075 (40.4)	1579 (59.3)	9 (.3)	2663 (100.0)

<표 3-31><그림 31>과 같이 학생들의 학생상담센터 시설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음’ 40.4%, ‘모르고 있음’ 59.3%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학생상담센터 위치 인지여부는 ‘1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학생상담센터 위치 인지여부를 살펴보면 ‘생명자원과학대’ 53.2%, ‘사범대’ 50%, ‘공과대’ 49%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상담센터를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상담서비스

필요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권유할 수 있도록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 학생상담센터 위치 인지여부

2) 학생상담센터 이용 의사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학생상담센터 이용 의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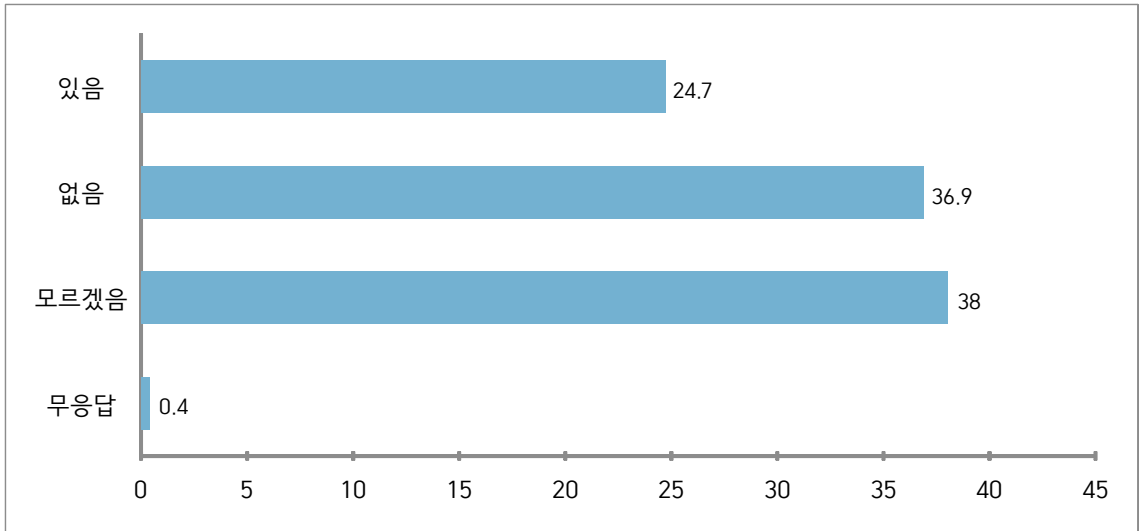
<표 3-32> 학생상담센터 이용 의사 명(%)

	학생상담센터 이용 의사				전체	
	있음	없음	모르겠음	무응답		
성별	남자	348 (26.5)	473 (36.0)	486 (37.0)	7 (.5)	1314 (100.0)
	여자	310 (23.0)	509 (37.7)	527 (39.1)	3 (.2)	1349 (100.0)
학년	1학년	130 (22.3)	194 (33.3)	256 (44.0)	2 (.3)	582 (100.0)
	2학년	181 (23.9)	265 (35.0)	308 (40.6)	4 (.5)	758 (100.0)
	3학년	204 (25.5)	313 (39.1)	280 (35.0)	3 (.4)	800 (100.0)
	4학년	135 (28.2)	182 (38.0)	161 (33.6)	1 (.2)	479 (100.0)
	5학년이상	8 (18.2)	28 (63.6)	8 (18.2)	0 (.0)	44 (100.0)

소속 대학	인문	46 (19.7)	97 (41.6)	90 (38.6)	0 (.0)	233 (100.0)
	사회과학	51 (24.5)	89 (42.8)	68 (32.7)	0 (.0)	208 (100.0)
	경상	119 (26.5)	156 (34.7)	173 (38.5)	1 (.2)	449 (100.0)
	사범	44 (25.3)	69 (39.7)	61 (35.1)	0 (.0)	174 (100.0)
	간호	12 (15.6)	39 (50.6)	25 (32.5)	1 (1.3)	77 (100.0)
	해양과학	87 (33.0)	80 (30.3)	95 (36.0)	2 (.8)	264 (100.0)
	자연과학	86 (24.7)	111 (31.9)	150 (43.1)	1 (.3)	348 (100.0)
	공과	89 (21.7)	156 (38.0)	163 (39.8)	2 (.5)	410 (100.0)
	교육	40 (28.4)	45 (31.9)	56 (39.7)	0 (.0)	141 (100.0)
	수의과	13 (15.9)	47 (57.3)	22 (26.8)	0 (.0)	82 (100.0)
	생명자원과학	52 (32.9)	43 (27.2)	62 (39.2)	1 (.6)	158 (100.0)
	예술디자인	19 (16.0)	50 (42.0)	48 (40.3)	2 (1.7)	119 (100.0)
	전체	658 (24.7)	982 (36.9)	1013 (38.0)	10 (.4)	2663 (100.0)

<표 3-32><그림 32>와 같이 학생상담센터 이용 의사는 ‘모르겠음’ 38.0%, ‘없음’ 36.9%, ‘있음’ 24.7%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학생상담센터 이용의사는 ‘1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학생상담센터 이용의사 에서는 ‘해양과학대’ 33.0%, ‘생명자원과학대’ 32.9%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

생상담센터의 이용의사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고학년의 학생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진출을 앞둔 고학년 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담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어진다.



<그림 32> 학생상담센터 이용의사

3) 학생상담센터 이용의 어려움 이유(다중응답)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학생상담센터 이용의 어려움 이유를 두 가지 선택하는 다중응답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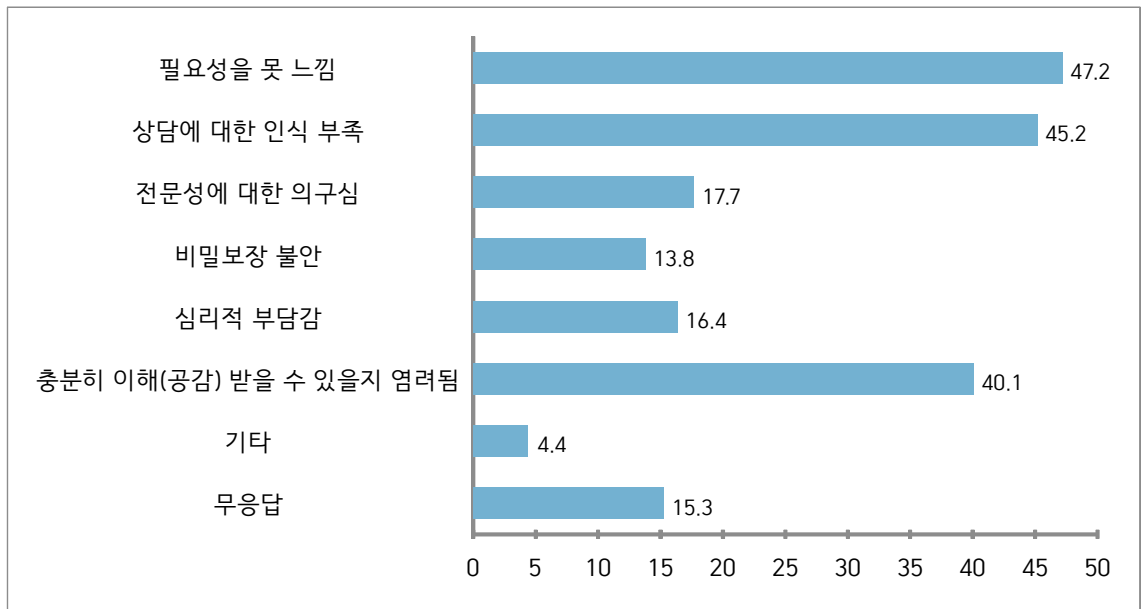
<표 3-33> 학생상담센터 이용의 어려움 이유 명(%)

		학생상담센터 이용의 어려움 이유								전체
		필요성 못느낌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	전문성 에 대하 의구 심	비밀 상 불안	심리 적 부 담 감	충분히 이해 (공간) 받을 수 있 을 지 염 려 됨	기타	무응답	
성 별	남자	690 (26.3)	647 (24.6)	231 (8.8)	110 (4.2)	210 (8.0)	449 (17.1)	50 (1.9)	241 (9.2)	2628 (100.0)
	여자	566 (21.0)	556 (20.6)	240 (8.9)	258 (9.6)	226 (8.4)	618 (22.9)	68 (2.5)	166 (6.2)	2698 (100.0)
학 년	1학년	306 (26.3)	277 (23.8)	80 (6.9)	99 (8.5)	101 (8.7)	211 (18.1)	21 (1.8)	69 (5.9)	1164 (100.0)
	2학년	338 (22.3)	332 (21.9)	133 (8.8)	100 (6.6)	130 (8.6)	330 (21.8)	34 (2.2)	119 (7.8)	1516 (100.0)
	3학년	380 (23.8)	339 (21.2)	139 (8.7)	103 (6.4)	124 (7.8)	335 (20.9)	45 (2.8)	135 (8.4)	1600 (100.0)
	4학년	210 (21.9)	235 (24.5)	107 (11.2)	60 (6.3)	77 (8.0)	180 (18.8)	16 (1.7)	73 (7.6)	958 (100.0)
	5학년 이상	22 (25.0)	20 (22.7)	12 (13.6)	6 (6.8)	4 (4.5)	11 (12.5)	2 (2.3)	11 (12.5)	88 (100.0)

소속대학	인문	109 (23.4)	92 (19.7)	37 (7.9)	39 (8.4)	39 (8.4)	116 (24.9)	8 (1.7)	26 (5.6)	466 (100.0)
	사회과학	101 (24.3)	88 (21.2)	38 (9.1)	33 (7.9)	34 (8.2)	89 (21.4)	5 (1.2)	28 (6.7)	416 (100.0)
	경상	214 (23.8)	228 (25.4)	83 (9.2)	53 (5.9)	71 (7.9)	178 (19.8)	12 (1.3)	59 (6.6)	898 (100.0)
	사범	94 (27.0)	81 (23.3)	24 (6.9)	28 (8.0)	23 (6.6)	66 (19.0)	11 (3.2)	21 (6.0)	348 (100.0)
	간호	37 (24.0)	21 (13.6)	13 (8.4)	19 (12.3)	11 (7.1)	40 (26.0)	1 (.6)	12 (7.8)	154 (100.0)
	해양과학	115 (21.8)	128 (24.2)	54 (10.2)	18 (3.4)	39 (7.4)	88 (16.7)	10 (1.9)	76 (14.4)	528 (100.0)
	자연과학	136 (19.5)	148 (21.3)	66 (9.5)	58 (8.3)	70 (10.1)	162 (23.3)	16 (2.3)	40 (5.7)	696 (100.0)
	공과	208 (25.4)	209 (25.5)	69 (8.4)	44 (5.4)	72 (8.8)	150 (18.3)	14 (1.7)	54 (6.6)	820 (100.0)
	교육	83 (29.4)	58 (20.6)	20 (7.1)	20 (7.1)	20 (7.1)	34 (12.1)	25 (8.9)	22 (7.8)	282 (100.0)
	수의과	47 (28.7)	31 (18.9)	23 (14.0)	10 (6.1)	10 (6.1)	23 (14.0)	2 (1.2)	18 (11.0)	164 (100.0)
	생명자원과학	63 (19.9)	69 (21.8)	22 (7.0)	25 (7.9)	34 (10.8)	62 (19.6)	6 (1.9)	35 (11.1)	316 (100.0)
	예술디자인	49 (20.6)	50 (21.0)	22 (9.2)	21 (8.8)	13 (5.5)	59 (24.8)	8 (3.4)	16 (6.7)	238 (100.0)
	전체	1256 (23.6)	1203 (22.6)	471 (8.8)	368 (6.9)	436 (8.2)	1067 (20.0)	118 (2.2)	407 (7.6)	5326 (100.0)

<표 3-33><그림 33>과 같이 학생들의 학생상담센터 이용의 어려운 이유는 '필요성 못 느낌' 23.6%, '상담에 대한 인식부족' 22.6%, '충분히 이해 받을 수 있을 지' 20.0%,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 8.8%, '심리적 부담감' 8.2%, '비밀 보장' 6.9%, '기타' 2.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생상담센터 이용의 어려운 이유는 '필요성 못 느낌', '상담에 대한 인식부족', '비밀 보장', '충분히 이해 받을 수 있을지'에서 '남학생' 26.3%, 24.6%, 4.2%, 17.1%, '여학

생' 21.0%, 20.6%, 9.6%, 22.9%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학생상담센터 이용의 어려운 이유는 '필요성 못 느낌'에서는 '1학년'과 '5학년 이상'에서는 26.3%, 25.0%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담에 대한 인식부족'에서는 '1학년'과 '4학년'에서 23.8%, 24.5%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에서는 '1학년' 6.9%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5학년 이상' 13.6%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밀 보장'에서는 '1학년' 8.5%로 타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부담감'에서는 '5학년 이상' 4.5%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충분히 이해 받을 수 있을 지'에서는 '5학년 이상' 12.5%, '1학년' 18.1%, '4학년' 18.8%, '3학년' 20.9%, '2학년' 21.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학생상담센터 이용의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필요성을 못 느낌'은 '교육대' 29.4%,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은 '공과대' 25.5%,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은 '수의과대' 14.0%, '비밀 보장'은 '간호대' 12.3%, '심리적 부담감'은 '생명자원과학대' 10.8%, '충분히 이해 받을 수 있을지'은 '간호대' 26.0%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상담센터에 기대하는 바가 많으나 상담에 있어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 충분히 이해 받을 수 있을지 염려됨, 심리적 부담감, 비밀보장에 대한 불안 등으로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원 교육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33> 학생상담센터 이용의 어려움 이유

4) 학생상담센터 이용 경로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학생상담센터 이용 경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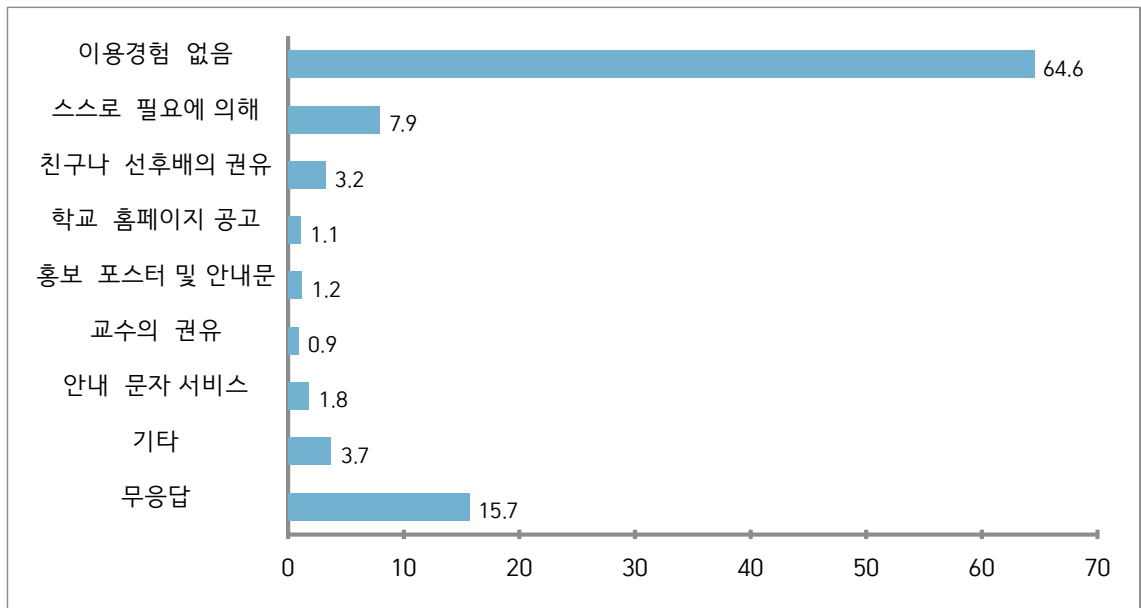
<표 3-34> 학생상담센터 이용 경로 명(%)

		학생상담센터 이용 경로								전체	
		이용 경험 없음	스스 로 필요 에 의해	친구 나 선배의 권유	학교 페지 공지 공고	홍보 포스 터 및 안내 문	교수 의 권유	안내 분자 서비 스	기타	무응 답	
성 별	남자	788 (60.0)	129 (9.8)	45 (3.4)	14 (1.1)	12 (.9)	13 (1.0)	35 (2.7)	61 (4.6)	217 (16.5)	1314 (100.0)
	여자	931 (69.0)	82 (6.1)	41 (3.0)	14 (1.0)	20 (1.5)	12 (.9)	12 (.9)	37 (2.7)	200 (14.8)	1349 (100.0)
학 년	1학년	427 (73.4)	32 (5.5)	10 (1.7)	4 (.7)	6 (1.0)	7 (1.2)	6 (1.0)	16 (2.7)	74 (12.7)	582 (100.0)
	2학년	515 (67.9)	51 (6.7)	20 (2.6)	9 (1.2)	7 (.9)	2 (.3)	15 (2.0)	24 (3.2)	115 (15.2)	758 (100.0)
	3학년	489 (61.1)	65 (8.1)	35 (4.4)	11 (1.4)	9 (1.1)	11 (1.4)	18 (2.3)	40 (5.0)	122 (15.3)	800 (100.0)
	4학년	273 (57.0)	52 (10.9)	18 (3.8)	3 (.6)	9 (1.9)	5 (1.0)	8 (1.7)	17 (3.5)	94 (19.6)	479 (100.0)
	5학년 이상	15 (34.1)	11 (25.0)	3 (6.8)	1 (2.3)	1 (2.3)	0 (.0)	0 (.0)	1 (2.3)	12 (27.3)	44 (100.0)

소속대학	인문	142 (60.9)	11 (4.7)	8 (3.4)	5 (2.1)	2 (.9)	2 (.9)	4 (1.7)	12 (5.2)	47 (20.2)	233 (100.0)
	사회과학	120 (57.7)	17 (8.2)	14 (6.7)	1 (.5)	3 (1.4)	3 (1.4)	3 (1.4)	10 (4.8)	37 (17.8)	208 (100.0)
	경상	356 (79.3)	42 (9.4)	13 (2.9)	3 (.7)	3 (.7)	5 (1.1)	7 (1.6)	13 (2.9)	7 (1.6)	449 (100.0)
	사범	123 (70.7)	11 (6.3)	1 (.6)	2 (1.1)	1 (.6)	1 (.6)	1 (.6)	2 (1.1)	32 (18.4)	174 (100.0)
	간호	48 (62.3)	1 (1.3)	2 (2.6)	0 (.0)	1 (1.3)	0 (.0)	0 (.0)	0 (.0)	25 (32.5)	77 (100.0)
	해양과학	156 (59.1)	36 (13.6)	8 (3.0)	0 (.0)	3 (1.1)	1 (.4)	7 (2.7)	11 (4.2)	42 (15.9)	264 (100.0)
	자연과학	233 (67.0)	20 (5.7)	3 (.9)	5 (1.4)	6 (1.7)	3 (.9)	5 (1.4)	14 (4.0)	59 (17.0)	348 (100.0)
	공과	243 (59.3)	36 (8.8)	20 (4.9)	4 (1.0)	9 (2.2)	4 (1.0)	9 (2.2)	14 (3.4)	71 (17.3)	410 (100.0)
	교육	93 (66.0)	12 (8.5)	3 (2.1)	5 (3.5)	1 (.7)	1 (.7)	2 (1.4)	5 (3.5)	19 (13.5)	141 (100.0)
	수의과	48 (58.5)	7 (8.5)	1 (1.2)	0 (.0)	0 (.0)	1 (1.2)	2 (2.4)	3 (3.7)	20 (24.4)	82 (100.0)
	생명자원과학	78 (49.4)	17 (10.8)	8 (5.1)	2 (1.3)	3 (1.9)	3 (1.9)	7 (4.4)	4 (2.5)	36 (22.8)	158 (100.0)
	예술디자인	79 (66.4)	1 (.8)	5 (4.2)	1 (.8)	0 (.0)	1 (.8)	0 (.0)	10 (8.4)	22 (18.5)	119 (100.0)
	전체	1719 (64.6)	211 (7.9)	86 (3.2)	28 (1.1)	32 (1.2)	25 (.9)	47 (1.8)	98 (3.7)	417 (15.7)	2663 (100.0)

<표 3-34><그림 34>와 같이 학생들의 학생상담센터 이용 경로를 살펴본 결과 ‘이용경험 없음’ 64.6%, ‘스스로에 필요에 의해’ 7.9%, ‘기타’ 3.7%,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 3.2%, ‘안내 문자 서비스’ 1.8%, ‘홍보 포스터 및 안내문’ 1.2%, ‘학교 홈페이지 공고’ 1.1%, ‘교수의 권유’ 0.9%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학생상담센터 이용 경로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5학년 이상’에서 ‘스스로 필요에 의해’와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

에서 25.0%, 6.8%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학생상담센터 이용 경로를 살펴보면 ‘스스로 필요에 의해’에서는 ‘해양과학대’ 13.6%,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에서는 ‘사회과학대’ 6.7%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주로 스스로 필요에 의해 찾아 이용하였고, 그다음으로 타인의 권유 또는 공고나 홍보물을 통해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보완책으로 단과대학과 학과별로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이용안내를 하고 책임지도교수제를 통해서 지도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전문적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상담센터에 적극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담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학생상담센터 이용 경로

5) 최근 주된 고민(다중응답)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최근 주된 고민 두 가지를 선택하는 다중응답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5>와 같다.

<표 3-35> 최근 주된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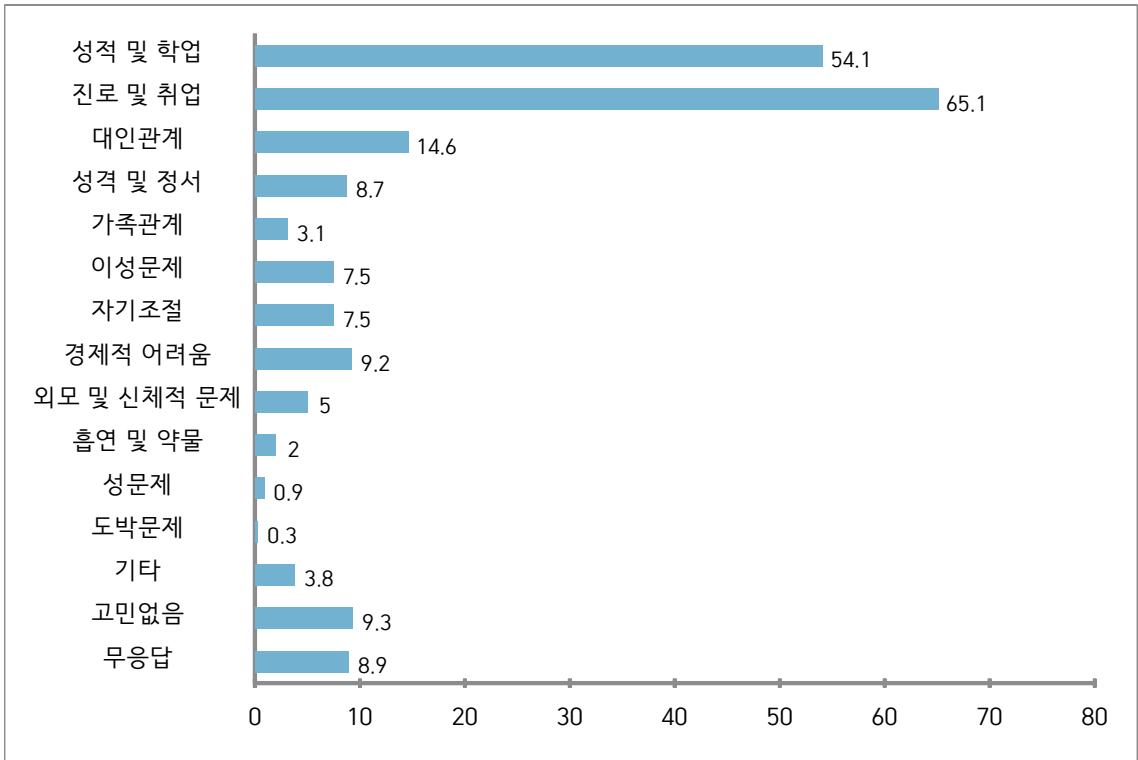
명(%)

		최근 주된 고민															전체
		성적 및 학업	진로 및 취업	대인 관계	성격 및 정서	가족 관계	이성 문제	자기 조절	경제 적 어려움	외모 및 신체 적 문제	흡연 및 약물	성 문제	도박 문제	기타	고민 없음	무 응답	
성별	남자	696 (26.5)	853 (32.5)	183 (7.0)	96 (3.7)	33 (1.3)	122 (4.6)	97 (3.7)	125 (4.8)	35 (1.3)	47 (1.8)	19 (.7)	4 (.2)	58 2(.2)	138 (5.3)	122 (4.6)	2628 (100.0)
	여자	745 (27.6)	881 (32.7)	206 (7.6)	136 (5.0)	49 (1.8)	79 (2.9)	103 (3.8)	119 (4.4)	99 (3.7)	5 (.2)	4 (.1)	3 (.1)	44 (1.6)	109 (4.0)	116 (4.3)	2698 (100.0)
학년	1학년	377 (32.4)	293 (25.2)	94 (8.1)	50 (4.3)	16 (1.4)	57 (4.9)	36 (3.1)	55 (4.7)	32 (2.7)	13 (1.1)	3 (.3)	2 (.2)	25 (2.1)	64 (5.5)	47 (4.0)	1164 (100.0)
	2학년	453 (29.9)	478 (31.5)	122 (8.0)	70 (4.6)	19 (1.3)	58 (3.8)	55 (3.6)	68 (4.5)	45 (3.0)	12 (.8)	7 (.5)	1 (.1)	22 (1.5)	47 (3.1)	59 (3.9)	1516 (100.0)
	3학년	395 (24.7)	573 (35.8)	107 (6.7)	69 (4.3)	23 (1.4)	59 (3.7)	61 (3.8)	73 (4.6)	33 (2.1)	15 (.9)	7 (.4)	2 (.1)	37 (2.3)	72 (4.5)	74 (4.6)	1600 (100.0)
	4학년	196 (20.5)	362 (37.8)	57 (5.9)	39 (4.1)	20 (2.1)	25 (2.6)	44 (4.6)	45 (4.7)	22 (2.3)	11 (1.1)	6 (.6)	2 (.2)	17 (1.8)	59 (6.2)	53 (5.5)	958 (100.0)
	5학년 이상	20 (22.7)	28 (31.8)	9 (10.2)	4 (4.5)	4 (4.5)	2 (2.3)	4 (4.5)	3 (3.4)	2 (2.3)	1 (1.1)	0 (.0)	0 (.0)	1 (1.1)	5 (5.7)	5 (5.7)	88 (100.0)

		최근 주된 고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소속대학	인문	121 (26.0)	166 (35.6)	24 (5.2)	25 (5.4)	4 (.9)	19 (4.1)	14 (3.0)	28 (6.0)	19 (4.1)	1 (.2)	0 (.0)	1 (.2)	7 (1.5)	16 (3.4)
	사회과학	92 (22.1)	154 (37.0)	34 (8.2)	21 (5.0)	4 (1.0)	9 (2.2)	17 (4.1)	18 (4.3)	17 (4.1)	4 (1.0)	1 (.2)	2 (.5)	8 (1.9)	17 (4.1)
	경상	265 (29.5)	327 (36.4)	65 (7.2)	27 (3.0)	4 (.4)	32 (3.6)	25 (2.8)	36 (4.0)	23 (2.6)	11 (1.2)	2 (.2)	0 (.0)	13 (1.4)	44 (4.9)
	사범	106 (30.5)	113 (32.5)	22 (6.3)	11 (3.2)	8 (2.3)	19 (5.5)	8 (2.3)	17 (4.9)	7 (2.0)	1 (.3)	1 (.3)	1 (.3)	6 (1.7)	13 (3.7)
	간호	44 (28.6)	30 (19.5)	16 (10.4)	12 (7.8)	7 (4.5)	5 (3.2)	9 (5.8)	5 (3.2)	5 (3.2)	1 (.6)	0 (.0)	0 (.0)	2 (1.3)	8 (5.2)
	해양과학	136 (25.8)	163 (30.9)	40 (7.6)	12 (2.3)	26 (4.9)	33 (6.3)	23 (4.4)	19 (3.6)	9 (1.7)	11 (2.1)	5 (.9)	1 (.2)	10 (1.9)	15 (2.8)
	자연과학	196 (28.2)	244 (35.1)	54 (7.8)	29 (4.2)	5 (.7)	12 (1.7)	22 (3.2)	35 (5.0)	14 (2.0)	5 (.7)	0 (.0)	0 (.0)	19 (2.7)	37 (5.3)
	공과	251 (30.6)	270 (32.9)	49 (6.0)	37 (4.5)	13 (1.6)	31 (3.8)	32 (3.9)	37 (4.5)	14 (1.7)	9 (1.1)	7 (.9)	2 (.2)	16 (2.0)	28 (3.4)
	교육	41 (14.5)	49 (17.4)	39 (13.8)	27 (9.6)	5 (1.8)	13 (4.6)	16 (5.7)	16 (5.7)	6 (2.1)	0 (.0)	2 (.7)	0 (.0)	8 (2.8)	31 (11.0)
	수의과	38 (23.2)	42 (25.6)	18 (11.0)	10 (6.1)	1 (.6)	9 (5.5)	8 (4.9)	6 (3.7)	1 (.6)	2 (1.2)	1 (.6)	0 (.0)	5 (3.0)	12 (7.3)
	생명자원 과학	94 (29.7)	101 (32.0)	16 (5.1)	6 (1.9)	2 (.6)	12 (3.8)	18 (5.7)	11 (3.5)	12 (3.8)	7 (2.2)	3 (.9)	0 (.0)	6 (1.9)	11 (3.5)
	예술 디자인	57 (23.9)	75 (31.5)	12 (5.0)	15 (6.3)	3 (1.3)	7 (2.9)	8 (3.4)	16 (6.7)	7 (2.9)	0 (.0)	1 (.4)	0 (.0)	2 (.8)	15 (6.3)
	전체	1441 (27.1)	1734 (32.6)	389 (7.3)	232 (4.4)	82 (1.5)	201 (3.8)	200 (3.8)	244 (4.6)	134 (2.5)	52 (1.0)	23 (.4)	7 (.1)	102 (1.9)	247 (4.6)

①성적및학업 ②진로및취업 ③대인관계 ④성격및정서 ⑤가족관계 ⑥이성문제 ⑦자기조절 ⑧경제적어려움 ⑨외모및신체적문제 ⑩흡연및약물 ⑪성문제 ⑫도박문제 ⑬기타 ⑭고민없음 ⑮무응답

<표 3-35><그림 35>와 같이 학생들의 최근 주된 고민은 ‘진로 및 취업’ 32.6%, ‘성적 및 학업’ 27.1%, ‘대인관계’ 7.3%, ‘고민 없음’ 4.6%, ‘경제적 어려움’ 4.6%, ‘성격 및 정서’ 4.4%, ‘이성문제’와 ‘자기조절’이 각 3.8%, ‘외모 및 신체적 문제’ 2.5%, ‘기타’ 1.9%, ‘가족관계’ 1.5%, ‘흡연 및 약물’ 1.0%, ‘성문제’ 0.4%, ‘도박문제’ 0.1%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최근 주된 고민은 ‘외모 및 신체적 문제’에서 ‘여학생’이 3.7%로 ‘남학생’ 1.3%보다 높게 나타났고, ‘흡연과 약물’에서는 ‘남학생’이 1.8%로 ‘여학생’ 0.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최근 주된 고민은 ‘진로 및 취업’에서는 ‘1,2,3,4학년’으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고민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 및 학업’, ‘대인관계’, ‘성격 및 정서’, ‘이성문제’에서는 ‘1,2,3,4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고민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최근 주된 고민을 살펴 보면 ‘성적 및 학업’은 ‘공과대’ 30.6%, ‘진로 및 취업’은 ‘사회과학대’ 37.0%, ‘대인관계’는 ‘교육대’ 13.8%, ‘성격 및 정서’는 ‘교육대’ 9.6%, ‘가족관계’는 ‘해양과학대’ 4.9%, ‘간호대’ 4.5%, ‘이성문제’는 ‘해양과학대’ 6.3%, ‘자기 조절’은 ‘간호대’ 5.8%, ‘경제적 어려움’은 ‘예술디자인대’ 6.7%, ‘외모 및 신체적 문제’는 ‘인문대’와 ‘사회과학대’ 각 4.1%, ‘흡연 및 약물’은 ‘생명자원과학대’ 2.2%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대부분은 ‘진로 및 취업’과 ‘성적 및 학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 외 정서적 어려움도 상당수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일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교내 각 기관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겠다. 이에 학생상담센터가 다양한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찾아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포털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최근 주된 고민

6) 개인적인 고민 의논 상대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개인적인 고민 의논 상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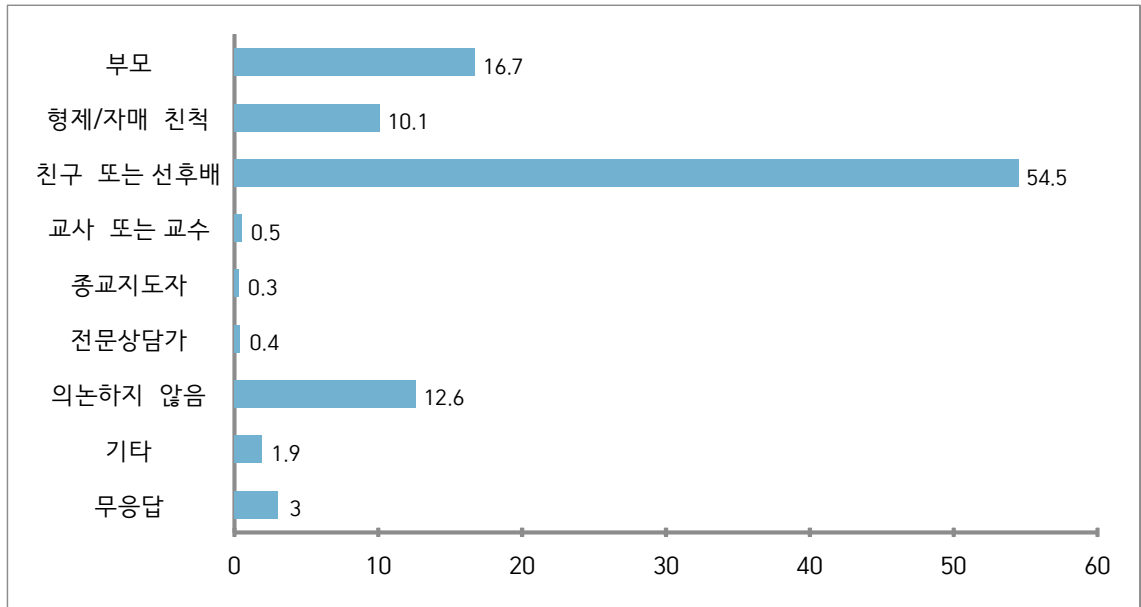
<표 3-36> 개인적인 고민 의논 상대 명(%)

		개인적인 고민 의논 상대									전체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또는 선배	교사 또는 교수	종교 지도 자	전문 상담 가	의논 하지 않음	기타	무 응 답	
성 별	남자	204 (15.5)	110 (8.4)	724 (55.1)	10 (.8)	5 (.4)	9 (.7)	188 (14.3)	24 (1.8)	40 (3.0)	1314 (100.0)
	여자	240 (17.8)	160 (11.9)	728 (54.0)	4 (.3)	2 (.1)	1 (.1)	147 (10.9)	27 (2.0)	40 (3.0)	1349 (100.0)
학 년	1학년	120 (20.6)	49 (8.4)	299 (51.4)	3 (.5)	4 (.7)	2 (.3)	75 (12.9)	12 (2.1)	18 (3.1)	582 (100.0)
	2학년	127 (16.8)	78 (10.3)	417 (55.0)	4 (.5)	1 (.1)	1 (.1)	96 (12.7)	15 (2.0)	19 (2.5)	758 (100.0)
	3학년	117 (14.6)	83 (10.4)	461 (57.6)	1 (.1)	0 (.0)	2 (.3)	92 (11.5)	16 (2.0)	28 (3.5)	800 (100.0)
	4학년	74 (15.4)	51 (10.6)	263 (54.9)	6 (1.3)	2 (.4)	4 (.8)	61 (12.7)	7 (1.5)	11 (2.3)	479 (100.0)
	5학년 이상	6 (13.6)	9 (20.5)	12 (27.3)	0 (.0)	0 (.0)	1 (2.3)	11 (25.0)	1 (2.3)	4 (9.1)	44 (100.0)

소속대학	인문	26 (11.2)	22 (9.4)	138 (59.2)	1 (.4)	1 (.4)	1 (.4)	38 (16.3)	6 (2.6)	0 (.0)	233 (100.0)
	사회과학	28 (13.5)	33 (15.9)	115 (55.3)	0 (.0)	1 (.5)	1 (.5)	28 (13.5)	2 (1.0)	0 (.0)	208 (100.0)
	경상	60 (13.4)	41 (9.1)	294 (65.5)	0 (.0)	0 (.0)	4 (.9)	45 (10.0)	5 (1.1)	0 (.0)	449 (100.0)
	사범	47 (27.0)	13 (7.5)	84 (48.3)	0 (.0)	0 (.0)	0 (.0)	19 (10.9)	3 (1.7)	8 (4.6)	174 (100.0)
	간호	6 (7.8)	11 (14.3)	43 (55.8)	0 (.0)	0 (.0)	1 (1.3)	7 (9.1)	3 (3.9)	6 (7.8)	77 (100.0)
	해양과학	61 (23.1)	34 (12.9)	121 (45.8)	0 (.0)	0 (.0)	1 (.4)	29 (11.0)	5 (1.9)	13 (4.9)	264 (100.0)
	자연과학	63 (18.1)	32 (9.2)	198 (56.9)	1 (.3)	1 (.3)	1 (.3)	39 (11.2)	8 (2.3)	5 (1.4)	348 (100.0)
	공과	61 (14.9)	40 (9.8)	211 (51.5)	7 (1.7)	4 (1.0)	1 (.2)	66 (16.1)	4 (1.0)	16 (3.9)	410 (100.0)
	교육	31 (22.0)	13 (9.2)	70 (49.6)	0 (.0)	0 (.0)	0 (.0)	17 (12.1)	1 (.7)	9 (6.4)	141 (100.0)
	수의과	16 (19.5)	9 (11.0)	39 (47.6)	2 (2.4)	0 (.0)	0 (.0)	10 (12.2)	0 (.0)	6 (7.3)	82 (100.0)
	생명자원과학	27 (17.1)	14 (8.9)	83 (52.5)	1 (.6)	0 (.0)	0 (.0)	15 (9.5)	9 (5.7)	9 (5.7)	158 (100.0)
	예술디자인	18 (15.1)	8 (6.7)	56 (47.1)	2 (1.7)	0 (.0)	0 (.0)	22 (18.5)	5 (4.2)	8 (6.7)	119 (100.0)
	전체	444 (16.7)	270 (10.1)	1452 (54.5)	14 (.5)	7 (.3)	10 (.4)	335 (12.6)	51 (1.9)	80 (3.0)	2663 (100.0)

<표 3-36><그림 36>과 같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고민 의논 상대는 ‘친구 또는 선후배’ 54.5%, ‘부모’ 16.7%, ‘의논하지 않음’ 12.6%, ‘형제/자매/친척’ 10.1%, ‘교사 또는 교수’ 0.5%, ‘전문상담가’ 0.4%, ‘종교지도자’ 0.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개인적인 고민 의논 상대는 ‘5학년 이상’에서 ‘형제/자매/친척’ 20.5%, ‘의논하지 않음’ 25.0%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개인적인 고민 의논 상대를 살펴보면 ‘부모’에서는 ‘사범대’

27.0%, '형제/자매/친척'에서는 '사회과학대' 15.9%, '친구 또는 선후배'에서는 '경상대' 65.5%, '의논하지 않음'에서는 '예술디자인대' 18.5%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의논 상대로 '친구 또는 선·후배'를 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에서도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차적인 문제해결의 조력자로 친구와 선·후배를 또래상담자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개인적인 고민 의논 상대

7) 원하는 프로그램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원하는 프로그램(상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7><표 3-38><표 3-39>와 같다.

<표 3-37> 개인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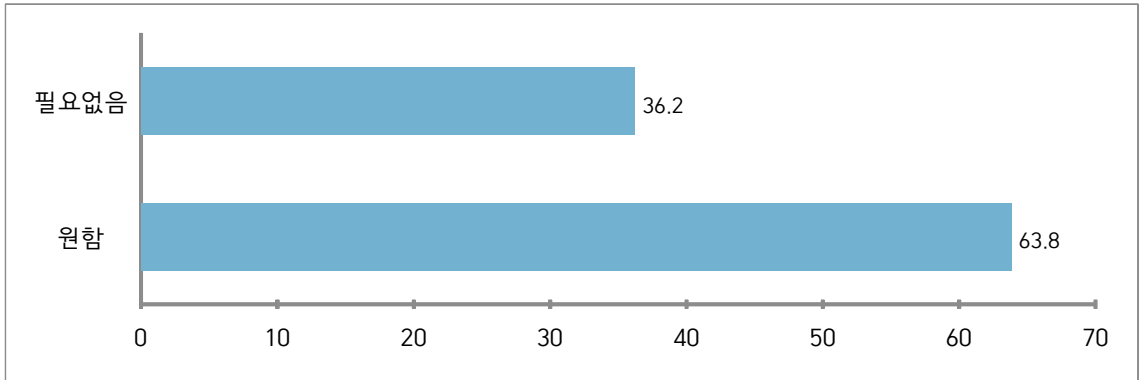
명(%)

		개인상담		전체
		필요 없음	원함	
성별	남자	441 (33.6)	873 (66.4)	1314 (100.0)
	여자	524 (38.8)	825 (61.2)	1349 (100.0)
학년	1학년	211 (36.3)	371 (63.7)	582 (100.0)
	2학년	285 (37.6)	473 (62.4)	758 (100.0)
	3학년	288 (36.0)	512 (64.0)	800 (100.0)
	4학년	159 (33.2)	320 (66.8)	479 (100.0)
	5학년이상	22 (50.0)	22 (50.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82 (35.2)	151 (64.8)	233 (100.0)
	사회과학	77 (37.0)	131 (63.0)	208 (100.0)
	경상	156 (34.7)	293 (65.3)	449 (100.0)
	사범	68 (39.1)	106 (60.9)	174 (100.0)
	간호	23 (29.9)	54 (70.1)	77 (100.0)
	해양과학	95 (36.0)	169 (64.0)	264 (100.0)
	자연과학	110 (31.6)	238 (68.4)	348 (100.0)
	공과	156 (38.0)	254 (62.0)	410 (100.0)
	교육	47 (33.3)	94 (66.7)	141 (100.0)
	수의과	39 (47.6)	43 (52.4)	82 (100.0)
	생명자원과학	60 (38.0)	98 (62.0)	158 (100.0)
	예술디자인	52 (43.7)	67 (56.3)	119 (100.0)
	전체	965 (36.2)	1698 (63.8)	2663 (100.0)

<표 3-37><그림 37>과 같이 학생들의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개인상담의 필요성 유무는 '필요 없음' 36.2%, '원함' 63.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개인상담의 필요성 유무는 '남학생' 66.4%로 '여학생' 61.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개인상담의 필요성 유무는 '5학년 이상'에서 '원함' 50%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개인상담의 필요성 유무를 살펴보면

‘원함’에서는 ‘간호대’ 70.1%, ‘자연과학대’ 68.4%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많은 수의 학생들은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전문적인 개인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인력의 확충 및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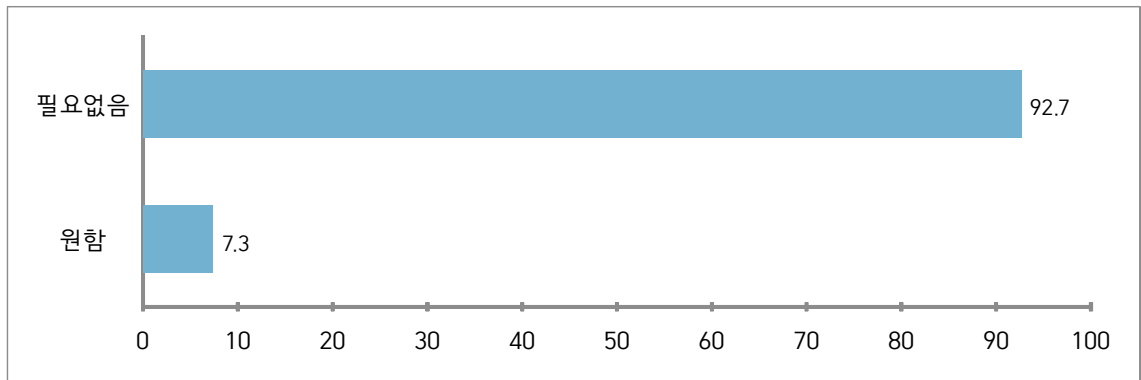
<그림 37> 개인상담

<표 3-38> 집단상담

명(%)

		집단상담		전체
		필요 없음	원함	
성별	남자	1210 (92.1)	104 (7.9)	1314 (100.0)
	여자	1259 (93.3)	90 (6.7)	1349 (100.0)
학년	1학년	549 (94.3)	33 (5.7)	582 (100.0)
	2학년	705 (93.0)	53 (7.0)	758 (100.0)
	3학년	737 (92.1)	63 (7.9)	800 (100.0)
	4학년	448 (93.5)	31 (6.5)	479 (100.0)
	5학년이상	30 (68.2)	14 (31.8)	44 (100.0)
소속 대학	인문	214 (91.8)	19 (8.2)	233 (100)
	사회과학	191 (91.8)	17 (8.2)	208 (100.0)
	경상	429 (95.5)	20 (4.5)	449 (100.0)
	사범	159 (91.4)	15 (8.6)	174 (100.0)
	간호	74 (96.1)	3 (3.9)	77 (100.0)
	해양과학	240 (90.9)	24 (9.1)	264 (100.0)
	자연과학	328 (94.3)	20 (5.7)	348 (100.0)
	공과	381 (92.9)	29 (7.1)	410 (100.0)
	교육	127 (90.1)	14 (9.9)	141 (100.0)
	수 의 과	72 (87.8)	10 (12.2)	82 (100.0)
	생명자원과학	139 (88.0)	19 (12.0)	158 (100.0)
	예술디자인	115 (96.6)	4 (3.4)	119 (100.0)
	전체	2469 (92.7)	194 (7.3)	2663 (100.0)

<표 3-38><그림 38>과 같이 학생들의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집단상담의 필요성 유무는 '필요 없음' 92.7%, '원함' 7.3%로 나타났다. 학년별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집단상담의 필요성 유무는 '5학년 이상'에서 '원함' 31.8%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 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집단상담의 필요성 유무를 살펴보면 '원함'에서는 '수의과대' 12.2%, '생명자원과학대' 12.0%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생 상담센터에 기대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상담을 꼽았지만, 반면 집단상담에 대한 필요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상담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인식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집단상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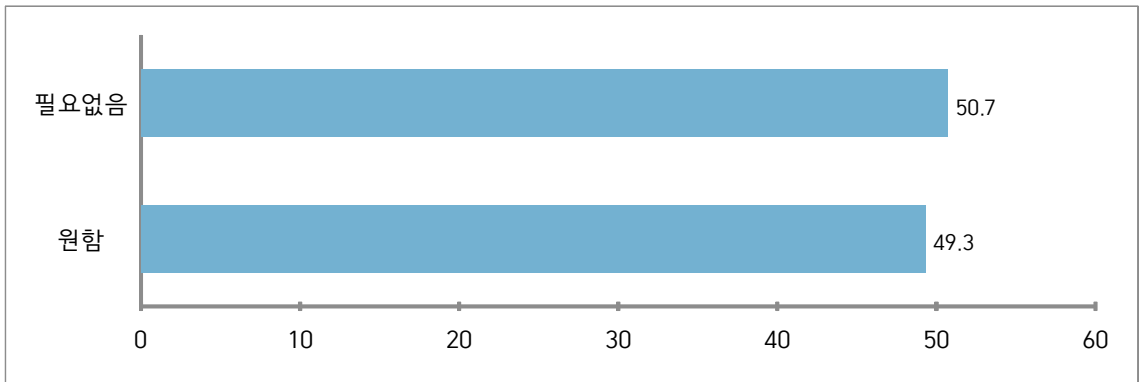
<그림 38> 집단상담

<표 3-39> 심리검사

명(%)

		심리검사		전체
		필요 없음	필요함	
성별	남자	744 (56.6)	570 (43.4)	1314 (100.0)
	여자	607 (45.0)	742 (55.0)	1349 (100.0)
학년	1학년	288 (49.5)	294 (50.5)	582 (100.0)
	2학년	361 (47.6)	397 (52.4)	758 (100.0)
	3학년	414 (51.8)	386 (48.3)	800 (100.0)
	4학년	256 (53.4)	223 (46.6)	479 (100.0)
	5학년이상	32 (72.7)	12 (27.3)	44 (100.0)
소속대 학	인문	118 (50.6)	115 (49.4)	233 (100.0)
	사회과학	103 (49.5)	105 (50.5)	208 (100.0)
	경상	218 (48.6)	231 (51.4)	449 (100.0)
	사범	88 (50.6)	86 (49.4)	174 (100.0)
	간호	28 (36.4)	49 (63.6)	77 (100.0)
	해양과학	153 (58.0)	111 (42.0)	264 (100.0)
	자연과학	159 (45.7)	189 (54.3)	348 (100.0)
	공과	224 (54.6)	186 (45.4)	410 (100.0)
	교육	81 (57.4)	60 (42.6)	141 (100.0)
	수의과	43 (52.4)	39 (47.6)	82 (100.0)
	생명자원과학	83 (52.5)	75 (47.5)	158 (100.0)
	예술디자인	53 (44.5)	66 (55.5)	119 (100.0)
	전체	1351 (50.7)	1312 (49.3)	2663 (100.0)

<표 3-39><그림 39>와 같이 학생들의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심리검사의 필요성 유무는 '필요 없음' 50.7%, '필요함' 49.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남학생' 43.4%, '여학생' 55.0%로 여학생의 심리검사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심리검사의 필요성 유무는 '5학년 이상'에서 '필요함' 27.3%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심리검사의 필요성 유무를 살펴보면 '필요함'에서는 '간호대' 63.6%, '예술디자인대' 55.5%, '자연과학대' 54.3%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약 50%에 가까운 학생들이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또한 체계적인 심리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림 39> 심리검사

8) 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특강/교육 주제(다중응답)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원하는 특강/교육 주제 중 두 가지를 선택하는 다중응답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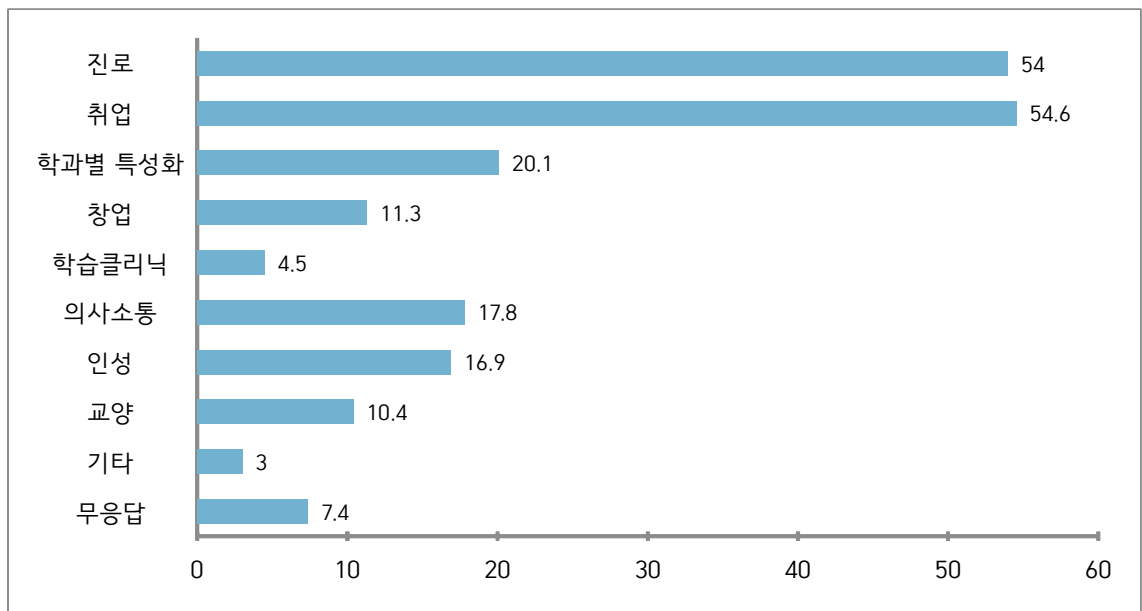
<표 3-40> 원하는 특강/교육 주제 명(%)

		원하는 특강/교육 주제										
		진로	취업	학과 별 특성 화	창업	학습 클리 닉	의사 소통	인성	교양	기타	무응 답	전체
성 별	남자	709 (27.0)	716 (27.2)	245 (9.3)	167 (6.4)	52 (2.0)	231 (8.8)	247 (9.4)	122 (4.6)	40 (1.5)	99 (3.8)	2628 (100.0)
	여자	729 (27.0)	737 (27.3)	291 (10.8)	134 (5.0)	69 (2.6)	242 (9.0)	204 (7.6)	154 (5.7)	40 (1.5)	98 (3.6)	2698 (100.0)
학 년	1 학년	340 (29.2)	311 (26.7)	134 (11.5)	55 (4.7)	33 (2.8)	95 (8.2)	94 (8.1)	60 (5.2)	18 (1.5)	24 (2.1)	1164 (100.0)
	2 학년	406 (26.8)	409 (27.0)	163 (10.8)	91 (6.0)	49 (3.2)	131 (8.6)	122 (8.0)	62 (4.1)	19 (1.3)	64 (4.2)	1516 (100.0)
	3 학년	424 (26.5)	423 (26.4)	142 (8.9)	91 (5.7)	21 (1.3)	157 (9.8)	149 (9.3)	94 (5.9)	27 (1.7)	72 (4.5)	1600 (100.0)
	4 학년	249 (26.0)	284 (29.6)	87 (9.1)	59 (6.2)	18 (1.9)	83 (8.7)	78 (8.1)	55 (5.7)	14 (1.5)	31 (3.2)	958 (100.0)
	5 학년 이상	19 (21.6)	26 (29.5)	10 (11.4)	5 (5.7)	0 (.0)	7 (8.0)	8 (9.1)	5 (5.7)	2 (2.3)	6 (6.8)	88 (100.0)

소속대학	인문	133 (28.5)	135 (29.0)	49 (10.5)	22 (4.7)	9 (1.9)	40 (8.6)	37 (7.9)	18 (3.9)	9 (1.9)	14 (3.0)	466 (100.0)
	사회과학	100 (24.0)	123 (29.6)	35 (8.4)	26 (6.3)	10 (2.4)	38 (9.1)	44 (10.6)	25 (6.0)	6 (1.4)	9 (2.2)	416 (100.0)
	경상	260 (29.0)	277 (30.8)	74 (8.2)	58 (6.5)	21 (2.3)	73 (8.1)	63 (7.0)	41 (4.6)	12 (1.3)	19 (2.1)	898 (100.0)
	사범	104 (29.9)	86 (24.7)	28 (8.0)	9 (2.6)	17 (4.9)	39 (11.2)	28 (8.0)	25 (7.2)	2 (.6)	10 (2.9)	348 (100.0)
	간호	33 (21.4)	21 (13.6)	19 (12.3)	4 (2.6)	5 (3.2)	28 (18.2)	17 (11.0)	16 (10.4)	1 (.6)	10 (6.5)	154 (100.0)
	해양과학	144 (27.3)	183 (34.7)	53 (10.0)	30 (5.7)	6 (1.1)	24 (4.5)	34 (6.4)	11 (2.1)	8 (1.5)	35 (6.6)	528 (100.0)
	자연과학	199 (28.6)	210 (30.2)	72 (10.3)	48 (6.9)	16 (2.3)	56 (8.0)	47 (6.8)	25 (3.6)	8 (1.1)	15 (2.2)	696 (100.0)
	공과	220 (26.8)	232 (28.3)	88 (10.7)	57 (7.0)	22 (2.7)	70 (8.5)	67 (8.2)	31 (3.8)	11 (1.3)	22 (2.7)	820 (100.0)
	교육	56 (19.9)	32 (11.3)	27 (9.6)	4 (1.4)	4 (1.4)	47 (16.7)	51 (18.1)	39 (13.8)	9 (3.2)	13 (4.6)	282 (100.0)
	수의과	34 (20.7)	14 (8.5)	30 (18.3)	11 (6.7)	1 (.6)	16 (9.8)	19 (11.6)	15 (9.1)	5 (3.0)	19 (11.6)	164 (100.0)
	생명자원과학	92 (29.1)	86 (27.2)	25 (7.9)	25 (7.9)	6 (1.9)	24 (7.6)	26 (8.2)	14 (4.4)	4 (1.3)	14 (4.4)	316 (100.0)
	예술디자인	63 (26.5)	54 (22.7)	36 (15.1)	7 (2.9)	4 (1.7)	18 (7.6)	18 (7.6)	16 (6.7)	5 (2.1)	17 (7.1)	238 (100.0)
	전체	1438 (27.0)	1453 (27.3)	536 (10.1)	301 (5.7)	121 (2.3)	473 (8.9)	451 (8.5)	276 (5.2)	80 (1.5)	197 (3.7)	5326 (100.0)

<표 3-40><그림 40>과 같이 학생들의 원하는 특강/교육 주제는 ‘취업’ 27.3%, ‘진로’ 27.0%, ‘학과별 특성화’ 10.1%, ‘의사소통’ 8.9%, ‘인성’ 8.5%, ‘창업’ 5.7%, ‘교양’ 5.2%, ‘학습클리닉’ 2.3%, ‘기타’ 1.5%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원하는 특강/교육 주제는 ‘진로’에서는 ‘1학년’ 29.2%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5학년 이상’ 21.6%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취업’에서는 ‘4학년’과 ‘5학년’에서 29.6%, 29.5%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원하는 특강/교육 주제를 살펴보면 ‘진로’는 ‘사범대’ 29.9%, ‘취업’은 ‘해양과학대’ 34.7%, ‘학과별 특성화’는 ‘수의과대’ 18.3%, ‘창업’은 ‘생명자원과학대’ 7.9%, ‘학습클리닉’은 ‘사범대’ 4.9%, ‘의사소통’은 ‘간호대’ 18.2%, ‘인성’은 ‘교육대’ 18.1%, ‘교양’은 ‘교육대’ 13.8%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과 학업이 대학생들에 주요한 과업이자 주된 고민임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년별 학과별 특성에 맞는 보다 세밀한 연구로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40> 원하는 특강/교육 주제

9. 정서 관련

1) 외로움 경험 정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외로움 경험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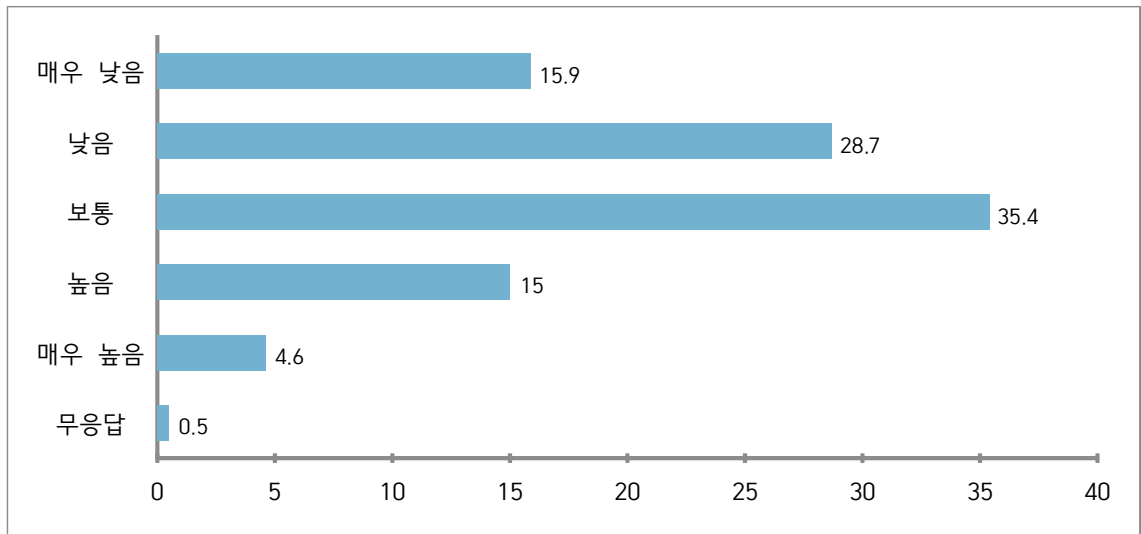
<표 3-41> 외로움 경험 정도 명(%)

		외로움 경험 정도					전체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성별	남자	268 (20.4)	366 (27.9)	427 (32.5)	180 (13.7)	68 (5.2)	5 (.4)	1314 (100.0)
	여자	155 (11.5)	399 (29.6)	515 (38.2)	219 (16.2)	54 (4.0)	7 (.5)	1349 (100.0)
학년	1학년	97 (16.7)	156 (26.8)	223 (38.3)	75 (12.9)	30 (5.2)	1 (.2)	582 (100.0)
	2학년	117 (15.4)	193 (25.5)	286 (37.7)	119 (15.7)	38 (5.0)	5 (.7)	758 (100.0)
	3학년	121 (15.1)	232 (29.0)	268 (33.5)	134 (16.8)	40 (5.0)	5 (.6)	800 (100.0)
	4학년	80 (16.7)	166 (34.7)	154 (32.2)	67 (14.0)	11 (2.3)	1 (.2)	479 (100.0)
	5학년 이상	8 (18.2)	18 (40.9)	11 (25.0)	4 (9.1)	3 (6.8)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28 (12.0)	59 (25.3)	87 (37.3)	46 (19.7)	12 (5.2)	1 (.4)	233 (100.0)
	사회과학	23 (11.1)	63 (30.3)	73 (35.1)	41 (19.7)	8 (3.8)	0 (.0)	208 (100.0)
	경상	73 (16.3)	126 (28.1)	162 (36.1)	66 (14.7)	22 (4.9)	0 (.0)	449 (100.0)
	사범	31 (17.8)	63 (36.2)	46 (26.4)	23 (13.2)	10 (5.7)	1 (.6)	174 (100.0)
	간호	6 (7.8)	27 (35.1)	27 (35.1)	10 (13.0)	5 (6.5)	2 (2.6)	77 (100.0)
	해양과학	57 (21.6)	77 (29.2)	92 (34.8)	29 (11.0)	6 (2.3)	3 (1.1)	264 (100.0)
	자연과학	43 (12.4)	114 (32.8)	125 (35.9)	44 (12.6)	20 (5.7)	2 (.6)	348 (100.0)
	공과	94 (22.9)	108 (26.3)	140 (34.1)	51 (12.4)	17 (4.1)	0 (.0)	410 (100.0)
	교육	20 (14.2)	37 (26.2)	49 (34.8)	32 (22.7)	3 (2.1)	0 (.0)	141 (100.0)
	수의과	10 (12.2)	21 (25.6)	31 (37.8)	12 (14.6)	8 (9.8)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29 (18.4)	36 (22.8)	64 (40.5)	23 (14.6)	5 (3.2)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9 (7.6)	34 (28.6)	46 (38.7)	22 (18.5)	6 (5.0)	2 (1.7)	119 (100.0)
	전체	423 (15.9)	765 (28.7)	942 (35.4)	399 (15.0)	122 (4.6)	12 (.5)	2663 (100.0)

<표 3-41><그림 41>과 같이 학생들의 외로움 경험정도는 '매우 낮음'과 '낮음'이 약 44.6%이고 '보통' 35.4%, '높음'과 '매우 높음'이 약 19.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외로움 경험정도에서는 '낮음'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48.3%, '여학생' 41.1%로 남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외로움 경험정도는 '높음'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4학년'과 '5학년이상'에서는 16.3%, 15.9%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외로움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이 ‘인문대’ 24.9%, ‘교육대’ 24.8%, ‘수의과대’ 24.4%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겪는 학생들이 약 2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경쟁적이고 개인화되고 있는 풍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학과 소속감 및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 ‘대체로 만족’이상에 응답한 학생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5.5%로 나타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친밀한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림 41> 외로움 경험 정도

2) 스트레스 경험 정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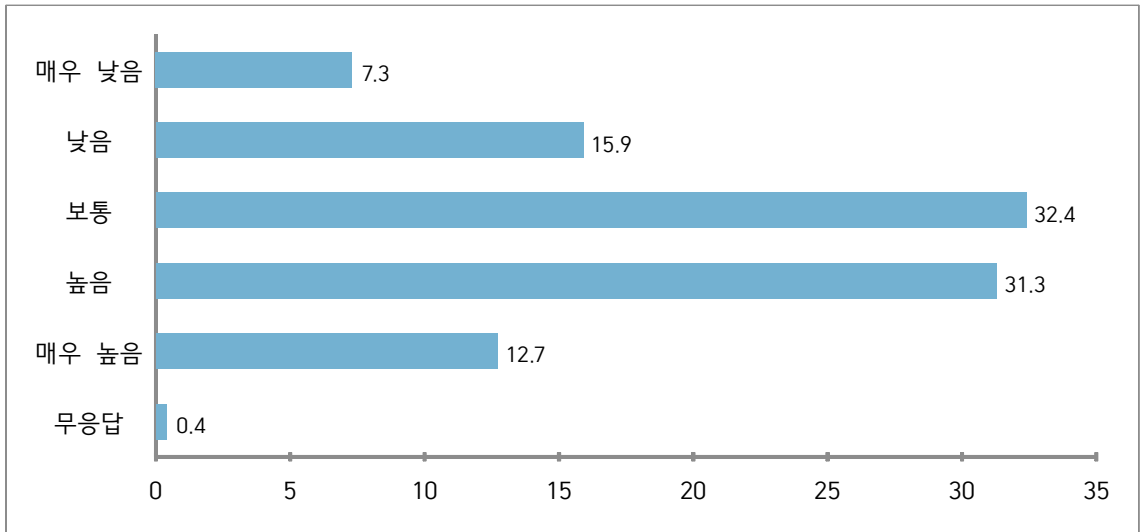
<표 3-42> 스트레스 경험 정도 명(%)

		스트레스 경험 정도					전체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성별	남자	134 (10.2)	241 (18.3)	470 (35.8)	340 (25.9)	123 (9.4)	6 (.5)	1314 (100.0)
	여자	61 (4.5)	182 (13.5)	392 (29.1)	493 (36.5)	216 (16.0)	5 (.4)	1349 (100.0)
학년	1학년	57 (9.8)	111 (19.1)	202 (34.7)	171 (29.4)	40 (6.9)	1 (.2)	582 (100.0)
	2학년	45 (5.9)	96 (12.7)	254 (33.5)	256 (33.8)	103 (13.6)	4 (.5)	758 (100.0)
	3학년	51 (6.4)	118 (14.8)	247 (30.9)	247 (30.9)	132 (16.5)	5 (.6)	800 (100.0)
	4학년	38 (7.9)	85 (17.7)	147 (30.7)	150 (31.3)	58 (12.1)	1 (.2)	479 (100.0)
	5학년 이상	4 (9.1)	13 (29.5)	12 (27.3)	9 (20.5)	6 (13.6)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15 (6.4)	29 (12.4)	77 (33.0)	86 (36.9)	25 (10.7)	1 (.4)	233 (100.0)
	사회과학	10 (4.8)	30 (14.4)	65 (31.3)	76 (36.5)	27 (13.0)	0 (.0)	208 (100.0)
	경상	31 (6.9)	73 (16.3)	152 (33.9)	142 (31.6)	51 (11.4)	0 (.0)	449 (100.0)
	사범	16 (9.2)	36 (20.7)	46 (26.4)	55 (31.6)	20 (11.5)	1 (.6)	174 (100.0)
	간호	1 (1.3)	8 (10.4)	16 (20.8)	40 (51.9)	11 (14.3)	1 (1.3)	77 (100.0)
	해양과학	32 (12.1)	55 (20.8)	102 (38.6)	54 (20.5)	18 (6.8)	3 (1.1)	264 (100.0)
	자연과학	15 (4.3)	45 (12.9)	97 (27.9)	127 (36.5)	63 (18.1)	1 (.3)	348 (100.0)
	공과	45 (11.0)	62 (15.1)	143 (34.9)	116 (28.3)	44 (10.7)	0 (.0)	410 (100.0)
	교육	14 (9.9)	25 (17.7)	48 (34.0)	32 (22.7)	22 (15.6)	0 (.0)	141 (100.0)
	수의과	2 (2.4)	16 (19.5)	30 (36.6)	24 (29.3)	10 (12.2)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12 (7.6)	30 (19.0)	54 (34.2)	42 (26.6)	19 (12.0)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2 (1.7)	14 (11.8)	32 (26.9)	39 (32.8)	29 (24.4)	3 (2.5)	119 (100.0)
	전체	195 (7.3)	423 (15.9)	862 (32.4)	833 (31.3)	339 (12.7)	11 (.4)	2663 (100.0)

<표 3-42><그림 42>와 같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경험정도는 ‘매우 낮음’과 ‘낮음’이 약 23.2%이고 ‘보통’ 32.4%, ‘높음’과 ‘매우 높음’이 약 44.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정도에서는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에서는 ‘남학생’ 35.3%, ‘여학생’ 52.5%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정도는 ‘높음’이 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1학년’과 ‘5학년 이상’에서 각각 36.3%, 34.1%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스트레스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이 ‘간호대’ 66.2%, ‘예술디자인대’ 57.2%, ‘자연과학대’ 54.6%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이지만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은 것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스트레스는 다양한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러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노력도 학생상담센터의 역할이라 하겠다.



<그림 42> 스트레스 경험 정도

3) 불안 경험 정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불안 경험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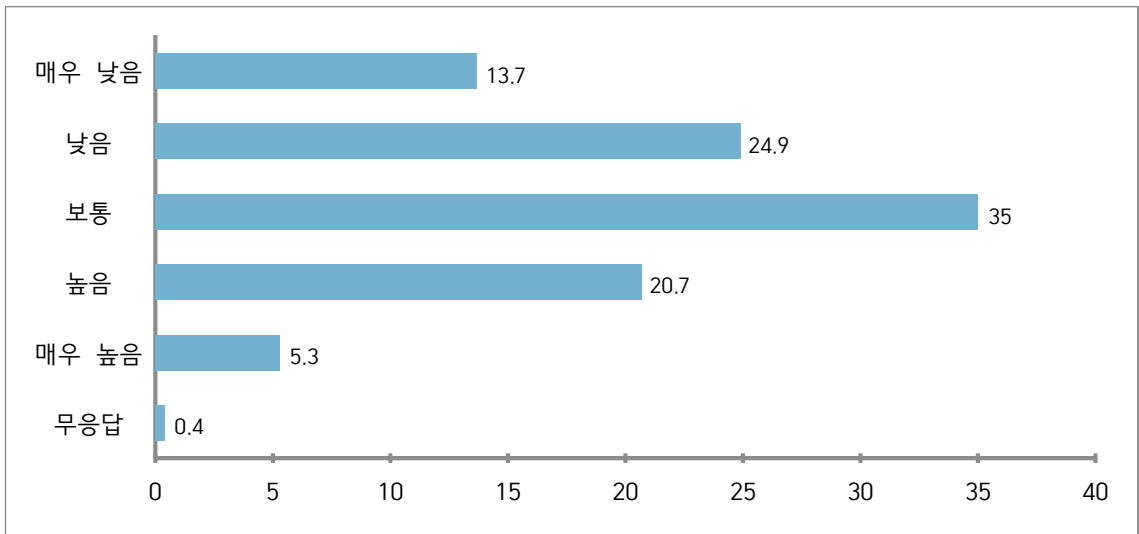
<표 3-43> 불안 경험 정도 명(%)

		불안 경험 정도					전체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성별	남자	233 (17.7)	356 (27.1)	447 (34.0)	222 (16.9)	51 (3.9)	5 (.4)	1314 (100.0)
	여자	131 (9.7)	308 (22.8)	485 (36.0)	329 (24.4)	90 (6.7)	6 (.4)	1349 (100.0)
학년	1학년	107 (18.4)	174 (29.9)	198 (34.0)	83 (14.3)	19 (3.3)	1 (.2)	582 (100.0)
	2학년	90 (11.9)	181 (23.9)	278 (36.7)	163 (21.5)	42 (5.5)	4 (.5)	758 (100.0)
	3학년	96 (12.0)	187 (23.4)	275 (34.4)	189 (23.6)	48 (6.0)	5 (.6)	800 (100.0)
	4학년	65 (13.6)	108 (22.5)	167 (34.9)	109 (22.8)	29 (6.1)	1 (.2)	479 (100.0)
	5학년 이상	6 (13.6)	14 (31.8)	14 (31.8)	7 (15.9)	3 (6.8)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30 (12.9)	46 (19.7)	86 (36.9)	59 (25.3)	11 (4.7)	1 (.4)	233 (100.0)
	사회과학	20 (9.6)	56 (26.9)	74 (35.6)	47 (22.6)	11 (5.3)	0 (.0)	208 (100.0)
	경상	61 (13.6)	132 (29.4)	142 (31.6)	87 (19.4)	27 (6.0)	0 (.0)	449 (100.0)
	사범	27 (15.5)	48 (27.6)	46 (26.4)	43 (24.7)	9 (5.2)	1 (.6)	174 (100.0)
	간호	7 (9.1)	14 (18.2)	32 (41.6)	17 (22.1)	6 (7.8)	1 (1.3)	77 (100.0)
	해양과학	53 (20.1)	75 (28.4)	91 (34.5)	34 (12.9)	7 (2.7)	4 (1.5)	264 (100.0)
	자연과학	33 (9.5)	83 (23.9)	120 (34.5)	87 (25.0)	24 (6.9)	1 (.3)	348 (100.0)
	공과	72 (17.6)	101 (24.6)	152 (37.1)	72 (17.6)	13 (3.2)	0 (.0)	410 (100.0)
	교육	22 (15.6)	41 (29.1)	50 (35.5)	24 (17.0)	4 (2.8)	0 (.0)	141 (100.0)
	수학과	7 (8.5)	19 (23.2)	35 (42.7)	13 (15.9)	8 (9.8)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24 (15.2)	32 (20.3)	57 (36.1)	37 (23.4)	7 (4.4)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8 (6.7)	17 (14.3)	47 (39.5)	31 (26.1)	14 (11.8)	2 (1.7)	119 (100.0)
	전체	364 (13.7)	664 (24.9)	932 (35.0)	551 (20.7)	141 (5.3)	11 (.4)	2663 (100.0)

<표 3-43><그림 43>과 같이 학생들의 불안 경험정도는 ‘매우 낮음’과 ‘낮음’이 약 38.6%이고 ‘보통’ 35.0%, ‘높음’과 ‘매우 높음’이 약 26.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불안 경험정도에서는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에서는 ‘남학생’ 20.8%, ‘여학생’ 31.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불안 경험정도는 ‘높음’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1학년’과 ‘5학년 이상’에서 17.6%, 22.7%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단과대학별 불안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이 ‘예술디자인대’ 37.9%, ‘자연과학대’ 31.9%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안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약 26.0%로 나타났다. 최근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나 수험생들이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성인기를 맞이하는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혼란 등으로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발달단계에서 오는 부적응으로 볼 수 있다. 보다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그림 43> 불안 경험 정도

4) 분노 경험 정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분노 경험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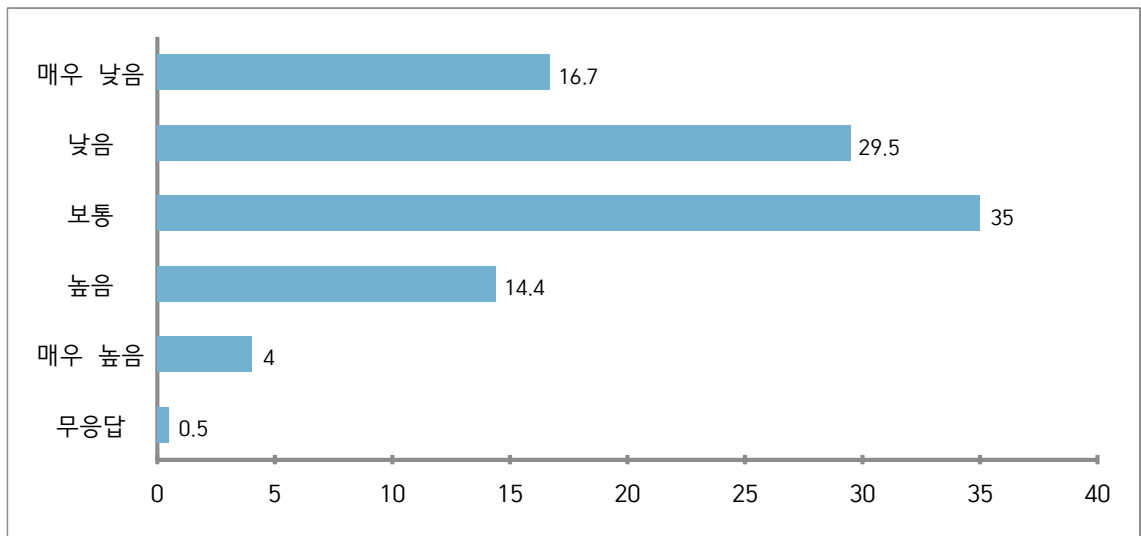
<표 3-44> 분노 경험 정도 명(%)

		분노 경험 정도					전체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성별	남자	289 (22.0)	402 (30.6)	433 (33.0)	147 (11.2)	36 (2.7)	7 (.5)	1314 (100.0)
	여자	155 (11.5)	383 (28.4)	498 (36.9)	237 (17.6)	71 (5.3)	5 (.4)	1349 (100.0)
학년	1학년	121 (20.8)	184 (31.6)	195 (33.5)	63 (10.8)	17 (2.9)	2 (.3)	582 (100.0)
	2학년	120 (15.8)	206 (27.2)	274 (36.1)	116 (15.3)	37 (4.9)	5 (.7)	758 (100.0)
	3학년	117 (14.6)	224 (28.0)	281 (35.1)	133 (16.6)	41 (5.1)	4 (.5)	800 (100.0)
	4학년	81 (16.9)	151 (31.5)	167 (34.9)	69 (14.4)	10 (2.1)	1 (.2)	479 (100.0)
	5학년	5 (11.4)	20 (45.5)	14 (31.8)	3 (6.8)	2 (4.5)	0 (.0)	44 (100.0)
	이상							

소속대학	인문	34 (14.6)	63 (27.0)	95 (40.8)	28 (12.0)	12 (5.2)	1 (.4)	233 (100.0)
	사회과학	24 (11.5)	64 (30.8)	78 (37.5)	35 (16.8)	7 (3.4)	0 (.0)	208 (100.0)
	경상	78 (17.4)	143 (31.8)	152 (33.9)	63 (14.0)	13 (2.9)	0 (.0)	449 (100.0)
	사범	35 (20.1)	58 (33.3)	53 (30.5)	22 (12.6)	5 (2.9)	1 (.6)	174 (100.0)
	간호	8 (10.4)	24 (31.2)	26 (33.8)	15 (19.5)	3 (3.9)	1 (1.3)	77 (100.0)
	해양과학	67 (25.4)	75 (28.4)	89 (33.7)	23 (8.7)	6 (2.3)	4 (1.5)	264 (100.0)
	자연과학	45 (12.9)	107 (30.7)	118 (33.9)	60 (17.2)	17 (4.9)	1 (.3)	348 (100.0)
	공과	85 (20.7)	114 (27.8)	145 (35.4)	53 (12.9)	13 (3.2)	0 (.0)	410 (100.0)
	교육	25 (17.7)	49 (34.8)	39 (27.7)	19 (13.5)	9 (6.4)	0 (.0)	141 (100.0)
	수의과	8 (9.8)	26 (31.7)	32 (39.0)	10 (12.2)	6 (7.3)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25 (15.8)	44 (27.8)	57 (36.1)	26 (16.5)	5 (3.2)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10 (8.4)	18 (15.1)	47 (39.5)	30 (25.2)	11 (9.2)	3 (2.5)	119 (100.0)
	전체	444 (16.7)	785 (29.5)	931 (35.0)	384 (14.4)	107 (4.0)	12 (.5)	2663 (100.0)

<표 3-44><그림 44>와 같이 학생들의 분노 경험정도는 '매우 낮음'과 '낮음'이 약 46.2%이고 '보통' 35.0%, '높음'과 '매우 높음'이 약 18.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노 경험정도에서는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에서는 '남학생' 13.9%, '여학생' 22.9%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분노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분노 경험정도는 '높음'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1

학년'과 '5학년 이상'에서 13.7%, 11.3%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분노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이 '예술디자인대' 34.4%, '간호대' 23.4%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약 18.4%의 학생들이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분노의 표현양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자칫 공격성과 관련될 수 있는 요인이다. 학생들이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만의 기준인지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 서인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정의로운 분노의 올바른 표현은 건강한 정신건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분노의 원인을 찾고 올바른 표현방법과 관련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림 44> 분노 경험 정도

5) 우울, 무기력 경험 정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우울·무기력 경험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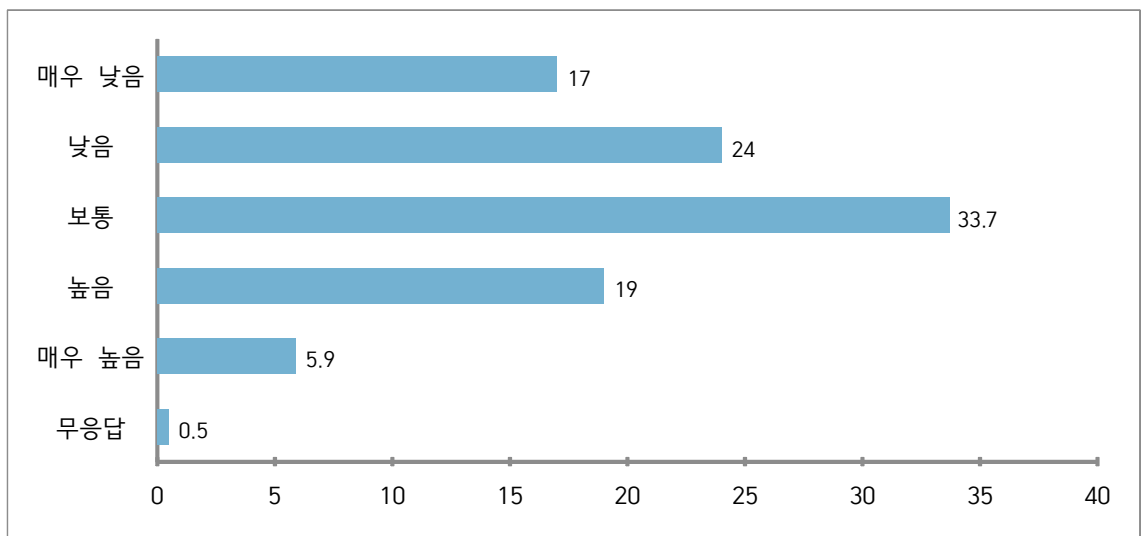
<표 3-45> 우울, 무기력 경험 정도 명(%)

		우울, 무기력 경험 정도					전체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성별	남자	298 (22.7)	357 (27.2)	423 (32.2)	177 (13.5)	52 (4.0)	7 (.5)	1314 (100.0)
	여자	154 (11.4)	281 (20.8)	474 (35.1)	329 (24.4)	105 (7.8)	6 (.4)	1349 (100.0)
학년	1학년	119 (20.4)	144 (24.7)	207 (35.6)	87 (14.9)	23 (4.0)	2 (.3)	582 (100.0)
	2학년	113 (14.9)	181 (23.9)	243 (32.1)	169 (22.3)	46 (6.1)	6 (.8)	758 (100.0)
	3학년	133 (16.6)	174 (21.8)	262 (32.8)	170 (21.3)	57 (7.1)	4 (.5)	800 (100.0)
	4학년	79 (16.5)	126 (26.3)	172 (35.9)	75 (15.7)	26 (5.4)	1 (.2)	479 (100.0)
	5학년 이상	8 (18.2)	13 (29.5)	13 (29.5)	5 (11.4)	5 (11.4)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27 (11.6)	44 (18.9)	95 (40.8)	50 (21.5)	16 (6.9)	1 (.4)	233 (100.0)
	사회과학	26 (12.5)	55 (26.4)	70 (33.7)	46 (22.1)	11 (5.3)	0 (.0)	208 (100.0)
	경상	71 (15.8)	119 (26.5)	147 (32.7)	91 (20.3)	21 (4.7)	0 (.0)	449 (100.0)
	사범	34 (19.5)	44 (25.3)	48 (27.6)	34 (19.5)	12 (6.9)	2 (1.1)	174 (100.0)
	간호	5 (6.5)	13 (16.9)	30 (39.0)	21 (27.3)	7 (9.1)	1 (1.3)	77 (100.0)
	해양과학	72 (27.3)	72 (27.3)	87 (33.0)	24 (9.1)	5 (1.9)	4 (1.5)	264 (100.0)
	자연과학	49 (14.1)	85 (24.4)	104 (29.9)	84 (24.1)	25 (7.2)	1 (.3)	348 (100.0)
	공과	89 (21.7)	107 (26.1)	138 (33.7)	57 (13.9)	19 (4.6)	0 (.0)	410 (100.0)
	교육	30 (21.3)	29 (20.6)	44 (31.2)	28 (19.9)	10 (7.1)	0 (.0)	141 (100.0)
	수의과	13 (15.9)	16 (19.5)	31 (37.8)	13 (15.9)	9 (11.0)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23 (14.6)	34 (21.5)	62 (39.2)	29 (18.4)	9 (5.7)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13 (10.9)	20 (16.8)	41 (34.5)	29 (24.4)	13 (10.9)	3 (2.5)	119 (100.0)
	전체	452 (17.0)	638 (24.0)	897 (33.7)	506 (19.0)	157 (5.9)	13 (.5)	2663 (100.0)

<표 3-45><그림 45>와 같이 학생들의 우울·무기력 경험정도는 ‘매우 낮음’과 ‘낮음’이 약 41.0%이고 ‘보통’ 33.7%, ‘높음’과 ‘매우 높음’이 약 24.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우울·무기력 경험정도에서는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에서는 ‘남학생’ 17.5%, ‘여학생’ 32.2%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과 무기력의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우울·무기력 경험정

도는 '높음'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2,3학년'에서 각 28.4%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우울·무기력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이 '간호대' 36.4%, '예술디자인대' 35.3%, '자연과학대' 31.3%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울·무기력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약 24.9%에 이르고 있다. 학생들의 생활에서 겪는 많은 경험들로 인해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될 수 있지만, 약 5.9%의 학생들이 우울·무기력 경험 비율이 매우 높게 응답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울하고 힘든 상황을 회피하려하지 말고 학생들이 자신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극복 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5> 우울, 무기력 경험 정도

6) 자살 충동 경험 정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자살 충동 경험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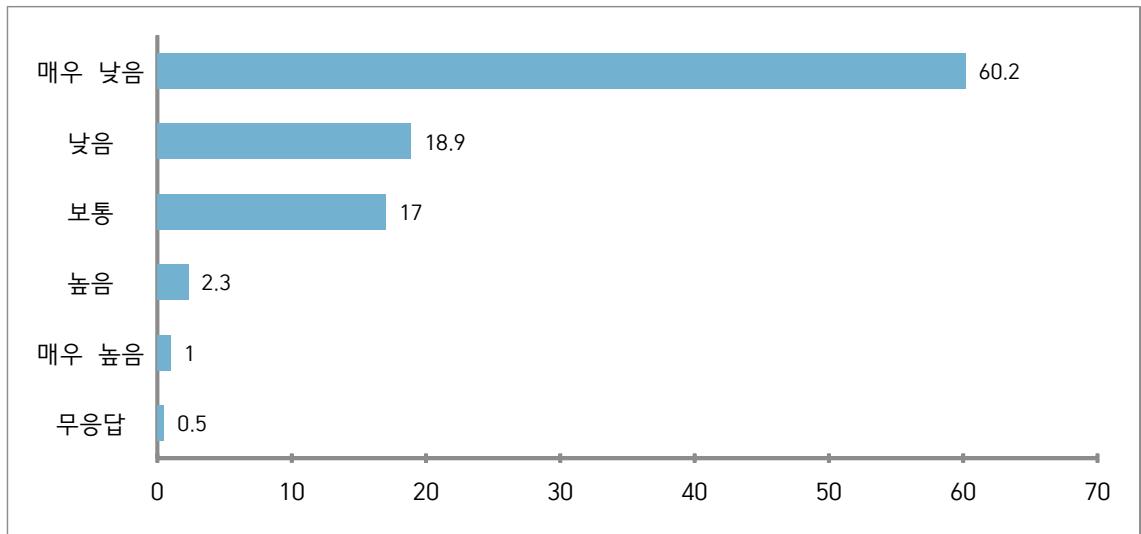
<표 3-46> 자살 충동 경험 정도 명(%)

		자살 충동 경험 정도					전체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성별	남자	835 (63.5)	212 (16.1)	219 (16.7)	25 (1.9)	15 (1.1)	8 (.6)	1314 (100.0)
	여자	769 (57.0)	291 (21.6)	235 (17.4)	37 (2.7)	12 (.9)	5 (.4)	1349 (100.0)
학년	1학년	347 (59.6)	122 (21.0)	97 (16.7)	10 (1.7)	4 (.7)	2 (.3)	582 (100.0)
	2학년	475 (62.7)	133 (17.5)	119 (15.7)	17 (2.2)	10 (1.3)	4 (.5)	758 (100.0)
	3학년	485 (60.6)	142 (17.8)	140 (17.5)	18 (2.3)	9 (1.1)	6 (.8)	800 (100.0)
	4학년	277 (57.8)	93 (19.4)	90 (18.8)	14 (2.9)	4 (.8)	1 (.2)	479 (100.0)
	5학년 이상	20 (45.5)	13 (29.5)	8 (18.2)	3 (6.8)	0 (.0)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130 (55.8)	46 (19.7)	45 (19.3)	6 (2.6)	4 (1.7)	2 (.9)	233 (100.0)
	사회과학	133 (63.9)	36 (17.3)	35 (16.8)	4 (1.9)	0 (.0)	0 (.0)	208 (100.0)
	경상	281 (62.6)	89 (19.8)	67 (14.9)	8 (1.8)	4 (.9)	0 (.0)	449 (100.0)
	사범	110 (63.2)	39 (22.4)	20 (11.5)	2 (1.1)	2 (1.1)	1 (.6)	174 (100.0)
	간호	48 (62.3)	15 (19.5)	11 (14.3)	2 (2.6)	0 (.0)	1 (1.3)	77 (100.0)
	해양과학	164 (62.1)	36 (13.6)	52 (19.7)	4 (1.5)	5 (1.9)	3 (1.1)	264 (100.0)
	자연과학	223 (64.1)	62 (17.8)	52 (14.9)	8 (2.3)	2 (.6)	1 (.3)	348 (100.0)
	공과	252 (61.5)	72 (17.6)	72 (17.6)	11 (2.7)	3 (.7)	0 (.0)	410 (100.0)
	교육	79 (56.0)	36 (25.5)	25 (17.7)	1 (.7)	0 (.0)	0 (.0)	141 (100.0)
	수의과	41 (50.0)	15 (18.3)	17 (20.7)	5 (6.1)	3 (3.7)	1 (1.2)	82 (100.0)
	생명자원 과학	88 (55.7)	30 (19.0)	32 (20.3)	7 (4.4)	0 (.0)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55 (46.2)	27 (22.7)	26 (21.8)	4 (3.4)	4 (3.4)	3 (2.5)	119 (100.0)
	전체	1604 (60.2)	503 (18.9)	454 (17.0)	62 (2.3)	27 (1.0)	13 (.5)	2663 (100.0)

<표 3-46><그림 46>과 같이 학생들의 자살충동 경험정도는 ‘매우 낮음’과 ‘낮음’이 약 79.1%이고 ‘보통’ 17.0%, ‘높음’과 ‘매우 높음’이 약 3.3%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자살충동 경험정도는 ‘높음’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1학년’ 2.4%, ‘2,3,4학년’ 3.4~3.7%인 반면 ‘5학년 이상’ 6.8%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자살충동 경험정도

를 살펴보면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이 ‘수의과대’ 9.8%, ‘예술디자인대’ 6.8%, ‘생명자원과학대’ 4.4%, ‘인문대’ 4.3%, ‘해양과학대’ 3.4%, ‘공과대’ 3.3%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등이 자살과의 상관에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나타난 다른 정서적 어려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3.3%에 이르고 있다.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계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6> 자살 충동 경험 정도

10. 중독 관련

1) 음주 심각성 자각 정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음주 심각성 자각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7>과 같다.

<표 3-47> 음주 심각성 자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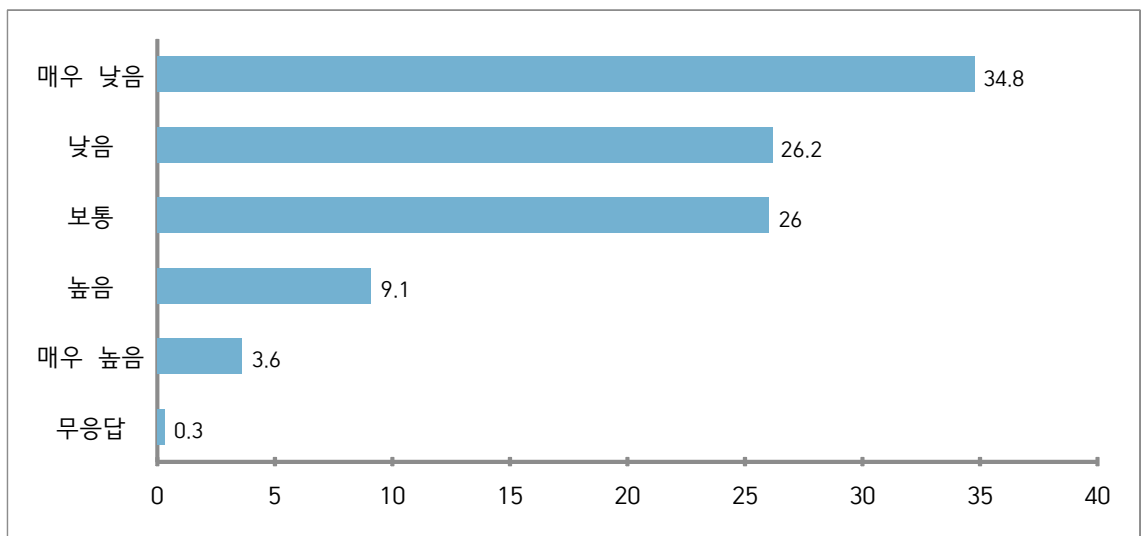
명(%)

		음주 심각성 자각 정도					전체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성별	남자	405 (30.8)	333 (25.3)	371 (28.2)	140 (10.7)	61 (4.6)	4 (.3)	1314 (100.0)
	여자	521 (38.6)	365 (27.1)	322 (23.9)	102 (7.6)	34 (2.5)	5 (.4)	1349 (100.0)
학년	1학년	187 (32.1)	160 (27.5)	167 (28.7)	50 (8.6)	16 (2.7)	2 (.3)	582 (100.0)
	2학년	280 (36.9)	180 (23.7)	199 (26.3)	74 (9.8)	22 (2.9)	3 (.4)	758 (100.0)
	3학년	282 (35.3)	204 (25.5)	201 (25.1)	69 (8.6)	40 (5.0)	4 (.5)	800 (100.0)
	4학년	170 (35.5)	135 (28.2)	115 (24.0)	43 (9.0)	16 (3.3)	0 (.0)	479 (100.0)
	5학년 이상	7 (15.9)	19 (43.2)	11 (25.0)	6 (13.6)	1 (2.3)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94 (40.3)	52 (22.3)	59 (25.3)	25 (10.7)	2 (.9)	1 (.4)	233 (100.0)
	사회과학	67 (32.2)	52 (25.0)	59 (28.4)	22 (10.6)	8 (3.8)	0 (.0)	208 (100.0)
	경상	137 (30.5)	111 (24.7)	131 (29.2)	53 (11.8)	17 (3.8)	0 (.0)	449 (100.0)
	사범	75 (43.1)	40 (23.0)	38 (21.8)	15 (8.6)	5 (2.9)	1 (.6)	174 (100.0)
	간호	38 (49.4)	17 (22.1)	15 (19.5)	5 (6.5)	1 (1.3)	1 (1.3)	77 (100.0)
	해양과학	69 (26.1)	80 (30.3)	80 (30.3)	19 (7.2)	14 (5.3)	2 (.8)	264 (100.0)
	자연과학	126 (36.2)	90 (25.9)	88 (25.3)	30 (8.6)	13 (3.7)	1 (.3)	348 (100.0)
	공과	147 (35.9)	122 (29.8)	90 (22.0)	36 (8.8)	15 (3.7)	0 (.0)	410 (100.0)
	교육	50 (35.5)	51 (36.2)	25 (17.7)	9 (6.4)	6 (4.3)	0 (.0)	141 (100.0)
	수의과	21 (25.6)	22 (26.8)	24 (29.3)	10 (12.2)	5 (6.1)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55 (34.8)	28 (17.7)	56 (35.4)	13 (8.2)	5 (3.2)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47 (39.5)	33 (27.7)	28 (23.5)	5 (4.2)	4 (3.4)	2 (1.7)	119 (100.0)
	전체	926 (34.8)	698 (26.2)	693 (26.0)	242 (9.1)	95 (3.6)	9 (.3)	2663 (100.0)

<표 3-47><그림 47>과 같이 학생들의 음주 심각성 자각 정도는 ‘매우 낮음’과 ‘낮음’이 약 61.0%이고 ‘보통’ 26.0%, ‘높음’과 ‘매우 높음’이 약 12.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음주 심각성 자각 정도에서는 ‘높음’이상이 ‘남학생’ 15.3%, ‘여학생’ 10.1%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 심각성 자각정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음주 심각성 자각 정도는 ‘5학년 이

상' 15.9%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음주 심각성 자각 정도를 살펴보면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은 '수의과대' 18.3%, '경상대' 15.6%, '사회과학대' 14.4%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음주 문제 심각성이 높다는 응답이 약 12.7%로 나타났다. 스스로 본인의 음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대학 내에도 건전한 대학생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합법적인 음주 가능한 나이가 되었지만 이와 관련한 사전 교육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시기부터 건전한 음주문화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대학에서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림 47> 음주 심각성 자각 정도

2) 흡연 심각성 자각 정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흡연 심각성 자각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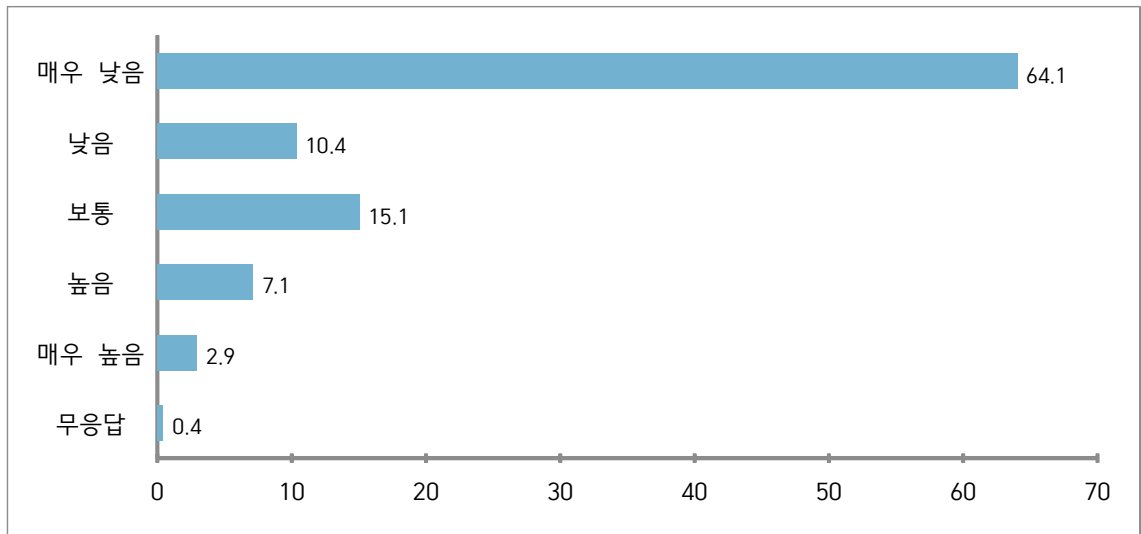
<표 3-48> 흡연 심각성 자각 정도 명(%)

		흡연 심각성 자각 정도					전체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성별	남자	660 (50.2)	147 (11.2)	273 (20.8)	156 (11.9)	72 (5.5)	6 (.5)	1314 (100.0)
	여자	1046 (77.5)	130 (9.6)	130 (9.6)	33 (2.4)	5 (.4)	5 (.4)	1349 (100.0)
학년	1학년	382 (65.6)	69 (11.9)	85 (14.6)	27 (4.6)	17 (2.9)	2 (.3)	582 (100.0)
	2학년	506 (66.8)	69 (9.1)	106 (14.0)	58 (7.7)	16 (2.1)	3 (.4)	758 (100.0)
	3학년	492 (61.5)	79 (9.9)	133 (16.6)	63 (7.9)	28 (3.5)	5 (.6)	800 (100.0)
	4학년	306 (63.9)	51 (10.6)	73 (15.2)	34 (7.1)	14 (2.9)	1 (.2)	479 (100.0)
	5학년 이상	20 (45.5)	9 (20.5)	6 (13.6)	7 (15.9)	2 (4.5)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161 (69.1)	20 (8.6)	34 (14.6)	17 (7.3)	0 (.0)	1 (.4)	233 (100.0)
	사회과학	138 (66.3)	15 (7.2)	40 (19.2)	13 (6.3)	2 (1.0)	0 (.0)	208 (100.0)
	경상	292 (65.0)	32 (7.1)	64 (14.3)	39 (8.7)	22 (4.9)	0 (.0)	449 (100.0)
	사범	123 (70.7)	24 (13.8)	18 (10.3)	6 (3.4)	2 (1.1)	1 (.6)	174 (100.0)
	간호	61 (79.2)	3 (3.9)	7 (9.1)	4 (5.2)	1 (1.3)	1 (1.3)	77 (100.0)
	해양과학	122 (46.2)	49 (18.6)	53 (20.1)	27 (10.2)	11 (4.2)	2 (.8)	264 (100.0)
	자연과학	236 (67.8)	34 (9.8)	46 (13.2)	18 (5.2)	13 (3.7)	1 (.3)	348 (100.0)
	공과	242 (59.0)	53 (12.9)	60 (14.6)	41 (10.0)	13 (3.2)	1 (.2)	410 (100.0)
	교육	103 (73.0)	19 (13.5)	17 (12.1)	2 (1.4)	0 (.0)	0 (.0)	141 (100.0)
	수의과	58 (70.7)	4 (4.9)	16 (19.5)	2 (2.4)	1 (1.2)	1 (1.2)	82 (100.0)
	생명자원 과학	94 (59.5)	11 (7.0)	32 (20.3)	13 (8.2)	7 (4.4)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76 (63.9)	13 (10.9)	16 (13.4)	7 (5.9)	5 (4.2)	2 (1.7)	119 (100.0)
	전체	1706 (64.1)	277 (10.4)	403 (15.1)	189 (7.1)	77 (2.9)	11 (.4)	2663 (100.0)

<표 3-48><그림 48>과 같이 학생들의 흡연 심각성 자각 정도는 ‘매우 낮음’과 ‘낮음’이 약 74.5%이고 ‘보통’ 15.1%, ‘높음’과 ‘매우 높음’이 약 10.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흡연 심각성 자각 정도에서는 ‘높음’이상이 ‘여학생’ 2.8%, ‘남학생’ 17.4%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흡연 심각성 자각 정도는 ‘높음’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5학년

이상' 20.4%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흡연 심각성 자각 정도를 살펴보면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이 '해양과학대' 14.4%, '경상대' 13.6%, '공과대' 13.2%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흡연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흡연은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흡연량을 줄이고 반드시 건물 밖이나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권장하는 적극적 캠페인이 필요하겠다.



<그림 48> 흡연 심각성 자각 정도

3) 스마트폰 사용 심각성 자각 정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심각성 자각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4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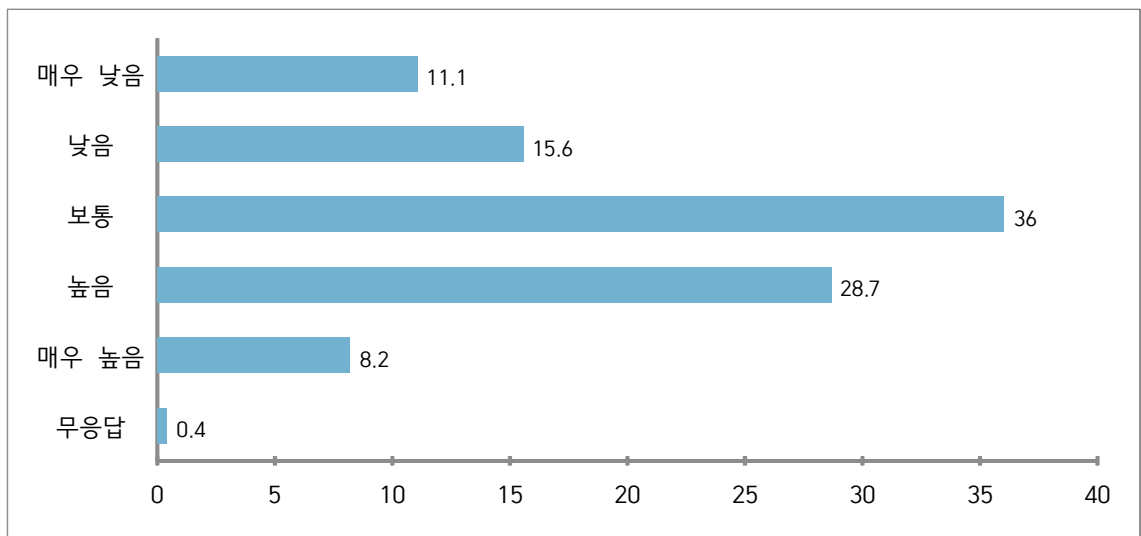
<표 3-49> 스마트폰 사용 심각성 자각 정도 명(%)

		스마트폰 사용 심각성 자각 정도					무응답	전체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성별	남자	157 (11.9)	231 (17.6)	490 (37.3)	347 (26.4)	84 (6.4)	5 (.4)	1314 (100.0)
	여자	138 (10.2)	184 (13.6)	469 (34.8)	418 (31.0)	135 (10.0)	5 (.4)	1349 (100.0)
학년	1학년	69 (11.9)	89 (15.3)	221 (38.0)	173 (29.7)	29 (5.0)	1 (.2)	582 (100.0)
	2학년	72 (9.5)	110 (14.5)	266 (35.1)	239 (31.5)	68 (9.0)	3 (.4)	758 (100.0)
	3학년	77 (9.6)	131 (16.4)	290 (36.3)	215 (26.9)	82 (10.3)	5 (.6)	800 (100.0)
	4학년	74 (15.4)	74 (15.4)	165 (34.4)	130 (27.1)	35 (7.3)	1 (.2)	479 (100.0)
	5학년 이상	3 (6.8)	11 (25.0)	17 (38.6)	8 (18.2)	5 (11.4)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27 (11.6)	21 (9.0)	96 (41.2)	70 (30.0)	18 (7.7)	1 (.4)	233 (100.0)
	사회과학	22 (10.6)	31 (14.9)	76 (36.5)	58 (27.9)	19 (9.1)	2 (1.0)	208 (100.0)
	경상	36 (8.0)	63 (14.0)	139 (31.0)	165 (36.7)	46 (10.2)	0 (.0)	449 (100.0)
	사범	27 (15.5)	37 (21.3)	52 (29.9)	48 (27.6)	10 (5.7)	0 (.0)	174 (100.0)
	간호	5 (6.5)	8 (10.4)	30 (39.0)	26 (33.8)	7 (9.1)	1 (1.3)	77 (100.0)
	해양과학	48 (18.2)	47 (17.8)	90 (34.1)	59 (22.3)	18 (6.8)	2 (.8)	264 (100.0)
	자연과학	24 (6.9)	41 (11.8)	127 (36.5)	115 (33.0)	40 (11.5)	1 (.3)	348 (100.0)
	공과	53 (12.9)	81 (19.8)	157 (38.3)	97 (23.7)	22 (5.4)	0 (.0)	410 (100.0)
	교육	15 (10.6)	34 (24.1)	47 (33.3)	37 (26.2)	8 (5.7)	0 (.0)	141 (100.0)
	수의과	5 (6.1)	9 (11.0)	38 (46.3)	21 (25.6)	9 (11.0)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15 (9.5)	23 (14.6)	64 (40.5)	41 (25.9)	14 (8.9)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18 (15.1)	20 (16.8)	43 (36.1)	28 (23.5)	8 (6.7)	2 (1.7)	119 (100.0)
	전체	295 (11.1)	415 (15.6)	959 (36.0)	765 (28.7)	219 (8.2)	10 (.4)	2663 (100.0)

<표 3-49><그림 49>와 같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심각성 자각 정도는 ‘매우 낮음’과 ‘낮음’이 약 26.7%이고 ‘보통’ 36.0%, ‘높음’과 ‘매우 높음’이 약 36.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심각성 자각 정도에서는 ‘높음’이상이 ‘남학생’ 32.8%, ‘여학생’ 41.0%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심각성 자각 정도는 ‘높음’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5학년 이상’ 29.6%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2학년’

에서 40.5%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스마트폰 사용 심각성 자각 정도를 살펴보면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이 ‘경상대’ 46.9%, ‘자연과학대’ 44.5%, ‘간호대’ 42.9%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심각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남·여학생 모두 약 36.9%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긴 사용자는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가 높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강할수록 불안, 우울의 정도는 높으며 이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마트폰 중독사용의 고위험군을 조기에 스크리닝하고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중독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 스마트폰 사용 심각성 자각 정도

4) 인터넷 게임 심각성 자각 정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인터넷 게임 심각성 자각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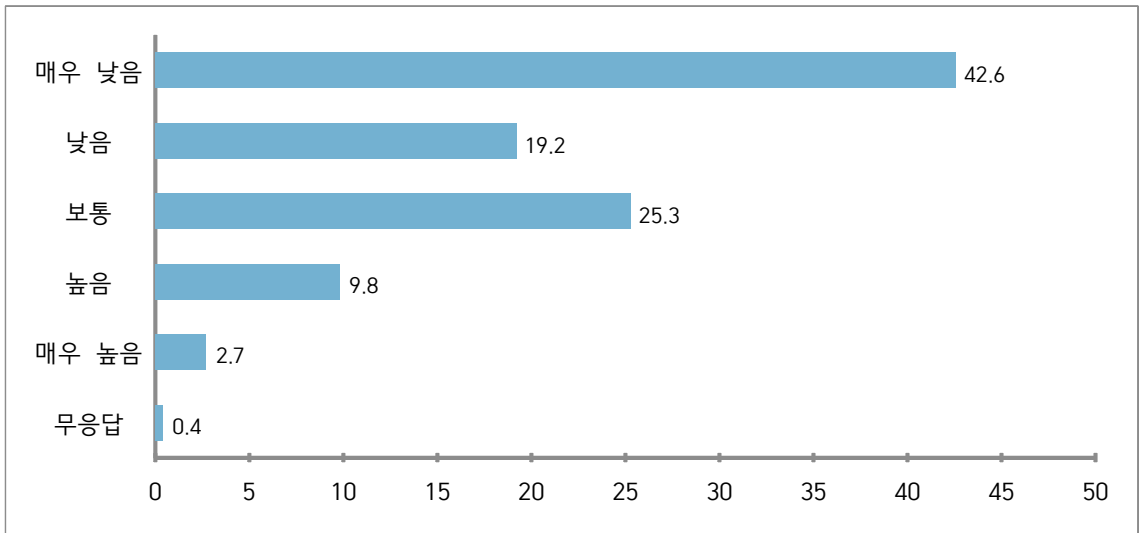
<표 3-50> 인터넷 게임 심각성 자각 정도 명(%)

		인터넷게임 심각성 자각 정도					전체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성별	남자	372 (28.3)	278 (21.2)	428 (32.6)	183 (13.9)	48 (3.7)	5 (.4)	1314 (100.0)
	여자	763 (56.6)	232 (17.2)	247 (18.3)	77 (5.7)	25 (1.9)	5 (.4)	1349 (100.0)
학년	1학년	229 (39.3)	113 (19.4)	164 (28.2)	59 (10.1)	15 (2.6)	2 (.3)	582 (100.0)
	2학년	312 (41.2)	153 (20.2)	187 (24.7)	83 (10.9)	20 (2.6)	3 (.4)	758 (100.0)
	3학년	349 (43.6)	144 (18.0)	205 (25.6)	72 (9.0)	25 (3.1)	5 (.6)	800 (100.0)
	4학년	232 (48.4)	89 (18.6)	106 (22.1)	40 (8.4)	12 (2.5)	0 (.0)	479 (100.0)
	5학년 이상	13 (29.5)	11 (25.0)	13 (29.5)	6 (13.6)	1 (2.3)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120 (51.5)	30 (12.9)	59 (25.3)	20 (8.6)	3 (1.3)	1 (.4)	233 (100.0)
	사회과학	104 (50.0)	40 (19.2)	43 (20.7)	16 (7.7)	4 (1.9)	1 (.5)	208 (100.0)
	경상	197 (43.9)	102 (22.7)	97 (21.6)	39 (8.7)	14 (3.1)	0 (.0)	449 (100.0)
	사범	88 (50.6)	35 (20.1)	36 (20.7)	14 (8.0)	1 (.6)	0 (.0)	174 (100.0)
	간호	43 (55.8)	12 (15.6)	18 (23.4)	3 (3.9)	0 (.0)	1 (1.3)	77 (100.0)
	해양과학	95 (36.0)	53 (20.1)	82 (31.1)	23 (8.7)	9 (3.4)	2 (.8)	264 (100.0)
	자연과학	156 (44.8)	65 (18.7)	75 (21.6)	41 (11.8)	10 (2.9)	1 (.3)	348 (100.0)
	공과	129 (31.5)	89 (21.7)	117 (28.5)	55 (13.4)	19 (4.6)	1 (.2)	410 (100.0)
	교육	68 (48.2)	29 (20.6)	34 (24.1)	9 (6.4)	1 (.7)	0 (.0)	141 (100.0)
	수의과	29 (35.4)	13 (15.9)	23 (28.0)	12 (14.6)	5 (6.1)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55 (34.8)	28 (17.7)	52 (32.9)	20 (12.7)	2 (1.3)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51 (42.9)	14 (11.8)	39 (32.8)	8 (6.7)	5 (4.2)	2 (1.7)	119 (100.0)
	전체	1135 (42.6)	510 (19.2)	675 (25.3)	260 (9.8)	73 (2.7)	10 (.4)	2663 (100.0)

<표 3-50><그림 50>과 같이 학생들의 인터넷 게임 심각성 자각 정도는 ‘매우 낮음’과 ‘낮음’이 약 61.8%이고 ‘보통’ 25.3%, ‘높음’과 ‘매우 높음’이 약 12.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 게임 심각성 자각 정도에서는 ‘높음’이상이 ‘여학생’ 7.6%, ‘남학생’ 17.6%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인터넷 게임 심각성 자각 정도는 ‘높음’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5학년 이상’ 15.9%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인터넷 게임 심각성 자각 정도를 살펴보면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이 ‘수의과대’ 20.7%, ‘공과대’ 18.0%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게임은 사이버상의 싸움이 현실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점 등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현실감각을 저해하기도 한다.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놀이문화를 통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는 보다 긍정적인 인간관계 및 소속감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림 50> 인터넷 게임 심각성 자각 정도

5) 도박관련 행위 심각성 자각 정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도박관련 행위 심각성 자각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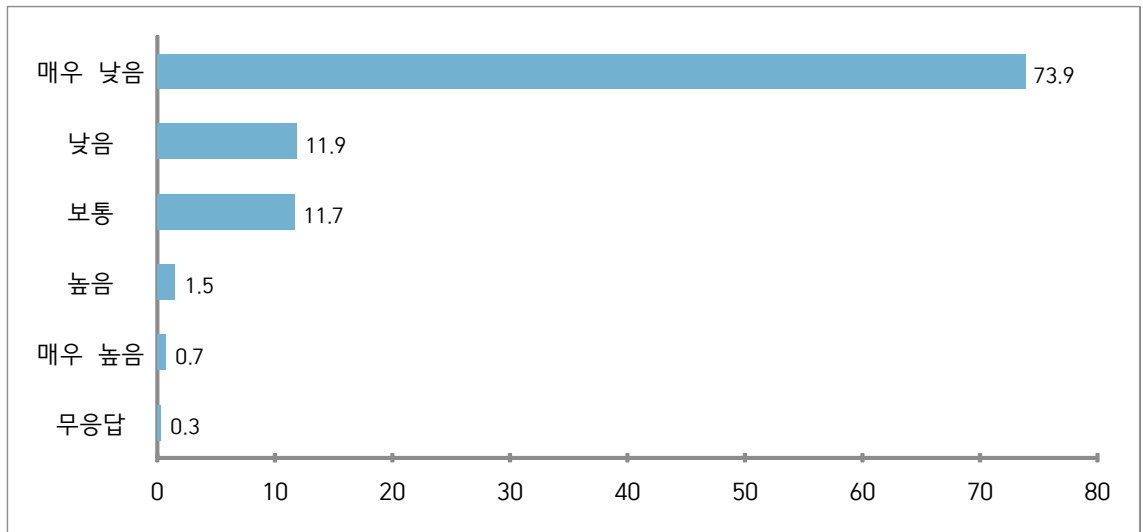
<표 3-51> 도박관련 행위 심각성 자각 정도 명(%)

		도박관련 행위 심각성 자각 정도					전체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성별	남자	912 (69.4)	179 (13.6)	176 (13.4)	27 (2.1)	15 (1.1)	5 (.4)	1314 (100.0)
	여자	1056 (78.3)	139 (10.3)	135 (10.0)	12 (.9)	3 (.2)	4 (.3)	1349 (100.0)
학년	1학년	435 (74.7)	66 (11.3)	76 (13.1)	4 (.7)	0 (.0)	1 (.2)	582 (100.0)
	2학년	578 (76.3)	82 (10.8)	85 (11.2)	7 (.9)	3 (.4)	3 (.4)	758 (100.0)
	3학년	573 (71.6)	113 (14.1)	85 (10.6)	14 (1.8)	11 (1.4)	4 (.5)	800 (100.0)
	4학년	362 (75.6)	45 (9.4)	56 (11.7)	12 (2.5)	4 (.8)	0 (.0)	479 (100.0)
	5학년 이상	20 (45.5)	12 (27.3)	9 (20.5)	2 (4.5)	0 (.0)	1 (2.3)	44 (100.0)

소속대학	인문	184 (79.0)	18 (7.7)	26 (11.2)	2 (.9)	1 (.4)	2 (.9)	233 (100.0)
	사회과학	153 (73.6)	25 (12.0)	24 (11.5)	5 (2.4)	1 (.5)	0 (.0)	208 (100.0)
	경상	336 (74.8)	54 (12.0)	48 (10.7)	5 (1.1)	6 (1.3)	0 (.0)	449 (100.0)
	사범	137 (78.7)	20 (11.5)	16 (9.2)	1 (.6)	0 (.0)	0 (.0)	174 (100.0)
	간호	63 (81.8)	5 (6.5)	8 (10.4)	0 (.0)	0 (.0)	1 (1.3)	77 (100.0)
	해양과학	164 (62.1)	49 (18.6)	40 (15.2)	4 (1.5)	5 (1.9)	2 (.8)	264 (100.0)
	자연과학	285 (81.9)	31 (8.9)	26 (7.5)	4 (1.1)	1 (.3)	1 (.3)	348 (100.0)
	공과	298 (72.7)	53 (12.9)	49 (12.0)	8 (2.0)	2 (.5)	0 (.0)	410 (100.0)
	교육	103 (73.0)	21 (14.9)	17 (12.1)	0 (.0)	0 (.0)	0 (.0)	141 (100.0)
	수의과	56 (68.3)	11 (13.4)	13 (15.9)	2 (2.4)	0 (.0)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106 (67.1)	16 (10.1)	27 (17.1)	7 (4.4)	1 (.6)	1 (.6)	158 (100.0)
	예술 디자인	83 (69.7)	15 (12.6)	17 (14.3)	1 (.8)	1 (.8)	2 (1.7)	119 (100.0)
	전체	1968 (73.9)	318 (11.9)	311 (11.7)	39 (1.5)	18 (.7)	9 (.3)	2663 (100.0)

<표 3-51><그림 51>과 같이 학생들의 도박관련 행위 심각성 자각 정도는 ‘매우 낮음’과 ‘낮음’이 약 85.8%이고 ‘보통’ 11.7%, ‘높음’과 ‘매우 높음’이 약 2.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도박관련 행위 심각성 자각 정도에서는 ‘높음’이상이 ‘남학생’ 3.2%, ‘여학생’ 1.1%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도박관련 행위 심각성 자각 정도는 ‘높음’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도박관련 행위 심각성 자각

정도를 살펴보면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이 ‘생명자원과학대’ 5.0%, ‘해양과학대’ 3.4%, ‘사회과학대’ 2.9%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우리 사회는 도박을 단순한 게임 정도로만 생각하며 즐기다가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단순한 인형뽑기부터 불법적인 변종 카지노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대학생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성인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대학생의 도박문제는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주며 미래에 더욱 심각한 문제성 도박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활동과 고위험 집단의 조기 선별 및 치료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그림 51> 도박관련 행위 심각성 자각 정도

11. 성의식 관련

1) 이성교제 여부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이성교제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2>와 같다.

<표 3-52> 이성교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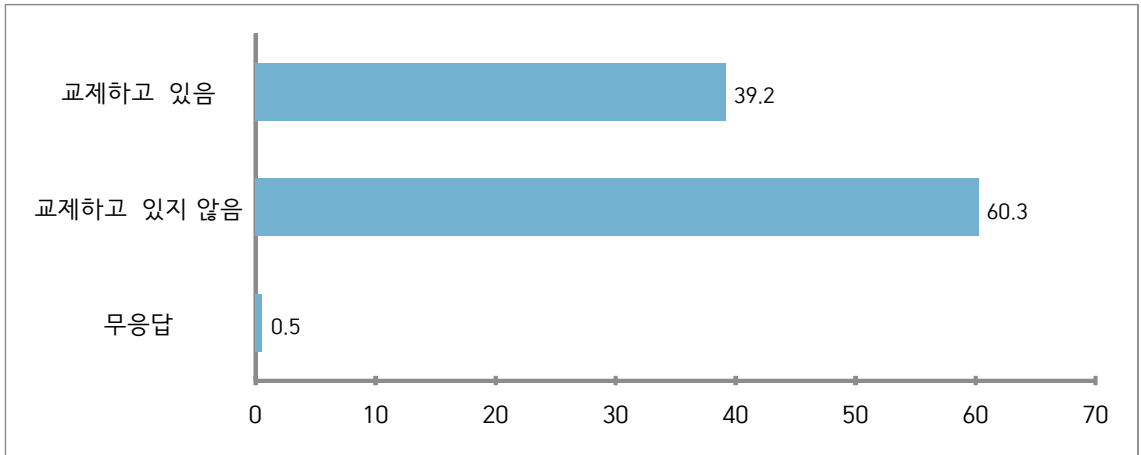
명(%)

	이성교제 여부			전체	
	교제하고 있음	교제하고 있지 않음	무응답		
성별	남자	506 (38.5)	800 (60.9)	8 (.6)	1314 (100.0)
	여자	539 (40.0)	806 (59.7)	4 (.3)	1349 (100.0)
학년	1학년	181 (31.1)	400 (68.7)	1 (.2)	582 (100.0)
	2학년	304 (40.1)	449 (59.2)	5 (.7)	758 (100.0)
	3학년	356 (44.5)	438 (54.8)	6 (.8)	800 (100.0)
	4학년	187 (39.0)	292 (61.0)	0 (.0)	479 (100.0)
	5학년이상	17 (38.6)	27 (61.4)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90 (38.6)	142 (60.9)	1 (.4)	233 (100.0)
	사회과학	69 (33.2)	139 (66.8)	0 (.0)	208 (100.0)
	경상	186 (41.4)	263 (58.6)	0 (.0)	449 (100.0)
	사범	81 (46.6)	93 (53.4)	0 (.0)	174 (100.0)
	간호	24 (31.2)	52 (67.5)	1 (1.3)	77 (100.0)
	해양과학	111 (42.0)	150 (56.8)	3 (1.1)	264 (100.0)
	자연과학	145 (41.7)	202 (58.0)	1 (.3)	348 (100.0)
	공과	153 (37.3)	255 (62.2)	2 (.5)	410 (100.0)
	교육	54 (38.3)	87 (61.7)	0 (.0)	141 (100.0)
	수의과	29 (35.4)	52 (63.4)	1 (1.2)	82 (100.0)
	생명자원과학	63 (39.9)	94 (59.5)	1 (.6)	158 (100.0)
	예술디자인	40 (33.6)	77 (64.7)	2 (1.7)	119 (100.0)
	전체	1045 (39.2)	1606 (60.3)	12 (.5)	2663 (100.0)

<표 3-52><그림 52>와 같이 학생들의 이성교제 여부는 ‘교제하고 있음’ 39.2%, ‘교제하고 있지 않음’ 60.3%로 나타났다. 학년별 이성교제 여부에서 ‘교제하고 있음’은 ‘1학년’ 31.1%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3학년’ 44.5%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이성교제 여부를 살펴보면 ‘교제하고 있음’에서는 ‘사범대’가 46.6%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간호대’가 31.2%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약 40%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의 이성교제는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전단계로 예비부부학교, 예비부모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이성교제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준비단계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림 52> 이성교제 여부

2) 성교육 분야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요구하는 성교육 분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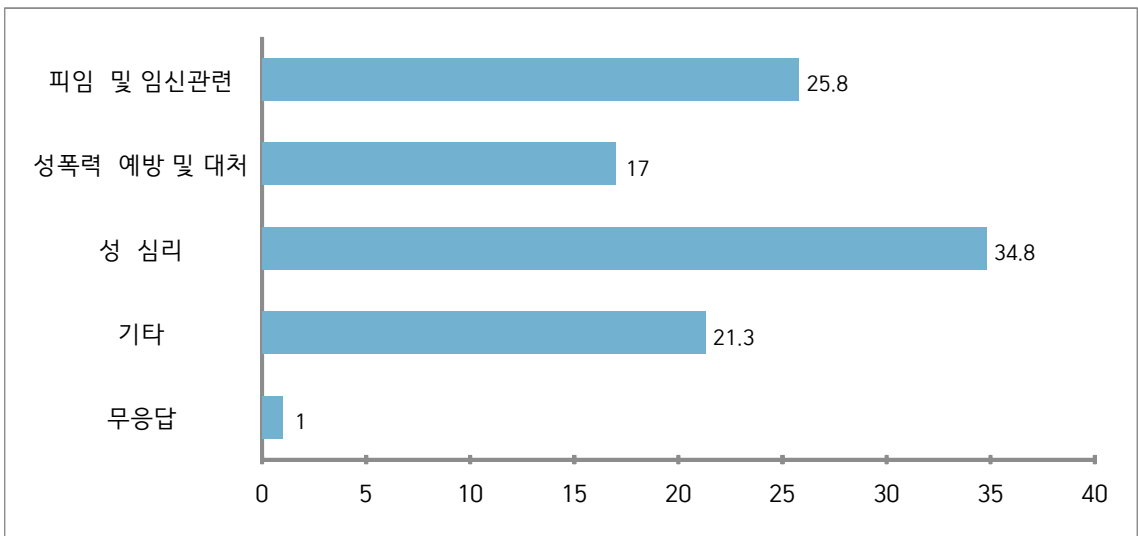
<표 3-53> 성교육 분야 명(%)

		성교육 분야					전체
		피임 및 임신관련	성폭력 예방 및 대처	성심리	기타	무응답	
성별	남자	253 (19.3)	171 (13.0)	543 (41.3)	330 (25.1)	17 (1.3)	1314 (100.0)
	여자	435 (32.2)	282 (20.9)	385 (28.5)	237 (17.6)	10 (.7)	1349 (100.0)
학년	1학년	153 (26.3)	100 (17.2)	203 (34.9)	123 (21.1)	3 (.5)	582 (100.0)
	2학년	190 (25.1)	142 (18.7)	279 (36.8)	136 (17.9)	11 (1.5)	758 (100.0)
	3학년	216 (27.0)	117 (14.6)	268 (33.5)	188 (23.5)	11 (1.4)	800 (100.0)
	4학년	123 (25.7)	87 (18.2)	162 (33.8)	105 (21.9)	2 (.4)	479 (100.0)
	5학년 이상	6 (13.6)	7 (15.9)	16 (36.4)	15 (34.1)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84 (36.1)	37 (15.9)	70 (30.0)	41 (17.6)	1 (.4)	233 (100.0)
	사회과학	57 (27.4)	40 (19.2)	68 (32.7)	42 (20.2)	1 (.5)	208 (100.0)
	경상	138 (30.7)	72 (16.0)	150 (33.4)	89 (19.8)	0 (.0)	449 (100.0)
	사범	44 (25.3)	35 (20.1)	70 (40.2)	25 (14.4)	0 (.0)	174 (100.0)
	간호	29 (37.7)	9 (11.7)	31 (40.3)	7 (9.1)	1 (1.3)	77 (100.0)
	해양과학	47 (17.8)	47 (17.8)	84 (31.8)	82 (31.1)	4 (1.5)	264 (100.0)
	자연과학	119 (34.2)	59 (17.0)	99 (28.4)	68 (19.5)	3 (.9)	348 (100.0)
	공과	75 (18.3)	63 (15.4)	153 (37.3)	110 (26.8)	9 (2.2)	410 (100.0)
	교육	30 (21.3)	24 (17.0)	65 (46.1)	22 (15.6)	0 (.0)	141 (100.0)
	수의과	12 (14.6)	7 (8.5)	38 (46.3)	24 (29.3)	1 (1.2)	82 (100.0)
	생명자원 과학	23 (14.6)	38 (24.1)	57 (36.1)	37 (23.4)	3 (1.9)	158 (100.0)
	예술 디자인	30 (25.2)	22 (18.5)	43 (36.1)	20 (16.8)	4 (3.4)	119 (100.0)
	전체	688 (25.8)	453 (17.0)	928 (34.8)	567 (21.3)	27 (1.0)	2663 (100.0)

<표 3-53><그림 53>과 같이 학생들의 요구하는 성교육 분야는 ‘피임 및 임신관련’ 25.8%, ‘성폭력 예방 및 대처’ 17.0%, ‘성 심리’ 34.8%, ‘기타’ 21.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요구하는 성교육 분야는 ‘피임 및 임신관련’은 ‘여학생’ 32.2%, ‘남학생’ 19.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는 ‘여학생’ 20.9%, ‘남학생’ 13.0%, ‘성 심리’는 ‘여학생’ 28.5%, ‘남학생’ 41.3%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요구하는 성교육 분야는 ‘5학년 이상’에서 ‘피임 및 임신관련’ 13.6%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기타' 34.1%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요구하는 성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피임 및 임신관련'에서는 '간호대' 37.7%, '인문대' 36.1%, '자연과학대' 34.2%, '성폭력 예방 및 대처'에서는 '생명자원과학대' 24.1%, '성 심리'에서는 '수의과대' 46.3%, '교육대' 46.1%, '기타'에서는 '해양과학대' 31.1%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 주입식으로 배우던 성교육이 아닌 대학생의 성교육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토론회 성교육 등 새로운 성에 대한 교육방식이 요구되어진다.



<그림 53> 성교육 분야

3) 성폭력 대처 방법 인지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성폭력 대처 방법 인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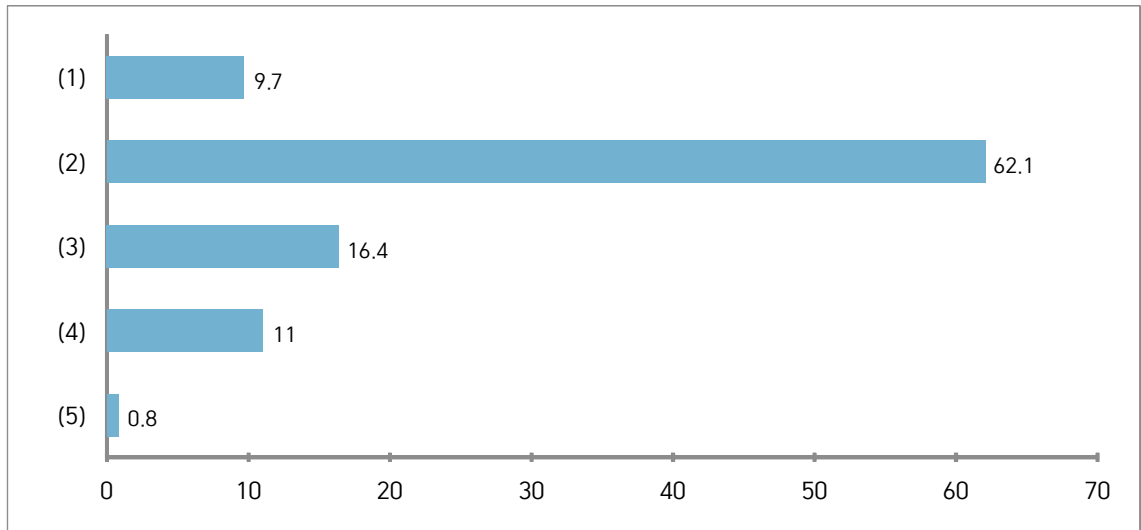
<표 3-54> 성폭력 대처 방법 인지 명(%)

		성폭력 대처 방법 인지					전체
		전혀 모름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잘 모름	대처 방법과 도움 받는 관련기관도 알고 있음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줄 도움은 있는 정도	무응답	
성별	남자	155 (11.8)	751 (57.2)	204 (15.5)	190 (14.5)	14 (1.1)	1314 (100.0)
	여자	102 (7.6)	902 (66.9)	234 (17.3)	103 (7.6)	8 (.6)	1349 (100.0)
학년	1학년	47 (8.1)	355 (61.0)	121 (20.8)	57 (9.8)	2 (.3)	582 (100.0)
	2학년	75 (9.9)	494 (65.2)	106 (14.0)	75 (9.9)	8 (1.1)	758 (100.0)
	3학년	84 (10.5)	480 (60.0)	123 (15.4)	105 (13.1)	8 (1.0)	800 (100.0)
	4학년	43 (9.0)	306 (63.9)	80 (16.7)	47 (9.8)	3 (.6)	479 (100.0)
	5학년 이상	8 (18.2)	18 (40.9)	8 (18.2)	9 (20.5)	1 (2.3)	44 (100.0)

소속대학	인문	18 (7.7)	149 (63.9)	42 (18.0)	23 (9.9)	1 (.4)	233 (100.0)
	사회과학	15 (7.2)	119 (57.2)	49 (23.6)	24 (11.5)	1 (.5)	208 (100.0)
	경상	37 (8.2)	299 (66.6)	76 (16.9)	37 (8.2)	0 (.0)	449 (100.0)
	사범	14 (8.0)	114 (65.5)	33 (19.0)	12 (6.9)	1 (.6)	174 (100.0)
	간호	8 (10.4)	38 (49.4)	21 (27.3)	9 (11.7)	1 (1.3)	77 (100.0)
	해양과학	52 (19.7)	151 (57.2)	30 (11.4)	28 (10.6)	3 (1.1)	264 (100.0)
	자연과학	28 (8.0)	225 (64.7)	55 (15.8)	38 (10.9)	2 (.6)	348 (100.0)
	공과	42 (10.2)	253 (61.7)	53 (12.9)	55 (13.4)	7 (1.7)	410 (100.0)
	교육	9 (6.4)	97 (68.8)	24 (17.0)	11 (7.8)	0 (.0)	141 (100.0)
	수의과	12 (14.6)	41 (50.0)	14 (17.1)	15 (18.3)	0 (.0)	82 (100.0)
	생명자원 과학	13 (8.2)	84 (53.2)	25 (15.8)	32 (20.3)	4 (2.5)	158 (100.0)
	예술 디자인	9 (7.6)	83 (69.7)	16 (13.4)	9 (7.6)	2 (1.7)	119 (100.0)
	전체	257 (9.7)	1653 (62.1)	438 (16.4)	293 (11.0)	22 (.8)	2663 (100.0)

<표 3-54><그림 54>와 같이 학생들의 성폭력 대처 방법 인지는 ‘전혀 모름’ 9.7%,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름’ 62.1%, ‘대처방법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알고 있음’ 16.4%,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11.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성폭력 대처 방법 인지는 ‘전혀 모름’,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에서는 ‘남학생’ 11.8%, 57.2%, 14.5%, ‘여학생’ 7.6%, 66.9%,

7.6%로 차이가 나타났고 '대처방법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알고 있음'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에 따른 성폭력 대처 방법 인지는 '1,2,3,4학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5학년 이상'에서 '전혀 모름'과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는 18.2%, 20.5%로 타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름'은 40.9%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성폭력 대처 방법 인지를 살펴보면 '전혀 모름'에서는 '해양과학대' 19.7%,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름'에서는 '예술디자인대' 69.7%, '교육대' 68.8%로, '대처방법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알고 있음'에서는 '간호대' 27.3%, '사회과학대' 23.6%로,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에서는 '생명자원과학대' 20.3%, '수의과대' 18.3%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에 관련된 사회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성별로는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여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이 요구된다. 다만 대학생의 성교육에 있어서 자율성을 이유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1) 전혀 모름
- (2)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름
- (3) 대처 방법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관련기관도 알고 있음
- (4)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 (5) 무응답

<그림 54> 성폭력 대처 방법 인지

12. 사회관심 관련

1)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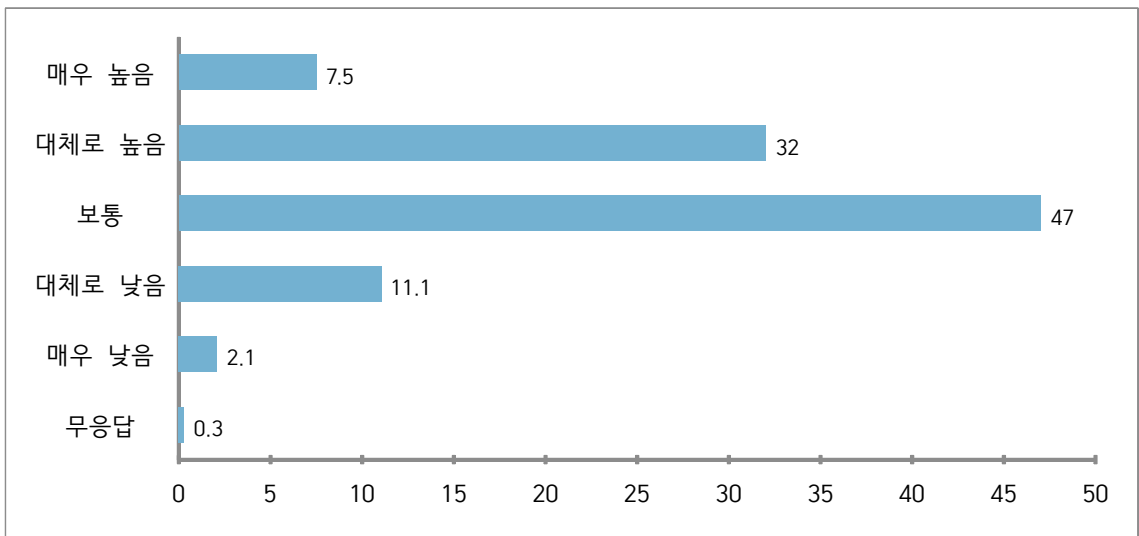
<표 3-55>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명(%)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전체	
		매우 높음	대체로 높음	보통	대체로 낮음	매우 낮음		무응답
성 별	남자	132 (10.0)	413 (31.4)	602 (45.8)	128 (9.7)	33 (2.5)	6 (.5)	1314 (100.0)
	여자	69 (5.1)	438 (32.5)	649 (48.1)	167 (12.4)	23 (1.7)	3 (.2)	1349 (100.0)
학 년	1학년	33 (5.7)	191 (32.8)	285 (49.0)	57 (9.8)	13 (2.2)	3 (.5)	582 (100.0)
	2학년	43 (5.7)	241 (31.8)	341 (45.0)	108 (14.2)	21 (2.8)	4 (.5)	758 (100.0)
	3학년	81 (10.1)	259 (32.4)	367 (45.9)	76 (9.5)	16 (2.0)	1 (.1)	800 (100.0)
	4학년	39 (8.1)	149 (31.1)	234 (48.9)	50 (10.4)	6 (1.3)	1 (.2)	479 (100.0)
	5학년	5	11	24	4	0	0	44
	이상	(11.4)	(25.0)	(54.5)	(9.1)	(.0)	(.0)	(100.0)

소속대학	인문	15 (6.4)	79 (33.9)	105 (45.1)	25 (10.7)	9 (3.9)	0 (.0)	233 (100.0)
	사회과학	16 (7.7)	90 (43.3)	79 (38.0)	18 (8.7)	3 (1.4)	2 (1.0)	208 (100.0)
	경상	38 (8.5)	140 (31.2)	217 (48.3)	48 (10.7)	6 (1.3)	0 (.0)	449 (100.0)
	사범	11 (6.3)	81 (46.6)	67 (38.5)	13 (7.5)	2 (1.1)	0 (.0)	174 (100.0)
	간호	2 (2.6)	30 (39.0)	30 (39.0)	10 (13.0)	3 (3.9)	2 (2.6)	77 (100.0)
	해양과학	22 (8.3)	57 (21.6)	155 (58.7)	28 (10.6)	2 (.8)	0 (.0)	264 (100.0)
	자연과학	16 (4.6)	106 (30.5)	162 (46.6)	53 (15.2)	11 (3.2)	0 (.0)	348 (100.0)
	공과	34 (8.3)	115 (28.0)	203 (49.5)	44 (10.7)	13 (3.2)	1 (.2)	410 (100.0)
	교육	19 (13.5)	41 (29.1)	63 (44.7)	14 (9.9)	3 (2.1)	1 (.7)	141 (100.0)
	수의과	9 (11.0)	23 (28.0)	37 (45.1)	10 (12.2)	2 (2.4)	1 (1.2)	82 (100.0)
	생명자원 과학	11 (7.0)	54 (34.2)	72 (45.6)	18 (11.4)	1 (.6)	2 (1.3)	158 (100.0)
	예술 디자인	8 (6.7)	35 (29.4)	61 (51.3)	14 (11.8)	1 (.8)	0 (.0)	119 (100.0)
	전체	201 (7.5)	851 (32.0)	1251 (47.0)	295 (11.1)	56 (2.1)	9 (.3)	2663 (100.0)

<표 3-55><그림 55>와 같이 학생들의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대한 관심정도는 ‘매우 높음’과 ‘대체로 높음’이 약 39.5%이고 ‘보통’ 47.0%, ‘대체로 낮음’과 ‘매우 낮음’이 약 13.2%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대한 관심정도는 ‘대체로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41.4%, ‘여학생’ 37.6%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대한 관심정도가 ‘대체로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이 ‘3학년’에서는 42.5%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낮음'이하 응답한 비율은 '2학년' 17%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대한 관심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높음'이상 응답한 비율이 '사범대' 52.9%, '사회과학대' 51.0%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낮음'이하 응답한 비율은 '자연과학대' 18.4%, '간호대' 16.9%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복잡성, 국가위기상황의 현실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학업과 졸업 후 취업 등에 대한 걱정과 고민 등이 있지만 우리의 미래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5>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2)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에 대한 관심 정도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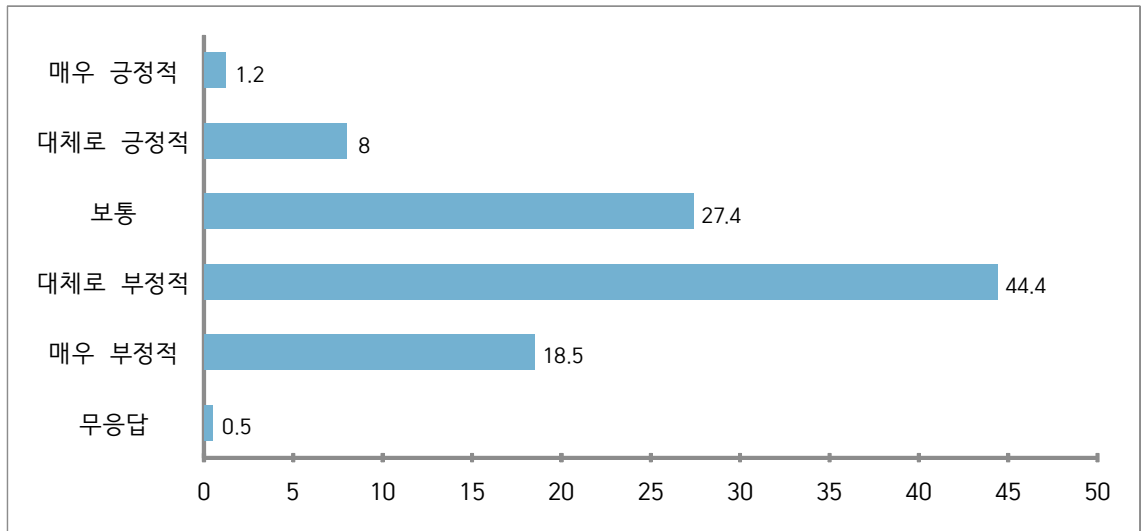
<표 3-56>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 명(%)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					전체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보통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무응답
성별	남자	27 (2.1)	131 (10.0)	364 (27.7)	531 (40.4)	254 (19.3)	7 (.5)	1314 (100.0)
	여자	6 (.4)	81 (6.0)	366 (27.1)	652 (48.3)	239 (17.7)	5 (.4)	1349 (100.0)
학년	1학년	6 (1.0)	32 (5.5)	180 (30.9)	271 (46.6)	89 (15.3)	4 (.7)	582 (100.0)
	2학년	9 (1.2)	59 (7.8)	176 (23.2)	367 (48.4)	144 (19.0)	3 (.4)	758 (100.0)
	3학년	12 (1.5)	71 (8.9)	217 (27.1)	336 (42.0)	161 (20.1)	3 (.4)	800 (100.0)
	4학년	4 (.8)	46 (9.6)	139 (29.0)	196 (40.9)	92 (19.2)	2 (.4)	479 (100.0)
	5학년 이상	2 (4.5)	4 (9.1)	18 (40.9)	13 (29.5)	7 (15.9)	0 (.0)	44 (100.0)

소속대학	인문	1 (.4)	10 (4.3)	46 (19.7)	120 (51.5)	56 (24.0)	0 (.0)	233 (100.0)
	사회과학	3 (1.4)	22 (10.6)	52 (25.0)	86 (41.3)	43 (20.7)	2 (1.0)	208 (100.0)
	경상	6 (1.3)	28 (6.2)	121 (26.9)	220 (49.0)	73 (16.3)	1 (.2)	449 (100.0)
	사범	1 (.6)	16 (9.2)	49 (28.2)	79 (45.4)	29 (16.7)	0 (.0)	174 (100.0)
	간호	0 (.0)	2 (2.6)	18 (23.4)	46 (59.7)	10 (13.0)	1 (1.3)	77 (100.0)
	해양과학	8 (3.0)	27 (10.2)	93 (35.2)	98 (37.1)	38 (14.4)	0 (.0)	264 (100.0)
	자연과학	0 (.0)	22 (6.3)	76 (21.8)	178 (51.1)	70 (20.1)	2 (.6)	348 (100.0)
	공과	9 (2.2)	36 (8.8)	122 (29.8)	161 (39.3)	81 (19.8)	1 (.2)	410 (100.0)
	교육	1 (.7)	17 (12.1)	51 (36.2)	57 (40.4)	14 (9.9)	1 (.7)	141 (100.0)
	수의과	1 (1.2)	10 (12.2)	18 (22.0)	33 (40.2)	19 (23.2)	1 (1.2)	82 (100.0)
	생명자원 과학	2 (1.3)	16 (10.1)	54 (34.2)	58 (36.7)	25 (15.8)	3 (1.9)	158 (100.0)
	예술 디자인	1 (.8)	6 (5.0)	30 (25.2)	47 (39.5)	35 (29.4)	0 (.0)	119 (100.0)
	전체	33 (1.2)	212 (8.0)	730 (27.4)	1183 (44.4)	493 (18.5)	12 (.5)	2663 (100.0)

<표 3-56><그림 56>과 같이 학생들의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은 '매우 긍정적'과 '대체로 긍정적'이 약 9.2%이고 '보통' 27.4%, '대체로 부정적'과 '매우 부정적'이 약 62.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상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12.1%, '여학생' 6.4%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부정적'이하 응답한 비율에서는 '남학생' 59.7%, '여학생' 66.0%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상 응답한 비율이 ‘1학년’ 6.5%로 타 학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5학년 이상’에서는 13.6%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부정적’이하 응답한 비율은 ‘2학년’에서는 67.4%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5학년 이상’에서는 45.4%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을 살펴보면 ‘대체로 긍정적’이상 응답한 비율이 ‘수의과대’ 13.4%, ‘해양과학대’ 13.2%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부정적’이하 응답한 비율은 ‘인문대’ 75.5%, ‘간호대’ 72.7%, ‘자연과학대’ 71.2%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미래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생이 약 62.9%에 이르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정세와 관련되어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진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부정적 시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삶과 의지로 대안을 찾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56>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

3)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다중응답)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하는 다중응답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7>과 같다. 1순위에는 200%, 2순위에는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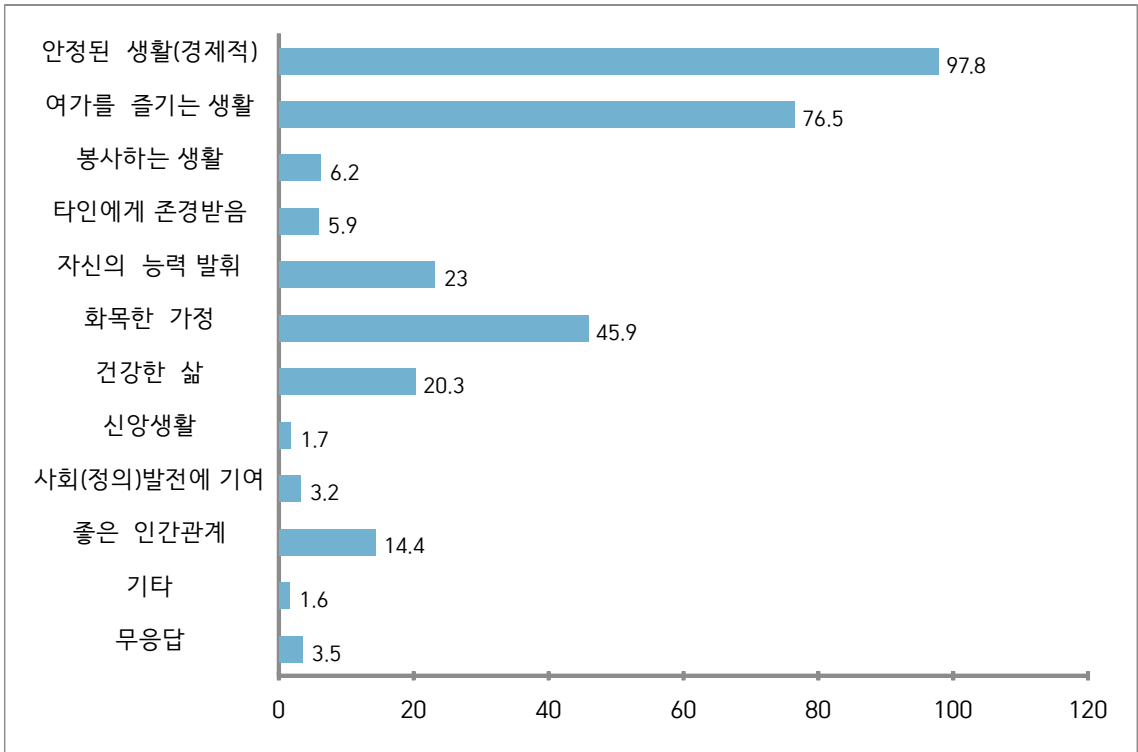
<표 3-57>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 명(%)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											전체	
		안정된 생활 (경제적)	여가를 즐기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타인에게 존경받음	자신의 능력 발휘	화목한 가정	건강한 삶	신앙 생활	사회(정의) 발전에 기여	좋은 인간관계	기타	무응답	
성별	남자	1290 (32.7)	1036 (26.3)	84 (2.1)	108 (2.7)	280 (7.1)	558 (14.2)	256 (6.5)	17 (.4)	48 (1.2)	188 (4.8)	22 (.6)	55 (1.4)	3942 (100.0)
	여자	1314 (32.5)	1000 (24.7)	82 (2.0)	50 (1.2)	332 (8.2)	663 (16.4)	284 (7.0)	29 (.7)	38 (.9)	196 (4.8)	20 (.5)	39 (1.0)	4047 (100.0)
학년	1학년	571 (32.7)	447 (25.6)	36 (2.1)	31 (1.8)	129 (7.4)	257 (14.7)	119 (6.8)	11 (.6)	7 (.4)	112 (6.4)	6 (.3)	20 (1.1)	1746 (100.0)
	2학년	742 (32.6)	575 (25.3)	44 (1.9)	48 (2.1)	159 (7.0)	378 (16.6)	152 (6.7)	10 (.4)	23 (1.0)	101 (4.4)	12 (.5)	30 (1.3)	2274 (100.0)
	3학년	798 (33.3)	590 (24.6)	52 (2.2)	39 (1.6)	189 (7.9)	367 (15.3)	155 (6.5)	16 (.7)	31 (1.3)	119 (5.0)	12 (.5)	32 (1.3)	2400 (100.0)
	4학년	455 (31.7)	386 (26.9)	27 (1.9)	38 (2.6)	131 (9.1)	195 (13.6)	107 (7.4)	9 (.6)	23 (1.6)	49 (3.4)	8 (.6)	9 (.6)	1437 (100.0)
	5학년 이상	38 (28.8)	38 (28.8)	7 (5.3)	2 (1.5)	4 (3.0)	24 (18.2)	7 (5.3)	0 (.0)	2 (1.5)	3 (2.3)	4 (3.0)	3 (2.3)	132 (100.0)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소속 대학	인문	251 (35.9)	160 (22.9)	14 (2.0)	16 (2.3)	59 (8.4)	92 (13.2)	48 (6.9)	0 (.0)	3 (.4)	49 (7.0)	3 (.4)	4 (.6)
	사회과학	150 (24.0)	161 (25.8)	15 (2.4)	13 (2.1)	69 (11.1)	104 (16.7)	52 (8.3)	6 (1.0)	12 (1.9)	27 (4.3)	2 (.3)	13 (2.1)
	경상	505 (37.5)	334 (24.8)	17 (1.3)	22 (1.6)	106 (7.9)	197 (14.6)	77 (5.7)	4 (.3)	12 (.9)	62 (4.6)	7 (.5)	4 (.3)
	사범	185 (35.4)	141 (27.0)	10 (1.9)	15 (2.9)	33 (6.3)	77 (14.8)	27 (5.2)	0 (.0)	5 (1.0)	28 (5.4)	0 (.0)	1 (.2)
	간호	63 (27.3)	72 (31.2)	8 (3.5)	2 (.9)	15 (6.5)	29 (12.6)	20 (8.7)	4 (1.7)	2 (.9)	10 (4.3)	0 (.0)	6 (2.6)
	해양과학	256 (32.3)	207 (26.1)	25 (3.2)	19 (2.4)	44 (5.6)	110 (13.9)	61 (7.7)	1 (.1)	10 (1.3)	30 (3.8)	8 (1.0)	21 (2.7)
	자연과학	330 (31.6)	249 (23.9)	10 (1.0)	20 (1.9)	75 (7.2)	195 (18.7)	73 (7.0)	10 (1.0)	4 (.4)	69 (6.6)	4 (.4)	5 (.5)
	공과	418 (34.0)	343 (27.9)	22 (1.8)	21 (1.7)	82 (6.7)	176 (14.3)	74 (6.0)	8 (.7)	11 (.9)	53 (4.3)	5 (.4)	17 (1.4)
	교육	121 (28.6)	113 (26.7)	7 (1.7)	8 (1.9)	27 (6.4)	72 (17.0)	35 (8.3)	3 (.7)	8 (1.9)	23 (5.4)	2 (.5)	4 (.9)
	수의과	91 (37.0)	58 (23.6)	5 (2.0)	9 (3.7)	8 (3.3)	36 (14.6)	13 (5.3)	2 (.8)	6 (2.4)	5 (2.0)	8 (3.3)	5 (2.0)
	생명자원 과학	150 (31.6)	116 (24.5)	24 (5.1)	7 (1.5)	33 (7.0)	67 (14.1)	33 (7.0)	5 (1.1)	8 (1.7)	15 (3.2)	3 (.6)	13 (2.7)
	예술디자인	84 (23.5)	82 (23.0)	9 (2.5)	6 (1.7)	61 (17.1)	66 (18.5)	27 (7.6)	3 (.8)	5 (1.4)	13 (3.6)	0 (.0)	1 (.3)
	전체	2604 (32.6)	2036 (25.5)	166 (2.1)	158 (2.0)	612 (7.7)	1221 (15.3)	540 (6.8)	46 (.6)	86 (1.1)	384 (4.8)	42 (.5)	94 (1.2)

①안정된생활(경제적) ②여가를즐기는생활 ③봉사하는생활 ④타인에게존경받음 ⑤자신의능력발휘 ⑥화목한가정 ⑦건강한삶 ⑧신앙생활 ⑨사회(정의)발전에
기여 ⑩좋은인간관계 ⑪기타 ⑫무응답

<표 3-57><그림 57>과 같이 학생들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은 ‘안정된 생활’ 32.6%, ‘여가를 즐기는 생활’ 25.5%, ‘화목한 가정’ 15.3%, ‘자신의 능력 발휘’ 7.7%, ‘건강한 삶’ 6.8%, ‘좋은 인간관계’ 4.8%, ‘봉사하는 생활’ 2.1%, ‘타인에게 존경 받음’ 2.0%, ‘사회발전에 기여’ 1.1%, ‘신앙생활’ 0.6%, ‘기타’ 0.5%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은 ‘타인에게 존경받음’과 ‘화목한 가정’에서 ‘남학생’ 2.7%, 14.2%, ‘여학생’ 1.2%, 16.4%로 각각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은 ‘여가를 즐기는 생활’에서 ‘4학년’과 ‘5학년 이상’이 각각 26.9%, 28.8%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능력 발휘’에서는 ‘4학년’ 9.1%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5학년 이상’에서는 3.0%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화목한 가정’에서는 ‘2학년’과 ‘5학년 이상’에서 각각 16.6%, 18.2%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 발전에 기여’에서는 ‘1학년’에서 0.4%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좋은 인간관계’에서는 ‘1학년’ 6.4%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5학년 이상’에서 2.3%로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안정된 생활’은 ‘경상대’ 37.5%, ‘여가를 즐기는 생활’은 ‘간호대’ 31.2%, ‘봉사하는 생활’은 ‘생명자원과 학대’ 5.1%, ‘타인에게 존경 받음’은 ‘수의과대’ 3.7%, ‘자신의 능력 발휘’는 ‘예술디자인대’ 17.1%, ‘화목한 가정’은 ‘자연과학대’ 18.7%, ‘건강한 삶’은 ‘간호대’ 8.7%, ‘신앙생활’은 ‘간호대’ 1.7%, ‘사회발전에 기여’는 ‘수의과대’ 2.4%, ‘좋은 인간관계’는 ‘인문대’ 7.0%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뽑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안정된 생활’과 ‘여가를 즐기는 생활’이다. 가치관이란 사람의 태도와 관점, 그리고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좋고 나쁨을 떠나 우리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올바른 자신만의 인생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학적 교양과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57>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

13. 신입생 관련

1) 출신지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출신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8>과 같다.

<표 3-58> 신입생 출신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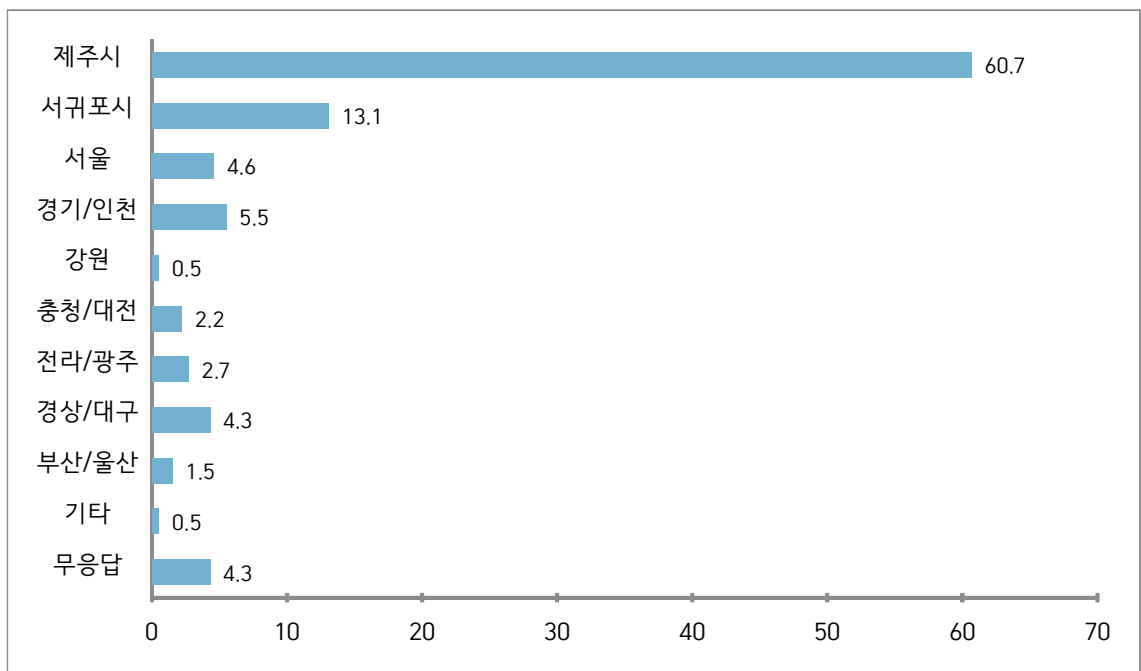
명(%)

		출신지역										전체	
		제주시	서귀포 시	서울	경기 / 인천	강원	충청 / 대전	전라 / 광주	경상 / 대구	부산 / 울산	기타		무응답
성별	남자	154 (56.2)	34 (12.4)	13 (4.7)	19 (6.9)	1 (.4)	7 (2.6)	11 (4.0)	12 (4.4)	6 (2.2)	2 (.7)	15 (5.5)	274 (100.0)
	여자	199 (64.6)	42 (13.6)	14 (4.5)	13 (4.2)	2 (.6)	6 (1.9)	5 (1.6)	13 (4.2)	3 (1.0)	1 (.3)	10 (3.2)	308 (100.0)
소속 대학	인문	32 (65.3)	10 (20.4)	3 (6.1)	1 (2.0)	0 (.0)	1 (2.0)	1 (2.0)	1 (2.0)	0 (.0)	0 (.0)	0 (.0)	49 (100.0)
	사회과학	16 (66.7)	4 (16.7)	2 (8.3)	1 (4.2)	0 (.0)	0 (.0)	0 (.0)	0 (.0)	0 (.0)	0 (.0)	1 (4.2)	24 (100.0)
	경상	81 (71.7)	18 (15.9)	1 (.9)	1 (.9)	0 (.0)	3 (2.7)	4 (3.5)	3 (2.7)	2 (1.8)	0 (.0)	0 (.0)	113 (100.0)
	사범	24 (61.5)	2 (5.1)	1 (2.6)	5 (12.8)	0 (.0)	3 (7.7)	0 (.0)	2 (5.1)	0 (.0)	0 (.0)	2 (5.1)	39 (100.0)

간호	12 (57.1)	4 (19.0)	0 (.0)	0 (.0)	0 (.0)	0 (.0)	2 (9.5)	1 (4.8)	1 (4.8)	0 (.0)	1 (4.8)
해양과학	31 (55.4)	7 (12.5)	2 (3.6)	3 (5.4)	0 (.0)	0 (.0)	3 (5.4)	2 (3.6)	1 (1.8)	0 (.0)	7 (12.5)
자연과학	47 (65.3)	10 (13.9)	0 (.0)	10 (13.9)	0 (.0)	2 (2.8)	0 (.0)	1 (1.4)	0 (.0)	0 (.0)	2 (2.8)
공과	65 (69.1)	10 (10.6)	7 (7.4)	1 (1.1)	3 (3.2)	0 (.0)	1 (1.1)	2 (2.1)	0 (.0)	1 (1.1)	4 (4.3)
교육	5 (31.3)	0 (.0)	3 (18.8)	3 (18.8)	0 (.0)	0 (.0)	2 (12.5)	3 (18.8)	0 (.0)	0 (.0)	0 (.0)
수의과	2 (6.1)	1 (3.0)	4 (12.1)	4 (12.1)	0 (.0)	2 (6.1)	3 (9.1)	8 (24.2)	3 (9.1)	1 (3.0)	5 (15.2)
생명자원 과학	15 (62.5)	2 (8.3)	1 (4.2)	1 (4.2)	0 (.0)	0 (.0)	0 (.0)	2 (8.3)	1 (4.2)	0 (.0)	2 (8.3)
예술 디자인	23 (56.1)	8 (19.5)	3 (7.3)	2 (4.9)	0 (.0)	2 (4.9)	0 (.0)	0 (.0)	1 (2.4)	1 (2.4)	1 (2.4)
전체	353 (60.7)	76 (13.1)	27 (4.6)	32 (5.5)	3 (.5)	13 (2.2)	16 (2.7)	25 (4.3)	9 (1.5)	3 (.5)	25 (4.3)

<표 3-58><그림 58>과 같이 학생들의 출신지역은 '제주시' 60.7%, '서귀포시' 13.1%, '경기/인천' 5.5%, '서울' 4.6%, '경상/대구' 4.3%, '전라/광주' 2.7%, '충청/대전' 2.2%, '부산/울산' 1.5%, '강원' 0.5%로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출신지역은 '여학생'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78.2%이며 '남학생'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68.6%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과대학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출신으로 나타났으나 '사범대'는 '제주시' 61.5%, '경기/인천' 12.8%, '충청/대전' 7.7%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연과학대학'은 '제주시' 65.3%, '서귀포시' 13.9%, '경기/인천'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자원대학'은 '제주시' 62.5%, '서귀포시'

8.3%, '경상/대구'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대학'은 '제주시' 31.3%, '서울', '경기/인천', '경상/대구' 출신이 각각 18.8%, '전라/광주' 12.5%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의과대학'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출신은 9.1%, '경상/대구' 24.2%, '서울'과 '경기/인천'이 각각 12.1%로 도외지역 출신자들이 높게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전체의 약 73.8%가 제주도내로 나타났다. 이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교육대, 수의과대는 제주도내 출신자(각각 31.3%, 9.1%)보다 타 지역 출신자(각각 68.9%, 75.7%)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과특성에 따른 도외 인재의 유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대학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그림 58> 신입생 출신지역

2) 입학전형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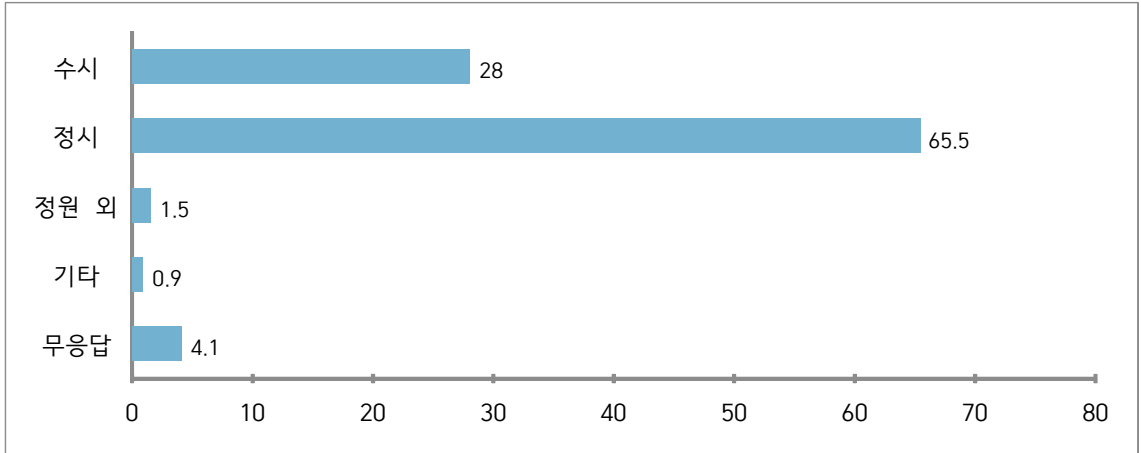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입학전형 유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59>와 같다.

<표 3-59> 입학전형 유형 명(%)

	입학전형 유형					전체	
	수시	정시	정원 외	기타	무응답		
성별	남자	73 (26.6)	180 (65.7)	6 (2.2)	1 (.4)	14 (5.1)	274 (100.0)
	여자	90 (29.3)	201 (65.3)	3 (1.0)	4 (1.3)	10 (3.2)	308 (100.0)
소속 대학	인문	20 (40.8)	29 (59.2)	0 (.0)	0 (.0)	0 (.0)	49 (100.0)
	사회과학	8 (33.3)	15 (62.5)	0 (.0)	0 (.0)	1 (4.2)	24 (100.0)
	경상	35 (31.0)	76 (67.3)	1 (.9)	1 (.9)	0 (.0)	113 (100.0)
	사범	3 (7.7)	34 (87.2)	0 (.0)	0 (.0)	2 (5.1)	39 (100.0)
	간호	5 (23.8)	15 (71.4)	0 (.0)	0 (.0)	1 (4.8)	21 (100.0)
	해양과학	11 (19.6)	38 (67.9)	0 (.0)	1 (1.8)	6 (10.7)	56 (100.0)
	자연과학	26 (36.1)	44 (61.1)	0 (.0)	0 (.0)	2 (2.8)	72 (100.0)
	공과	24 (25.5)	61 (64.9)	4 (4.3)	1 (1.1)	4 (4.3)	94 (100.0)
	교육	7 (43.8)	9 (56.3)	0 (.0)	0 (.0)	0 (.0)	16 (100.0)
	수의과	6 (18.2)	19 (57.6)	2 (6.1)	1 (3.0)	5 (15.2)	33 (100.0)
	생명자원 과학	10 (41.7)	9 (37.5)	2 (8.3)	1 (4.2)	2 (8.3)	24 (100.0)
	예술 디자인	8 (19.5)	32 (78.0)	0 (.0)	0 (.0)	1 (2.4)	41 (100.0)
	전체	163 (28.0)	381 (65.5)	9 (1.5)	5 (.9)	24 (4.1)	582 (100.0)

<표 3-59><그림 59>와 같이 학생들의 입학 유형은 ‘수시’ 28.0%, ‘정시’ 65.5%, ‘정원 외’ 1.5%, ‘기타’ 0.9%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입학 유형을 살펴보면 ‘수시’는 ‘교육대’ 43.8%,

‘생명자원과학대’ 41.7%, ‘인문대’ 40.8%, ‘정시’는 ‘사범대’ 87.2%, ‘예술디자인대’ 78.0%, ‘정원 외’는 ‘생명자원과학대’ 8.3%, ‘수의과대’ 6.1%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9> 입학전형 유형

3) 제주대학교에 대한 이미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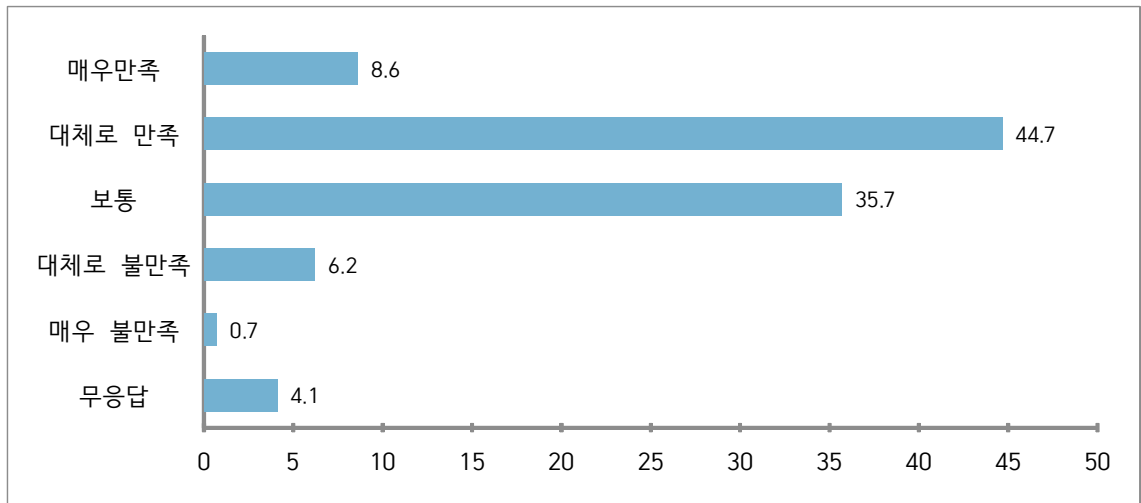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제주대학교에 대한 이미지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60>과 같다.

<표 3-60> 제주대학교에 대한 이미지 만족도 명(%)

		제주대학교에 대한 이미지 만족도					전체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보통	대체로불만족	매우불만족		무응답
성별	남자	29 (10.6)	126 (46.0)	82 (29.9)	21 (7.7)	2 (.7)	14 (5.1)	274 (100.0)
	여자	21 (6.8)	134 (43.5)	126 (40.9)	15 (4.9)	2 (.6)	10 (3.2)	308 (100.0)
소속대학	인문	2 (4.1)	31 (63.3)	14 (28.6)	2 (4.1)	0 (.0)	0 (.0)	49 (100.0)
	사회과학	3 (12.5)	11 (45.8)	8 (33.3)	1 (4.2)	0 (.0)	1 (4.2)	24 (100.0)
	경상	14 (12.4)	57 (50.4)	41 (36.3)	1 (.9)	0 (.0)	0 (.0)	113 (100.0)
	사범	2 (5.1)	19 (48.7)	16 (41.0)	0 (.0)	0 (.0)	2 (5.1)	39 (100.0)
	간호	0 (.0)	10 (47.6)	9 (42.9)	1 (4.8)	0 (.0)	1 (4.8)	21 (100.0)
	해양과학	9 (16.1)	19 (33.9)	21 (37.5)	1 (1.8)	0 (.0)	6 (10.7)	56 (100.0)
	자연과학	6 (8.3)	33 (45.8)	26 (36.1)	4 (5.6)	1 (1.4)	2 (2.8)	72 (100.0)
	공과	9 (9.6)	48 (51.1)	24 (25.5)	8 (8.5)	1 (1.1)	4 (4.3)	94 (100.0)
	교육	2 (12.5)	5 (31.3)	9 (56.3)	0 (.0)	0 (.0)	0 (.0)	16 (100.0)
	수학과	1 (3.0)	3 (9.1)	11 (33.3)	12 (36.4)	1 (3.0)	5 (15.2)	33 (100.0)
	생명자원과학	1 (4.2)	12 (50.0)	4 (16.7)	4 (16.7)	1 (4.2)	2 (8.3)	24 (100.0)
	예술디자인	1 (2.4)	12 (29.3)	25 (61.0)	2 (4.9)	0 (.0)	1 (2.4)	41 (100.0)
	전체	50 (8.6)	260 (44.7)	208 (35.7)	36 (6.2)	4 (.7)	24 (4.1)	582 (100.0)

<표 3-60><그림 60>과 같이 학생들의 제주대학교 이미지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약 53.3%이고 ‘보통’ 35.7%,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약 6.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제주대학교 이미지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이상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56.6%, '여학생' 50.3%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제주대학교 이미지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 이상 응답한 비율이 '인문대' 67.4%, '경상대' 62.8%, '공과대' 60.7%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이하 응답한 비율은 '수의과대' 39.4%, '생명자원과학대' 20.9%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제주대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대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요구되어진다.



<그림 60> 제주대학교에 대한 이미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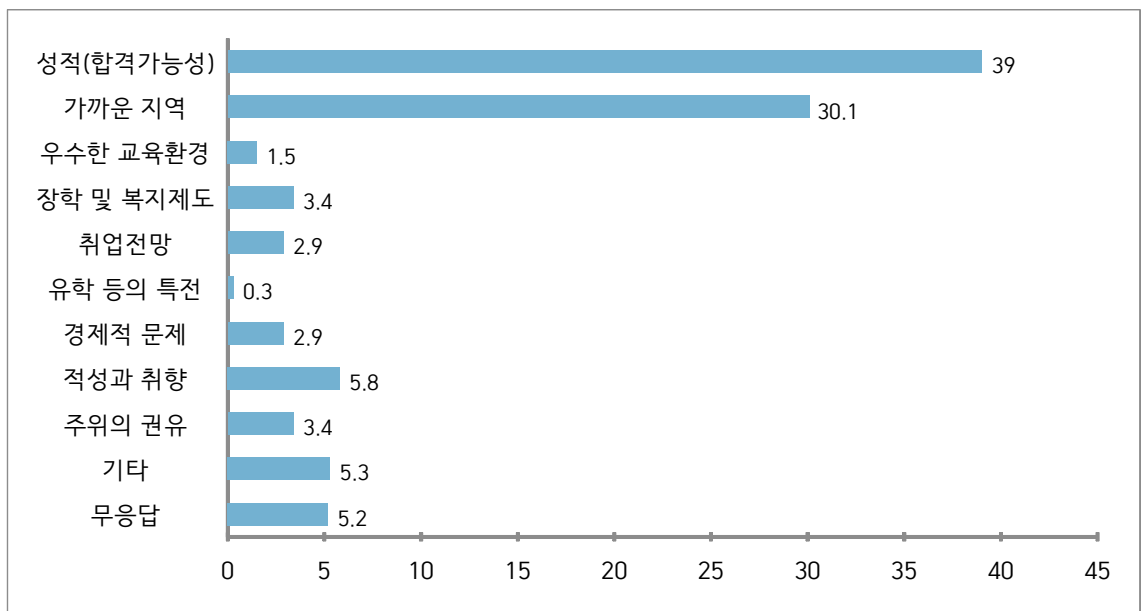
4) 제주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제주대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61>과 같다.

<표 3-61> 제주대학교 선택 이유 명(%)

		제주대학교 선택 이유											전체
		성적 (합격 가능성)	가까운 지역	우수한 교육 환경	장학 및 복지 제도	취업 전망	유행의 특전	경제적 문제	적성과 취향	주위의 권유	기타	무응답	
성별	남자	105 (38.3)	78 (28.5)	7 (2.6)	9 (3.3)	9 (3.3)	0 (.0)	7 (2.6)	18 (6.6)	7 (2.6)	16 (5.8)	18 (6.6)	274 (100.0)
	여자	122 (39.6)	97 (31.5)	2 (.6)	11 (3.6)	8 (2.6)	2 (.6)	10 (3.2)	16 (5.2)	13 (4.2)	15 (4.9)	12 (3.9)	308 (100.0)
소속 대학	인문	15 (30.6)	19 (38.8)	2 (4.1)	0 (.0)	0 (.0)	0 (.0)	5 (10.2)	5 (10.2)	1 (2.0)	2 (4.1)	0 (.0)	49 (100.0)
	사회 과학	9 (37.5)	10 (41.7)	0 (.0)	1 (4.2)	0 (.0)	0 (.0)	0 (.0)	2 (8.3)	0 (.0)	1 (4.2)	1 (4.2)	24 (100.0)
	경상	55 (48.7)	37 (32.7)	1 (.9)	3 (2.7)	4 (3.5)	2 (1.8)	2 (1.8)	3 (2.7)	3 (2.7)	3 (2.7)	0 (.0)	113 (100.0)
	사범	15 (38.5)	9 (23.1)	1 (2.6)	1 (2.6)	2 (5.1)	0 (.0)	1 (2.6)	5 (12.8)	1 (2.6)	2 (5.1)	2 (5.1)	39 (100.0)
	간호	5 (23.8)	11 (52.4)	0 (.0)	0 (.0)	1 (4.8)	0 (.0)	0 (.0)	0 (.0)	1 (4.8)	2 (9.5)	1 (4.8)	21 (100.0)
	해양 과학	23 (41.1)	15 (26.8)	1 (1.8)	1 (1.8)	1 (1.8)	0 (.0)	0 (.0)	2 (3.6)	5 (8.9)	1 (1.8)	7 (12.5)	56 (100.0)
	자연 과학	24 (33.3)	23 (31.9)	1 (1.4)	4 (5.6)	3 (4.2)	0 (.0)	3 (4.2)	4 (5.6)	3 (4.2)	5 (6.9)	2 (2.8)	72 (100.0)
	공과	31 (33.0)	29 (30.9)	3 (3.2)	7 (7.4)	2 (2.1)	0 (.0)	3 (3.2)	1 (1.1)	1 (1.1)	9 (9.6)	8 (8.5)	94 (100.0)
	교육	9 (56.3)	2 (12.5)	0 (.0)	0 (.0)	1 (6.3)	0 (.0)	2 (12.5)	2 (12.5)	0 (.0)	0 (.0)	0 (.0)	16 (100.0)
	수학과	15 (45.5)	3 (9.1)	0 (.0)	0 (.0)	2 (6.1)	0 (.0)	0 (.0)	4 (12.1)	0 (.0)	4 (12.1)	5 (15.2)	33 (100.0)
	생명자 원과학	10 (41.7)	5 (20.8)	0 (.0)	1 (4.2)	1 (4.2)	0 (.0)	0 (.0)	3 (12.5)	2 (8.3)	0 (.0)	2 (8.3)	24 (100.0)
	예술 디자인	16 (39.0)	12 (29.3)	0 (.0)	2 (4.9)	0 (.0)	0 (.0)	1 (2.4)	3 (7.3)	3 (7.3)	2 (4.9)	2 (4.9)	41 (100.0)
	전체	227 (39.0)	175 (30.1)	9 (1.5)	20 (3.4)	17 (2.9)	2 (.3)	17 (2.9)	34 (5.8)	20 (3.4)	31 (5.3)	30 (5.2)	582 (100.0)

<표 3-61><그림 61>과 같이 학생들의 제주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성적' 39.0%, '가까운 지역' 30.1%, '적성과 취향' 5.8%, '기타' 5.3%, '주위의 권유'와 '장학 및 복지제도' 각각 3.4%, '취업전망'과 '경제적 문제' 각각 2.9%, '우수한 교육환경' 1.5%, '유학 등의 특전' 0.3%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제주대학교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성적'은 '교육대' 56.3%, '가까운 지역'은 '간호대' 52.4%, '적성과 취향'은 '교육대'와 '생명자원과학대' 각 12.5%, '기타'는 '수의과대' 12.1%, '주위의 권유'는 '해양과학대' 8.9%, '장학 및 복지제도'는 '공과대' 7.4%, '취업전망'은 '교육대' 6.3%, '경제적 문제'는 '교육대' 12.5%, '우수한 교육환경'은 '인문대' 4.1%, '유학 등의 특전'은 '경상대' 1.8%로 타 단과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주대학교를 선택한 동기는 '성적(합격가능성)'과 '가까운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본인의 '적성과 취향'은 5.8%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학업과 대학생활 적응에 다양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대학에 입학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재설계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전공관련 진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 제주대학교 선택 이유

5) 전과 및 편입에 대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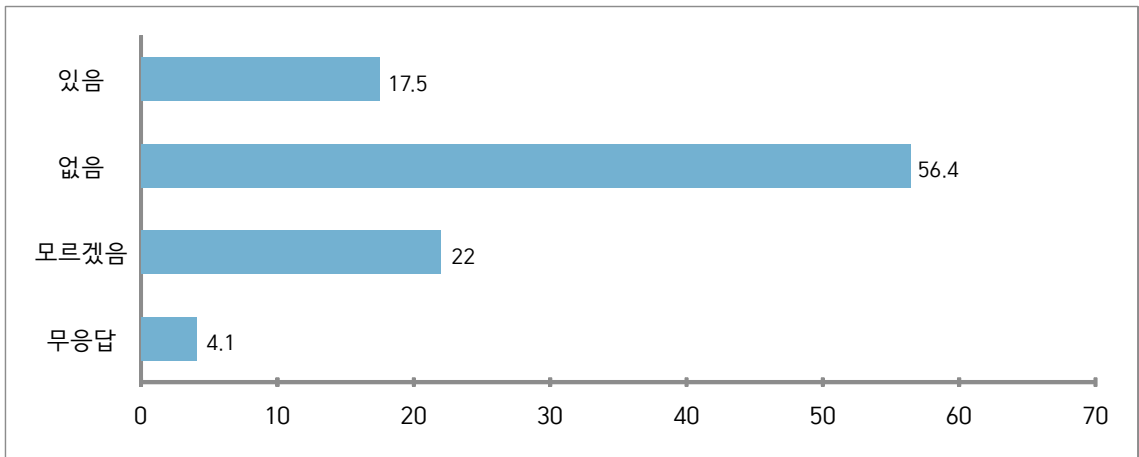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전과 및 편입 의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62>와 같다.

<표 3-62> 전과 및 편입에 대한 의향 명(%)

		전과 및 편입에 대한 의향				전체
		있음	없음	모르겠음	무응답	
성별	남자	45 (16.4)	162 (59.1)	53 (19.3)	14 (5.1)	274 (100.0)
	여자	57 (18.5)	166 (53.9)	75 (24.4)	10 (3.2)	308 (100.0)
소속대학	인문	12 (24.5)	28 (57.1)	9 (18.4)	0 (.0)	49 (100.0)
	사회과학	7 (29.2)	13 (54.2)	3 (12.5)	1 (4.2)	24 (100.0)
	경상	18 (15.9)	67 (59.3)	28 (24.8)	0 (.0)	113 (100.0)
	사범	5 (12.8)	27 (69.2)	5 (12.8)	2 (5.1)	39 (100.0)
	간호	1 (4.8)	15 (71.4)	4 (19.0)	1 (4.8)	21 (100.0)
	해양과학	9 (16.1)	32 (57.1)	9 (16.1)	6 (10.7)	56 (100.0)
	자연과학	11 (15.3)	38 (52.8)	21 (29.2)	2 (2.8)	72 (100.0)
	공과	21 (22.3)	49 (52.1)	20 (21.3)	4 (4.3)	94 (100.0)
	교육	0 (.0)	14 (87.5)	2 (12.5)	0 (.0)	16 (100.0)
	수학과	1 (3.0)	23 (69.7)	4 (12.1)	5 (15.2)	33 (100.0)
	생명자원과학	8 (33.3)	6 (25.0)	8 (33.3)	2 (8.3)	24 (100.0)
	예술디자인	9 (22.0)	16 (39.0)	15 (36.6)	1 (2.4)	41 (100.0)
	전체	102 (17.5)	328 (56.4)	128 (22.0)	24 (4.1)	582 (100.0)

<표 3-62><그림 62>와 같이 학생들의 전과 및 편입의향은 ‘있음’ 17.5%, ‘없음’ 56.4%, ‘모르겠음’ 22.0%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전과 및 편입의향은 ‘있음’에 ‘생명자원과학대’

33.3%, ‘사회과학대’ 29.2%로 타 단과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편입 의향은 학교와 전공선택의 동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 선택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선택이 다른 학교나 전공으로의 편입 의향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선택한 전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안과 부전공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62> 전과 및 편입에 대한 의향

5) 복수전공에 대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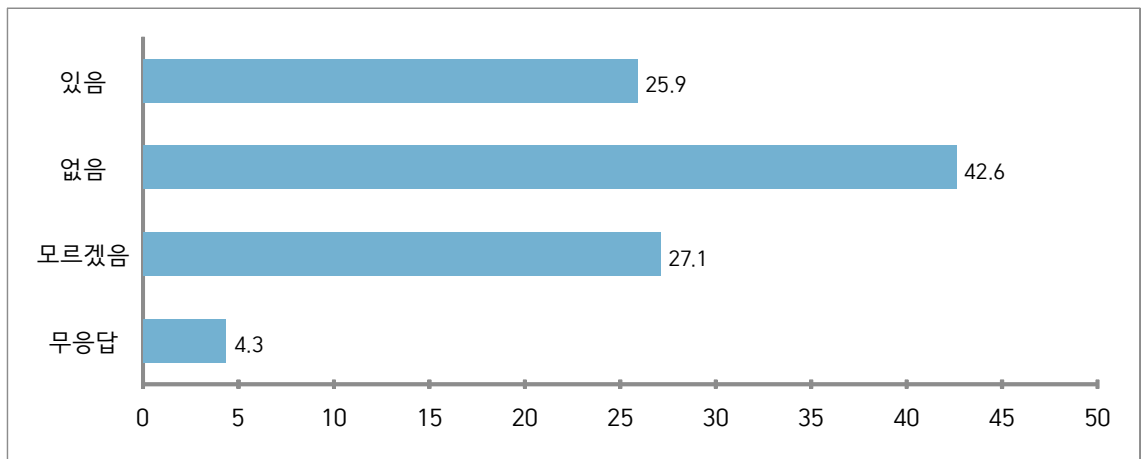
성별, 학년별, 단과대학별에 따른 복수전공 의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63>과 같다.

<표 3-63> 복수전공에 대한 의향 명(%)

		복수전공				전체
		있음	없음	모르겠음	무응답	
성별	남자	52 (19.0)	136 (49.6)	72 (26.3)	14 (5.1)	274 (100.0)
	여자	99 (32.1)	112 (36.4)	86 (27.9)	11 (3.6)	308 (100.0)
소속대학	인문	31 (63.3)	7 (14.3)	11 (22.4)	0 (.0)	49 (100.0)
	사회과학	6 (25.0)	10 (41.7)	7 (29.2)	1 (4.2)	24 (100.0)
	경상	36 (31.9)	36 (31.9)	41 (36.3)	0 (.0)	113 (100.0)
	사범	17 (43.6)	13 (33.3)	6 (15.4)	3 (7.7)	39 (100.0)
	간호	1 (4.8)	16 (76.2)	3 (14.3)	1 (4.8)	21 (100.0)
	해양과학	13 (23.2)	24 (42.9)	13 (23.2)	6 (10.7)	56 (100.0)
	자연과학	12 (16.7)	32 (44.4)	26 (36.1)	2 (2.8)	72 (100.0)
	공과	18 (19.1)	51 (54.3)	21 (22.3)	4 (4.3)	94 (100.0)
	교육	0 (.0)	14 (87.5)	2 (12.5)	0 (.0)	16 (100.0)
	수익과	0 (.0)	25 (75.8)	3 (9.1)	5 (15.2)	33 (100.0)
	생명자원과학	6 (25.0)	5 (20.8)	11 (45.8)	2 (8.3)	24 (100.0)
	예술디자인	11 (26.8)	15 (36.6)	14 (34.1)	1 (2.4)	41 (100.0)
	전체	151 (25.9)	248 (42.6)	158 (27.1)	25 (4.3)	582 (100.0)

<표 3-63><그림 63>과 같이 학생들의 복수전공 의향에 ‘있음’ 25.9%, ‘없음’ 42.6%, ‘모르겠음’ 27.1%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복수전공 의향은 ‘있음’에 ‘여학생’ 32.1%, ‘남학생’

19.0%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복수전공 의향에 '있음'에 '인문대' 63.3%, '사범대' 43.6%, '없음'에 '교육대' 87.5%, '간호대' 76.2%, '수의과대' 75.8%로 타 단과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5.9%의 학생들이 복수전공에 대한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전공 외에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적 지식을 배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취업과 관련하여 불안감이 전공 외에 다른 부전공을 선택하도록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복수전공에 대한 세밀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63> 복수전공에 대한 의향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 여가생활, 책임교수제, 학업, 진로, 교육환경, 학생상담센터 인식, 정서, 중독, 성의식, 사회적 관심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대상은 층화추출표본방식에 의해 단과대학별로 총 2835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2704부 중에서 2663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부분>

본 연구의 결과는 남자 1314명, 여자 1349명으로 총 2663명의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보호자형태를 살펴본 결과 86.9%가 양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 거주형태는 66.5%가 본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에 부담은 부모 71%, 본인 12.2%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한 반면 생활비는 부모 48.8%, 본인 44.3%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79%이상에서 중간이상 수준으로 보고하였으며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생활적응 부분>

우리대학 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 이상이 46%정도가 보고 하였고 '대체로 불만족' 이하가 9.5%로 보고 하여 대학생활 불만족인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과생활 만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 이상이 52.7%정도가 보고 하였고 '대체로 불만족' 이하가 7.5%로 보고하였다. 학과 소속감에서는 '대체로 만족' 이상이 56.4%정도가 보고 하였고 '대체로 불만족' 이하가 6.3%로 보고하였다. 전공에 대한 만족과 교양수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 이상이 52.2%, 31.8%로 각각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복수 응답한 결과는 '진로&취업선택' 24.4%, '학업&수강신청' 17.4%, '적응어려움 없음' 14.7%, '경제적 문제' 10.1%, '친구 문제' 6.5%, '학교정보 부족' 6.1%, '학과적응' 4.7%, '성격&외모' 3.0%, '동아리 선택' 1.1%, '중독성게임&도박' 1.0%, '음주' 1.0%, '가족문제' 0.5%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대학의 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활 만족도, 학과생활 만족도, 학과 소속감 및 관계에 대한 만족도, 전공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불만족' 이하에 응답한 학생이 약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교양수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불만족' 이하에 응답한 학생이 15.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양수업에 대한 질적·행정적 지원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진로와 취업', '학업 문제'는 대학생들의 주된 고민 주제임이 본 조사에서도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시기가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최종단계이고 보다 좋은 직업의 선택을 위해서는 '학업문제'가 필수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가활동 분야>

우리대학의 학생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에 복수 응답한 결과는 ‘친구들과의 만남’ 27.8%, ‘아르바이트’ 13.5%, ‘게임&오락’ 10.7%, ‘이성교제’ 10.1%, ‘학습&독서’ 9.6%, ‘영화 & 공연관람’ 9.1%, ‘운동’ 5.7%, ‘음주’ 4.5%, ‘동아리활동’ 2.5%, ‘종교 활동’ 0.9%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유무에 대한 질문에서는 ‘하고 있음’ 51.4%, ‘하지 않음’ 48.4%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용돈마련’ 60.9%, ‘생활비마련’ 13.7%, ‘여행 자금 마련’ 6.5%, ‘폭넓은 사회경험’ 3.2%, ‘학비 마련’ 2.7%, ‘유학자금 마련’ 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여가생활로 ‘친구들과의 만남’과 ‘학습&독서’를 통한 자기개발의 시간을 주로 갖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이라는 공간이 자기개발과 인간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통적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라 하겠다. 이와 함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의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함께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자립심 또한 높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책임지도교수제 관련>

우리대학의 학생들의 학과 교수관계 만족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만족’ 이상이 54.4% 응답 하였고 ‘대체로 불만족’ 이하가 5.5%로 응답하였다. 책임지도교수제 상담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만족’ 이상이 54.9% 응답 하였고 ‘대체로 불만족’ 이하가 8.2%로 응답하였다. 책임지도교수 외의 학과 교수와의 상담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필요함’ 44.3%, ‘필요하지 않음’ 20.2%, ‘모르겠음’ 35.0%로 나타났다. 학과 교수와 상담 시 도움이 필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진로에 대한 조언’ 36.5%, ‘학과공부와 관련된 조언’ 22.8%,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경험’ 19.0%, ‘인간적 성장에 대한 조언’ 10.8%,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조언’ 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대학의 학생들은 교수와의 관계와 책임지도교수제를 통한 상담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학생들은 교수와의 친밀감과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과 교수가 좀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공간적 배려가 필요하겠다.

<학업 관련>

우리대학의 학생들의 학업부담에 대한 질문에서는 21.7%가 많이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학업 부담 이유에 대한 질문에 복수 응답한 결과는 ‘할일에 비해 시간부족’ 20.0%, ‘과중한 과제물’ 18.0%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13.7%, ‘노력에 비해 낮은 성적’ 10.9%, ‘엄격한 상대평가제도’ 6.9%,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됨’ 4.4%, ‘짙은 퀴즈와 시험’ 3.6%, ‘도서관 열람실 부족’ 0.8%, ‘도서관 전공 자료의 부족’ 0.8%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수강)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발표 및 토론’ 34.5%, ‘시험공부 방법’ 21.2%, ‘강의 내용의 이해’ 21.1%, ‘기타’ 11.6%, ‘리포트 작성’ 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대학의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에 대한 부담은 ‘할일에 비해 시간부족’, ‘과제에 대한 부담’이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으로는 ‘전공 불일치’가 학업에

대한 흥미와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학업수강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응답한 ‘발표 및 토론수업’, ‘시험공부 방법’, ‘강의 내용의 이해’ 등은 대학생활 적응 초기에 이와 관련된 집중적인 연수와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진로관련>

우리대학의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질문에서는 ‘취업’ 42.3%, ‘국가고시(공무원, 교원 등)’ 31.1%, ‘대학원 진학’ 9.1%, ‘기타’ 6.3%, ‘유학’ 5.4%, ‘창업(개인사업)’ 5.3%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시 원하는 직종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무원’ 23.4%, ‘일반기업체’ 18.5%, ‘공기업체’ 14.6%, ‘교육직’ 12.1%, ‘예술직’ 8.2%, ‘기술직’ 7.3%, ‘연구직’ 5.9%, ‘금융기관’ 3.9%, ‘사회복지’ 2.4%, ‘농축수산업’ 1.5% 순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진로와 현재 전공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관련됨’ 32.5%, ‘매우 관련됨’ 25.8%, ‘보통’ 25.8%, ‘대체로 관련 없음’ 11.3%, ‘매우 관련 없음’ 3.8%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기준에 대한 질문에 복수 응답한 결과는 ‘고용안정성(정규직여부)’ 23.0%, ‘임금’ 21.3%, ‘자아실현(적성, 흥미, 성취)’ 18.1%, ‘근무조건(시간, 복지, 환경)’ 13.0%, ‘전문성’ 9.2%, ‘사회적 안정’ 6.3%, ‘발전가능성’ 5.9%,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대학의 학생들은 졸업 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책임이 크고, 취업 시 원하는 직종에 ‘공무원’, ‘일반기업체’, ‘공기업체’, ‘교육직’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선택의 기준인 ‘고용의 안정성’과 ‘생활수준의 안정적 보상’을 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환경 관련>

우리대학의 학생들의 강의시설(강의실, 기자재 등)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만족’ 이상이 61.2% 응답하였고 반면 ‘대체로 불만족’ 이하가 12.2%로 응답하였다. 도서관 및 학습시설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만족’ 이상이 53.7% 응답하였고 ‘대체로 불만족’ 이하가 8.9%로 응답하였다. 학생복지 시설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만족’ 이상이 40.4% 응답하였고 ‘대체로 불만족’ 이하가 14.1%로 응답하였다. 장학금 제도 만족도에 질문에서는 ‘대체로 만족’ 이상이 52.8% 응답하였고 ‘대체로 불만족’ 이하가 12% 응답하였다. 취업지원 제도 만족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만족’ 이상이 36.3% 응답하였고 ‘대체로 불만족’ 이하가 12.8%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대학의 학생들은 교육환경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만족을 표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여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학생상담센터 인식관련>

우리대학의 학생들의 학생상담센터 시설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알고 있음’ 40.4%, ‘모르고 있음’ 59.3%로 나타났다. 학생상담센터 이용 의사에 대한 질문에서는 ‘있음’ 24.7%, ‘없음’ 36.9%, ‘모르겠음’ 38.0%로 나타났다. 학생상담센터 이용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복수 응답한 결과는 ‘필요성을 못 느낌’ 23.6%,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 22.6%, ‘충분

히 이해(공감)받을 수 있을지 염려 됨' 20.0%,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 8.8%, '심리적 부담감' 8.2%, '비밀보장 불안' 6.9%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상담센터 이용 경로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용경험 없음' 64.6%, '스스로 필요에 의해' 7.9%, '기타' 3.7%,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 3.2%, '안내문자 서비스' 1.8%, '홍보포스터 및 안내문' 1.2%, '학교 홈페이지공고' 1.1%, '교수의 권유' 0.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된 고민에 대한 질문에 복수 응답한 결과는 '진로 및 취업' 32.6%, '성적 및 학업' 27.1%, '대인관계' 7.3%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고민 의논 상대에 대한 질문에서는 '친구 또는 선후배' 54.5%, '부모' 16.7%, '형제/자매 및 친척' 10.1%, '교사 또는 교수' 0.5%, '전문상담자' 0.4%, '종교지도자' 0.3%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상담 필요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63.8%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고 집단상담 필요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92.7%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심리검사 필요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4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특강에 대한 질문에 복수 응답한 결과는 '취업' 27.3%, '진로' 27.0%, '학과별 특성화' 10.1%, '의사소통' 8.9%, '인성' 8.5%, '창업' 5.7%, '교양' 5.2%, '학습클리닉' 2.3%, '기타'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대학의 학생들은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상담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상담센터로서의 역할과 서비스의 장점과 강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한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자의 전문성향상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개인 상담이나 심리검사에 대한 필요성 공감하면서도 집단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집단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회의감이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집단 상담이 학생들에게 훌륭한 성장도구임에도 각 광받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보완된 내용과 창의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 및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로 하는 특강에서는 취업과 진로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나 의사소통이나 인성, 창업, 교양 까지도 다양한 요구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관련>

우리대학의 학생들의 정서관련 외로움 경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음' 이상이 19.6% 응답하였고 스트레스 경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음' 이상이 44%가 응답하였다. 불안 경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음' 이상이 26% 응답하였고 분노 경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음' 이상이 18.4%로 응답하였다. 우울·무기력 경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음' 이상이 24.9%, 응답하였고 자살충동 경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음' 이상이 3.3%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및 우울 불안 등은 자살충동과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 및 무기력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계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중독관련>

우리대학의 학생들의 음주 심각성 자각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음’ 이상이 12.7% 응답하였고 흡연 심각성 자각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음’ 이상이 10% 응답하였다. 스마트폰 사용 심각성 자각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음’ 이상이 36.9% 응답하였고 인터넷 게임 심각성 자각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음’ 이상이 12.6% 응답하였다. 도박관련 행위 심각성 자각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음’ 이상이 2.2% 응답하였다. 대체로 음주, 흡연, 인터넷 게임에 대한 심각성 자각 정도에서 약 10% 내외의 학생들이 심각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심각성에서는 무려 약 36.9%의 학생들이 심각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홍보와 대안마련이 필요하겠다. 중독성향이 강할수록 불안, 우울의 정도는 높으며 이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생들의 중독사용의 고위험군을 조기에 스크리닝하고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중독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식 관련>

우리대학의 학생들의 이성교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교제하고 있음’ 39.2%, ‘교제하고 있지 않음’ 60.3%로 나타났다. 필요한 성교육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성 심리’ 34.8%, ‘피임 및 임신관련’ 25.8%, ‘기타’ 21.3%, ‘성폭력 예방 및 대처’ 17.0%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대처 방법 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름’ 62.1%, ‘대처방법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관련기관도 알고 있음’ 16.4%,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11.0%, ‘전혀 모름’ 9.7%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르거나 또는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로 하겠다.

<사회적 관심 관련>

우리대학의 학생들의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대한 관심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높음’ 이상 39.5% 응답하였으나 한국사회의 미래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부정적’ 이하 62.9% 응답하였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에 대한 질문에 복수 응답한 결과는 ‘안정된 생활(경제적)’ 32.6%, ‘여가를 즐기는 생활’ 25.5%, ‘화목한 가정’ 15.3%, ‘자신의 능력 발휘’ 7.7%, ‘건강한 삶’ 6.8%, ‘좋은 인간관계’ 4.8%, ‘봉사하는 생활’ 2.1%, ‘타인에게 존경 받음’ 2.0%, ‘사회발전에 기여’ 1.1%, ‘신앙생활’ 0.6%,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태조사 시점의 국내 정치관련 문제로 인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결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가치관이란 사람의 태도와 관점, 그리고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올바른 인생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신입생 관련>

우리대학의 학생들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제주시’ 60.7%, ‘서귀포시’ 13.1%로 약 73.8%가 도내 출신자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경기/인천’ 5.5%, ‘서울’ 4.6%, ‘경상/대구’ 4.3%, ‘전라/광주’ 2.7%, ‘충청/대전’ 2.2%, ‘부산/울산’ 1.5%, ‘강원’ .5%, ‘기타’ 및 ‘무응답’이 4.8%로 나타났다. 입학전형 유형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시’ 65.5%, ‘수시’ 28.0%, ‘정원 외’ 1.5%, ‘기타’ 0.9%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에 대한 이미지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만족’ 이상 53.3% 응답하였고 ‘대체로 불만족’ 이하가 6.9% 응답하였다. 제주대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성적(합격가능성)’ 39.0%, ‘가까운 지역’ 30.1%, ‘적성과 취향’ 5.8%, ‘기타’ 5.3%, ‘주위의 권유’와 ‘장학 및 복지 제도’ 각 3.4%, ‘취업전망’과 ‘경제적 문제’ 각 2.9%, ‘우수한 교육환경’ 1.5%, ‘유학 등의 특전’ 0.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과 및 편입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편입의향 17.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수전공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25.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대학의 신입생들은 우리대학의 이미지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 선택이유에서는 자신의 ‘장학 및 복지 제도’, ‘우수한 교육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약 20%의 가까운 학생들이 전과 및 편입에 대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과나 편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가 필요로 하겠다. 약 26%에 가까운 학생들이 복수전공에 대한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대학 졸업 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인 동시에 좁은 취업문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생들이 복수전공에 따른 대학생 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학 스스로의 변화와 행정적 제도적 지원 마련이 필요로 하겠다.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조사·연구는 전체 학생 중 26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연구의 제한점을 기초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결과 및 해석은 연구자가 문제의 보완에 주안점을 두고 결과를 해석하였다. 따라서 독자의 시각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나 주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탐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원수가 소속대학별, 학년별로 차이가 커서 설문 결과를 소속대학별, 학년별로 비교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 진로 및 취업의식조사를 실시할 때 각 단과대학별로 인원수를 비슷하게 하여 표집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각 단과대학별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날 것이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욱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진로지도가 될 것이다. 대안으로는 대학별 학생 대비 표본수를 일정한 비율만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나 학과별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학과별 학년별로 학생들을 표본 추출하여 대학생활전반에 대한 집중 인터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에 따

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탐색과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넷째, 설문내용과 형식이 유사한 설문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시계열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이 가능하려면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같은 설문지로 연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충기(2001),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신선미, 정경화, 구정화(2008),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선미(2007),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조사 도구개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이경선(200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임규홍, 이종호(2009), 대학생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생생활 실태조사 중심으로.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 1-11.
- 박정환, 김두화(2010), “2009 재학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31(1). pp. 61-131.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2007), 『재학생 실태조사 보고서』.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2008), 『재학생 실태조사 보고서』.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2009), 『재학생 실태조사 보고서』.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2010), 『재학생 실태조사 보고서』.
- 제주대학교(2015), 학생생활연구 제36집.
- 제주대학교(2016), 학생생활연구 제37집.